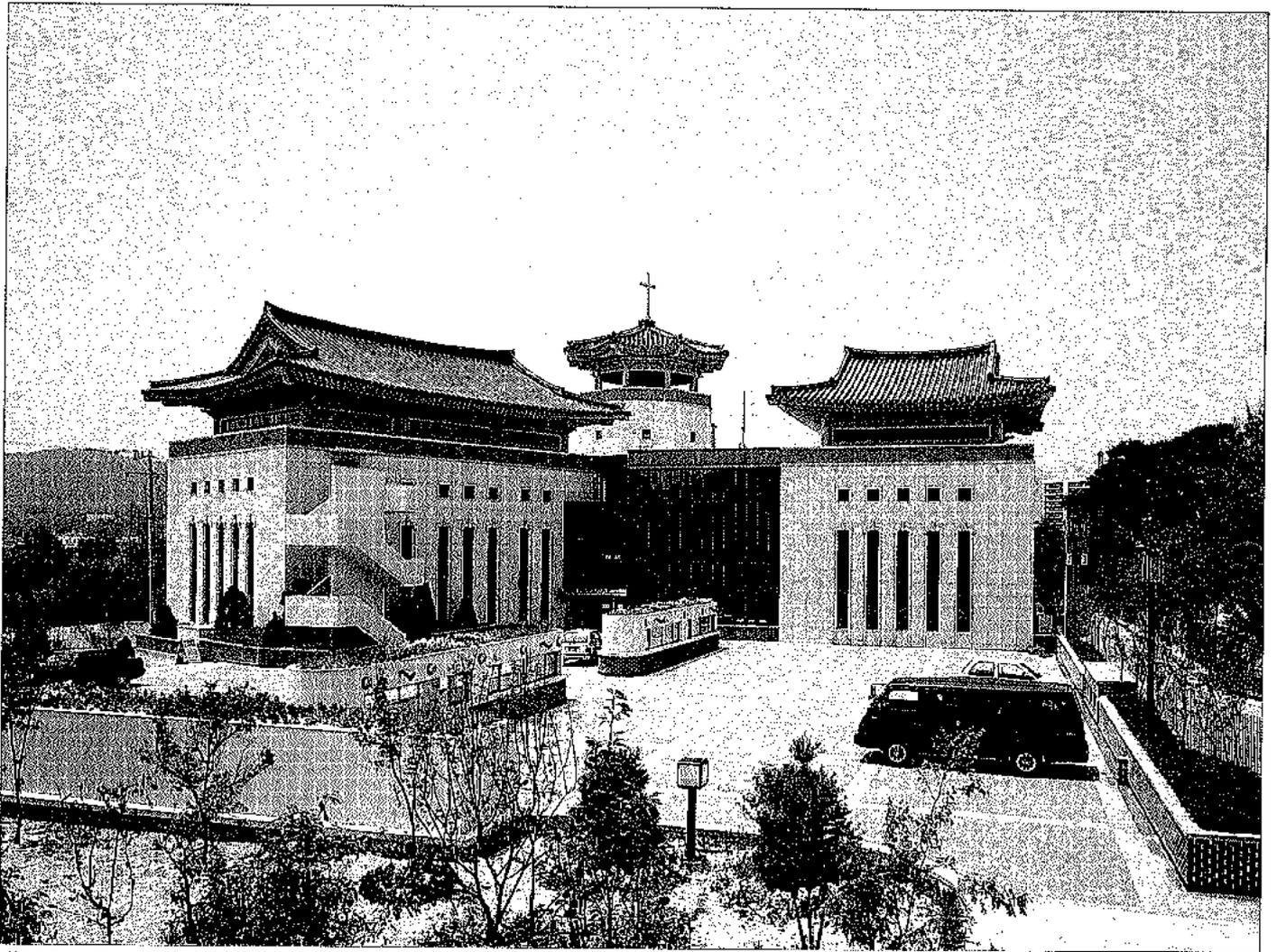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8월호 통권316호



월간 건축사 1995년 8월호 통권 316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 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서)라 - 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August

8

- | | |
|----------------------|----------------------------|
| 칼럼 | 간금진단 |
| K형에게 / 장식용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본 |
| 회원작품 | 건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중산국민학교 / 동우건축 + 이호진 | 연구 |
| 파크뷰빌딩 / 이은용 + 광명곤 |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 / 김태용 |
| 기동위당프라자 / 문숙경 | 기획연재 |
| 대나무집 / 김영섭 | 한국의 건축가-김정수(3) / 이호진 |
| 삼성동 현대빌라 / 다산건축 | 건축기행 |
| 장석교회 / 최영집 | 중남미 문화기행(4) / 김인철 |
| 건축비평 | 현상실개경기 |
| 장석교회 / 정시준, 김성우, 이용남 | 부산광역시구청사, 원주시립박물관 |
| 작품노트 | 종합에너지회관,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
| 올림픽 스포츠센터 / 박영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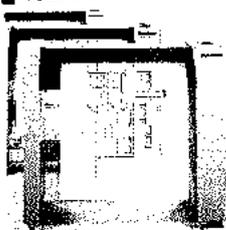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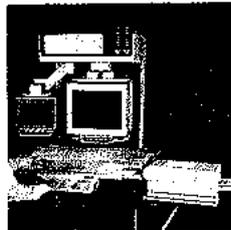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 CADPOWER Ver 6.0
- 건축설비지원시스템 NECADPOWER
- AutoCAD R11, R12, 전환율 등 권역

CAD기술연구소



- 최신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관련 소프트웨어 용역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용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오른 교육
- 체계적인 단기간의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지원

아프터서비스



- 신뢰, 상성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작업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동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 584-6480 팩스: (02) 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1486 팩스: (02) 598-1487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고실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고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차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중순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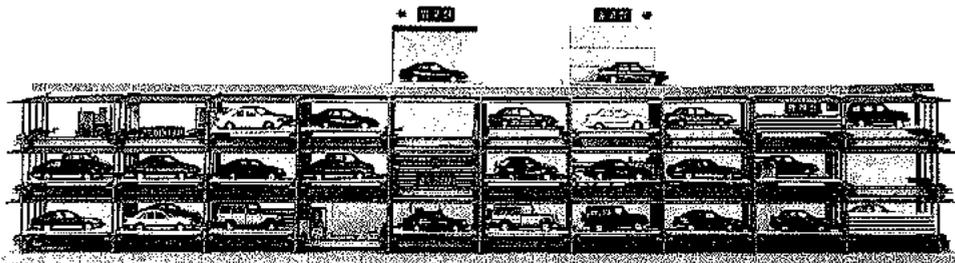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사·공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032)571-7771 Fax 575-6655
 목재사업부 (032)582-7771 Fax 571-7744
 건가구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서울전시장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독일HARTMANN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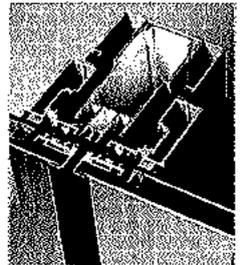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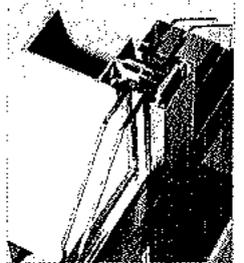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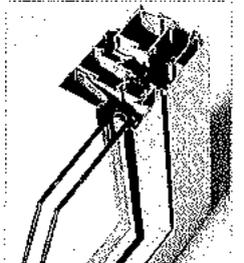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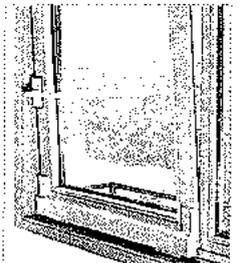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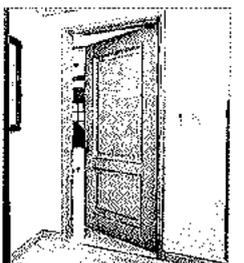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미늄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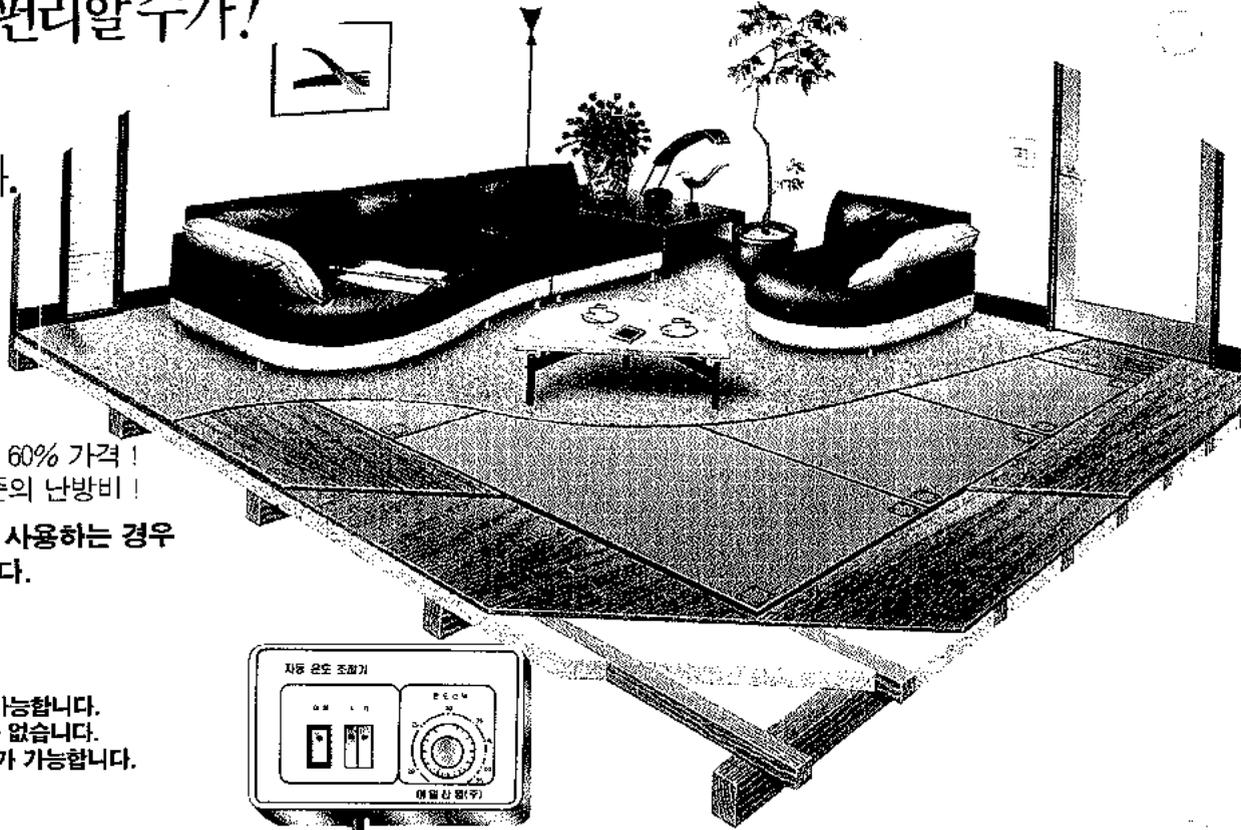
원목DOOR
목재창호, 칸막이,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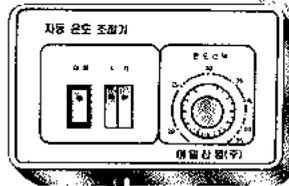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인청 형식승인 ☎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정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중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1.26kw × 10hr/일 × 0.7 × 59원/kwh = 520원/일
520원 × 30일/월 = 15,600원/월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전기)당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데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경계선 절대안정 안전성, 편의성 향상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리 쇼핑
- 명동 SS 패션해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히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린스빌딩
- 영도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히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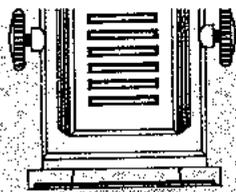
본사: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 - 4545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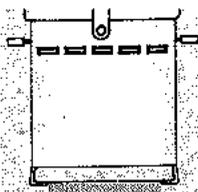
FAX : 838 - 0474

공장: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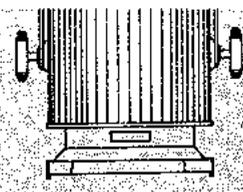
제조원: **아주셔터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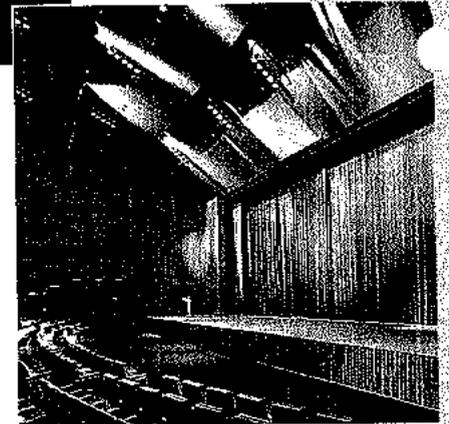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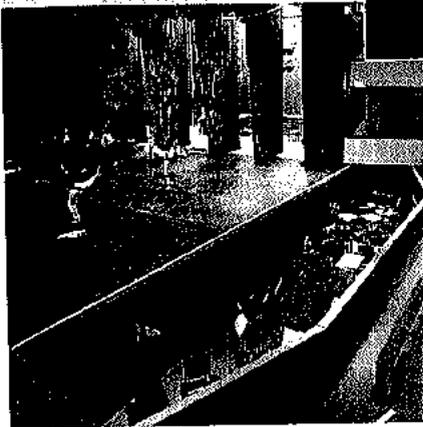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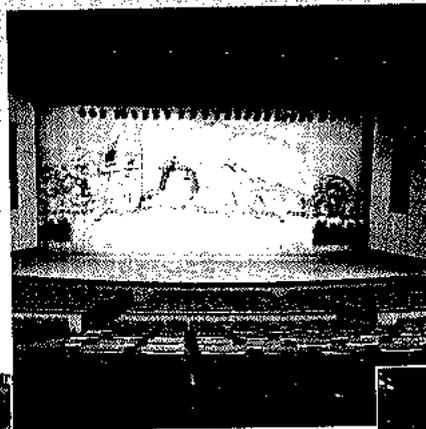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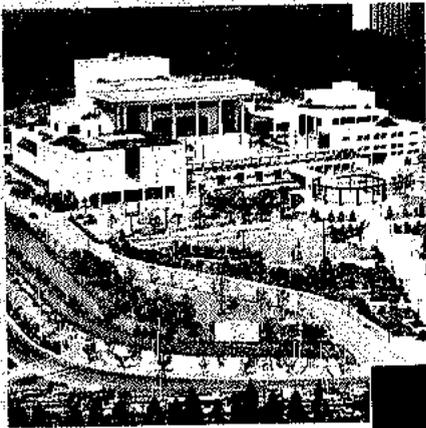
무대기계



무대조명



영상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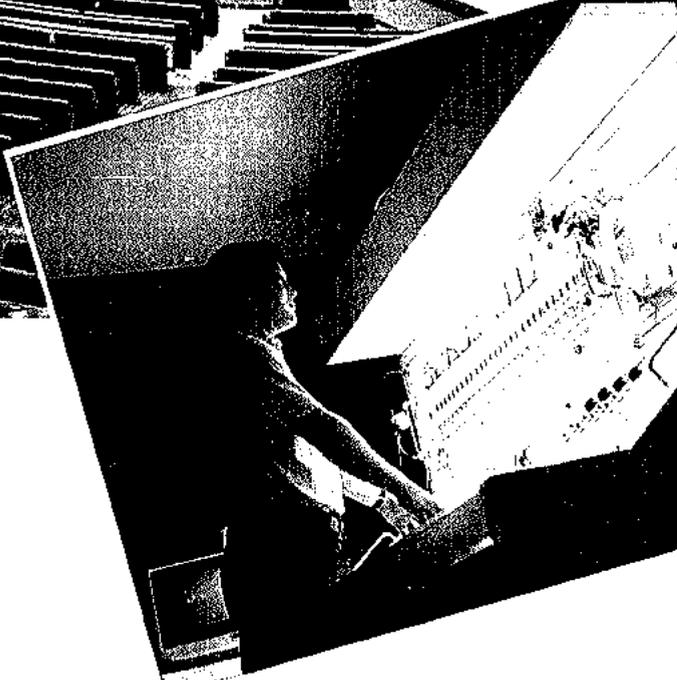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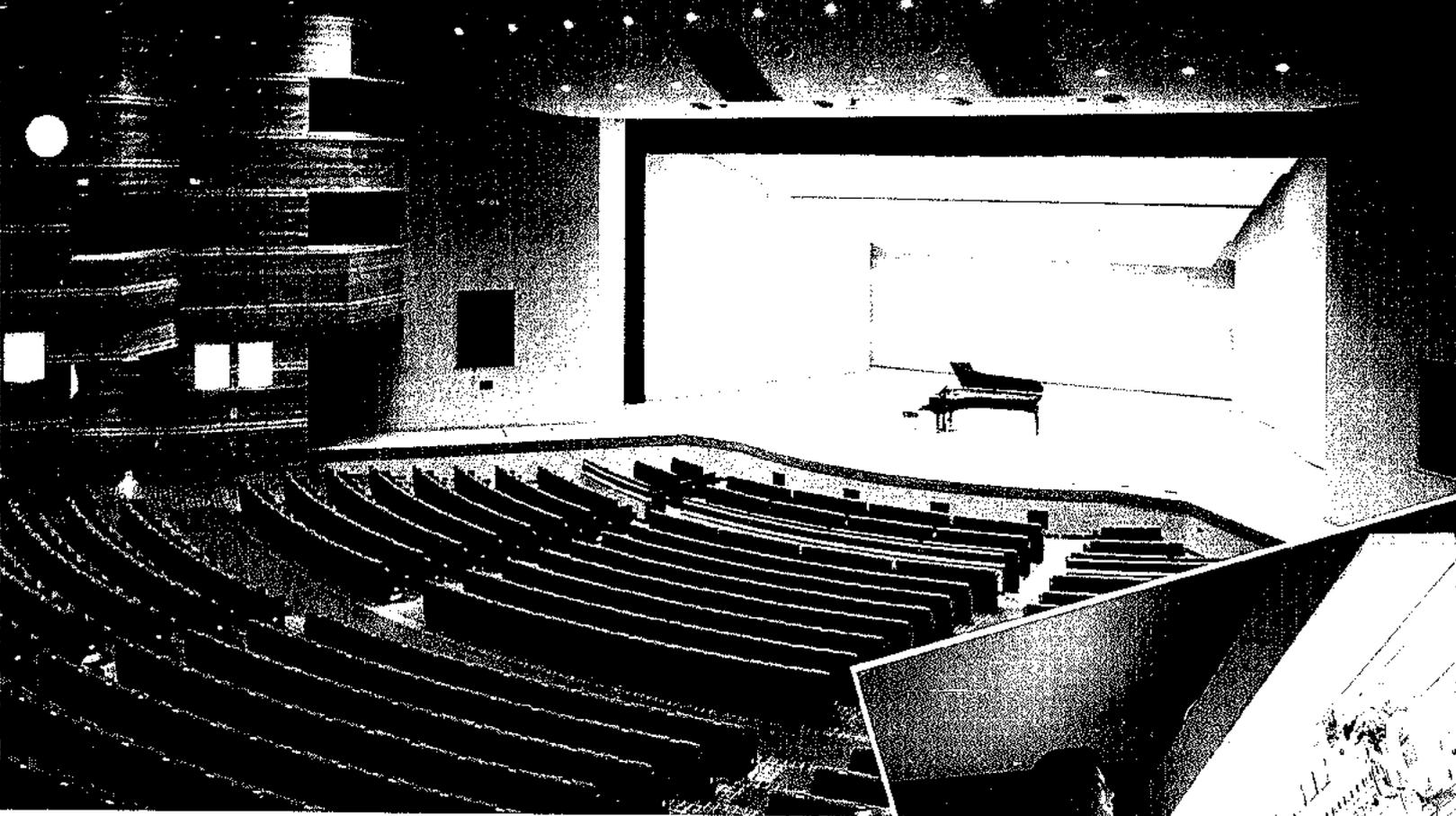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 2나 209)
TEL : (02)855-5373,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삼호물산B/D A동 813호)
TEL : (02)589-1830~8, FAX : (02)589-1839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실제 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타트위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외어키관광호텔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몽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馬面 山 209-1 松麻里 山 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건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 지하구조물의
안전, 경제, 시공성은
안전제일주의
공법을 선택하십시오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써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가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루 지하굴토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등비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층수 증가할 수록 원가절감 효과 상승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휨, 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임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까뮤,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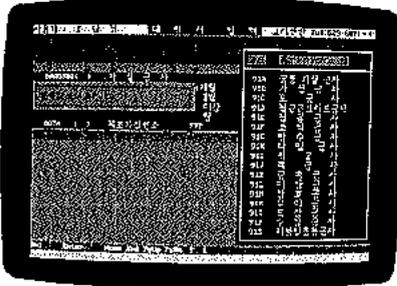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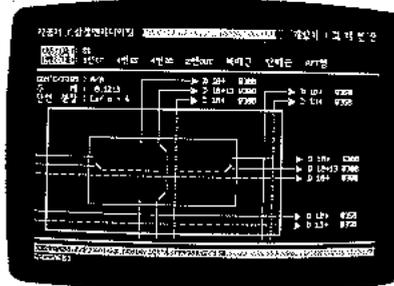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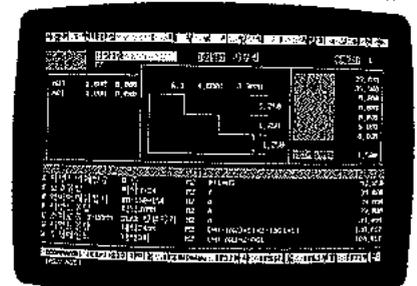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⑤ 실제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S/W 목록

- EMS-I 내역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목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재관리 SYSTEM
- P.M.S 공사관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95 건축 도시 종합 기술전 참관단

(Building Urban Fair & Forum)

국제비즈니스 정보는 세계 유수의 전시회나 각 산업 전문업체를 엄선하여 전시회 참관과 기업방문, 연수등을 대행하여 동분야의 전문가,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개발 및 해외 개척의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시찰단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 부서입니다.

1. 개요 : 건축, 건설, 도시 계획에 관한 전시회는 세계 여러곳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재를 중심으로 건축자재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95 BUFF는 그 성격을 조금 달리합니다. 건축물과 구조물을 하나로 보지않고 지역 전체의 바란스를 중요시 하며, 환경보존/조화있는 경관/고령화 사회에 대응/노동자 부족 대책/비용절감 등의 과제를 깊게 인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건축, 도시종합 기술전입니다. 6년간 행해진 "건축임상회의"를 기반으로 '95년 BUFF는 "21세기 건축만들기, 거리 만들기"에 관한 최신의 기술, 재료, 정보를 현재 활약중인 건축디자이너, 도시디자이너 및 기술자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열리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2. 전시기간 : 1995. 9. 18(월)~9. 21(목)
3. 전시장소 : 마꾸하리 메세(5, 6 HALL)
4. 전시규모 : 14,000m², 700부스(입장예정인 : 10만인 예정)
5. 주 최 : 95 BUFF 운영위원회
6. 후 원 : (사)일본건축학회/(사)신일본 건축가협회/(사)건축업협회/(사)인테리어 산업협회/(사)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등 다수
7. 전시품목 : 지금까지의 건축임상기술, 재료는 물론 건축, 건설, 보수개수, 도시 계획에 관한 재료, 자재, 기기, 소프트웨어, 각종 정보
8. 일정안내 : '95 BUFF전 참관/도스토프라자/모델하우스/인테리어 쇼룸/건축자재 쇼룸, Reform 쇼룸 등 방문 및 우수건축물 밀집지역 견학

참 관 단 모 집 안 내

- 1) 참관기간 : 95. 9. 18(월)~9. 21(목) 3박 4일
- 2) 대상인원 : 건축사, 기술자, 도시개발, 인테리어 디자이너등 전문가
- 3) 참관비용 : ₩970,000-(여권 인지대, 부가세 불포함)
(왕복항공료, 2인 1실, 특급 호텔 및 식사, 입장료, 관광비,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 4) 신청 : 가) 전화상담 후 상세한 자료 보시고 신청바랍니다.
나) 신청마감 : 9월 1일

접수 및 문의:국 제비지니스 정보

조아항공여행사/서울시 중구 무교동 21-3 정오빌딩 5F

담당자 : 광명환, 전해정, 심인규, 황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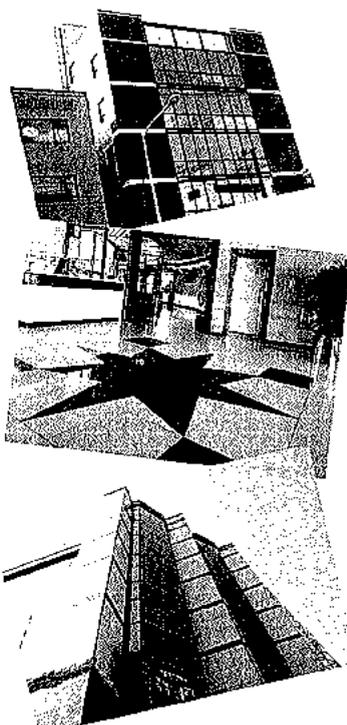
상담전화 : 754-7900 FAX : 754-1377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건설기계 및 건축자재, 기술전의 참관인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 95 BAUCON ASIA ●참관기간 : 1995. 9. 27~9. 30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8mm~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수퍼우드란?

수퍼우드는 PVC의 기본재료에 첨가제 등을 화학적 특성에 맞게 혼합하여 표
면층의 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으로 제품의 양쪽 표면은 발포층에 따른
표면층을 붙인 것이 아니라 PVC정체를 발포시키는 순간 균형하여 이루어진
압출의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표면이 예고르고 단단한 강도를
지닌 목재보다 가벼운 절단의 신소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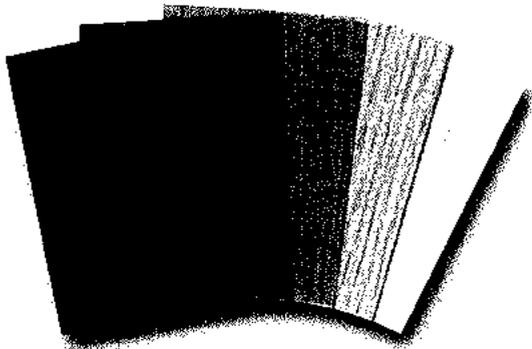


플라스틱제 인조목판

수퍼우드

가볍다! 강하다! 건축용 신소재 - 수퍼우드

수퍼우드는 현대건축의 경량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소재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어떠한 분위기 연출도
수퍼우드가 해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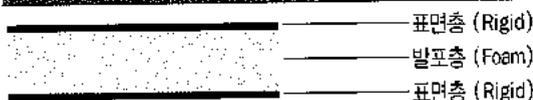


수퍼우드의 특성

수퍼우드는 기존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독특한 제품으로

- ① 경량성: 기존목재보다 가볍다.
- ② 난·불연성: 자기 소화성을 가진 안전한 소재.
- ③ 내후·내수성: 옥내·외 관계없이 습기에 강한 소재.
- ④ 내약품성: 산·알칼리와 같은 약품에 강하다.
- ⑤ 내부식성: 어떠한 환경에도 부식되지 않는다.
- ⑥ 가공성: 자유자재의 뛰어난 가공성.
- ⑦ 뛰어난 시공: 모든 시공방법이 다양하게 적용됨.
- ⑧ 유지·보수: 오염이 되지않아 관리가 용이하다.

수퍼우드의 구조



수퍼우드의 용도

- 거푸집
- 천장재
- 방음벽재
- 옥실칸막이
- 옥실벽체
- 선박내장재
- 지하철내장재
- 벽체실내마감
- 사무실칸막이
- 출입문

수퍼우드의 규격

두께	규격	
	A (3' x 6')	B (4' x 8')
3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6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10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12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15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18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21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25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30mm	910 x 1820mm	1220 x 2440mm

청우시스템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캐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한글 변환
- 풍부한 심볼 제공
- 편리한 작도와 편집기능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3

입찰견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설계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빙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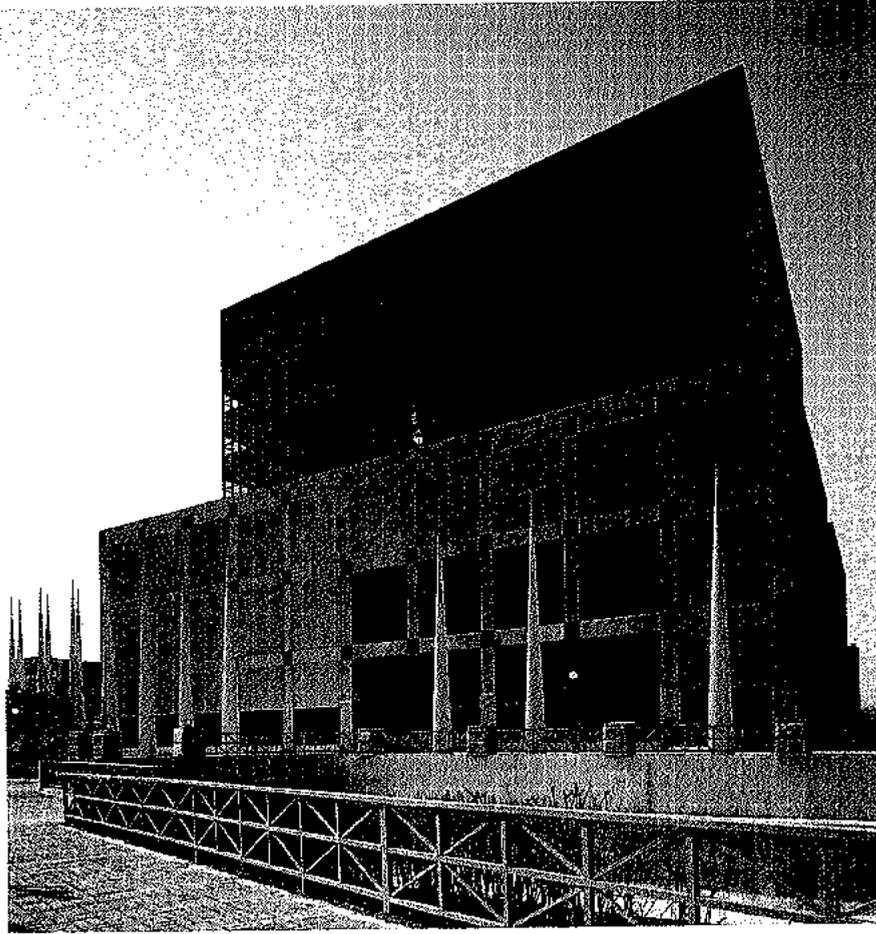
FAX : (02) 588-4156



587-5168/9

걸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걸으로 멀쩡하게 보인 것들이 새삼 우리네 가슴을 내려앉게 했던 몇 차례 일들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능숙한 시공 솜씨를 지닌 만큼 일에서도 철저한 공정을 지킵니다. 공정에서의 진지함은 언제나 결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Facade FW50으로 시공된 제2기 지하철 종합사령실

많은 시공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몇년에 걸쳐 지은 대형 건물이 걸로수나 누수 방지 기능이 완벽하지 못한 커튼월 사용으로 수명이 단축되거나 다시 짓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파사드 시스템은 폴리 아미드 계층의 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 난방효율도 높아 사용자나 건축업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며, 시공전 완벽한 모크업 테스트와 컴퓨터 처리에 의한 구조 계산으로 완성되므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확실합니다. 이걸 파사드 시스템은 색상 및 소재가 다양하며, 유리의 이음부에 외부의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아 외관에 독특한 청결함이 돋보입니다. 더욱이 여러가지 색상의 반사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도 손색이 없습니다.

시공상의 모든 난점을 앞에서 대부분의 설계자나 건축업자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걸창호의 이걸 파사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FACADE

이걸창호는 항상 고객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영업부 상설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 563-2071 팩스 563-5528

논현전시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540-2071 팩스 540-2080

부산전시장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팩스 051-557-2077

대구전시장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61-2
전화 053-553-0916 팩스 053-553-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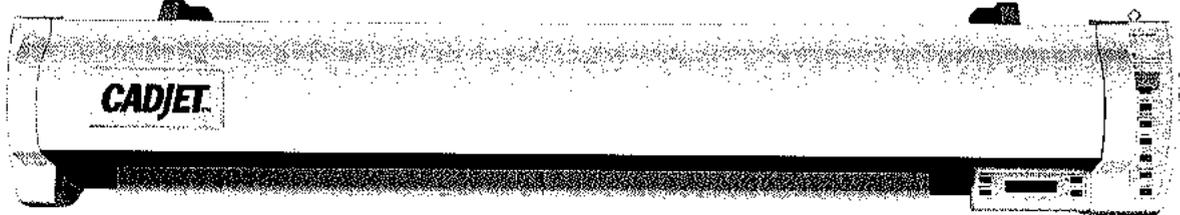
창원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18-2
영남 건축지재 백화점내
전화 0551-88-1197 팩스 0551-89-1192

제주전시장
제주시 노형동 928-8 골드 건축지재 백화점 2층
전화 064-41-4301 팩스 064-42-3486

“쓰면 쓸수록 좋은 창호, 이걸창호”

이걸창호 

300만원대 컬러잉크젯플로터 – CADJET™



- | | |
|----------------------|-------------|
| 1. 값싸고 좋은가? | YES! |
| 2. 칼라출력이 되는가? | YES! |
| 3. 600dpi출력이 되는가? | YES! |
| 4. 롤용지를 사용하는가? | YES! |
| 5. 자동커팅이 되는가? | YES! |
| 6. 스탠드와 바스켓이 기본제공인가? | YES! |



다기능 컬러잉크젯 플로터
CADJET™

A1/D size ₩3,980,000
 A0/E size ₩4,9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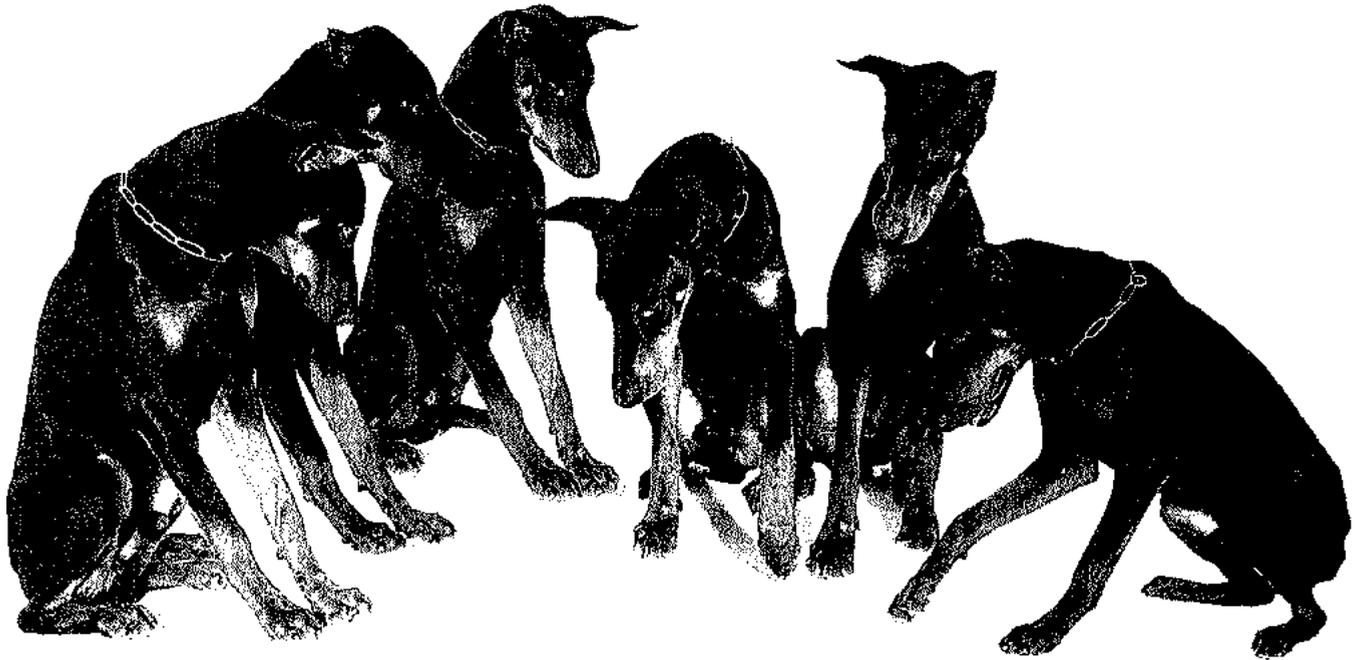
20" Color Monitor- CADmate 2077E

- 해상도: 1280x1024, Flicker Free
- Dot Pitch: 0.28mm
- Dynamic Focus
- Micro Processor Control
- Green 기능

이걸 도면이라고 뽑았어?
세계화시대에 말이야!
CADJET으로 다시해!

ARRIS

우리가 선택한 것!



정림건축의 기술력으로 만든
우리나라 실무 환경에 가장 적합한 CAD

정림 3RD PARTY!

- 정림 MAIN
- 정림 ARCHITECTURE
- 정림 STRUCTURE
- 정림 3D
- 정림 한글

* 가격 : 70만원(부가세 별도)

ARRIS 교육기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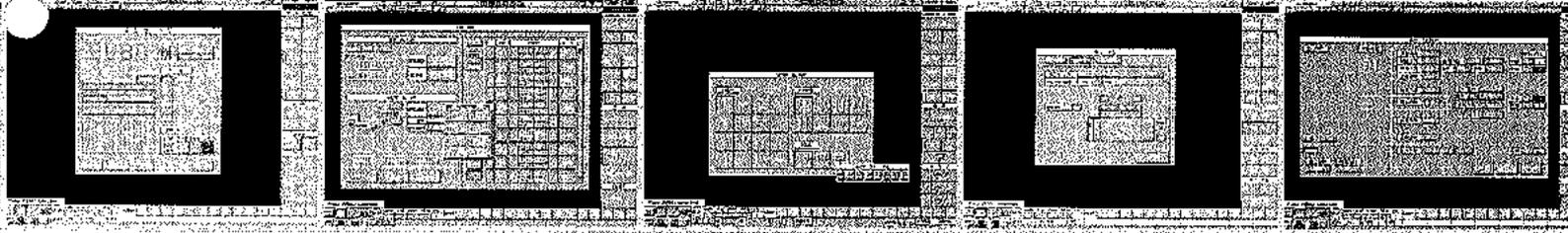
태백컴퓨터아카데미 TEL : 511-9400 / 토바디자인학원 TEL : 563-5666 / 캐드플러스 TEL : 564-4884

정림 3RD PARTY는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에서 공급합니다. 정림 3RD PARTY의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에게는 언제든지 링문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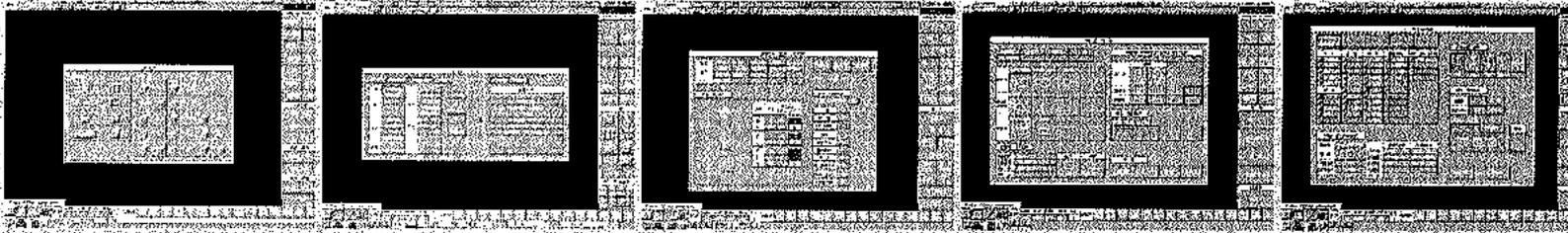
ARRIS 국내총판 / 정림 3RD PARTY 공급회사

(주)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6-25
TEL: 523-8871/3 FAX: 523-8874



정림 3RD PARTY의 새로운 출발



정림건축은 1984년 부터 이제까지 축적된 CAD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ARRIS용 3RD PARTY 소프트웨어를 v3.0으로 발표합니다.
 근 30년의 역사와 250명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믿을만한 건축설계 전문회사가 오피스,
 병원으로부터 영종도신국제공항에 이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그점만으로도 이미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정림건축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림은 건축설계 소프트웨어라는 전문영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림을 협력자로 선택하십시오.
 정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CAD기술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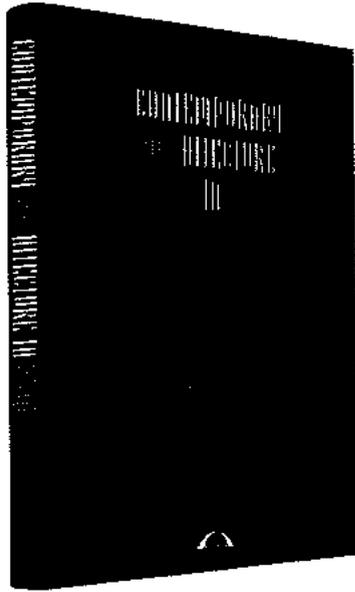


ARRIS는 그 자체가 정식구입없이 evaluation사용이 가능하며 본 소프트웨어도 evaluation mode사용을 제공합니다.
 evaluation mode는 기능의 일부만 작동하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evaluation mode만으로도 계단평면, 구적표 자동작성등 여러가지 기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주)정림건축 소프트웨어 사업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87-1 TEL 762-9681(교331)

JUNGLIM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면 어찌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 ARCASIA
가격: 35,000원

'95 한국 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 응모부문 및 대상

1. 준공건축물 부문 (94년 1월~95년 6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에 한함)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2. 계획건축물 부문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신인부문: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
 - 학생부문: 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응모방법

1. 준공건축물 부문
 - 작품설명 건물사진(8"×10" 사이즈 10매 이내,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스가서 첨부)
 - * 패널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며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2. 계획건축물 부문 (신인·학생부문)
 - 작품주제는 응모자 자유선택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60cm×60cm×50cm) 1점 제출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작품접수 및 수상작 발표

1. 접수기간: '95. 7. 18(화)~8. 18(금)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2.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4층 / TEL: 581-5711~4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3. 수상작 발표: 1995년 9월

■ 기타 출품규정

1. 신인·학생부문에 있어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2.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3.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작품반출

1. 작품반출 기간: '95. 10. 9(월)~13(금) (5일간)/건축사회관 1층 정문 (단, 입선 이상의 수상작은 작품전시후 반출)
2. 준공건축물 부문의 제출 사진첩 중 1부는 시후 보존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3. 준공건축물 부문의 우수상 이상의 수상작 패널은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시상내용

1. 준공 건축물 부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대상(1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건물부착용)
본상(4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건물부착용)
우수상(약간)	해당자에 한해 트로피, 해외시찰		—
입선작(다수)	상패		—
공로상	트로피		—

2. 계획건축물 부문

● 신인부문

- 최우수상(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해외시찰 특전(1인)
- 우수상(1점):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점):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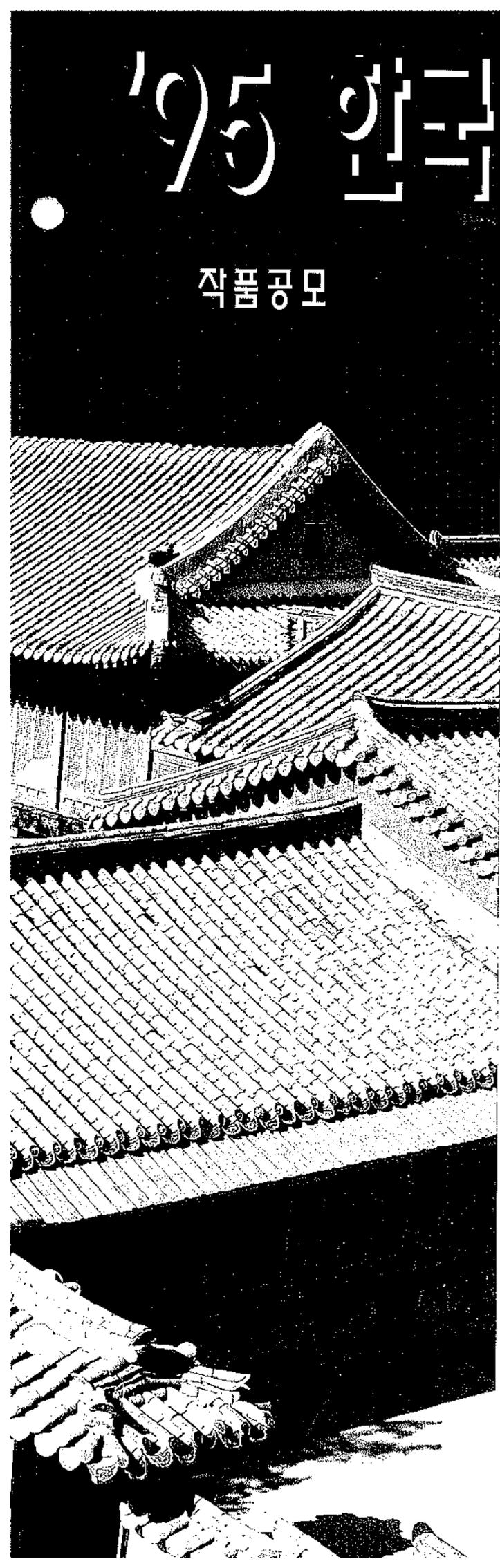
- 최우수상(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ARCASIA 학생캠퍼리 피견 특전
- 우수상(2점):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다수): 상금 50만원 및 상장
- 시·도 건축사 회장상(다수): 상금 30만원 및 상장

문의 / 대한 건축사협회 홍보부 전화(02)581-5711~4, 587-8504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8월호 통권316호

發行人 : 金圭泰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俊憲
委員 : 吳龍夫,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靄,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李善模, 尹泰日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1965년10월23일)
住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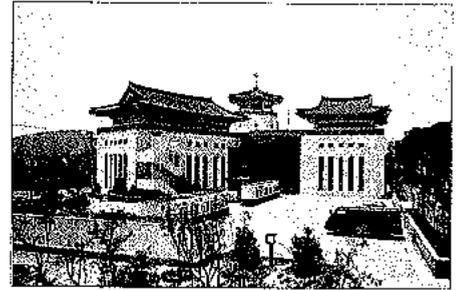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8월호 통권 316호

칼럼	
K형에게 / 張錫雄	24
회원작품	
중산국민학교 / 동우건축+李好璣	26
파크뷰빌딩 / 李恩鎔+郭炳坤	32
거봉웨딩프라자 / 文淑卿	40
대나무집 / 金瑛燮	46
삼성동현대빌라 / 다산건축	52
장석교회 / 崔英集	58
비평	
장석교회(최영집작) / 鄭時春, 金聖雨, 李勇男	66
회원갤러리	
팔월의 현내포구 / 梁光明	75
도시인 / 金正寬	76
긴급진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본 건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金宇成, 申東宇, 全泰秀, 元鍾一, 朴武一	77
일하며 생각하며	
알함브라 궁전 / 安秉義	88
연구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 / 金泰雄	90
작품노트	
올림픽 스포츠센터 / 朴英健	9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3) / 李好璣	100
건축기행	
중남미 문화기행(4) / 金仁喆	105
계획작품	
인하대 부속병원 / 崔慶	110
현상설계경기	
부산강서구청사	112
원주시립박물관	116
종합에너지회관	118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120
특계	
1995년도 6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2
협회소식	124



표지사진 / 장석교회(설계/최영집)

CONTENTS

VOL 316. AUGUST 1995

COLUMN

To Mr. K / Chang Suk-Woong 24

WORKS

Chungsan Primary School / Dongwoo & Lee Ho-Chin 26

Park View Building / Lee Eun-Yong & Kwak Byung-Gon 32

Keobong Wedding Plaza / Moon Suk-Kyeong 40

Bamboo House / Kim Young-Sub 46

Samsung-dong Hyundai Villa / Dasan Architects 52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 Choi Young-Jeep 58

CRITICISM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

Cheong Shi-Choon, Kim Seong-Woo, Lee Yong-Nam 66

GALLERY

Hyunnae Port of August / Yang Kwang-Myung 75

Residents in a City / Kim Jung-Kwan 76

FOCU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Korean Architecture /

Kim Woo-Seong, Shin Dong-Woo, Chon Tae-Soo,

Won Chong-Il, Park Moo-Il 77

ESSAY

The Alhambra / Ahn Byong-Ui 88

REPORT

Sysmatic Approach for The Sustainable Architecture /

Kim Tae-Woong 90

WORK NOTE

Korean Olympic Sports Center / Park Young-Keon 96

SERIAL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 Lee Ho-Chin 100

ARCHITECTURE TRAVEL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4) / Kim In-Cheol 105

PROCESS WORK

Inha University Hospital / Choi Kyeong-Il 110

COMPETITION

Pusan Kangseo-gu Hall 112

Wonju Municipal Museum 116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 118

Trade Information Center 120

STATISTICS 122

KIFA NEWS 12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8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4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5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5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중랑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6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작할분회/(0331)43-6662 · 인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58 · 송탄분회/(03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 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 · 제천분회/(0443)43-6253 · 옥천분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 · 홍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이리분회/(0653)52-3796 · 군산분회/(0654)43-3816 · 남원분회/(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2-5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안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칠곡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868 · 경신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36 · 영천분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통주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692 · 밀양분회/(0527)355-4848 · 거창분회/(0598)43-608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93)33 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K형! 우리는 오늘 매우 큰 충격속에 묻혀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 잠시 뉘두리를 하렵니다.

옛날 이야기로 구리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향해서 부리로 쪼고 쪼아대다가 죽었다는 앵무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마도 거울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쪼는 앵무새의 아픔과 시련을 겪은 것과 같이 가슴아프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맹수들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헛바닥으로 핏내고 합니다. 아픈 상처를 육신으로 건드려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마치 오늘의 우리 건축인들이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이나 허영이나 자위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솔직하고 허식없는 모습을 조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설령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졌더라도 이를 감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애정이 클수록 절망도 크고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기 환멸도 높기 마련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앵무새처럼 또 상처를 핏아야 하는 야생 동물처럼 우리는 먼저 아파야 하고 아픔의 시련을 겪어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반성과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역사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데 최근 우리는 몇년 동안에 연이은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분개하고 후진국성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나라가, 또 2002년 월드컵축구를 유치한다는 나라가 연이은 후진국성 대형 참사를 보고 사도공화국으로 별명을 붙여 놓았으니 국제화가 모자라 세계화 한다는 정부의 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개방과 함께 선진 건설업체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건설업체나 건축계는 자성은 커녕 부실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인·건축인이 변하지 않는 한 건축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실이나 사고 근본원인이 결국은 관련 종사자들 개개인의 자질부족과 안일 무사주의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K형에게

To Mr. K

張錫雄 / (주)이도무중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Suk-Woong

21세기도 불과 몇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화도 중요하고 국민소득 \$10,000도 좋지만 자기 분수에 맞고 삶의 가치를 누리며 믿음있는 내실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나 로마에는 기원전 이전의 건조물들이 아무 탈없이 오늘날에도 우람한 자태로 찾는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경주 불국사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많은 유산들은 세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경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이은 대형 참사며 더욱이 삼풍백화점 붕괴가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이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오직 잘 살아보자는 기치로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우리의 가치관에 혼돈을 가져왔고, 황금만능의 시대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큰 문제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팽창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전문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제일까요?

또한 오늘의 건축사시험 제도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고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창의성을 요구하는 양질의 건축을 바라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식의 창의적인 설계를 입찰하는 제도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절반도 안되는 그나마 규정된 설계비나 감리비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예산부족이며, 관행이 어떻고 하며, 횡포를 부리는 건축주나 관청의 발주자의 무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비건축전공자로 구성된 공무원이 각종 도면을 검토하고 일용직 근무자까지 건축행정에 투입하는 사례도 있는 현실이고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지심의, 교통영향평가, 미관심의, 에너지심의, 굴토심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과정을 겪고 건축허가를 득하는 제도가 과연 아름답고 좋은 건축을 위한 것이며, 환경을 보존하고 후손을 위한 올바른 제도일까요?

감리는 분명히 설계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건기법이란 제도로 감리를 분류한 제도가 양질의 건축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최저 낙찰제도에 의한 건설공사며 이에 따른 형식적이면서도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이 과연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량한 콘크리트를 단속 한다면서 불량한 시멘트를 수입하는 수입상을 관망하는 정부나 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사용토록 허가한 관련부처, 이를 사용한 레미콘의 KS표시 생산업체 등의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를 제재하지 않은 제도적 모순은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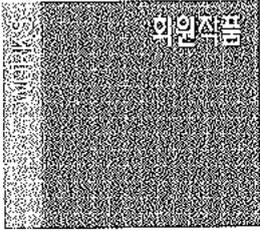
이토록 우리는 총체적 모순에서 허덕이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서 치유하여야 할 것인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K형! 뉘두리는 한이 없으나 이제 그만 하여야겠습니다.

그래도 뜻있는 건축인들은 참건축을 위하여 밤잠을 설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제현상설계로 실시되어 역사에 유래없이 부러 46개국에서 341점의 작품이 출품되므로써 우리의 문화건축 예술을 세계의 건축가에게 알려 반영토록한 건축인들의 깊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뜻을 무참히 저버렸습니다.

하루 빨리 건축설계계, 학계, 관계, 시공업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앵무새나 맹수의 교훈으로 과감한 개혁을 하므로써 보다 아름답고 좋은 건축을 위하여 또 후손에게 남겨줄 유산을 위하여 노력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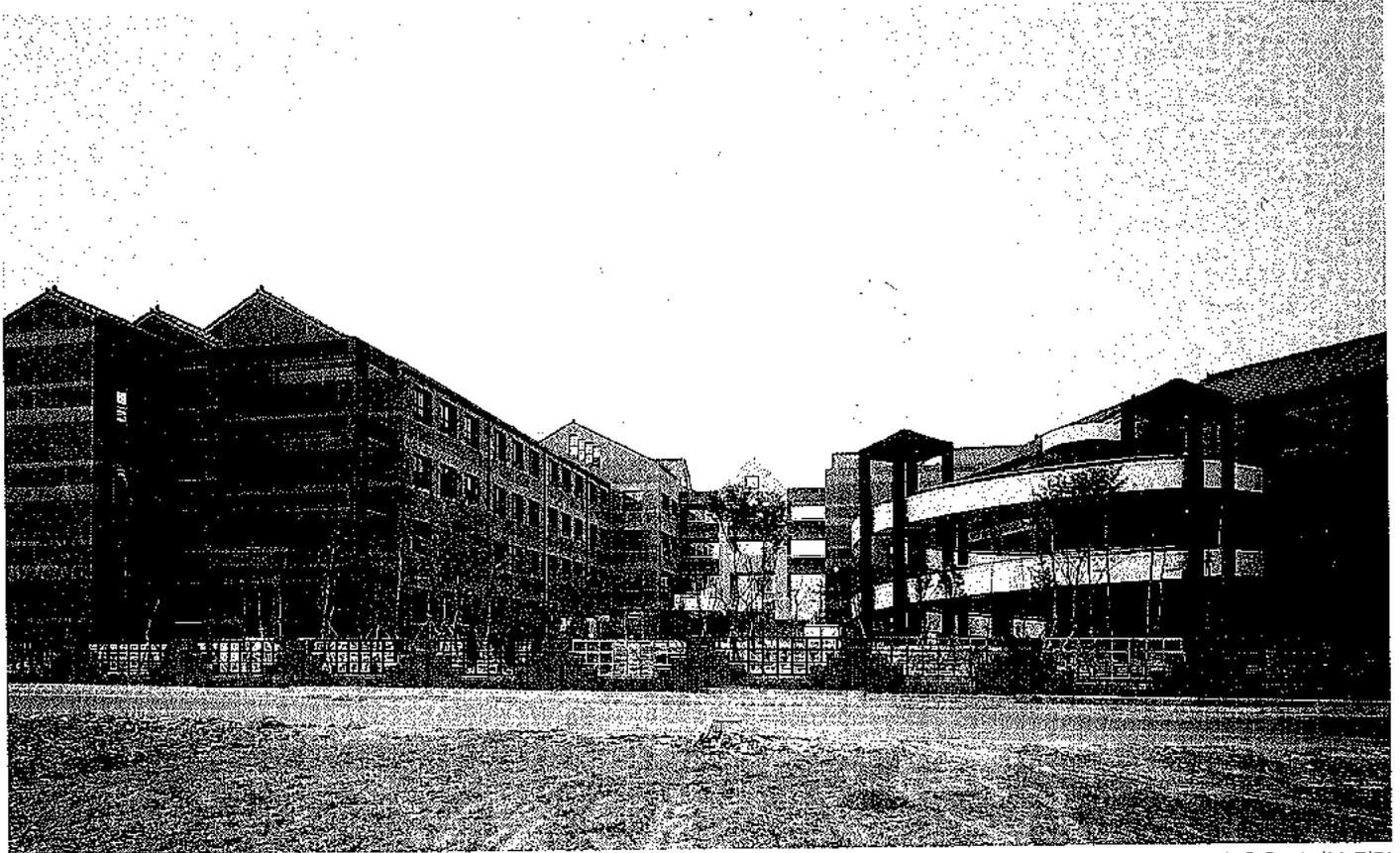


중산국민학교

Chungsan Primary School

(주)동우건축 + 李好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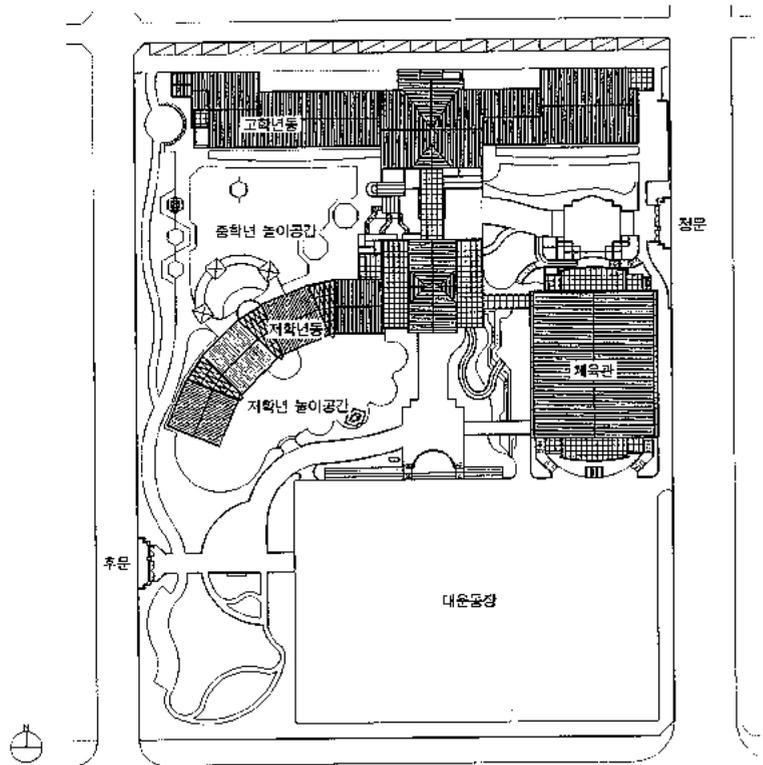
Designed by Dongwoo+Lee Ho-Chin



중학년 놀이공간 쪽을 바라본 전경

위치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42블럭 1롯트
 지역 · 지구 /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 13,892.0㎡
 건축면적 / 2,874.27㎡
 연면적 / 8,566.73㎡
 건폐율 / 20.69%
 용적률 / 61.67%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계산 / 이종석(동우구조)
 기계설비 / 신현곤(동우설비)
 전기설비 / 정우창(대화기술단)

Location / Chungwasan-dong, Wansan-gu, Cheonju-shi
 District / School
 Site Area / 13,892.0㎡
 Bldg. Area / 2,874.27㎡
 Gross Floor Area / 8,566.73㎡
 Bldg. Coverage Ratio / 20.69%
 Gross Floor Ratio / 61.67%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al Computation / Lee Chong-Shik
 Mechanical Services / Shin Hyeon-Kon
 Electric Installation / Jang Woo-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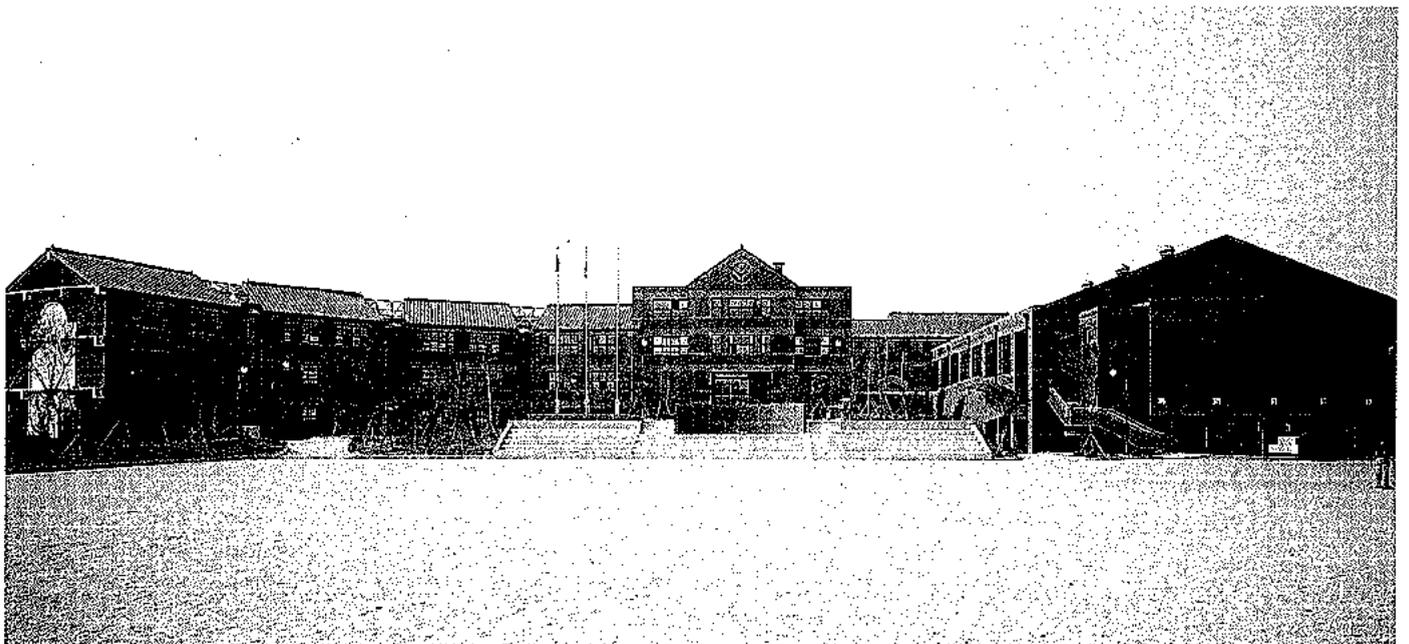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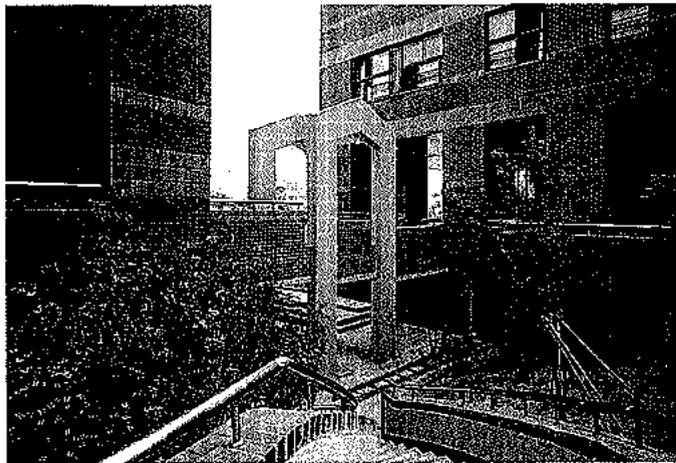
후문진입로에서 본 저학년동



대운동장(고학년 놀이공간)에서 본 전경



체육관 연결통로 하부에서 본 행정동



체육관 연결통로



중학년 놀이공간에서 본 행정동 연결복도

계획배경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비하여 한국의 교육시설은 낙후됐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한국인 모두는 질 좋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열망에 따라 1990년 문교부가 정책과제로 "국민학교 건축계획 모형 연구" (연구책임자 이호진)를 몇 년에 걸쳐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건축계획·설계기준과 공간계획과 기본모형)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시범학교를 설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는데 첫번째 학

교로 서울 불암국민학교를 건립하게 되었고 이에 이어 여기 소개하는 전주 중산국민학교의 계획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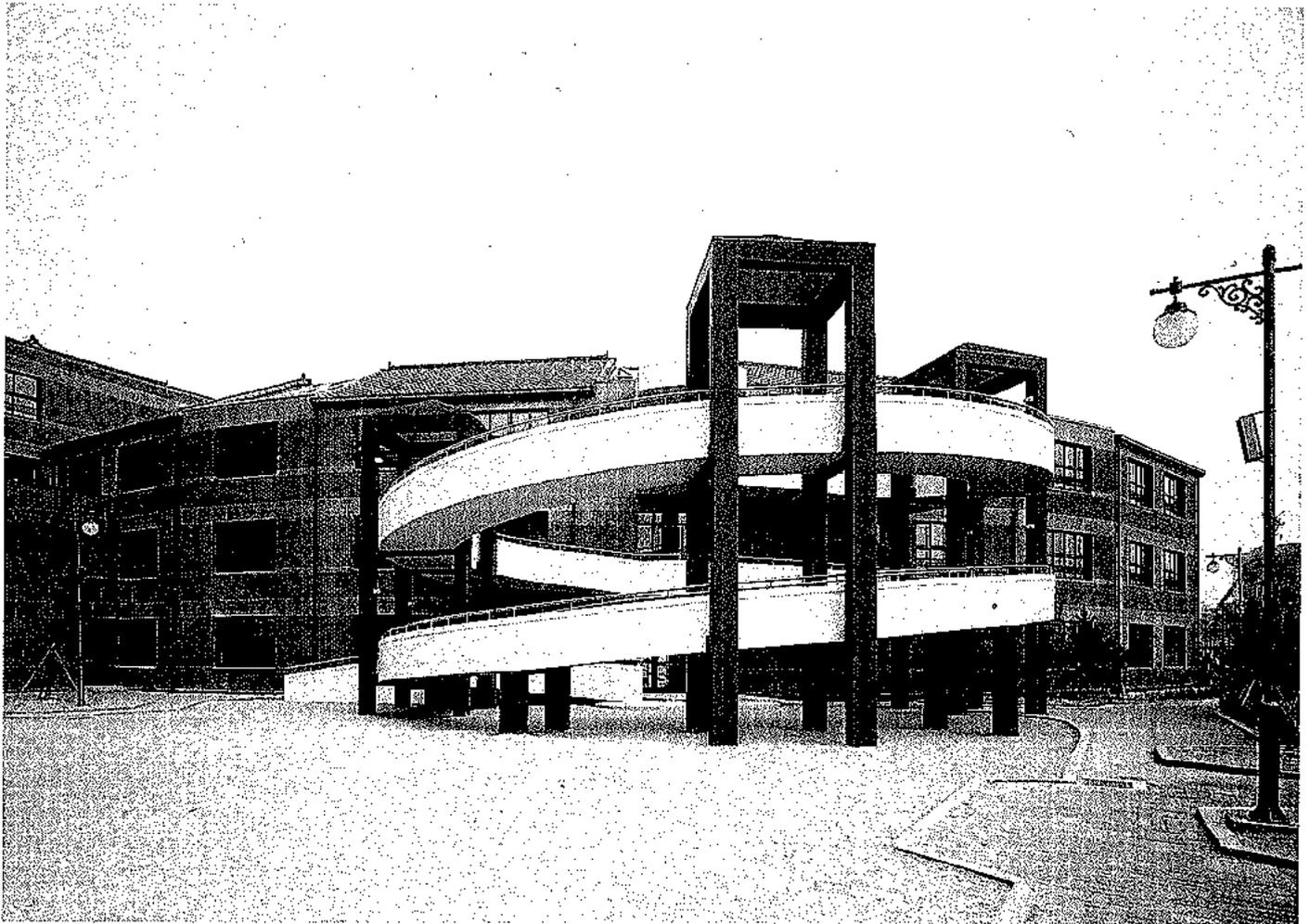
이 기본 계획에서의 건축계획원칙은 교수-학습형태의 충족, 아동의 연령별 여가활동의 충족, 아동의 의식구조에서 요구하는 심리적 상황의 충족, 아동 특유의 미적 감응 충족, 지역환경에 적응성 충족, 안정성 편의성 충족, 자연의 유입 도모, 구조의 합리성, 경제성 충족, 융통성 고려 등을 최대한 적용시키려는 디자인 기준과 공간규모 계획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다 만족한 계획이 된다면 교사, 아동, 지역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이들의 욕구를 계획서 적용시키는 건축계획설계가 이뤄지므로 한국의 교육시설이 향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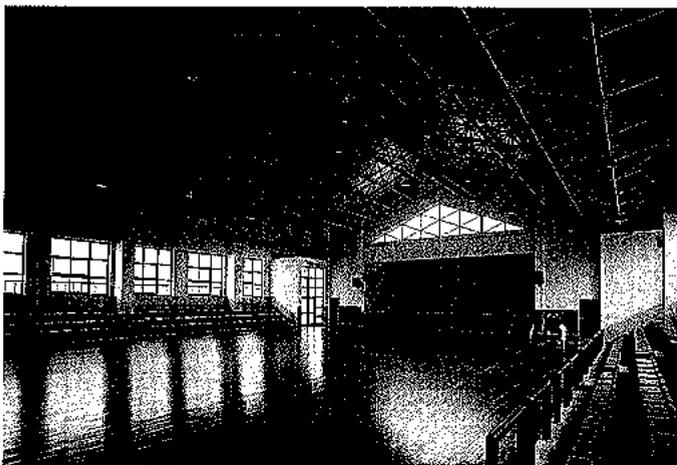
공간의 배치 및 구성

-학년별 특성에 따른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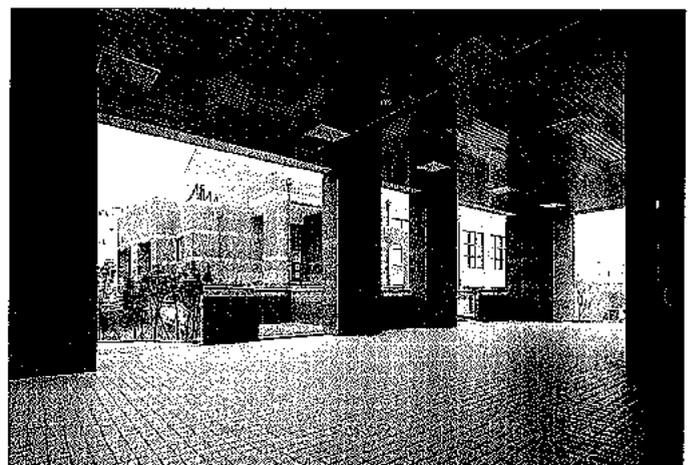
본 계획은 학년별 특성에 따른 실내외 공간의 구성과 분할, 각 공간간의 유기적 연계를 기본으로 계획되어 있다. 저학년동은 별도로 계획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에서 아동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므로 주거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 학교생활에 대



저학년 후면 경사로



체육관 내부



피로티 하부

한 적응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였다. 교실에 입실하여 타공간에 이동하지 않고도 학습에 임할수 있도록 교사실, 화장실을 겸비한 종합 교실 형태를 계획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교실의 유기적 구성

중고학년은 각층별 단위로 학년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층에 학년별 교사연구실을 두어 교사와 학생간의 개별 면담이 가능토록 하였고 균형있고 효율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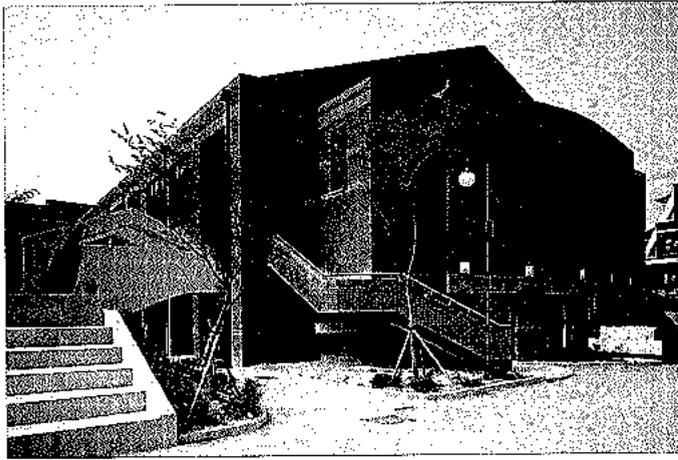
-특별교실의 유기적 구성

특별교실은 중고학년 등 사이에 집중배치하여 특별활동시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열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악실과 시청각실을 겸비한 대단위 다목적 교실을 확보하여 특별활동 수업에 3개반 이상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치는 소음을 해소하고 건물의 미적 감각을 살리면서 건물의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탑층에 배치 하였다. 특별 및 특수활동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실을 비롯한 모든 특별교실을 완비 하였으며 다원화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실을 확보하여 TV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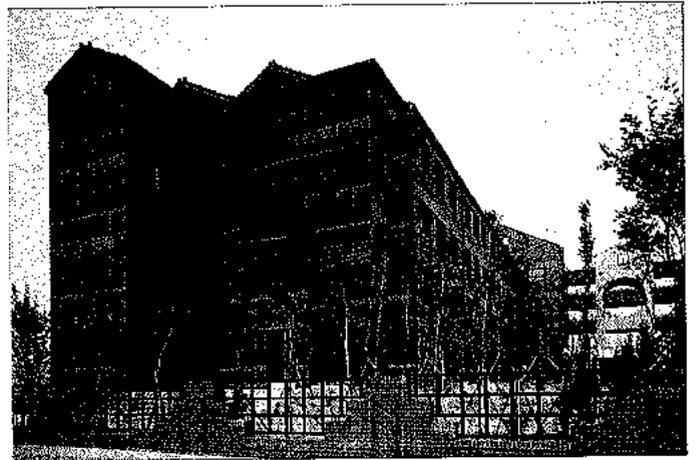
VTR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시청각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외 놀이공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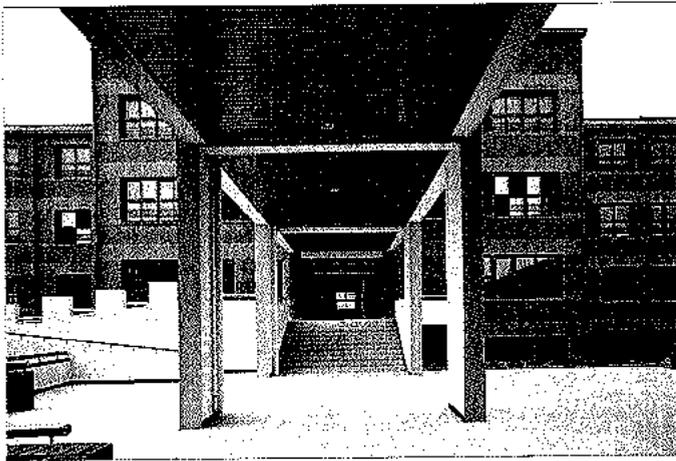
학생들의 연령별 성장정도에 따른 저중고학년의 옥외 놀이공간을 구분 배치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학년은 교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학년동 전면에, 중학년은 중고학년동과 저학년 사이의 수목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학년은 대운동장을 놀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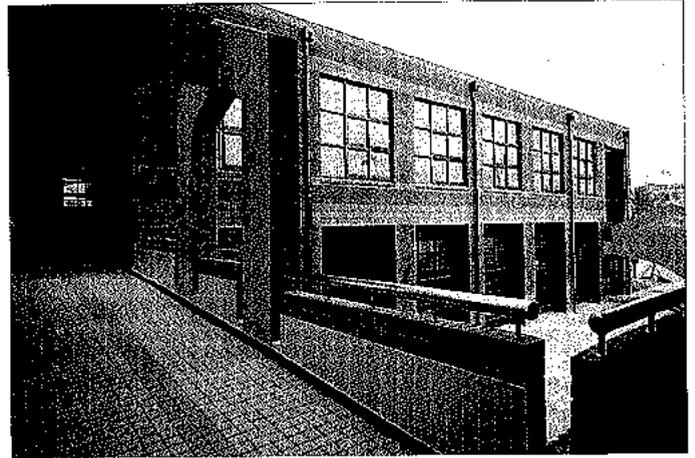
대운동장에서 본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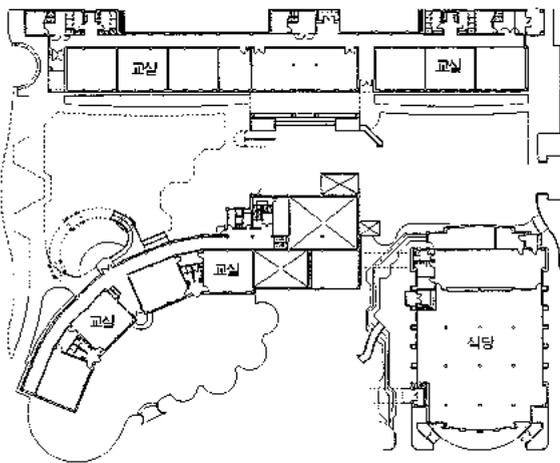
고학년동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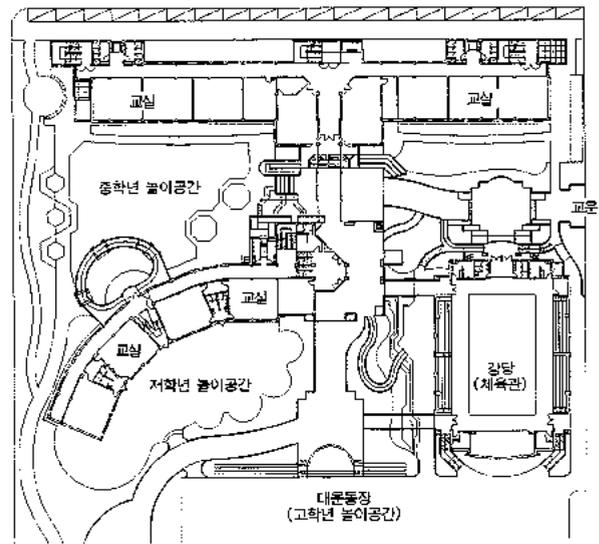
연결복도 하부



체육관 및 식당측면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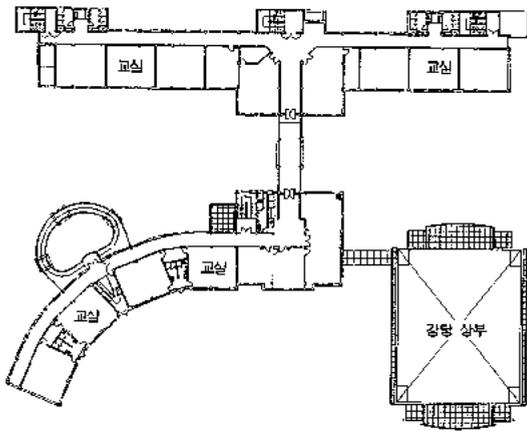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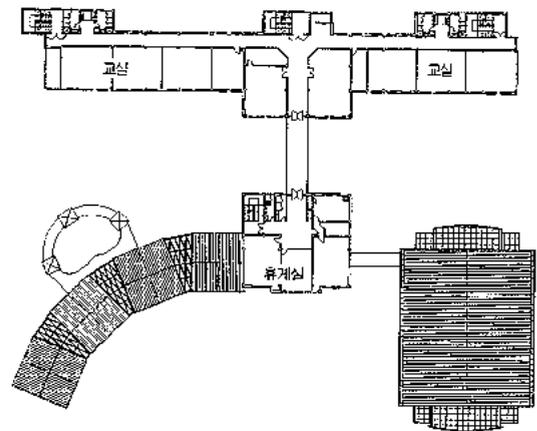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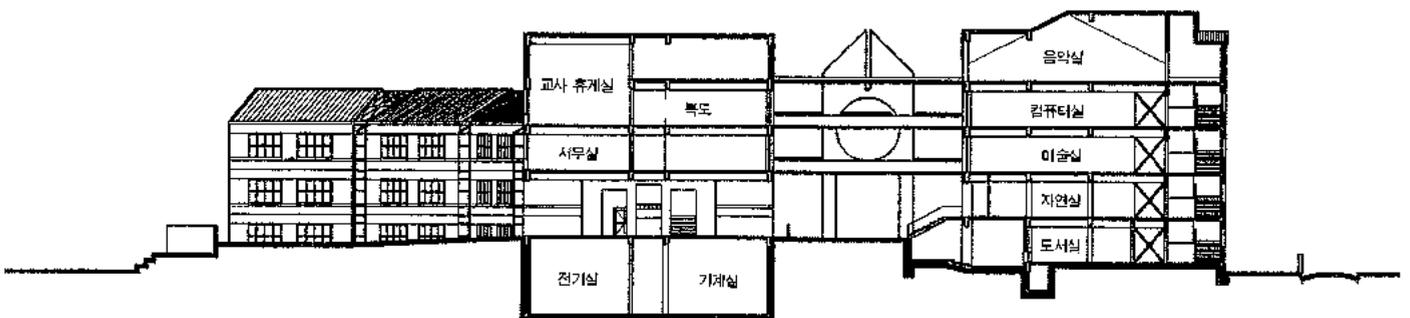
정문 진입로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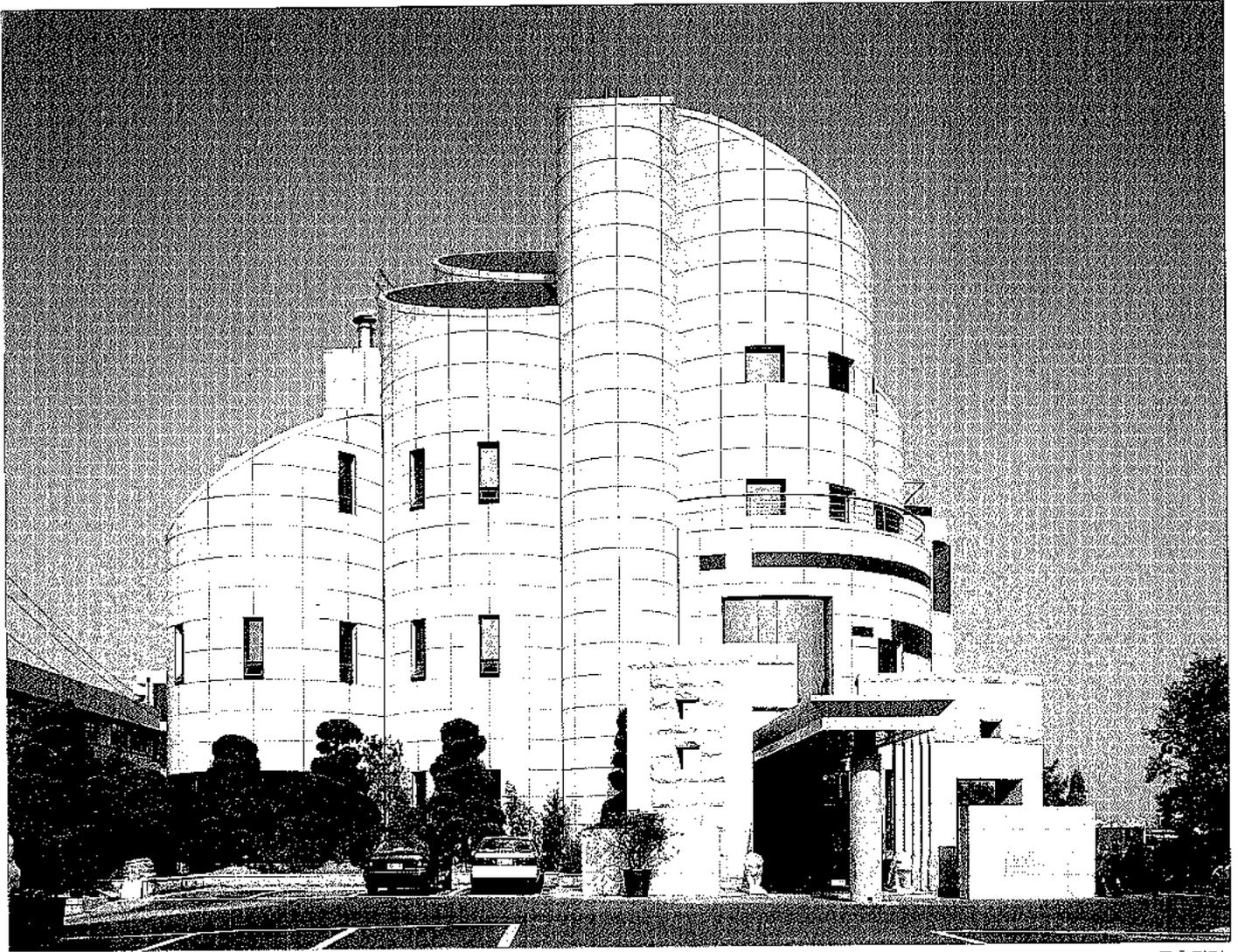
우측면도

파크뷰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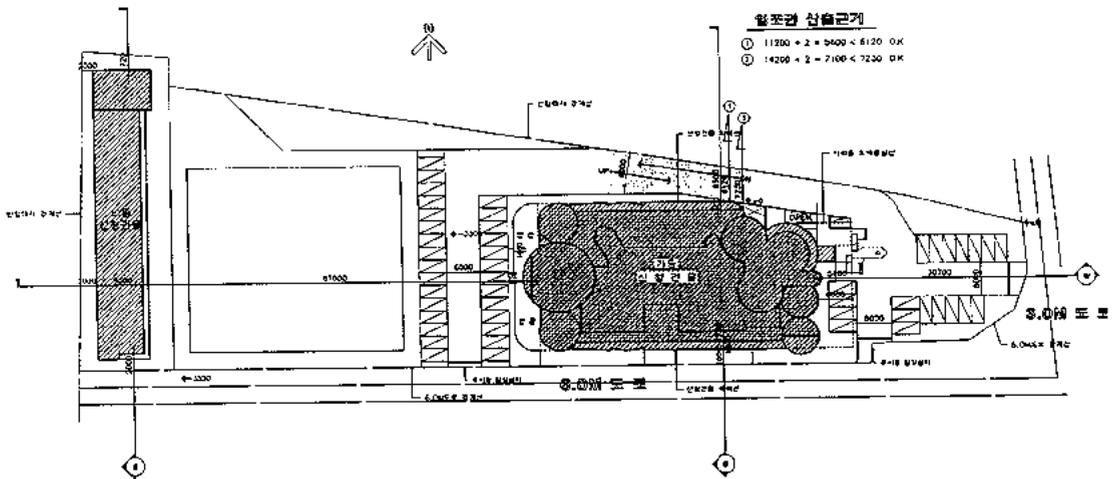
Park View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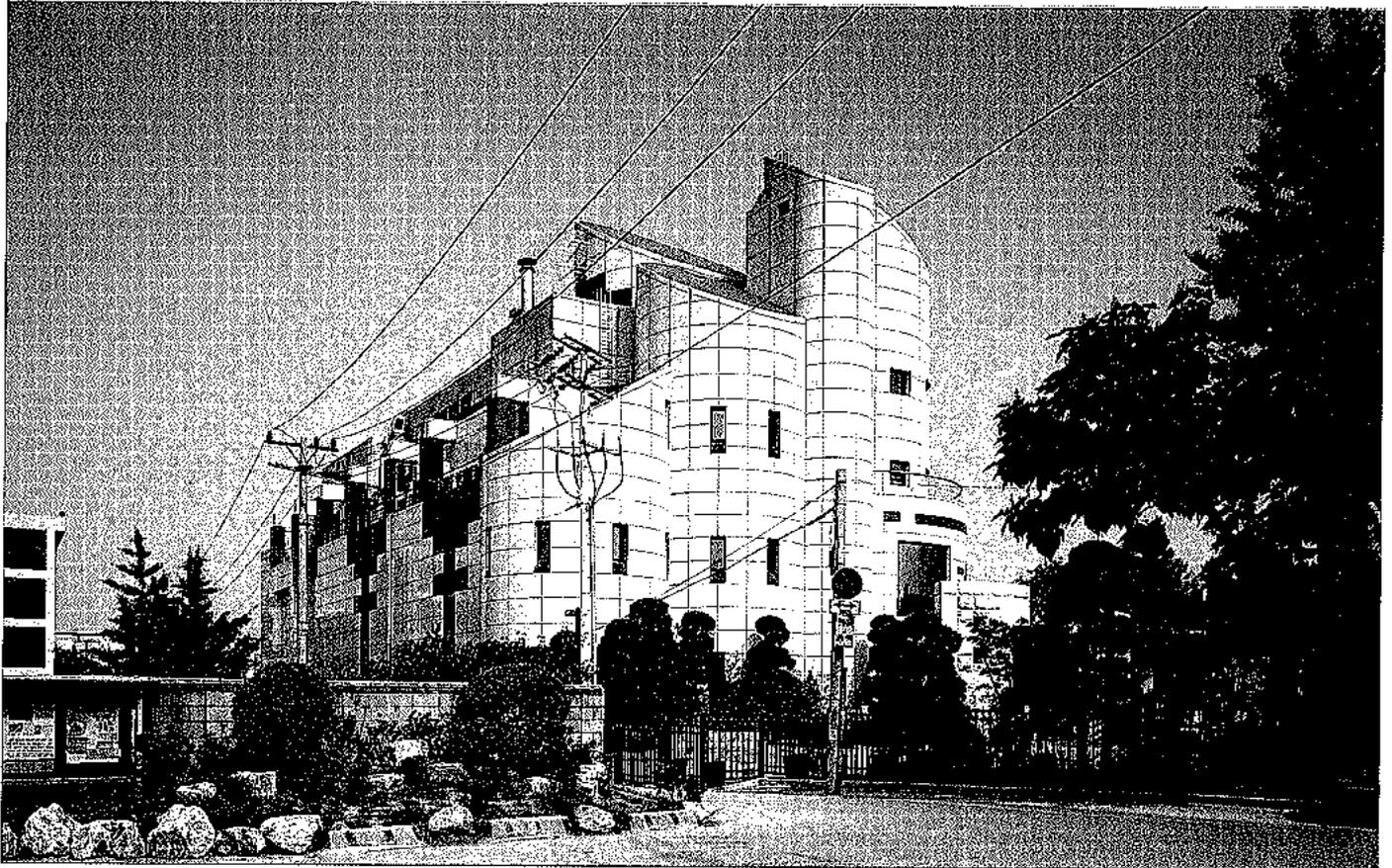
李恩鎔 + 郭炳坤 / 우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Eun-Yong & Gwak Byung-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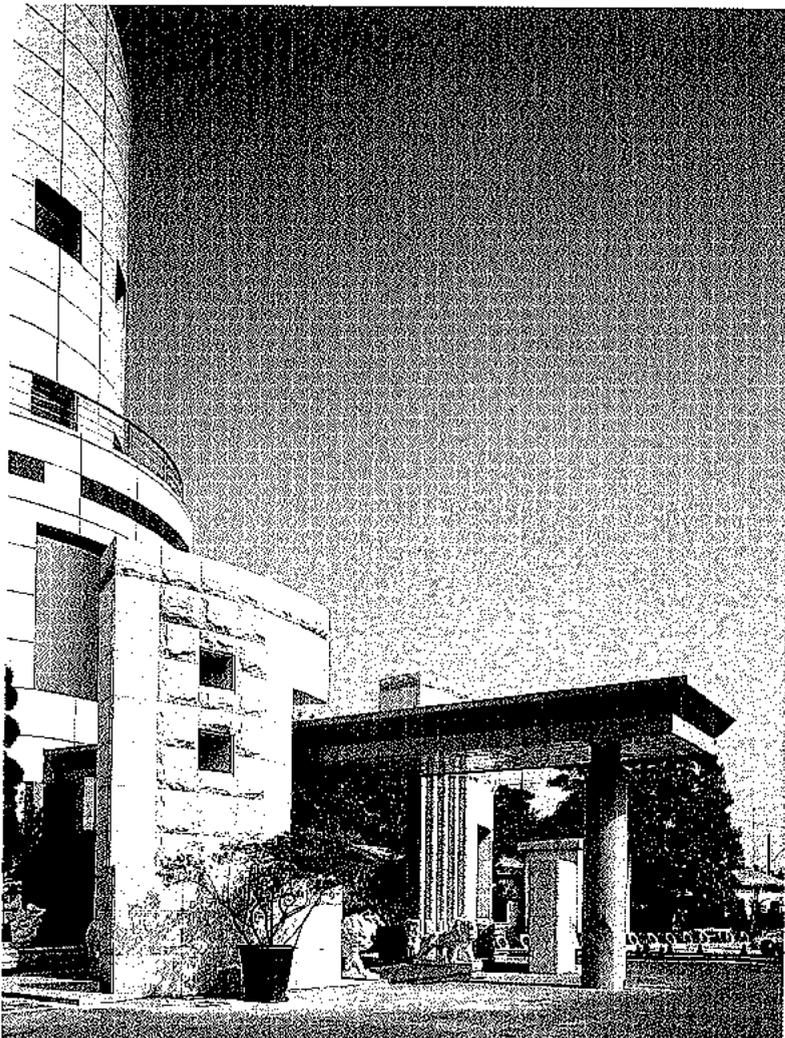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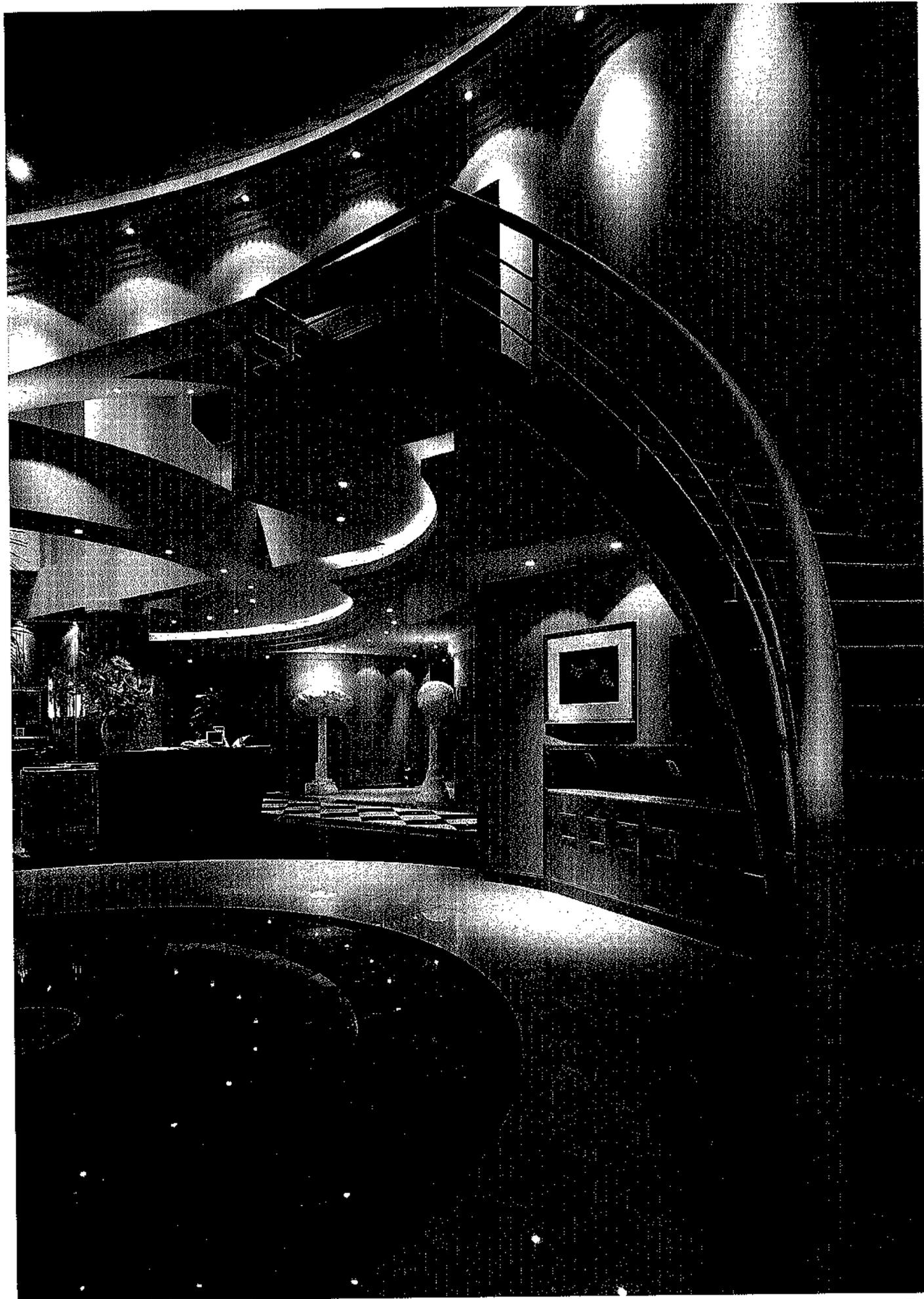
남동측 전경



주출입구 전경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모진동 7, 9-1, 2
 지역 · 지구 / 일반주거, 주차장정비
 대지면적 / 6,590.00㎡
 건축면적 / 1,687.46㎡
 연면적 / 6,226.30㎡
 건폐율 / 25.60%
 용적률 / 73.13%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 법랑+반사복층유리
 건축주 / 일산산업(주)
 시공자 / 양자건설(주)
 인테리어 / 인베이트(주), 우정아인스

Location / 7,9-1,2, Mojin-dong, Kwangjin-gu, Seoul
 District / Houses, Parking
 Site Area / 6,590.00㎡
 Bldg. Area / 1,687.46㎡
 Gross Floor Area / 6,226.30㎡
 Bldg. Coverage Ratio / 26.50%
 Gross Floor Ratio / 73.13%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Porcelain Enamel+Reflective Double Glazing
 Client / Ilsan Industry Co. Ltd.
 Constructor / Myeongji Construction Co. Ltd.
 Interior / Insite, Woojung 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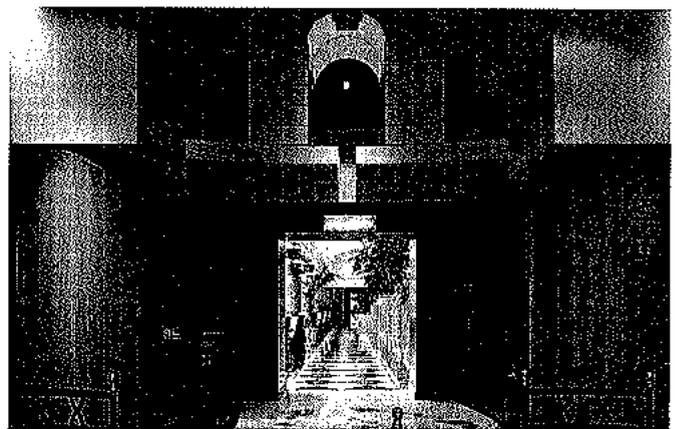
4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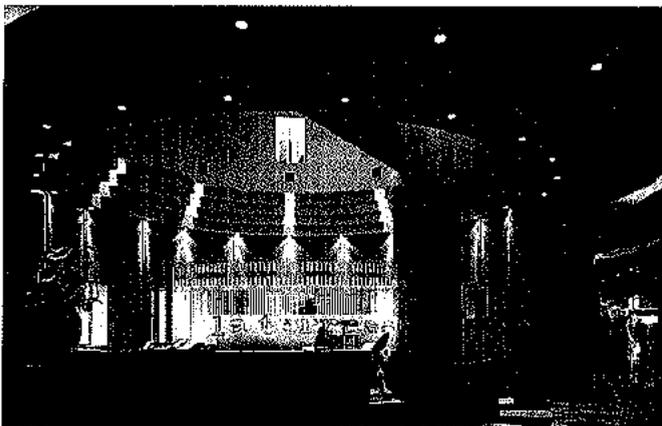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라테라스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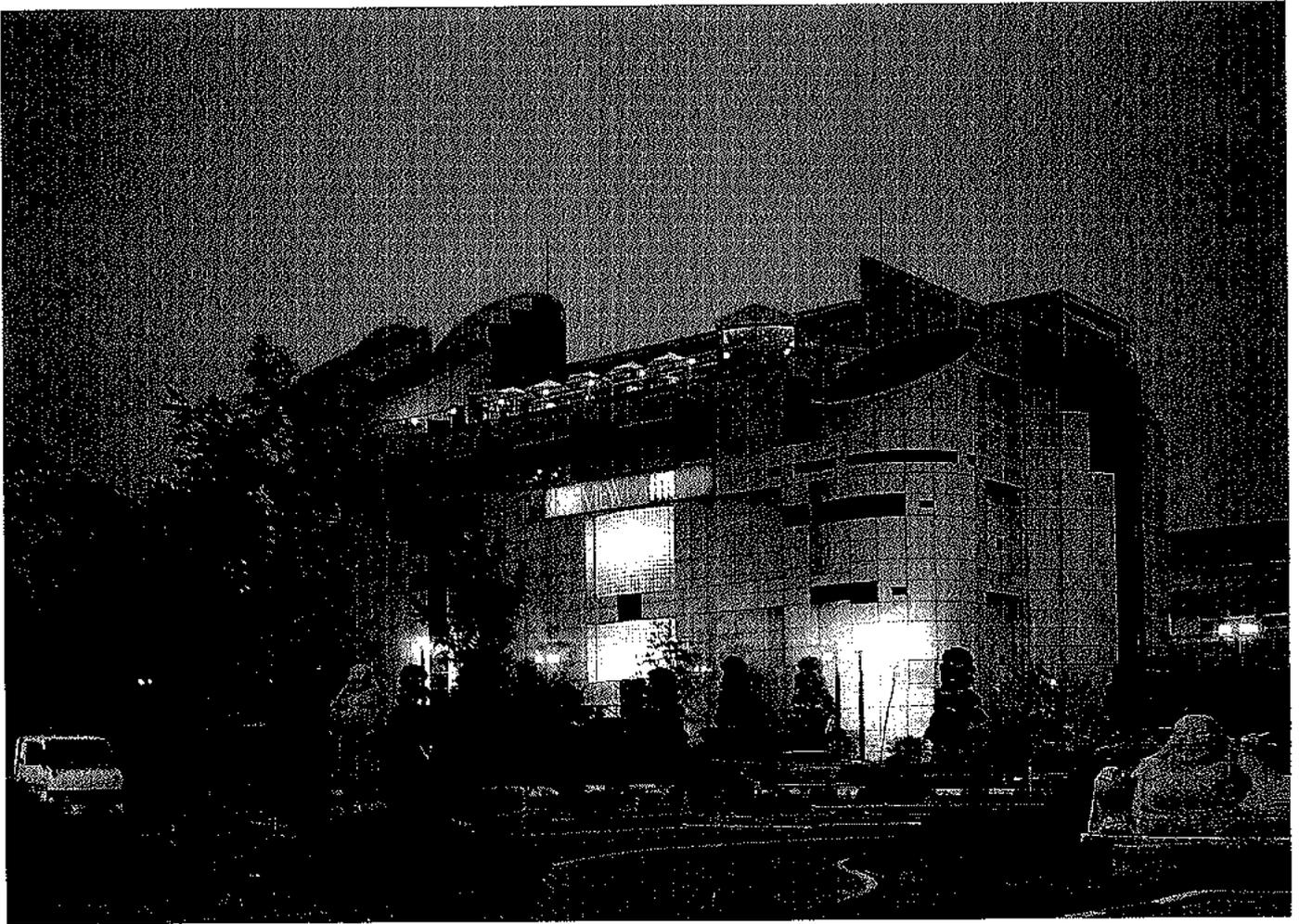
4층 라테라스 레스토랑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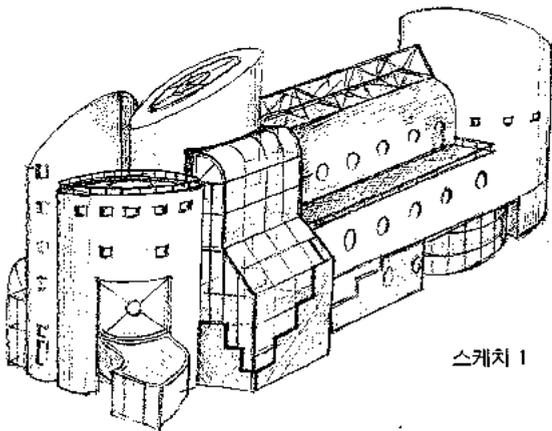
4층 라테라스 레스토랑 카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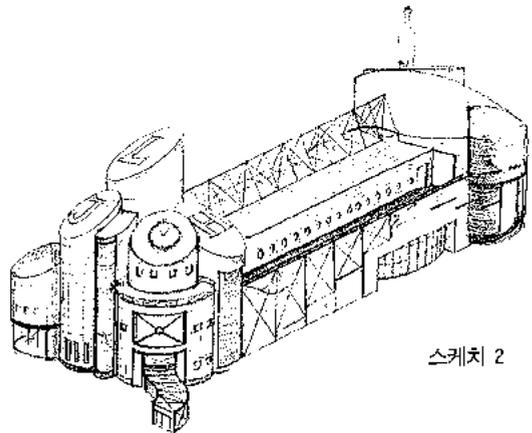
4층 로비



야경



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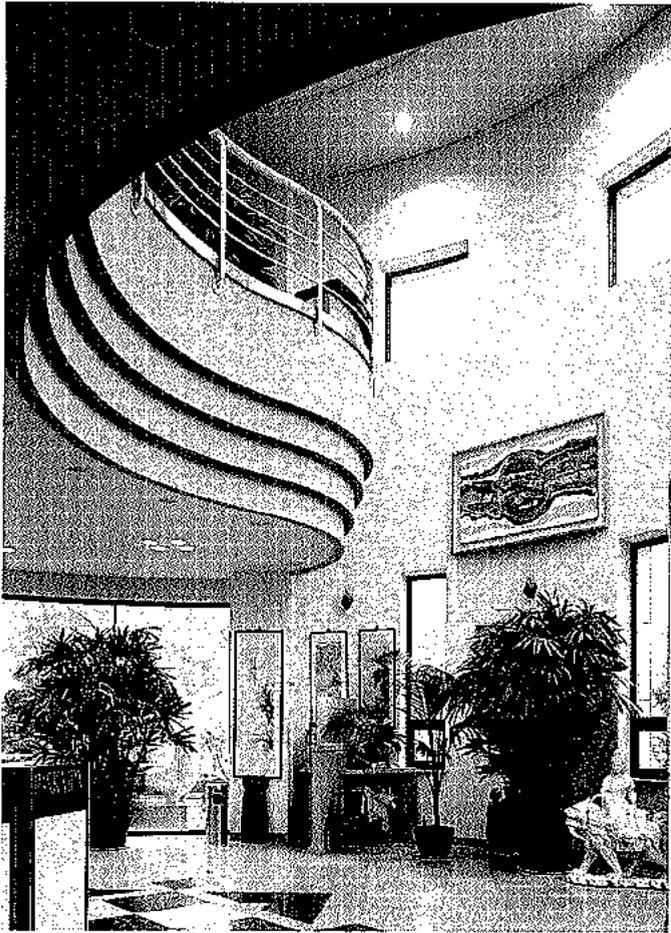


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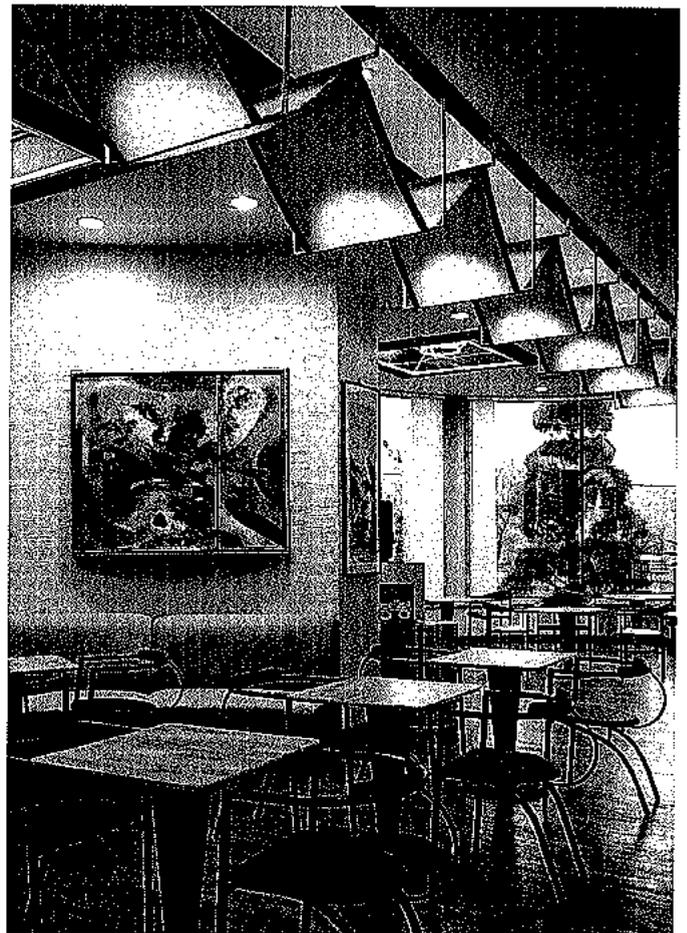
삼각으로 길게 뻗은 대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넓은 쪽에는 골프연습장이 있었고 남은 좁은쪽에 본 건물을 배치하여야 했다. 인접도로는 폭이 6m로서 좁고 반대편의 인접대지에 대한 일조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상층부는 올라갈수록 후퇴와 깎임을 수용하여야 했다. 만이천평의 자동차학원 부지에 속한 이 대지의 위치는 정문에서 내부도로를 따라 200m 들어간곳에 있다. 도로를 따라 들어가다가 보게되는 파사드 디자인은 6개의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매스들을, 내가 즐겨 쓰는 30° 각으로 상부를 사선처리하면서,

주변건물들과의 부조화로 인한 이질감을 우려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차별화를 이루도록 접근시켰다. 그 결과로, 본 건물의 뒷배경으로 보이는 중학교 건물들속에서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건물의 높이를 놓고 볼 때에 4층은 어린이대공원의 울창한 숲이 바로 앞에있는 내집 정원처럼 보이는 좋은 입지를 감안하여 대형유리로 전면을 틈은 쾌적한 가족레스토랑을 배치하였고, 저층부에 볼링장과 대중사우나를 설치하여 가족단위나 동료들끼리 휴식과 운동을 즐길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기능을 주었다. 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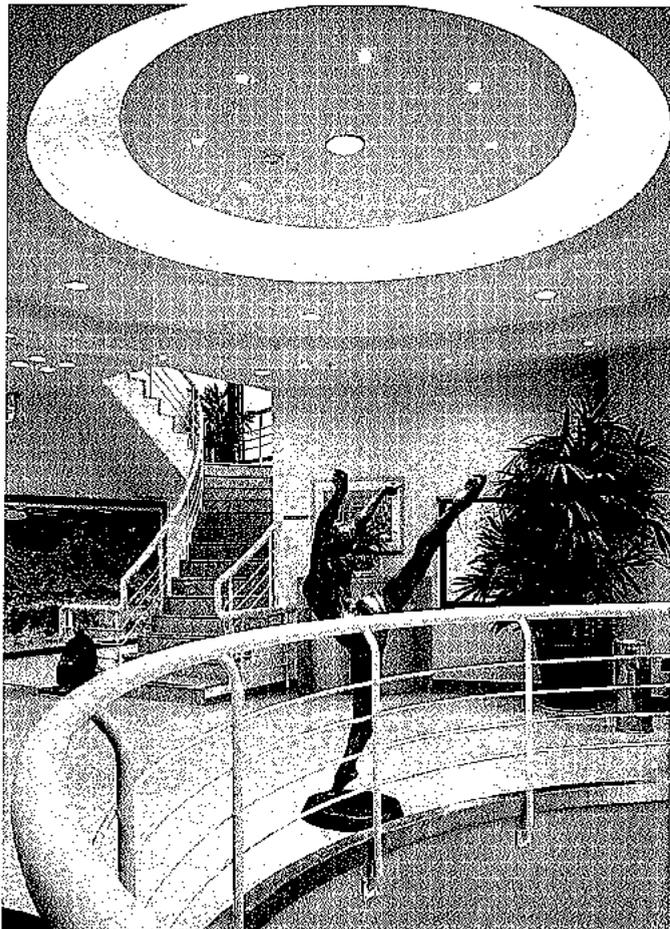
로 향한 안테나들로 외계와의 교신을 이루는 것에 대한 나의 어릴적부터의 기대가 우연히도 이 건물의 외관에서 언뜻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지 모른다. 넓은 대지위에 전형적인 형태를 피하고 보다 자유스러운 발상으로 접근해보고자 했던 건물의 디자인으로 인하여 많은 순간 딜레마에 빠지면서도 끝까지 노력해준 시공사인 명지건설에 감사드리며 오랜기간 동안 이해와 인내로 믿고 지켜봐주신 건축주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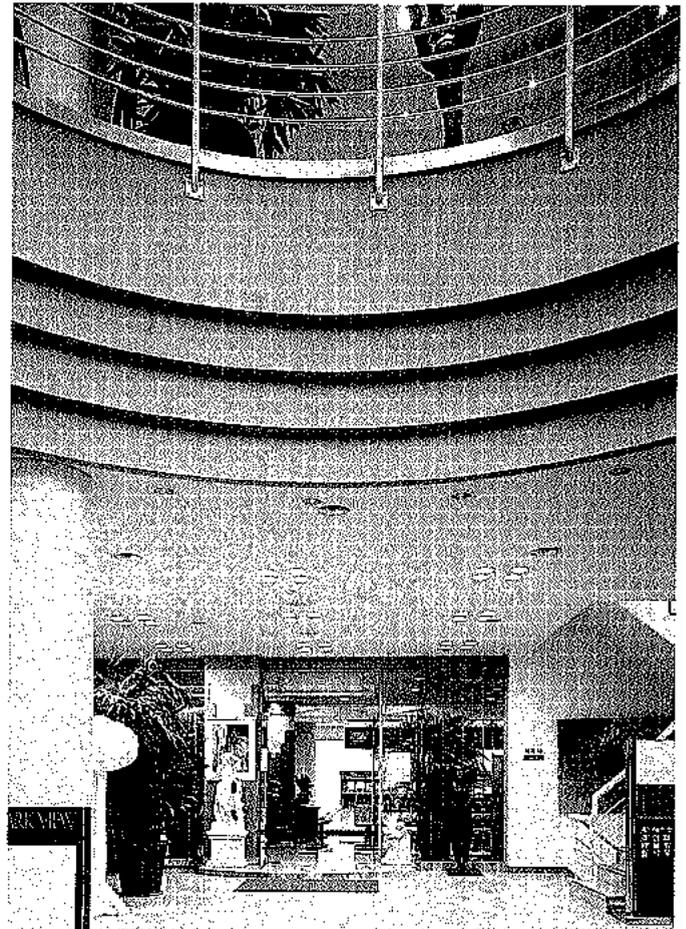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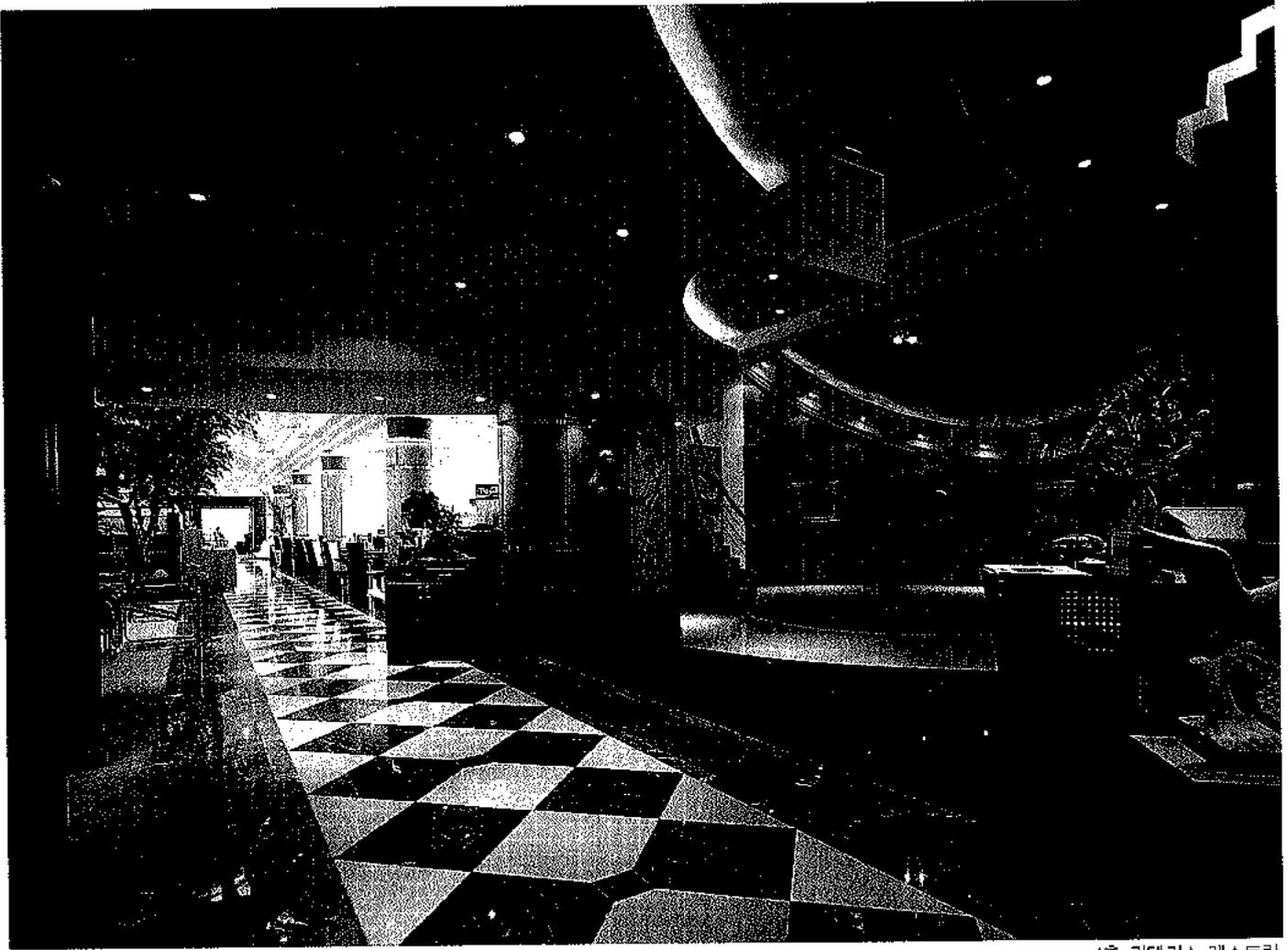
1층 커피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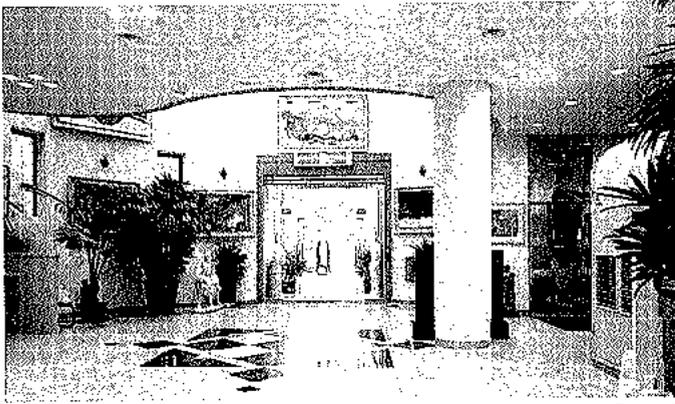
2층 계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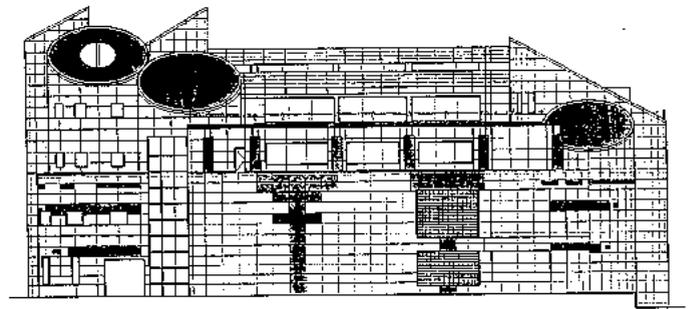
1층 볼링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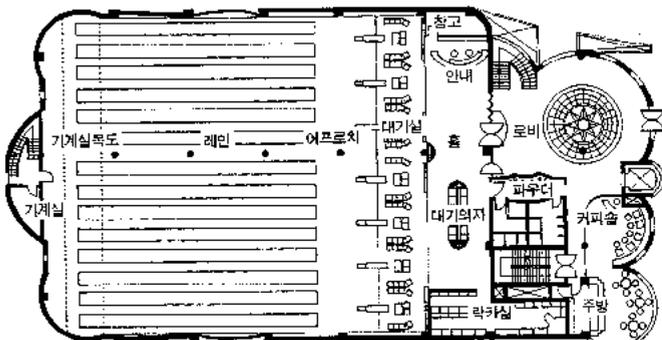
4층 리테라스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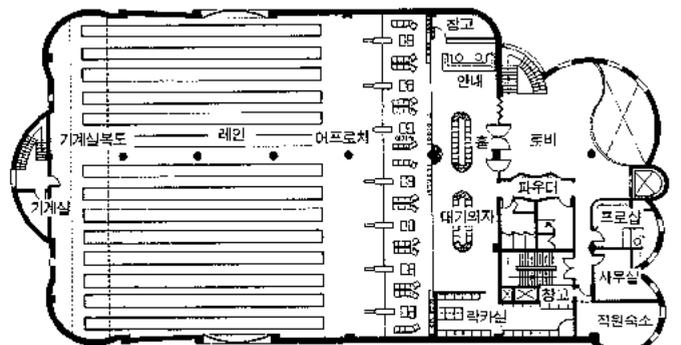
주출입구가 보이는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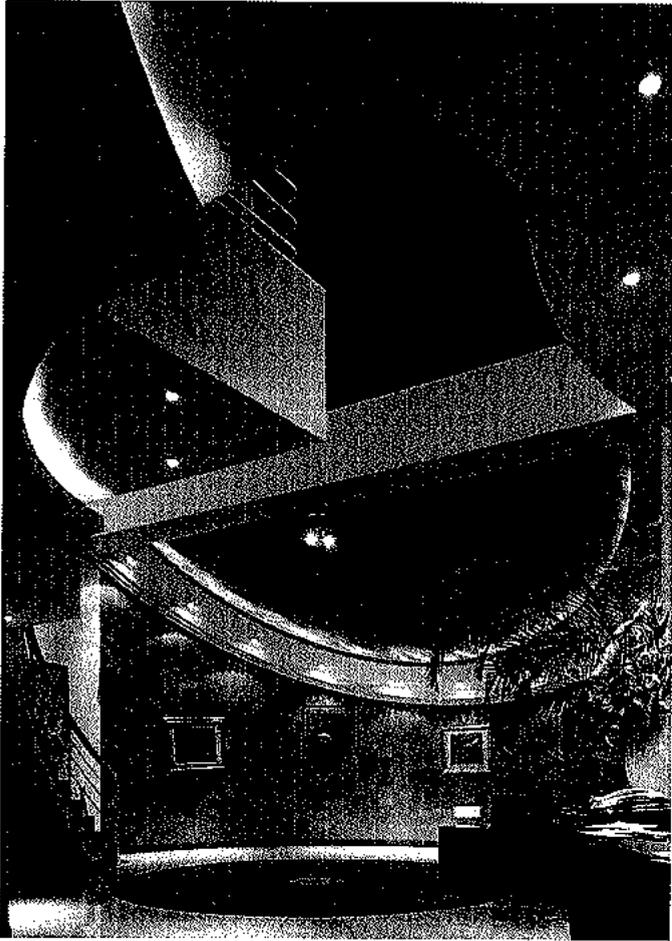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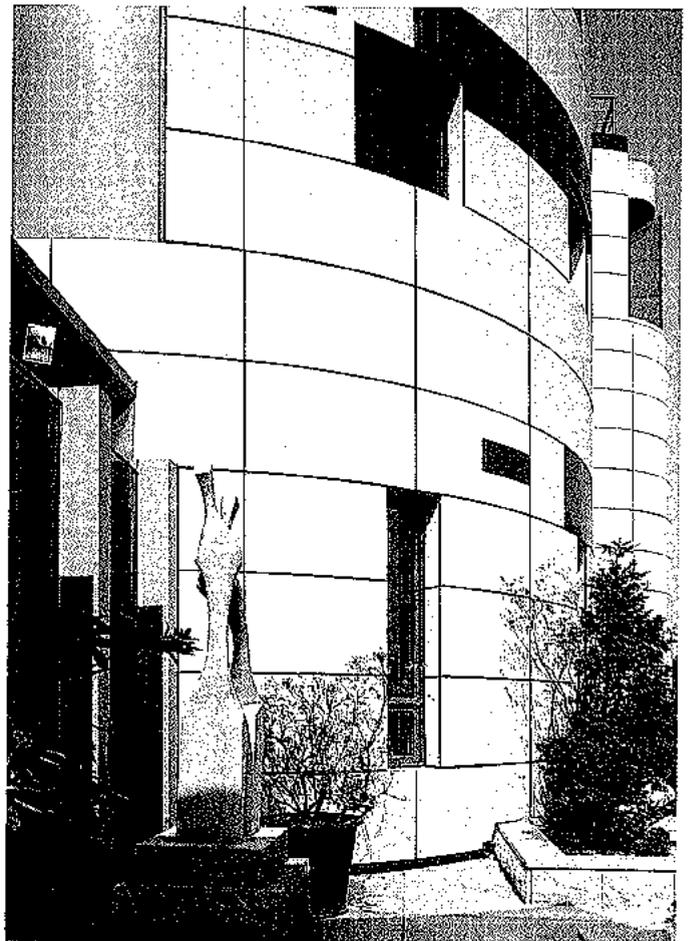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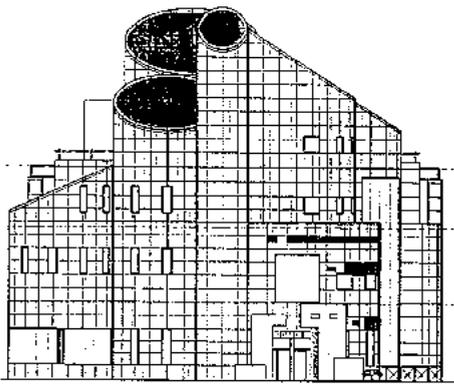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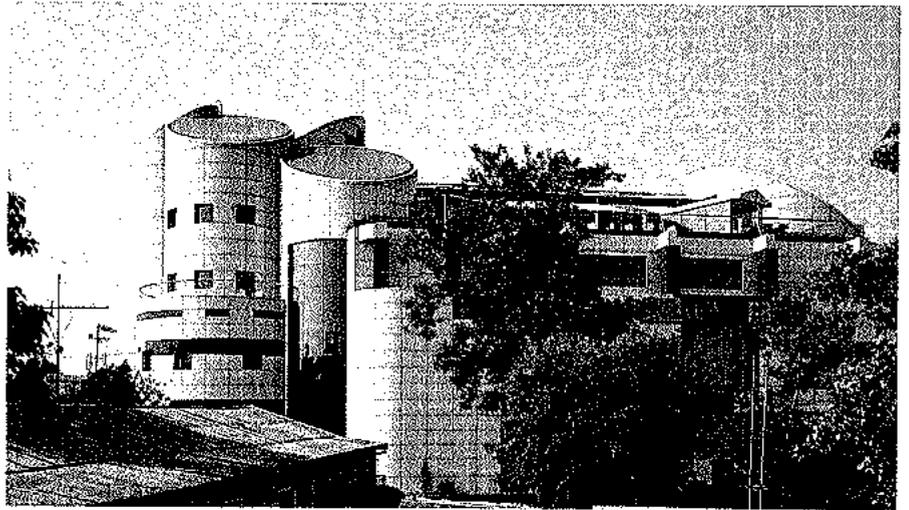
3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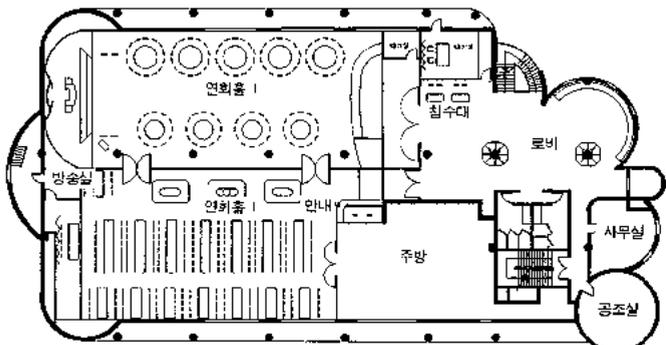
측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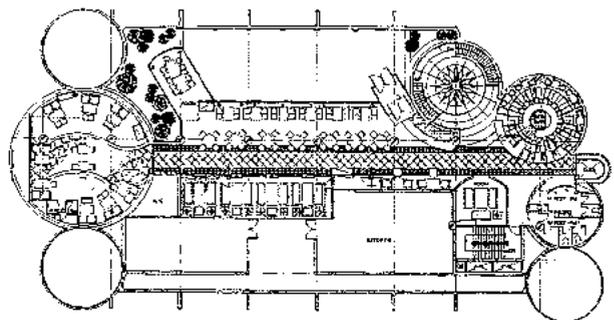
좌측면도



복측 전경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거봉 웨딩 프라자

Keobong Wedding Plaza

文淑卿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문
Designed by Moon Suk-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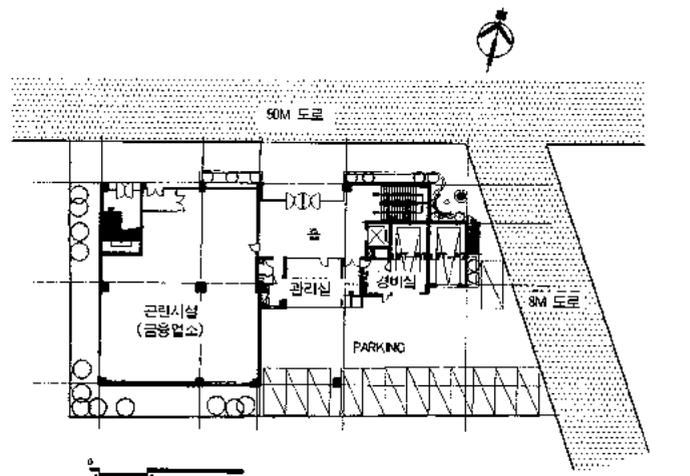
북측전경



예식홀 전경



서측전경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899-6
 대지면적 / 1,326.50㎡
 건축면적 / 675.22㎡
 연면적 / 7,395.89㎡
 건폐율 / 50.90%
 용적률 / 399.39%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화강석바너구어,
 드라이버트, 커튼월
 기계설비 / 무에청우
 전기설비 / 무에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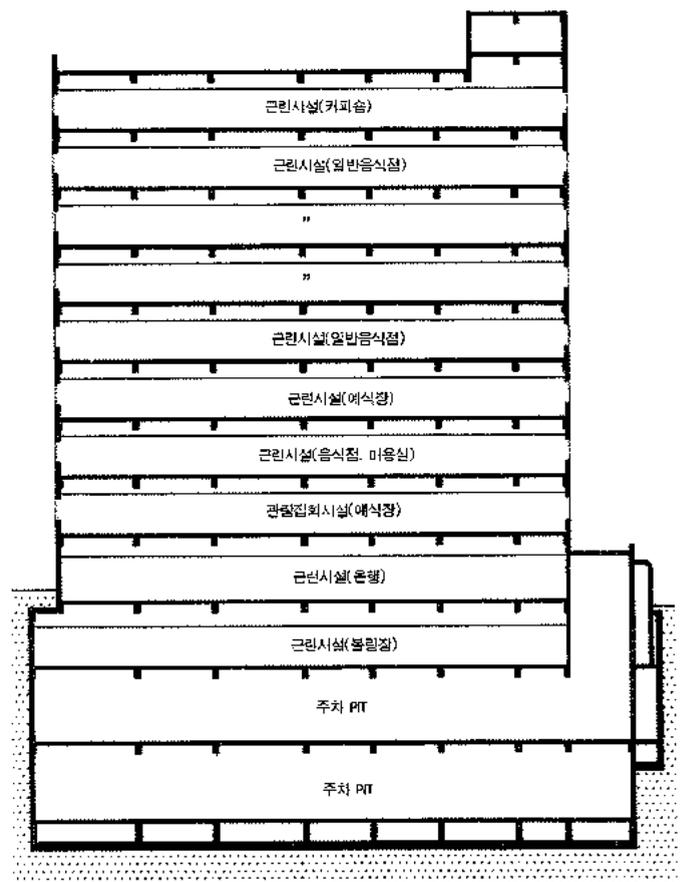
Location / 899-6, Toksan-dong,
 Keumcheon-gu, Seoul
 Site Area / 1,326.50㎡
 Bldg. Area / 675.22㎡
 Gross Floor Area / 7,395.89㎡
 Bldg. Coverage Ratio / 50.95%
 Gross Floor Ratio / 399.39%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9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 / Granite
 Mechanical Services / Muae Cheongwoo
 Electric Installation / Muae Cheongwoo



예식장 로비



북동측 전경



형단면도



계단실에서 본 홀 내부

일을 시작할 때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CLIENT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관심(?), 법적인 제반의 제약으로, 상품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늘 경험하면서 건축에 대한 보람과 긍지보다는 나의 무능함에 비애를 느끼며 그러기에 또한 자성의 시간도 가져본다.

이 프로젝트는 1차 설계를 실패했던 건축주에게 이중으로 치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보답으로 출발했으나, 의외로 건축주가 나에게 보여준 신뢰감과 만족감 덕분에 설계진행이 순조로웠고 그 만큼 책임감도 애착도 컸으리라.

이 웨딩프라자는 교통량이 많아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하고 기존 예식장들이 인접하고 있으며 대로는 자질구레한 건물군들이 무질서하고 무표정하게 늘어서 있다.

표정과 대화가 있고 결혼을 계획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장소로서 기존예식장에 대한 개념의 차별화에 역점을 두고 고정관념이나 편협된 사고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자동차 출입은 대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동측 8m 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물의 양쪽 SIDE에 각각의 계단을 두어 동시에 유입되고 이동하는 하객을 분산시켰으며 주차장에서 동선은 외부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약실은 1층에 두고 2,3,4 층에 예식홀로서 중간층인 3층에 폐백실, 드레스실, 이 미용실을 두어 동선의 교차를 분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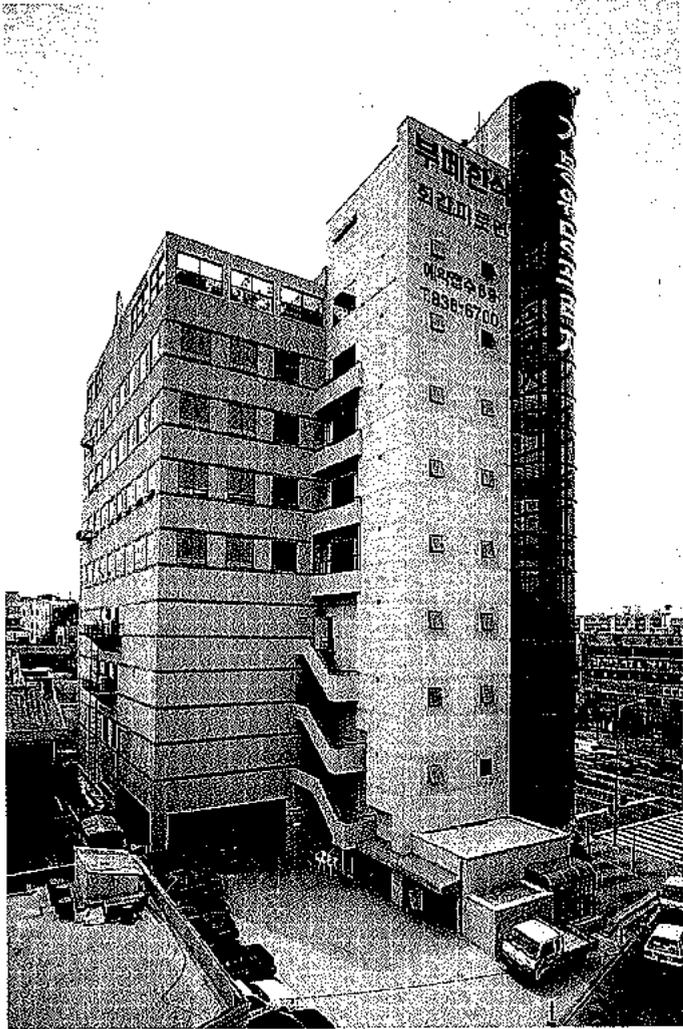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계단의 외벽을 커튼월로 처리하여 자연채광의 유입을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 시켰다.

하지만 임대공간의 최대 확보에 따른 1층홀의 다소 편협함과 예식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인 주차만을 옥외에 설치하고 지하층에 기계식 주차로 해결했다.

일시에 밀려드는 차량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위안하며 경제적인 여건으로 외장재료의 선택에도 다소의 아쉬움이 남지만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만족감보다는 부족함이 남기에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마감한다.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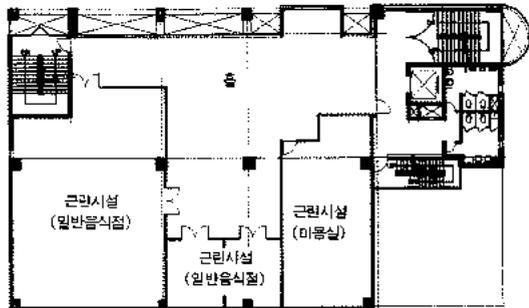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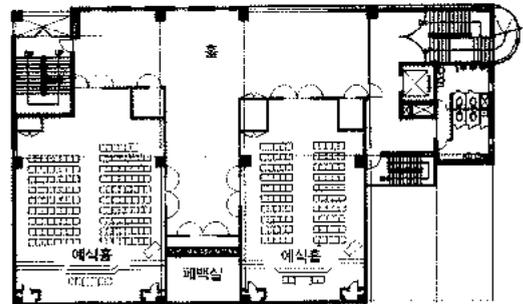
2층 예약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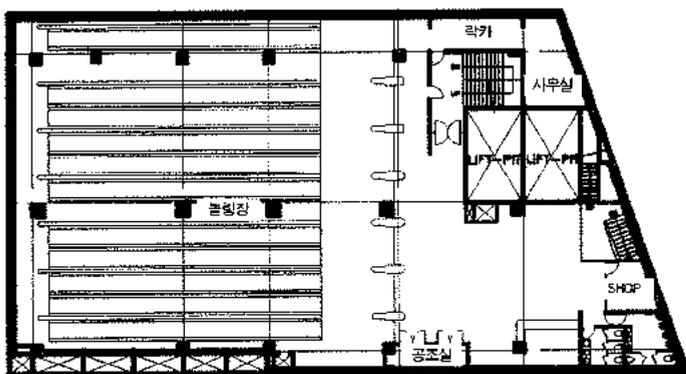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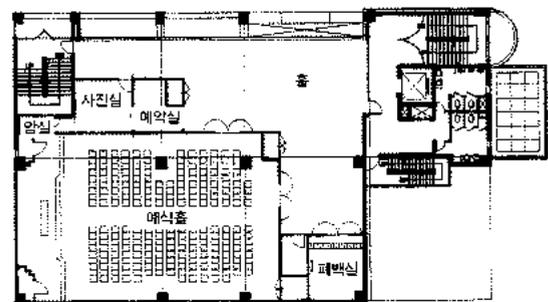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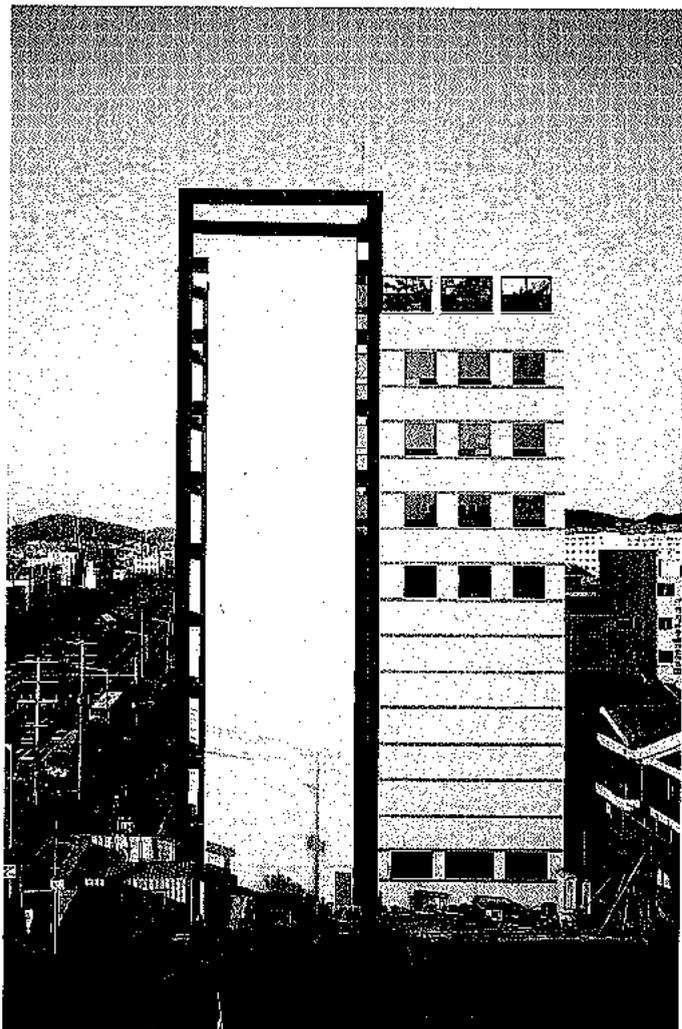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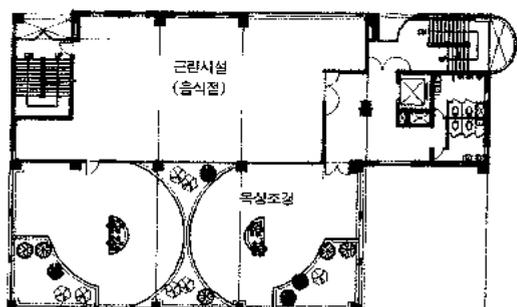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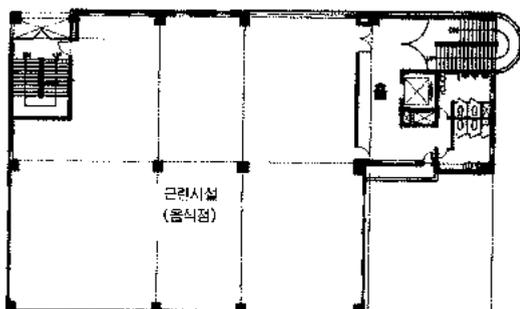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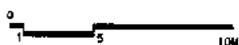
서측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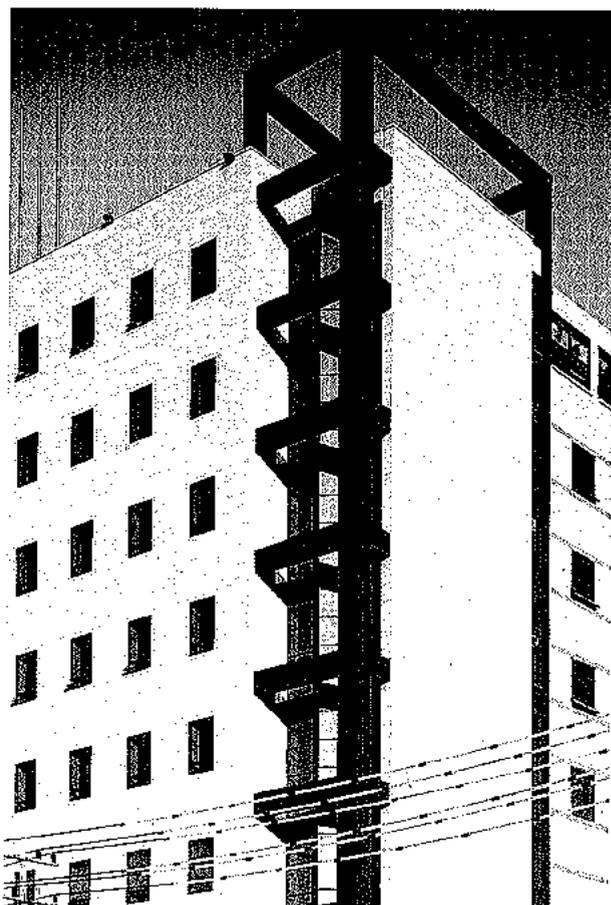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5~8층 평면도



지상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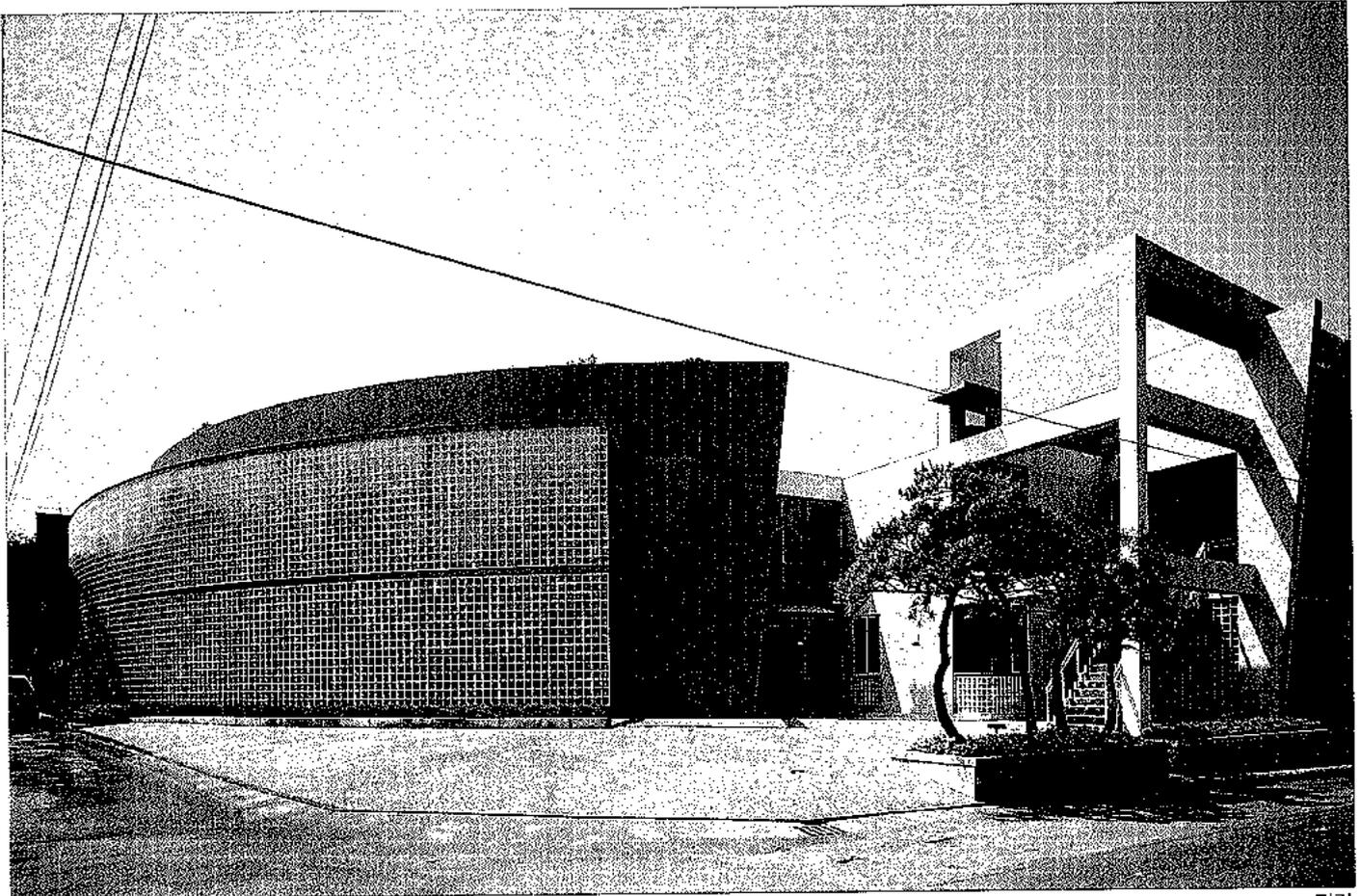


북서측 벽면 상부 디테일

대나무 집

Bamboo House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Sub



전경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8-8, 9, 10

용도 / 근린생활시설

지역·지구 /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 1,004.9㎡

건축면적 / 518.13㎡

연면적 / 1,801.76㎡

건폐율 / 49.42%

용적률 / 92.66%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미감 / 타일 위 수성페인트

설계담당 / 홍성현

건축주 / 정양선

시공자 / 신간수

설계기간 / 1993. 3. 1~1993. 9. 30

공사기간 / 1994. 10. 1~1995.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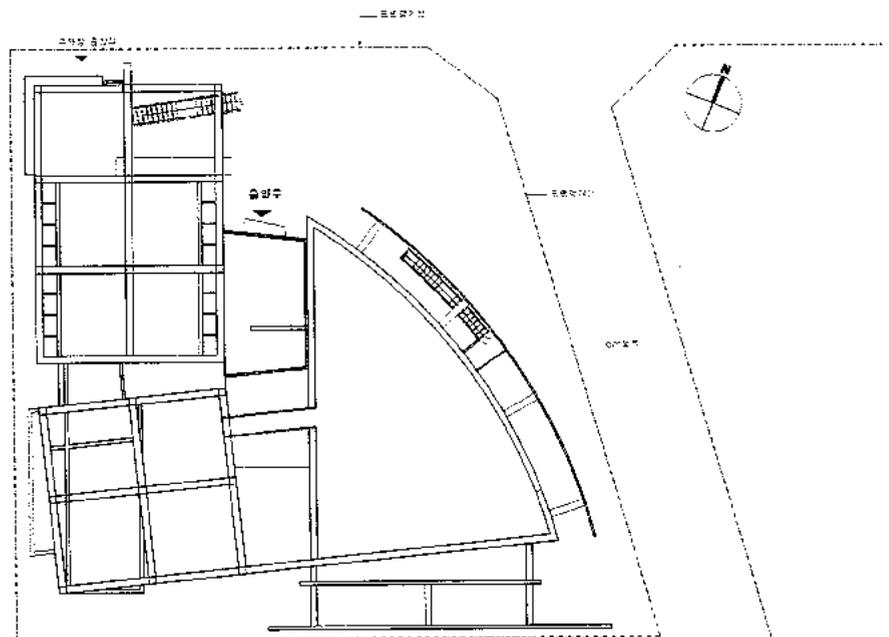
구조설계 / 명일구조 명광호

살비 / 범창엔지니어링(주) 남창호

전기 / 서창엔지니어링(주) 이래실

조명·인테리어 / 건축문화 설계연구소

조경설계 및 시공 / 이윤정조경연구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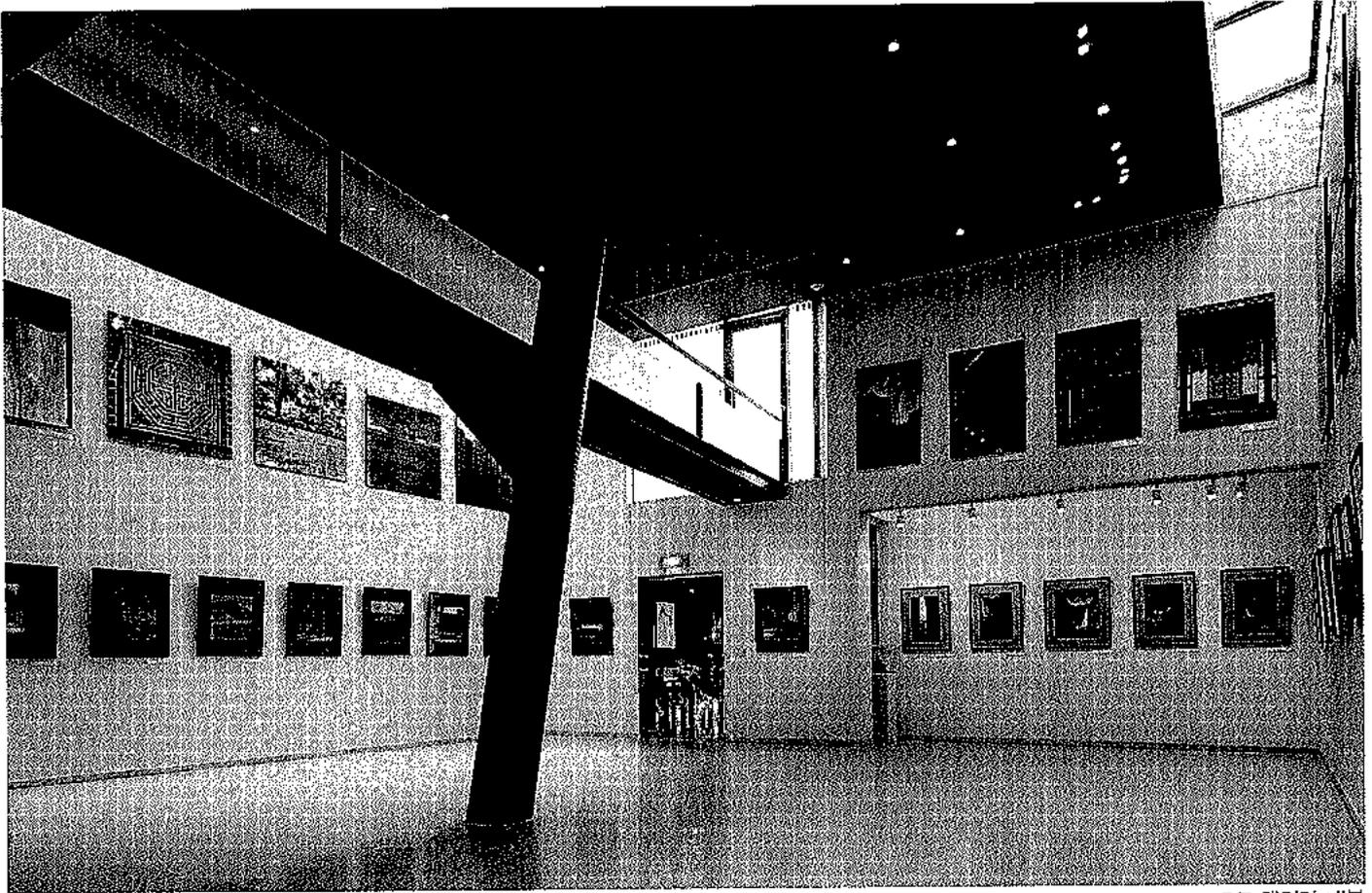


B/B 갤러리로 올라가는 진입계단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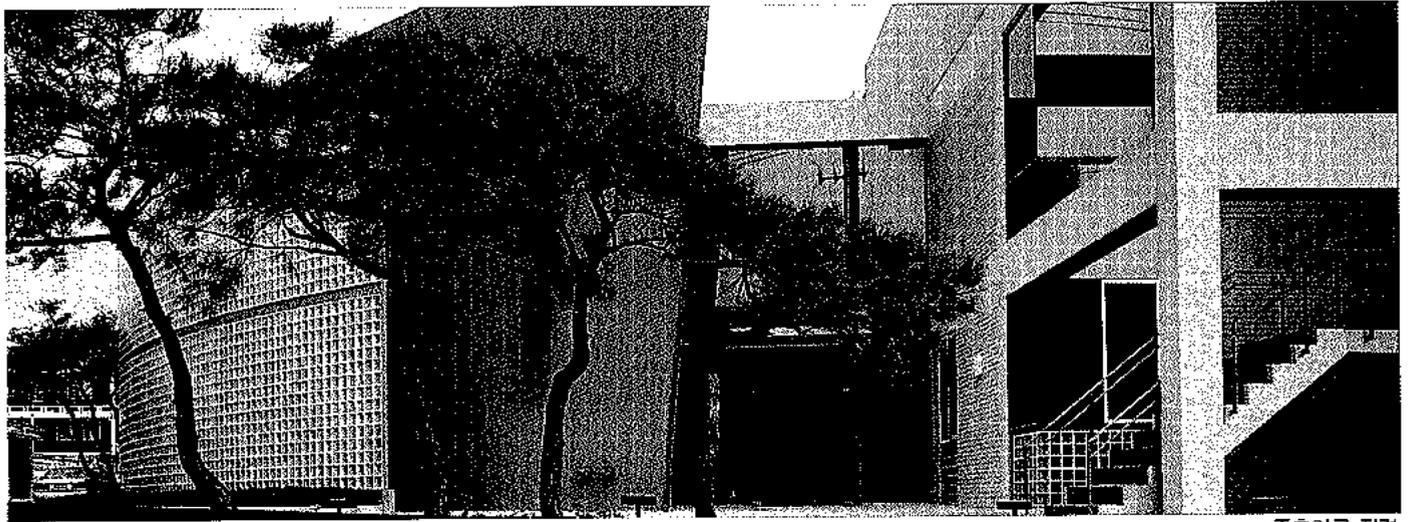


긴 원호의 유리블럭 안쪽에서 본 갤러리 진입계단

Location / 153-8, 9, 10 Yeoksam-dong, Kangnam-gu, Seoul
 Use / Neighborhood
 District / Residential
 Site Area / 1,044.9㎡
 Bldg. Area / 516.13㎡
 Gross Floor Area / 1,801.76㎡
 Bldg. Coverage Ratio / 49.42%
 Gross Floor Ratio / 92.66%
 Bldg. Scale / 1Story Below Ground, 2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Exterior Paint on the Tile
 Designer / Hong Seong-Cheon
 Client / Cheong Yang-Seon
 Constructor / Shin Keon-Soo
 Designer Term / 1993. 3. 1~1993. 9. 30
 Constructor Term / 1994. 10. 1~1995. 6. 30
 Structural Design / Myeong-il Structure(Myeong Kwang-Ho)
 Mechanical Services / Peomchang Engineering Co. LTD
 (Nam Chang-Ho)
 Electric Installation / Seochang Engineering Co. LTD
 (Lee Rae-Seol)
 Lighting · Interior / Keonchuk Munhwa Design Research
 Institute
 Landscaping / Lee Yun-Cheong Landscaping Research Institute



B/B 갤러리 내부



주출입구 전경

대나무집은 93년 이른 봄에 설계에 착수하였던 (舊)鳥竹軒의 새 이름이다. 기실 전으로부터 그만 그만한 현대판 건물을 지어놓고 갑자기 옥호를 옛날식으로 軒(현)이니 齋(제)니 堂(당)이니 하는 말을 붙이는 최근의 풍조가 어찌지 마음에 들지않아, 이것을 어떻게하면 피할 수 있을까 하고 수십년 마음 한 구석에 품고가야 할 숙제처럼 남겨두었는데 집이 완공될 즈음에 다행스럽게도 건축주가 BamBoo House로 상호를 새롭게 바꾸자고 하여 나도 부담없이 대나무집으로 이 글의 제목을 쓸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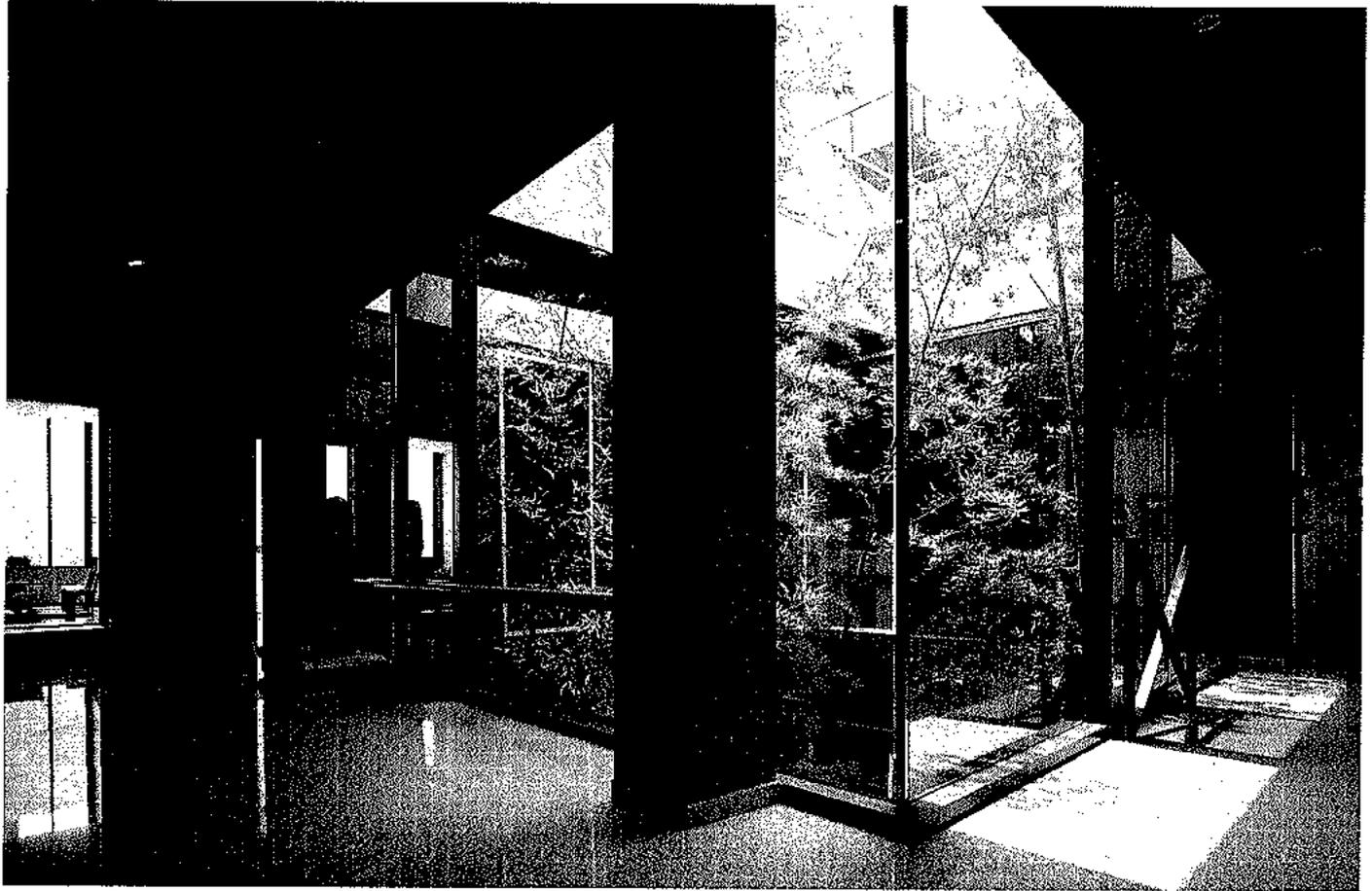
BamBoo House의 주위환경은 높이 11m이하 2층 이하의 주택만이 허용되는 주거전용지역

이다. 다만 1993년 한해 동인은 경과조치법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 신축이 허용되어 이 건물의 탄생이 가능하였는데 그 해에는 서울시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한 해에 4번씩이나 늘었다 줄었다하여 설계변경의 곤욕도 치루고 해서 손해가 막심한 해이기도 하였다. 가각으로 돌아가는 가로변에 La Maisan de Verre처럼 반쯤 Transference를 한 유리를벽으로 긴 호를 그리고 있는 BamBoo House 옆에 가로 붙어 있는, 입구에 계단을 걸어 놓은 곳을 따라올라가면 대여전시장이인 갤러리 B/B의 아담고 작은 현관과 마주한다.

낮동안은 온통 빛의 공간인 갤러리에 들어서면 잠시 옆에 다른 공간(음식점)이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게 된다. 그러나 곧이어 이질적이고도 다양한,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옆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곧 알게 된다. 하지만 나는 이 소요와 명상의 공간에서 떠나지 않고 그만 머무르고 싶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그 곳은 세상사람들의 차지이고 그들의 공간이다. 음식점을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할 것이다.

그리하여 (舊) 오죽헌, 오늘의 대나무 집을 설명하자면 2分法을 택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다. 즉, 음식점과 갤러리라는 이질적인 기능



2층 복도에서 본 중정

을 한 건물에 넣은 일 부터가 선뜻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 관계설정이기에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몇가지 전제를 미리 2分法으로 설정해 놓고 이 project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상황이 기억난다.

이 건물이 흔재와 상반된 요소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었던 설계 당시의 일들을 드문 드문 생각나는대로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우리 음식을 돌로 된 양식탁에서 로스트비프와 함께 먹는 일

2. 색색가지 많은 반찬이 따르는 우리 음식을 통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식탁 위의 그릇이라도 백자색 하나로 맞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릇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어둠속에서 침묵 지키도록 만들어버리는 일.

3. 실내의 어두움 속에서 창밖의 대밭이 시원하고 밝게 보이게 하는 일과 깊은 공간에도 바람과 자연광이 끌고루 스며들게 하는 일.

4. 다중의 고객이 드나드는 음식점과 양립되어 있는 주변의 조용한 주택가를 평화롭게 서로 공존시키는 일.

5. 일, 이층 독립된 4개의 Zone로 나뉘어 있는 한식당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주방과 카운터의 위치를 정하는 일.

6. 식탁과 화장실의 분위기를 연계 분리시키는 일: 모든 테이블의 익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두운 공간을 연출하는 일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 쾌적하고 밝은 공간으로 반전시켜 자연스럽게 전이시키는 일.

7. 식당-어둠의 계단, 갤러리-빛의 계단으

로 만드는 일

8.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아주 조심스러운 몇가지 시도: 홀에 위치한 좌석 4개의 칸막이는 Giuseppe Terragni의 Casa del Facio의 네 가지 입면을 모방하여 만든 parody 技法, 고정된 벽돌에 적용시킨 낙선재와 경복궁의 꽃담, 이 두가지를 한 공간에 병치시키는 일.

9. 옥상 정원에서 바라보이는 주위의 흔재된 스카이라인과 옥상의 조경을 반반씩 바라보게 하는 일.

10. 지극히 절제된 것처럼 보이는 갤러리 분위기를 가로 지르는 푸른 기둥과 붉은 다리의 오브제, 높은 공간과 낮은 공간이 가지는 낮과 밤의 다른 얼굴, 반전된 분위기

즉 이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수 많은 상반된 명제들과 흔재되어 있는 요소들은 어찌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품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사회상황과 문화(문화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건물 한두채가 아무리 세련되고 정제된 형태로 지어진다하여도 도시 전체에 이미 스며 들어버린 전염성이 강한 흔재라는 불치의 병 때문에 막 새로 탄생된 이 건물도 그 흔재의 속성을 이미 지니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끝도 없이 잡탕과 비빔밥으로 얼버무리진 우리의 도시와 길위에 또 하나 밖으로 툭 불겨져 나오는 건물을 세우는 일을 언제부터인가 극력 피하는 경향을 취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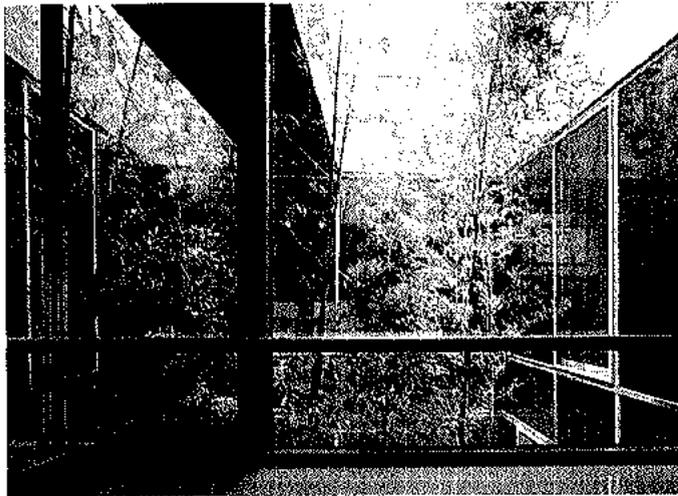
어쩔수 없는 경우조차도 외관과 껍질만은(많은 비의를 담은 표피의 역할로서)단조로운 은유의 수법을 동원하여 이를 감추고 포장치는 일로서 흔재의 거리에 흔재의 건물을 더 하는 일을 삼가도록 노력해 왔다. 이 대나무 집 밖에서 보면 나는 그나마 어설픈게 많은 나의 원단으로 만든 포장막을 치는 일을 가까스로 해 낸 것 같다. 아울러 여기에는 나의 前作 연남동 주택과 서대신동 주택에서 썼던 프레임과 가로줄 무늬의 벽이라는 단순 어휘의 반복 사용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만드는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Identity를 확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겠다. 그러나 한 번 본 것에 금방 식상하는 요즈음의 세대에서 서너번이나 쓰기에는 그 원단이 이미 낡은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받는다면, (스카알렛이 타리의 집 초록색 비로드 커튼으로 해 입을 외출복 같이)

오죽헌에서 소박한 이름의 대나무집으로 옥호가 바뀐것 처럼 나는 다시 실 찾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처럼 처음으로 돌아가 물레 앞에 다시 앉아 있는 수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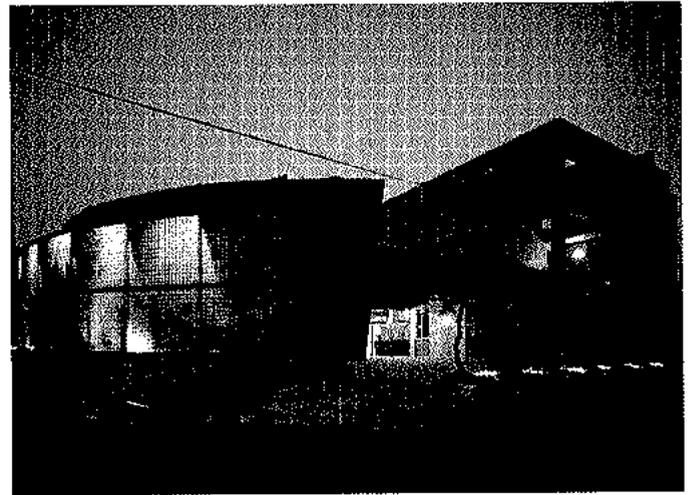
P.S. 그 전의 오죽헌 집터에는 "부산 망이동(원조)아미어구썸 서울진출"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리고 개업식도 하기 전에 대나무집은 첫 손님으로 서울 건축학교의 초청강좌를 기꺼이 자원했던 렘 클라스씨와 서울건축학교를 운영하는 건축가들을 반겨 맞는……흔재의 시범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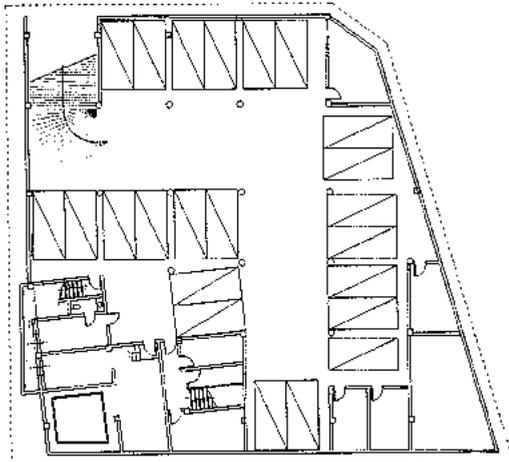
위에서 내려다 본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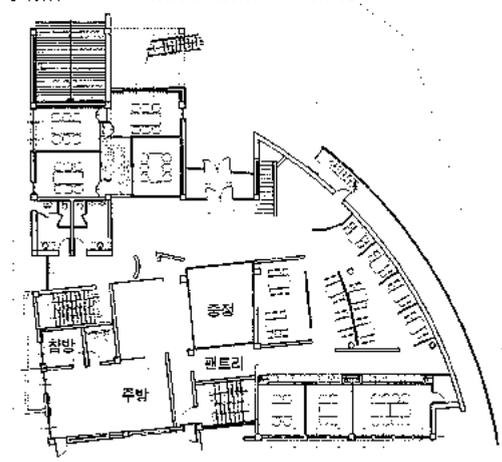
2층 복도에서 본 중정



야경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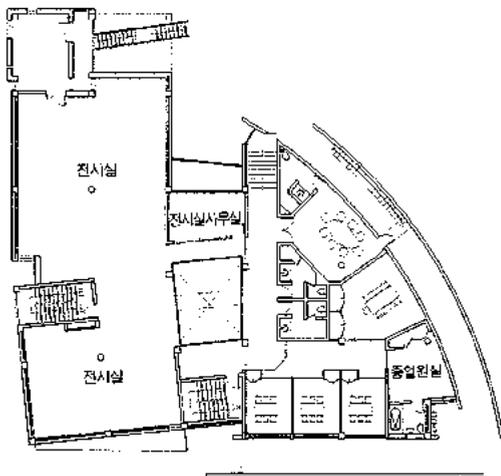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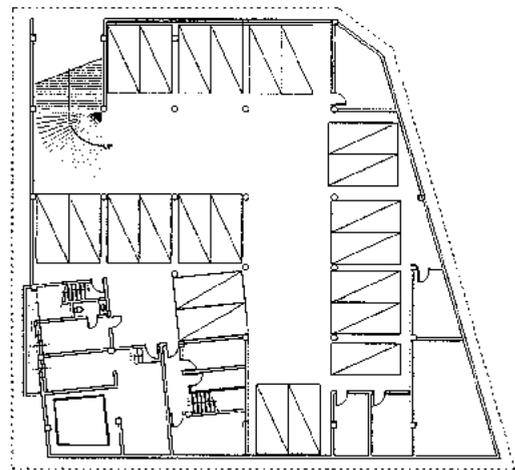
옥상 전경



음식점 홀



2층평면도



지붕층평면도

삼성동 현대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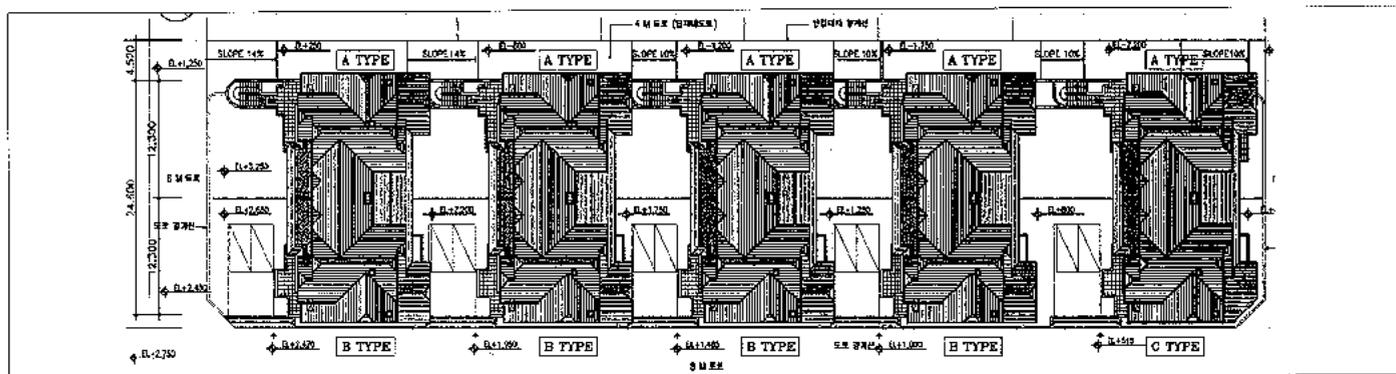
SamSung-dong Hyundai Villa

(주)다산건축

Designed by Dasan Architects & Engineer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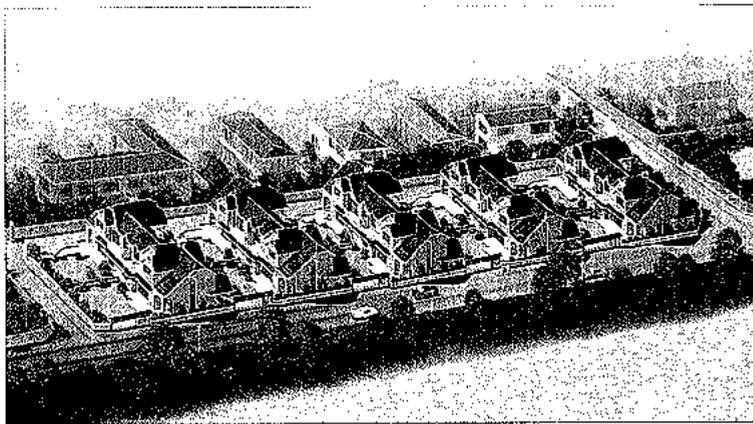


남측 전경



단지 배치도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1-2
 지역 · 지구 / 전음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3,367.80㎡
 건축면적 / 1,352.70㎡
 연면적 / 2,928.83㎡
 건폐율 / 40.17%
 용적률 / 64.91%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조적조
 공사기간 / 94. 4~95. 6
 설계협력 / 현대건설 주택사업부
 시공자 / 현대건설(주)
 건축주 / 현대건설(주)



조감도



위에서 본 단지 전경



주호 전경



주호 투시도

Location / 61-2, Samsung-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 Residential, Parking
 Site Area / 3,367.80㎡
 Bldg. Area / 1,352.70㎡
 Gross Floor Area / 2,928.83㎡
 Bldg. Coverage Ratio / 40.17%
 Gross Floor Ratio / 84.91%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Fair-Faced RedBrickwork
 Construction Term / 94. 4~95. 6
 Design Cooperation / Hyundai Eng. & Const. Co.
 Constructor / Hyundai Const. Co.
 Client / Hyundai Const. Co.



거실전경

대지조건

삼성동 61-2의 부지는 강남의 몇 안되는 전용주거지역으로, 3,367.8㎡(1,018.75평)규모에 약 110m×31m 크기의 북동쪽으로 경사진 대지이며, 길이와 폭 각방향에 약 3m의 높이차가 있다.

부지 남동쪽에 8.0m의 도로와 면하여 경기고등학교가 있고, 북서측으로 단독주택들과 인접해 있다.

주변의 큰 건물로는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있으며 영동대로와 새로 건설될 전철역이 있어 교육, 주변환경, 교통의 편리함 등으로 최적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계획개요

전용주거 지역이지만 공동주택이 가능한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2가지의 관점을 갖고 접근했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성과 일반적인 이 시대의 주거문화가 요청하는 주택의 이상향에 대한 것이 그것이며, 상반된 목표인 두 가지의 공통해가 화두가 되었다.

현재도 그러하거나와 향후 서울도심의 주택상황을 추정해 볼 때, 대지 효율성 제고와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단독주택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공동주택이 그 위치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자칫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기 쉬우며, 설사 그것이 하나하나가 좋은 주택의 집합이더라도 좋은 단지가 될 수는 없다. 관유하는 질서와 원칙있어야 하며, 관리성-삶의 편리성-이라는 것으로 잃어버린 흥예의 원래적 향수를 갖고 있으면 더욱 좋다.

진정한 주거 환경은 삶을 수용하는 과정뿐 아니라 입주후 관리까지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관리형식에 단독주택의 공간소유가 가능한 주거형식이 이 시대의 생활문화가 요청하는 이상향으로 규정하고, 독립된 정원을 소유한 2호 연립을 하나의 원형으로 추출해 내었다.

방향설정

각 세대는 사적 정원을 소유하고, 도로에 접해 있으며 각자의 대문을 통해 건물의 정면을 바라보며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적 즐거움을 갖는다.

각 정원은 세대간 및 인접동으로부터 프라이버시가 잘 확보되어야 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단지계획

정렬한 각동들은 단순한 병치는 아니다. 반복되어 형성되는, 사이(間)에 의해 있음(存在)이 부각되는 Identity 있는 공간이다.

부지가 갖고 있는 종횡3.0m의 Level차를 극복하기 위해, 동서축상의 차는 병렬한 5동의 앞뒤 정원의 높이 조절로 흡수하고, 2동식 연립한 남북축상의 차는 북측 낮은 쪽에 단지내 도로를 설치하여 지하 Level에서 계단을 통해 정원으로 진입 시킨다. 정원 Level에서의 균질한 공간 확보로 단지 전체에 안온감과 시야의 확장(정원의 확장감)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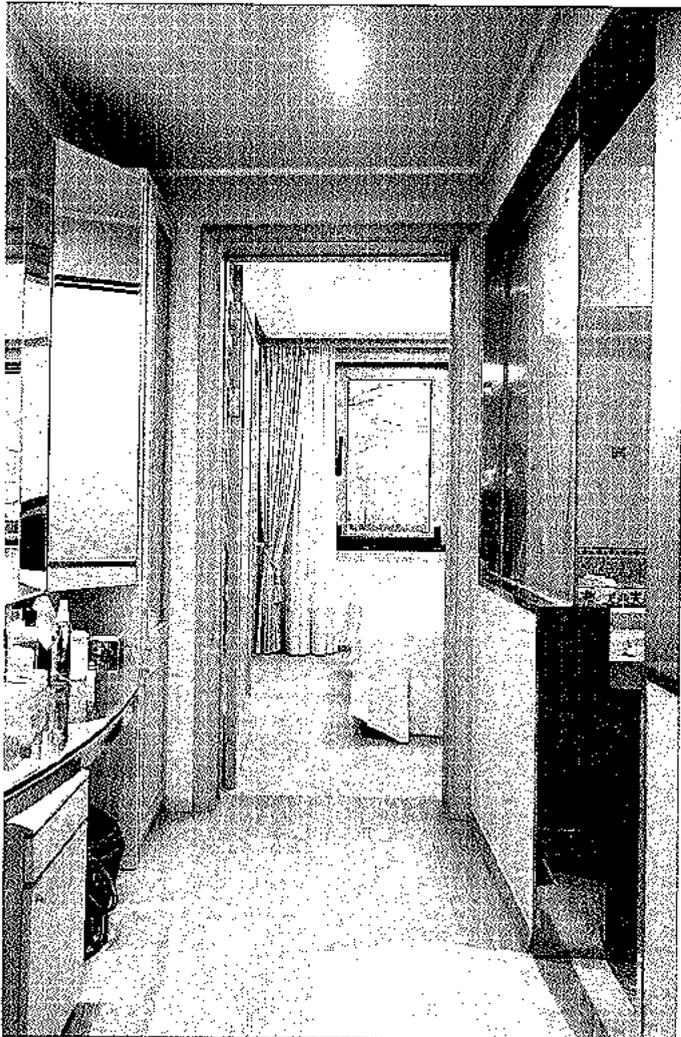
적정한 정원에 폭과 깊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동거리의 확보와 볼륨의 절가 필요했다.

형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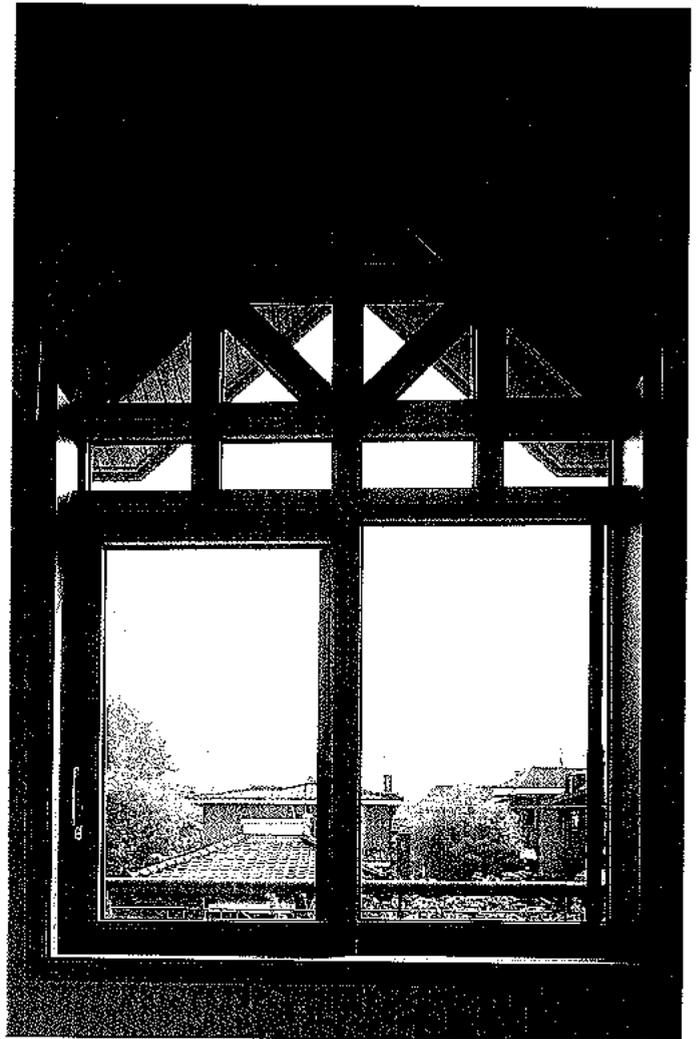
동일한 외관으로 단지 전체에 결집성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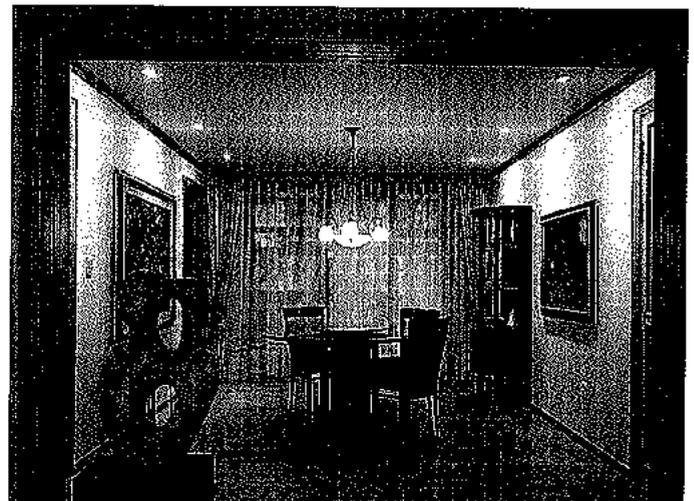
안방에서 본 식당과 침실



안방에서 본 침실



2층 가족실 창 디테일



식당

일성을 주되, 반복된 리듬으로 조화와 조형미 준다.

주호계획

각 주호는 대지 100여평(도로 지분 포함)에 연면적 90평(법적 허용범위)으로 하되 각 세대는 단독형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의 수직체계를 갖는 구조로 한다.

단위세대 평면은 경제성을 위해 Protot-

ype을 정하되 구체적인 Client가 결정되면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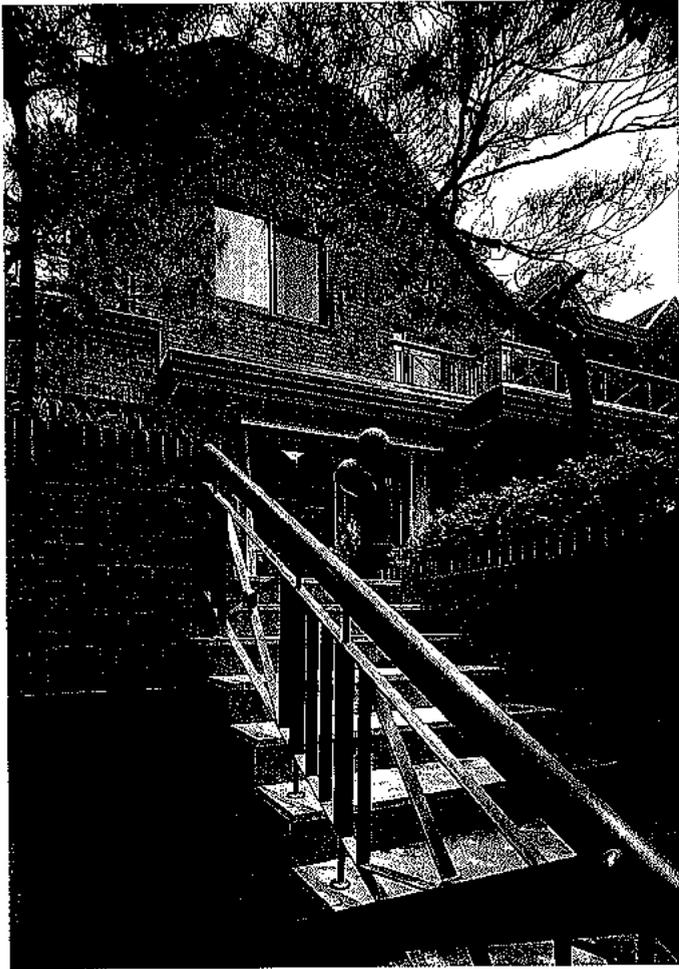
주차계획

세대당 2대씩의 주차로 계획하며 각 주호는 세대안에서의 주차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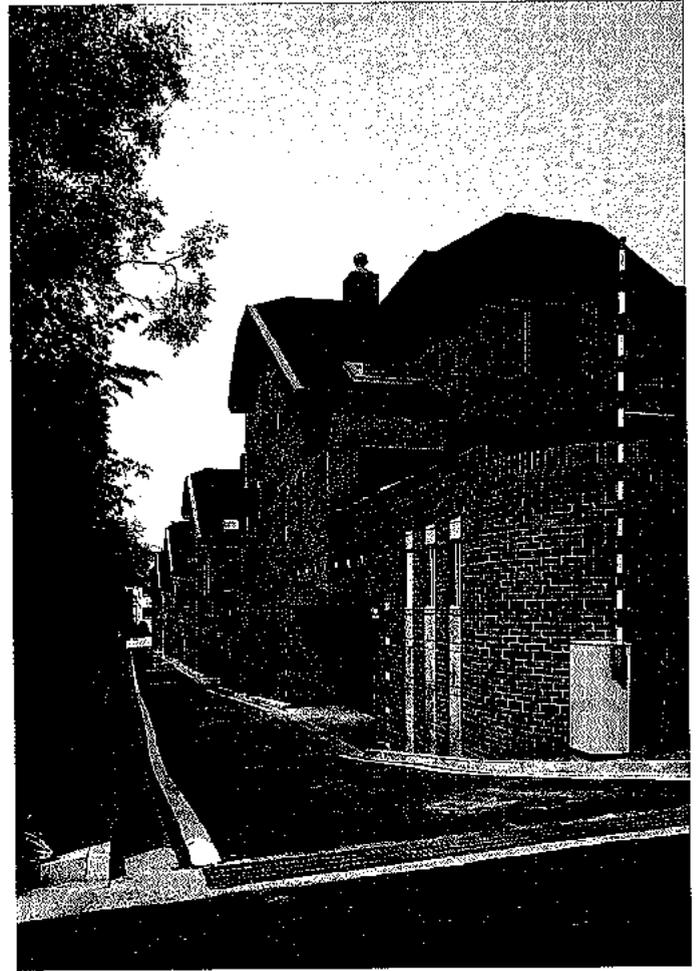
도로에서 직접 정원진입이 가능한 세대는 정원에 주차하며 지하Level에 계단을 이용해 정원에 진입하는 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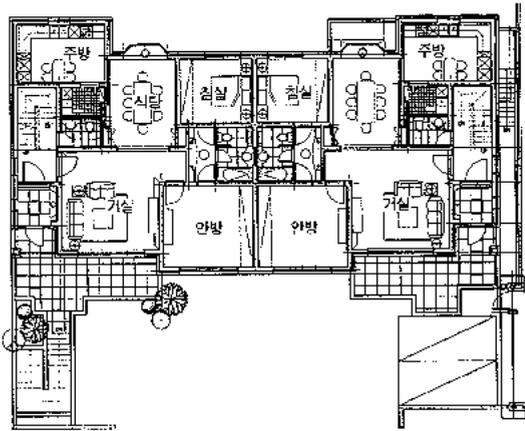
대체적으로 이러한 의도로 계획되어진 삼성동 빌라는 여기에 더하여 이웃과의 만남에서 공동체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배려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기는 하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주거 문화가 무엇이며 이 시대가 가져야할 공간의 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음을 위안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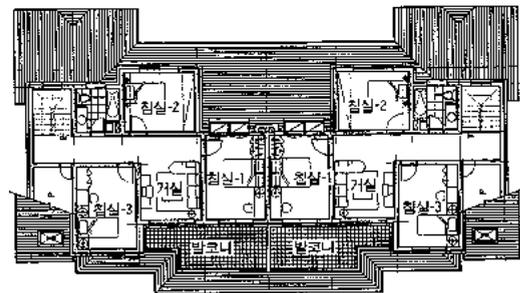
주호 외부계단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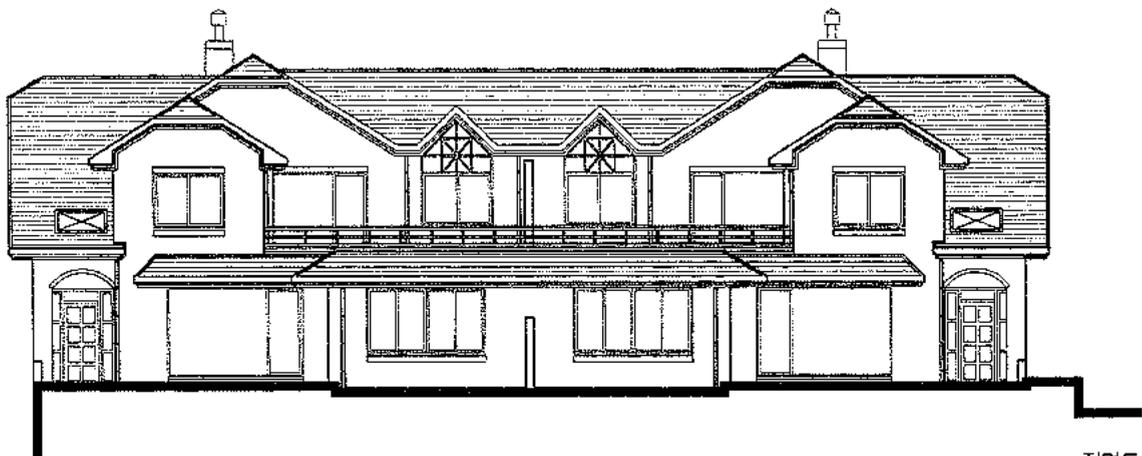
북측에서 본 전경



1층 평면도(A, B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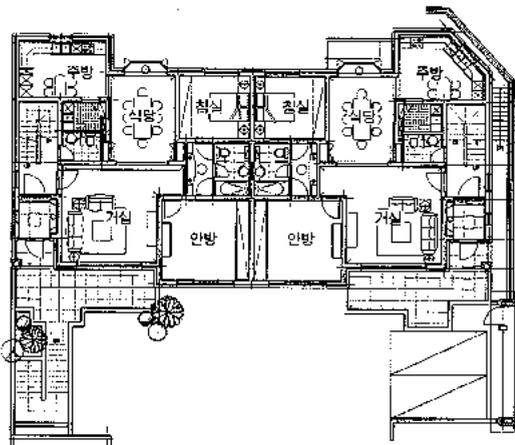
2층 평면도(A, B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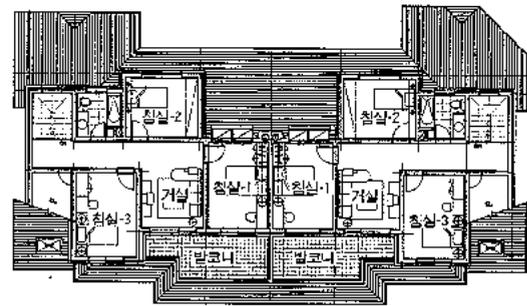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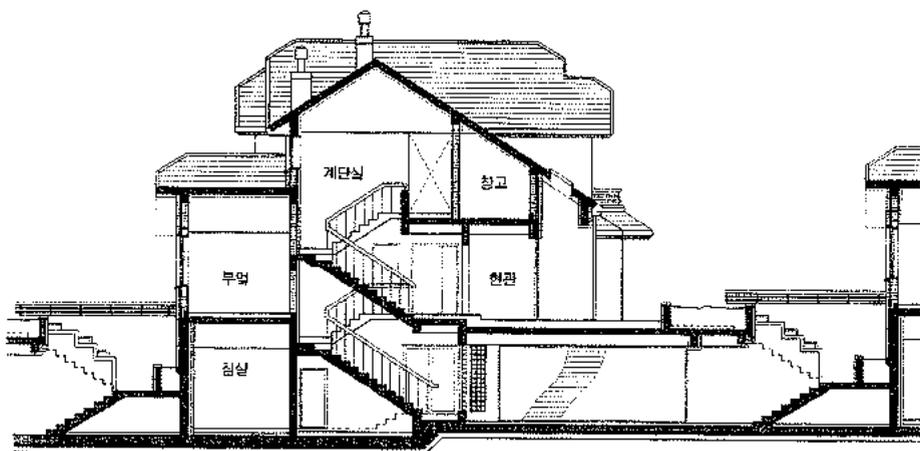
주호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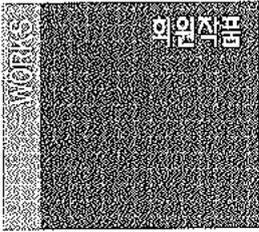
1층 평면도(A, C 타입)



2층 평면도(A, C 타입)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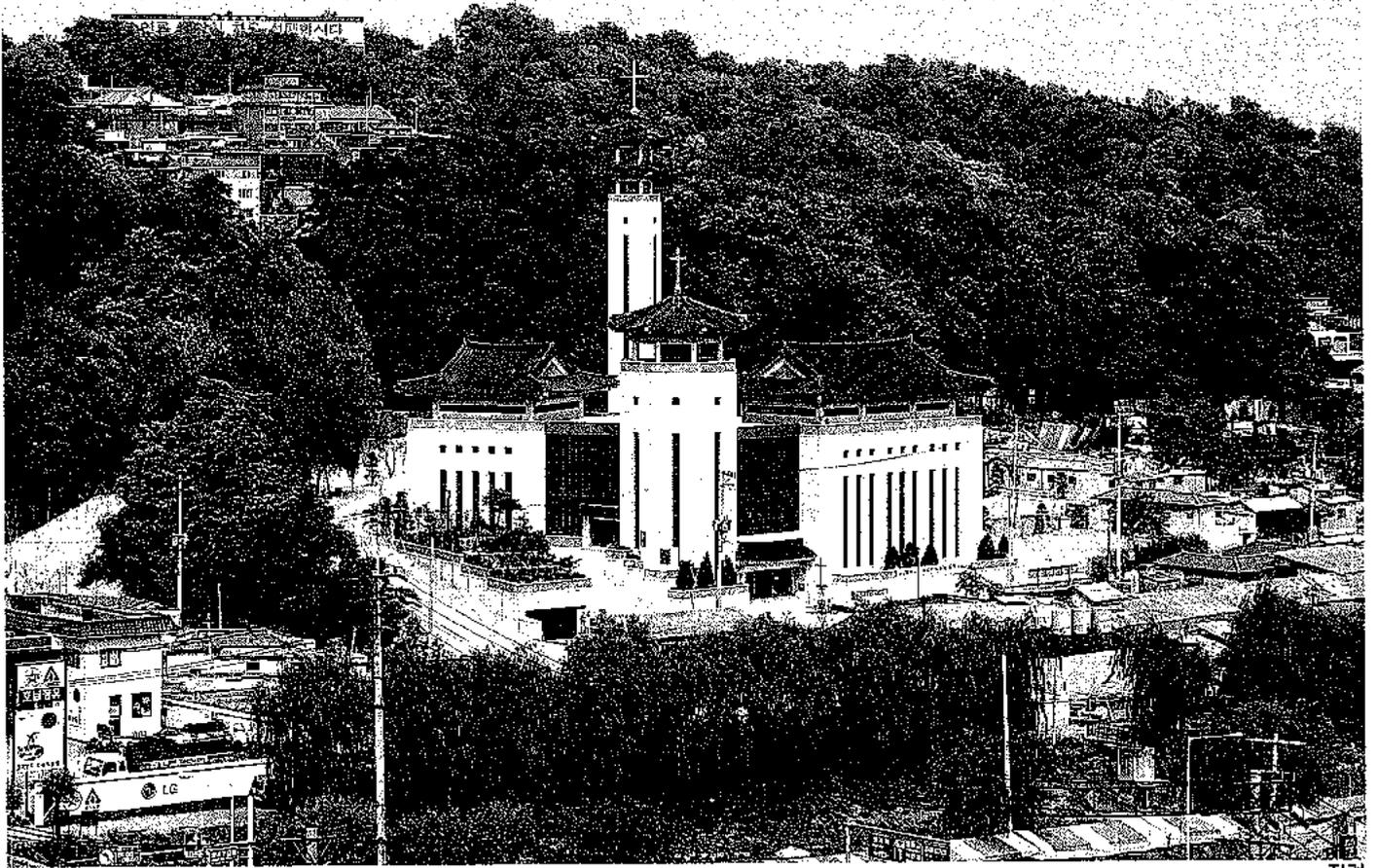


장석교회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崔英集 / (주)건축사사무소 탐

Designed by Choi Young-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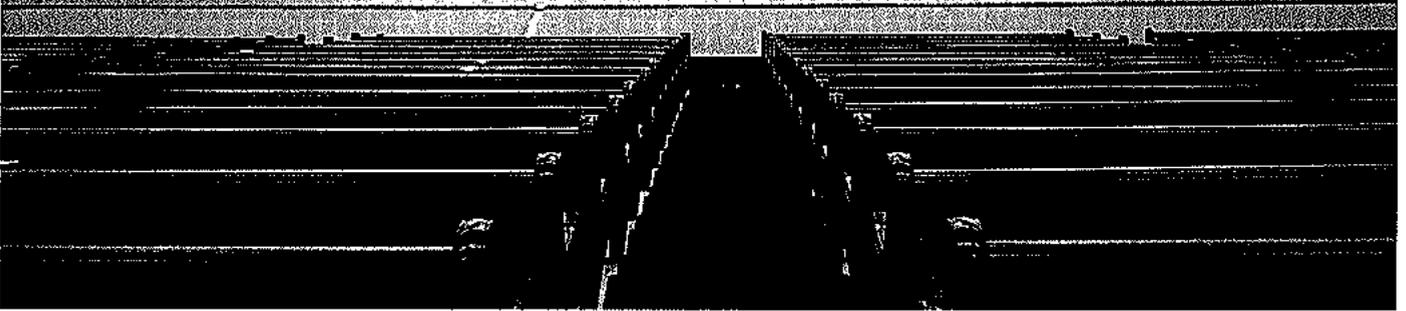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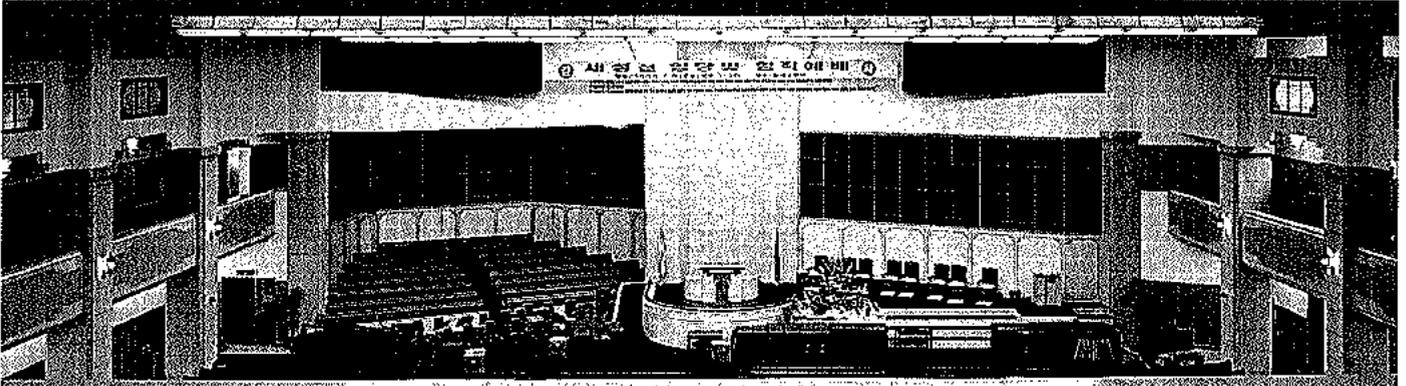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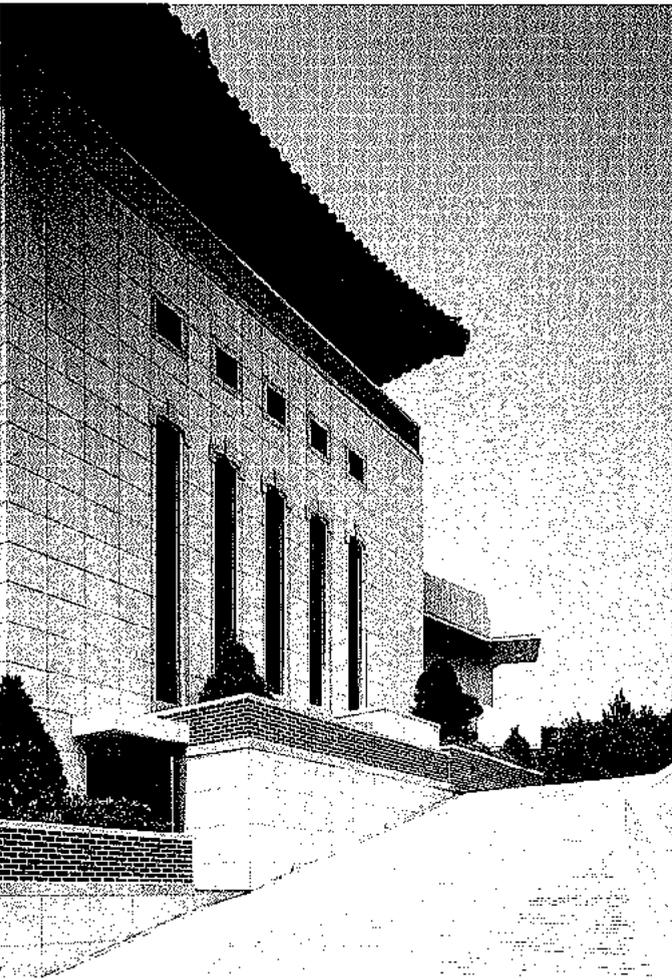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873-1
 주용도 / 교회(대한예수교 경로회)
 대지면적 / 3,561㎡
 건축면적 / 705㎡
 연면적 / 9,947㎡
 규모 / 지하4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연조+Post Tention 공법
 외부마감 / 회강석+전벽돌+한식기와
 설계담당 / 임부식, 박차현, 홍봉진, 강성문, 배일근, 이흥식
 구조설계 / 한시준+V.S.L
 기계설비 / 우일설비
 전기설비 / 문화전기
 건축주 / 장석교회
 설계기간 / 1990. 9~1993. 3
 준공 / 199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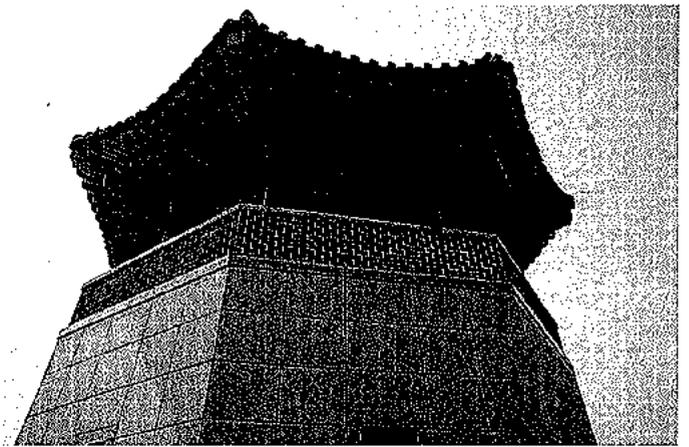
1층 진입계단에서 본 교육관



설교단 전경



안마당 진입부분



팔각정 계단탑 상부

Location / 873-1, Wolke-dong, Nowon-gu, Seoul

Use / Church

Site Area / 3,581㎡

Bldg. Area / 705㎡

Gross Floor Area / 9,947㎡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Granite+Brick+Roof tile

Project Team / Im Pu-Shik, Park Cha-Hyeon, Hong Pong-Chin,

Kang Seong-Moon, Pae Il-kon & Lee Hong-Shik

Structural Design / Han Shi-Chun & V.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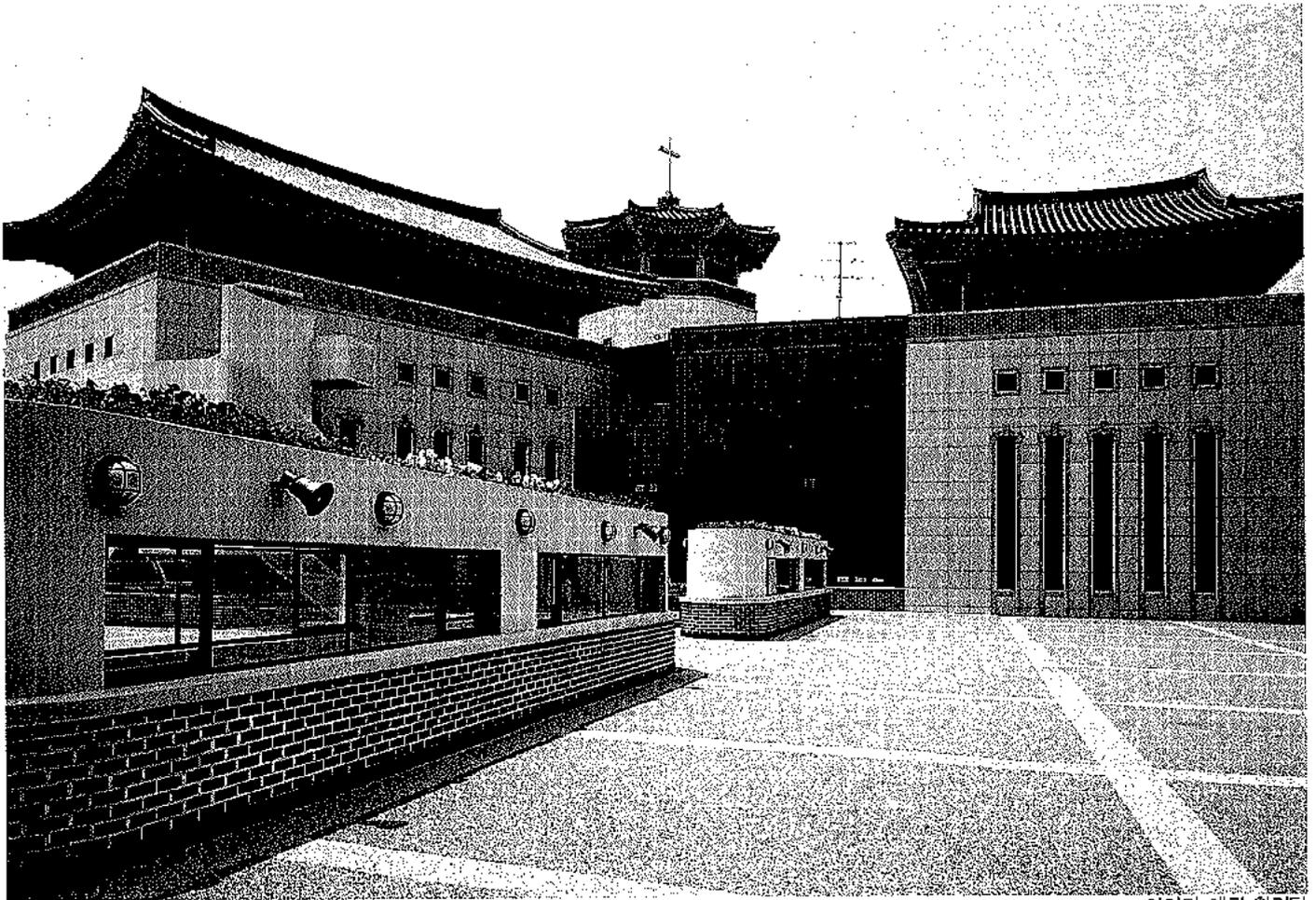
Mechanical Services / U-I

Electric Installation / Mun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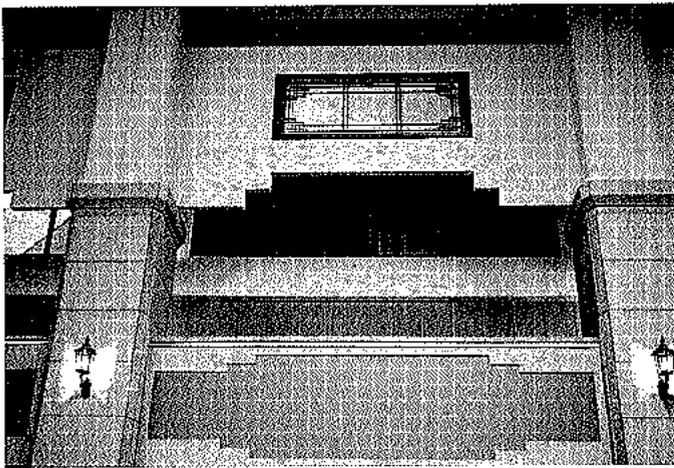
Client /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Design Term / 1990. 9~199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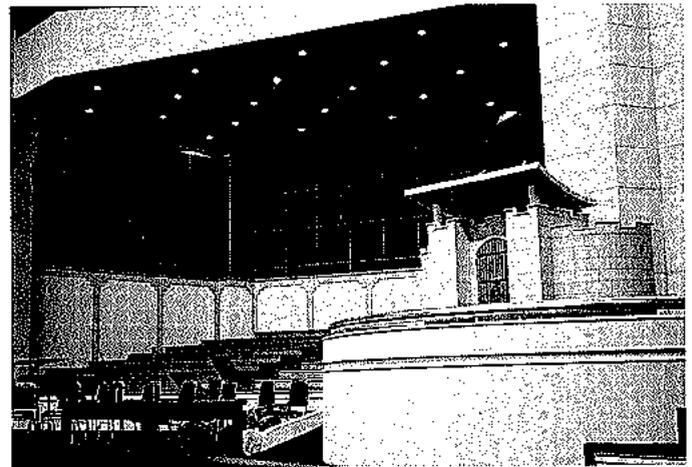
Completion / 199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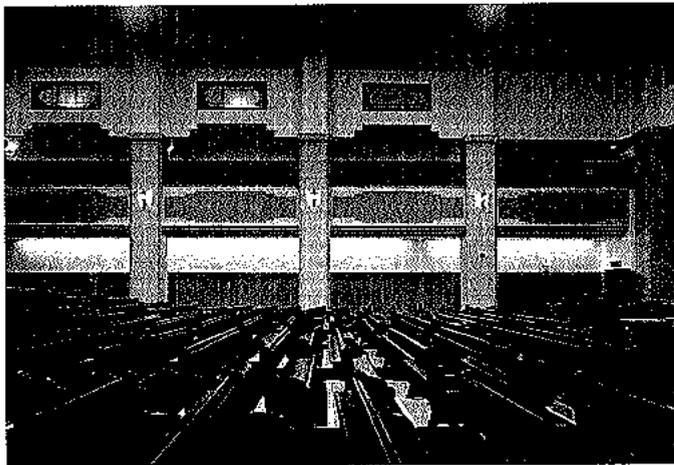
인마당 채광 환기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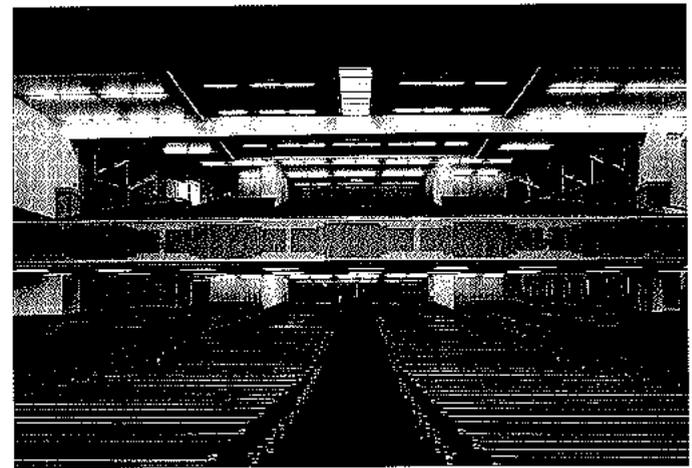
본당 측면 주랑



성기대석



본당 측면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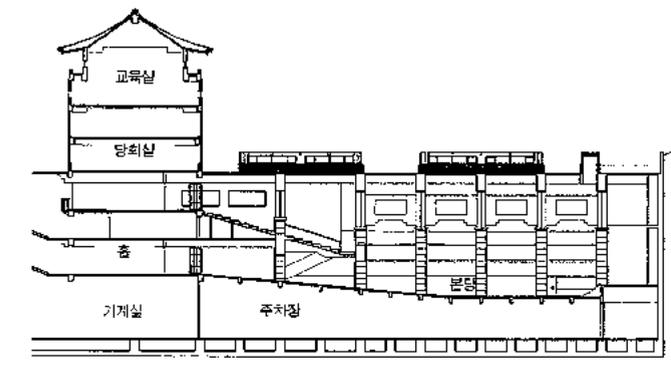
에배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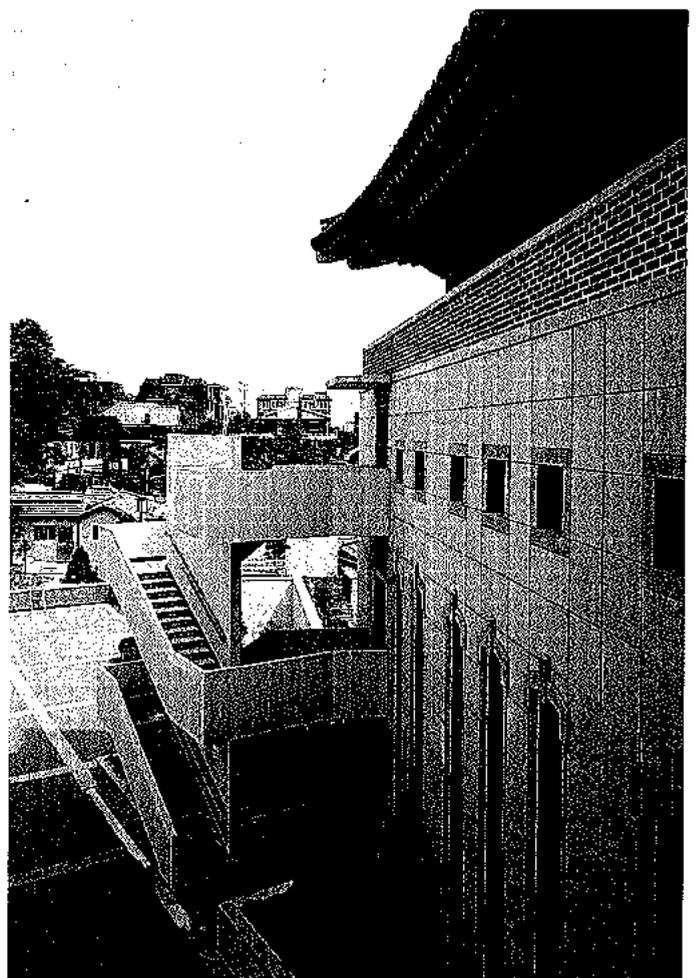
안미당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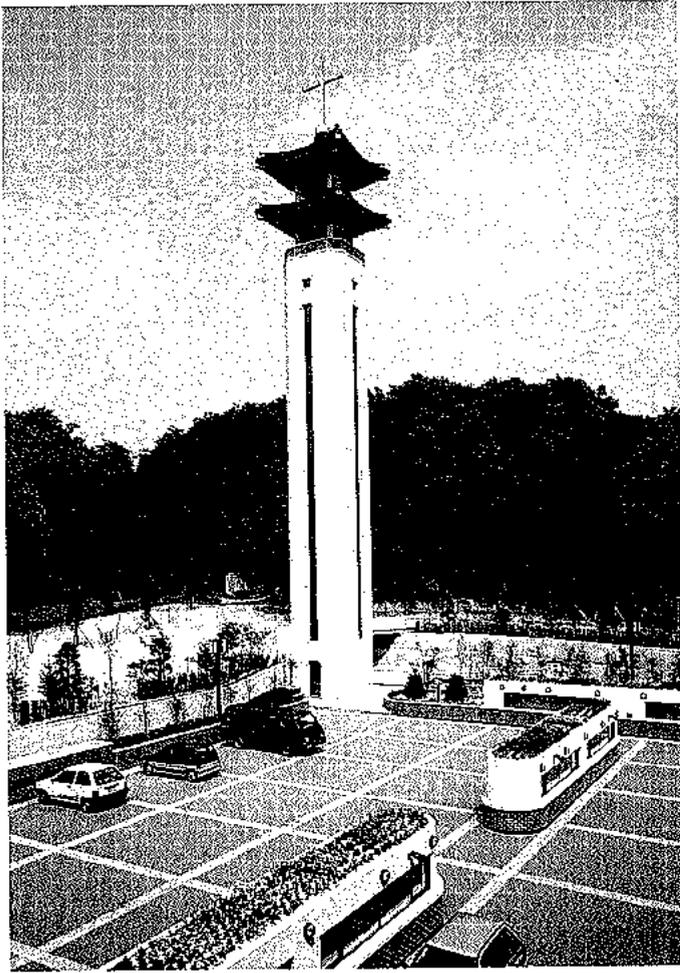
가로변에서의 교회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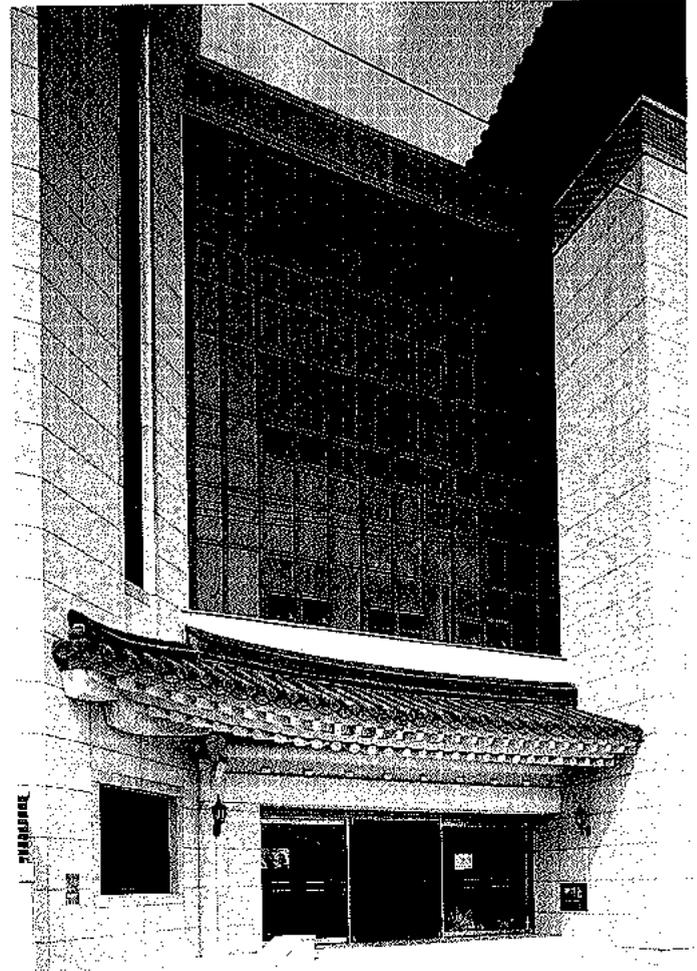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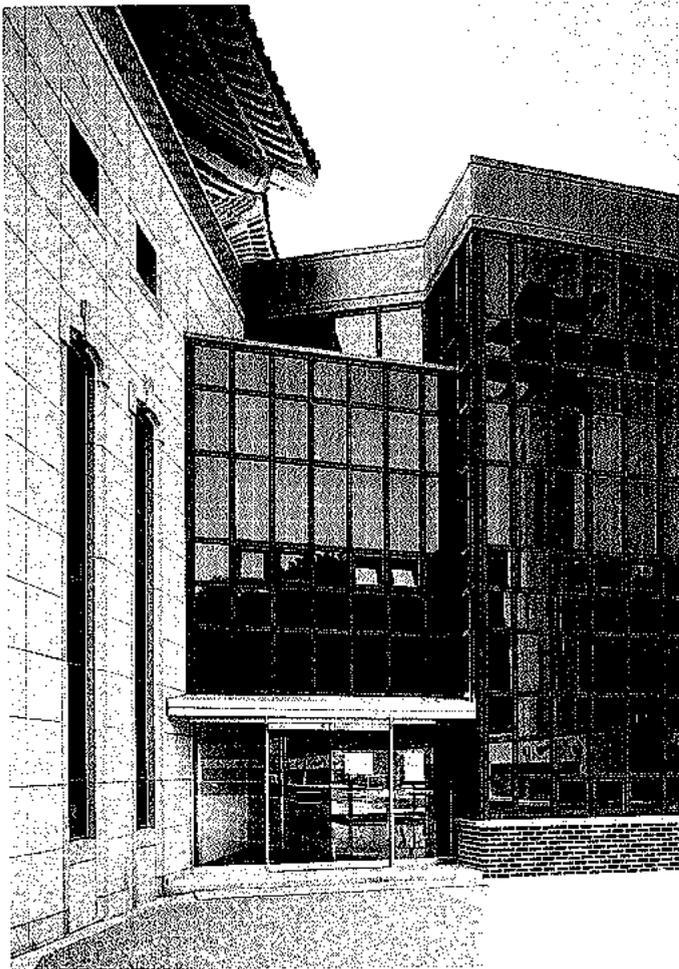
교육관 비상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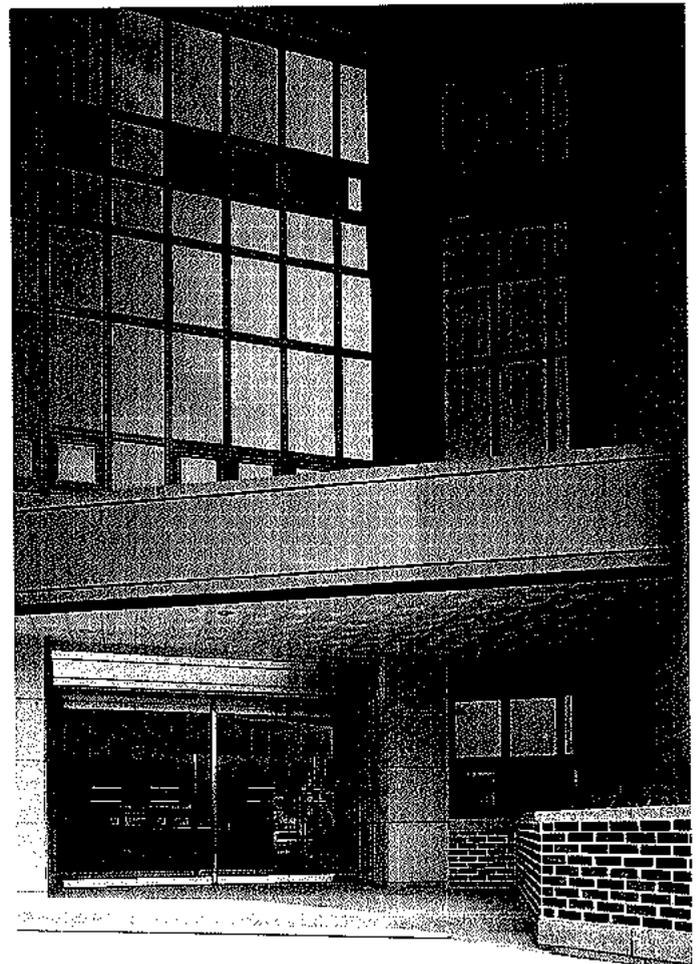
마당에서 본 종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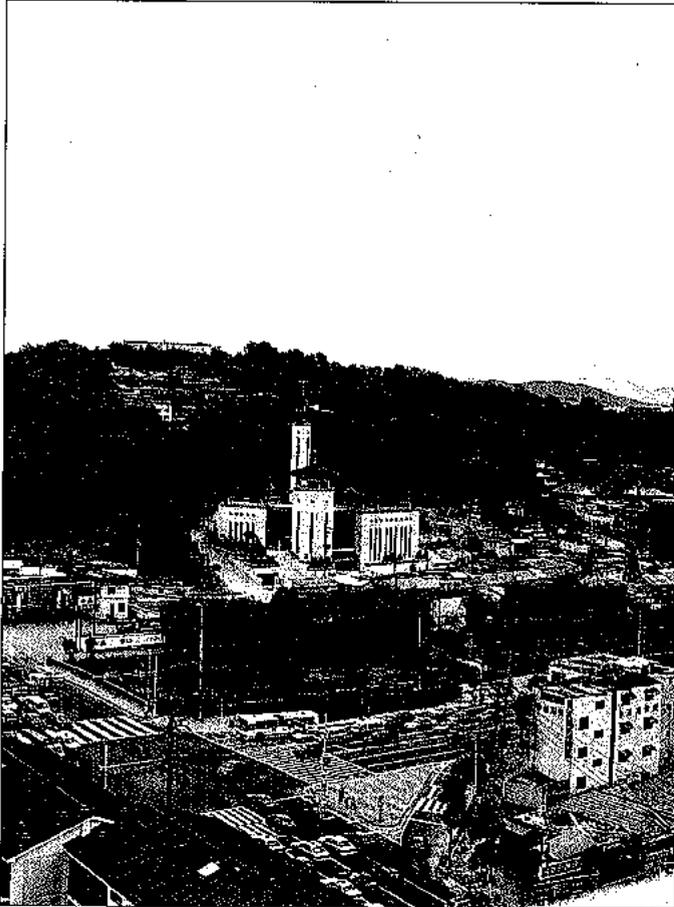
본당 주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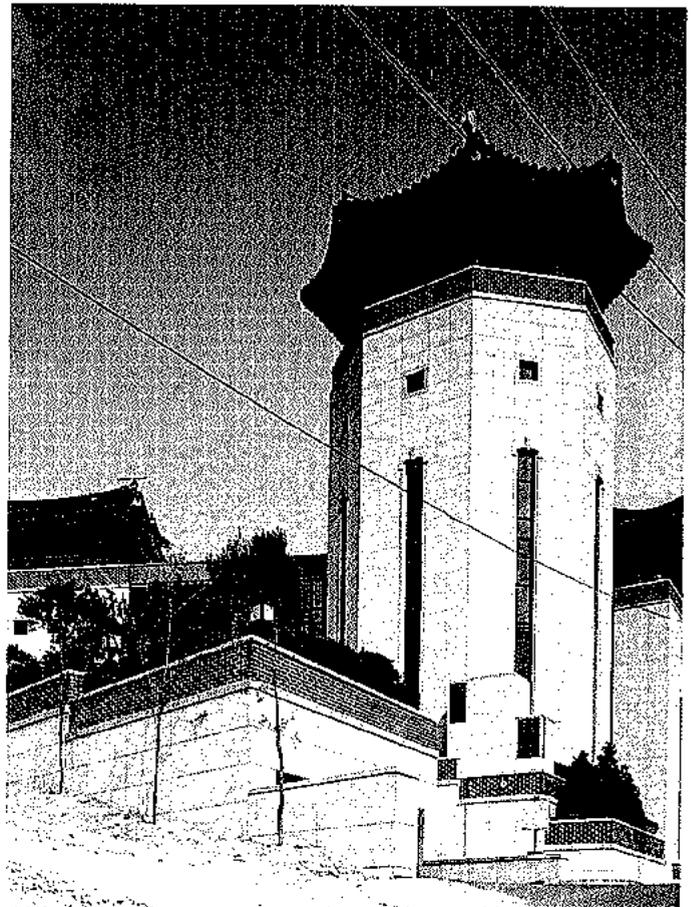
인미당 출입구



교육관 주현관



원경



팔각정 계단탑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건축적 실험 An Architectural Experiment to 21th Century of Korea

회 상

6년에 걸친 건축 만들어내기가 끝났다. 이제는 일만큼 잘 사용하고 또 그 건축을 통해 상징적으로 건축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화적 성취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관심있게 검증해 나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건축만들어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단지 이제 태어났을 뿐이니까. 어떻게 성장하느냐까지 추이를 지켜보아야 건축의 결과를 말할 수 있을 테니까. 1995. 7. 9 입당예배시 3천명의 교계인사, 성도, 축하객들이 운집하여 하나님께 영광들릴 때 나는 속으로 이런 자리에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교회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건축을 향한 열망 속에서 전통을 접목시켜 현대화시켜 이 시대 우리나라에 있어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다.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조건이 맞아와야하고 건축주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건축의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낼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신뢰와 조화가 전제되어야 드디어 하나의 건축이 탄생할 수 있다.

1990년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교회에서 실시한 간이설계경기에 초청을 받아 숙명적으로 시작하게 된 일이 그해 말 설계자로 선정계약 되는 행운을 갖게 하였다. 그동안 일관되게 생각해오고 있었던 건축의지가 장식교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이런저런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끝없이 그리고 또 그랬다. 설계를 거의 완성해 놓고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하기도 했고 지금은 왜 그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인허가 과정에서도 또 다시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하였다.

얼마나 그때 그당시 설계과정이 힘들었으면 설계책임 맡겼던 직원이 하던 일을 팽개치고 증발되어 버리기도 했었을까 대지조건이 복잡하여 인허가 과정은 또 왜그리 어려웠는지 거의 1년을 관청 쫓아다니느라 다른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

다행히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도와주어 결국 1992. 12. 9 건축허가를 필할 수 있었지만 건축위원장 김정렬 장로님을 위시한 건축위원들의 열망과 노고 덕이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설계기간 길어지고 행정업무기간이 길어지게 되니 사무실 운영은 어려워지고 이리저리 인내심과 지구력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듯 여러가지 일이 함께 복합적으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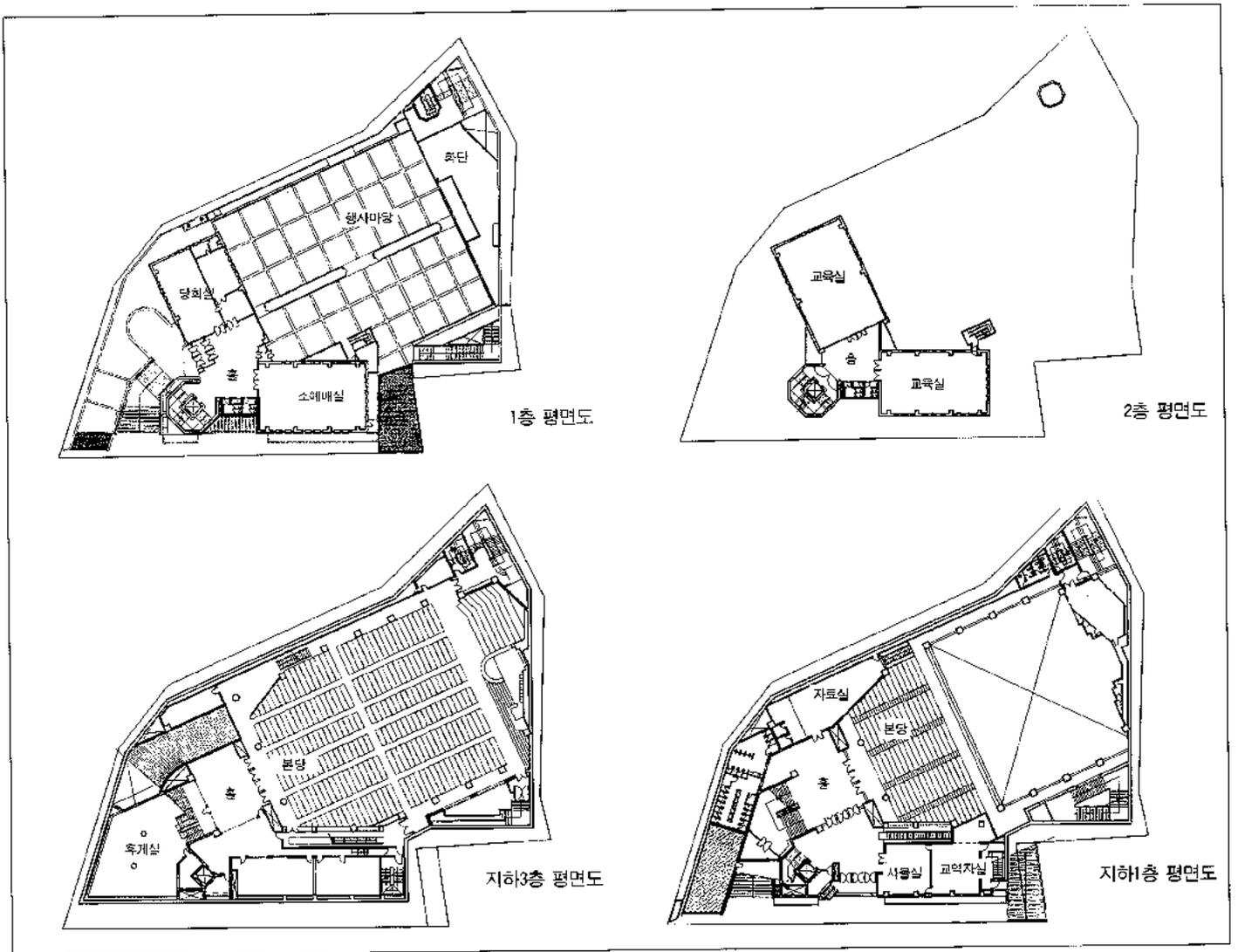
대개의 교회건축이 그렇듯 충분한 건설자금

능력 없이 믿음으로 건축을 벌이는데 그래도 하늘이 도우셔서 4개월만에 세계적 건설회사인 현대건설과 좋은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게 되니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 건축이 실현되는구나하는 현실감에 그런와중에서도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다.

1993. 3. 28 오후 3시 드디어 전교인이 줄을 이어 기공테이프를 끊는 기공예배를 가졌다. 교회는 현대건설이 건축을 맡아준 것에 감사하였고, 소개순서에서 근 3년을 설계와 허가에 심혈을 기울여 작품의 원고를 잉태시킨 설계자와 공사를 맡아 준 건설업체를 성실히 소개해 주었다.

건설회사가 아무리 대형회사라 하여도 건축가의 설계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단계적 상황을 이제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다. 옛날에야 무슨 설계가 따로 있었는가, 지금이야 설계없는 공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설계에 의해 형태와 공간이 다 결정되는 것을 누구나 이해하며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고 즐긴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그래도 작가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지하 4층이나 되는 흙막이 및 암반굴착 30m 폭의 본당을 지탱하는 Post-Tension 구조의 긴 특수보공사 한식지붕의 디테일, 높은 종탑, 모든 시공과정들이 하나하나 어렵게 진행되었지만 실수나 사고없이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강하며 세심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성실하게 상주감리를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도 만일 부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면 잠을 잘 못졌을 것 같다. 작금의 현실이 부실공사의 책임을 감리(설계측)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모름지기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품질은 시공회사의 책임임을 직시하여야 하고 시공을 책임질 수 있는 건실한 시공품종이 아니다. 감리는 도둑 잡는 것이다. 품질관리의 차원이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막듯 그런 불신시대의 건설은 이제 사라져야 하며 엔지니어링, 공사기술, 품질관리 등이 공사의 필수가 되어야 한다.

하도자에게 맡겨놓고 구경하는 것이 건설회사는 아니다. 「건설회사」는 최고의 건설회사답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잘 시공해 주었다. 부분적으로 일부 하도자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의 난이도에 걸맞는 시공으로 설계감리자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건축하나 탄생시키기-만들어 내기라고 하자- 그것은 정말 구도자의 고통과 인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많은 사람이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과를 가고 그중 일부는 진짜 건축을 만

드는 일 설계를 하겠다고 설계사무실에서 볼 철주야 수습을 하고 있다. 어느 단계에 올라 아주 적은 사람이 작가가 된다. 건축가가 된다. 연구실을 드나드는 많은 직원들의 고통과 좌절, 희망과 용기, 도전과 인내를 안다. 그들에게 건축하나 만들어내기를 온 몸으로 보여주어도 그들은 감동의 신체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무표정할 때 나는 허탈감에 빠지며 슬퍼한다.

나의 실험과 경험이 전이되고 파급되어 관계하던 모든 이들에게 좋은 영양이 되고 바람직한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동기를 주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리고 고통을 함께 했던 임부식 실장, 박차현 실장 외 5기 6기 7기 등의 문화직원들과 후반 감리단계에서 열심히 보필해 주었던 이흥식 대리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들의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탄생한 이 작품이 단지 교회건축으로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시대 이 사회 이 도시의 한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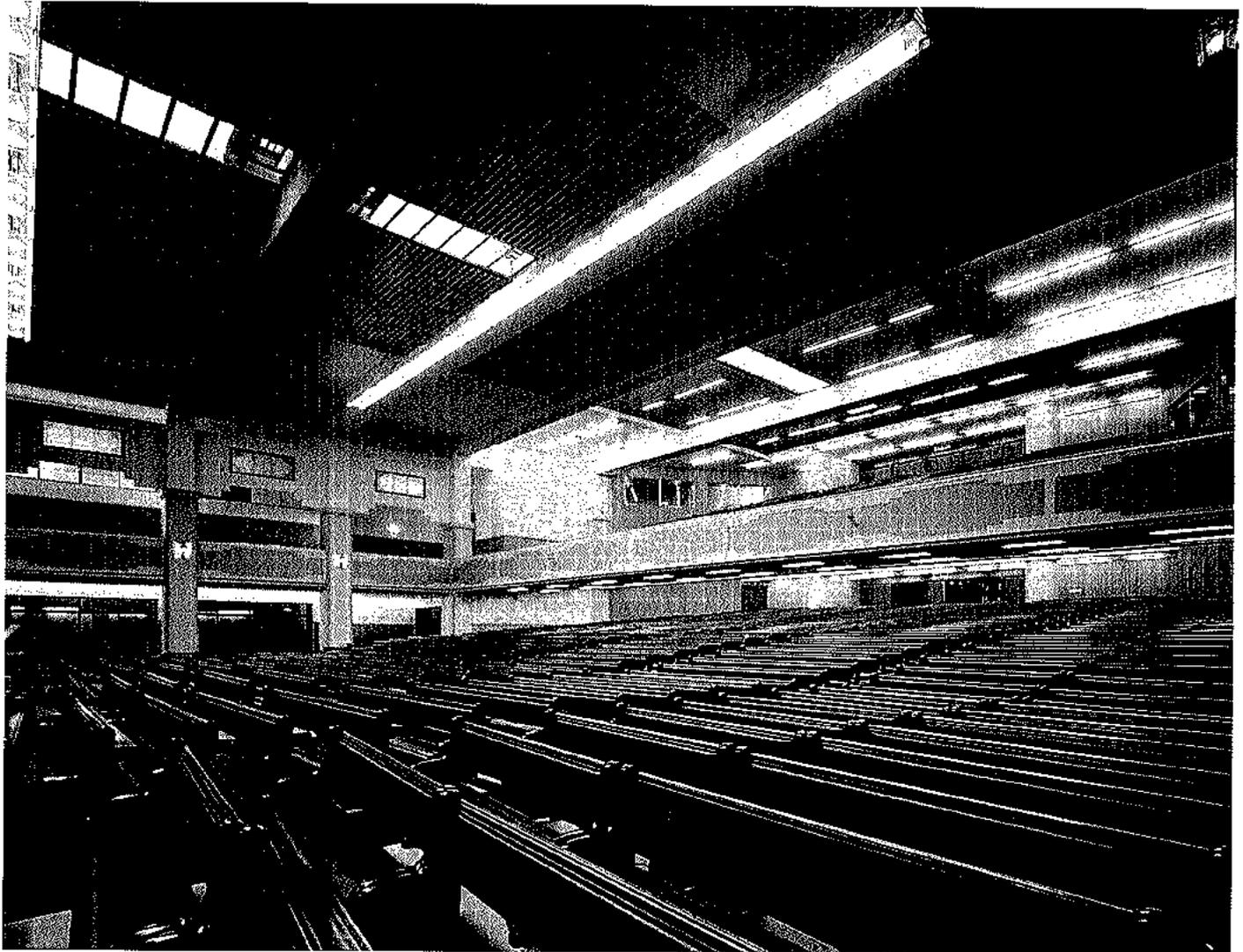
설계 의도

한국교회 2세기로 접어들어 21세기를 향한 질적이며 지주적이고 발전적인 교회건축의 또 다른 모습을 창출해 보기 위해 전통적 건축어휘를 재해석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상징과 현대적 기능을 접목 용해시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었다. 조건과 환경의 근본적인 해결과 해석이 전제되고 실험적인 적용이 실행된다.

교회건축에서 더 이상 고딕양식의 이류가 한국교회의 얼굴일 수 없듯이 전통건축 어휘의 차용이 최선의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론이 단지 형태적 모방이 아니라 정신적 지립이며, 문화적 가치이고, 현대적 기능과의 융합속에서 발전적 계승과 지역적 건축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자연적인 결과라면 그 건축의 충실도와 완성도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력을 지닐 것으로 자부한다.

사람들은 사람을 얘기할 때 정신이 중요하지 육체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배우자를 택하려면 말로는 얼굴보다 마음씨를 고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얼굴보고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다.

소위 문화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은 그러한 자기당착이다. 건축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전통을 부르짖으면서



본당 내부

직설적 형태언어의 계승은 무의미하며 전통건축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변하고는 결과적으로 별로 노력도 안하며 겁만내고 있다. 현대적 테포르메를 통해 형태와 내용, 정신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 하는 실험을 이제는 눈치보지 않고 자신있게 만들어 내는 자긍심을 가질 때도 되었다.

수원성을 처음 가보았을 때 그 완벽한 건축적 조화와 기능적 해결, 자연속에 합일된 자태에 반했다.

그런 감동을 되살리며 교회기능과 현대적 상황에 따라, 건축규모에 따라 재해석된 배치개념, 외관구성, 내외부동선처리, 내부공간설정 등은 절묘하게 부지와 조화되기 시작하였다. 어설픈 변형으로 망치지 않고 충실하게 응용된 지붕의 형태와 더불어 분절 결합된 전체의 외관 구성은 팔각정, 합각지붕의 문법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현대적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한국형으로 개발한 수직장의 아취선을 지붕선과 잘 어울리며 석재미감의 무게를 더해준다. 지하 본당의 지붕인 마당은 행사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 전통건축의 마당처럼 복합기능을 갖는 다목적 공간으로 생명력을 지닐 것이다.

건축적 충실도와 완성도는 목사님의 신학적,

상징적 해석으로 빛을 발하며 점점 높아갔다. 우리의 풍토속에 우리의 정서속에 수천년 다져져 왔던 마음의 고향이 현대건축을 통해 개발되고 발굴되고 계승 발전된다면 외국사조나 잡지를 베끼는 일보다 얼마나 보람있는 일이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축본질의 탐구이다. 얼굴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듯이 복합적 유기체인 건축을 형태없이 논할 수는 없다.

그동안 여러 경우에서 전통건축의 복원이나 재현, 적용의 기회가 있었지만 복원이나 재현은 박제품일 뿐이고 적용은 모조품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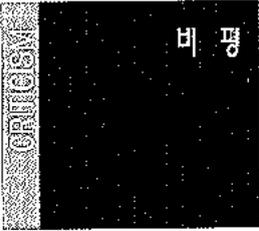
새로운 기능과 생명을 불어넣는 장식교회의 실험이 시행착오가 아니라 각성의 계기로 승화되고 실천적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 모두들 애정어린 관심으로 이 건축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면 한다.

설계 설명

장식교회는 배산임수의 드물게 보는 좋은 조건을 가진 강북 신 주거단지 율곡동에 있는 대형교회이다. 약 3,000평의 부지에서 건축가능한 대지가 1,078평, 지역조건은 자연녹지

지역이라 건폐율 20% 용적률 60%의 제한속에서 만들어낸 노작이다. 요구조건이었던 3,000명의 동시예배기능은 자연히 지하화 될 수 밖에 없었고, 지상은 지형과 큰 도로축에 맞추어 3채로 나누어 형상화시키고 교육관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넓은 외부공간이 되어버린 마당은 본당의 지붕이며 주차장이고 다목적 행사공간으로 40m의 종탑으로 인해 주위의 숲과 함께 의미있게 존재한다. 교회기능을 예배, 교육, 행정, 친교, 전도 등으로 분류해 볼 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연면적 3,000평의 규모 속에 구석구석 충실히 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부여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동선 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여러방면으로 계획에 계획을 더하였다.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은 단지 형태만이 아니라 공간설비 동선, 디테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축의 내용 등이 그 건축과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지나가며 느끼는 관객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건축의 한가지 한가지를 신중하게 만들어 갈 뿐이다.



장석교회 / 최영집작

Jangseok Presbyterian Church

□ 한국교회건축의 토착화를 위한 재실험

鄭時春 /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부정

金聖雨 /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 교회 건축에 있어서 신앙과 문화

李勇男 / 장석교회 목사

한국교회 건축의 토착화를 위한 재실험

A Re-experiment for Architectural Localization of Korean Christian Church

鄭時春 / 경희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ung Shi-Choon

선교 2세기에 접어든 한국의 개신교는 그동안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한세기의 선교 전략에서, 질적성장으로 그 목표를 수정해 가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개선의 문제는 단회교회로부터 열린 교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회가 '신을 벗어야하는 성스러운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눔의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서구 문화를 지고의 선으로 지켜왔던 태도로 부터,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삼고자 하는 태도로 변화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교회 건축의 모습도 교회의 변화에 적응해 가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장석교회의 건축에서도 그러한 문제의식과 실험이 보여짐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가는 토착화의 문제를 장석교회에서 한국 고건축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건축문화의 전통계승에 관한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온 과정에서, 그리고 서구의 건축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고건축 형태의 직접적 인용이 전통계승의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쩌면 무모하리 만큼 철저한 복제의 재 실험은 우리를 이연케한다. '전통문화의 계승'이란 물질 문명의 재현이 아닌, 정신문화의 계승이며 복고가 아닌, 새로운 창조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 건축의 '전통계승'이라는 과제가 한국 건축계를 압박해 왔고, 서구에서 사용해진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의 현대건축에 적용, 실험되어 왔으며, 특히 장석교회와 유사한 소위, 신 고전주의적 수법들이 정부주도하에 무차별하게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대부분의 경우가 건축 디자인의 기초원리조차도 무시한 채로 감상주의적 흉내에 그쳐 버려, 과연 직접적 인용방법이 어느만큼 가능한 것인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석교회의 시도는 매우 다른점을 찾을 수가 있다.

즉, 시대, 생활, 감정, 기술, 재료 등이 전혀 다른 현대에 고건축형태를 재현하는 문제를 별도의 논의로 한다면, 여러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첫째로, 이 부지는 그 형세가 약하기는 하나 배산 입수의 형국을 가지고 있어 배후에 있는 야산의 숲이 건물의 배경이 되고 그 앞에 하천과 하천 제방의 버드나무 군이 바탕을 이루어 자연과 잘 어울어지고 있음을 들수 있다.

둘째로, 내부의 기능과 잘 결합시키면서 분절시킨 3개의 매스와 하나의 탑이 한국 전통건축의 스케일과 비례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높이로 어울어지는 군집(群集) 형태는 이제까지 시도된 유사한 많은 예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이다.

셋째로, 이렇게 구성된 배스들을 통해 외부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이다.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시도가 주로 형태구성에 주력하고, 한국 고건축의 또다른 많은 공간적 가능성을 놓친 점은 매우 아쉽다.

한국 고건축은 형태에 관한한, 오랫동안 하나의 유형을 기본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오히려 자연과 건축, 건물과 건물, 건물과 마당, 마당과 마당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상징성이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인' 이라면, 교회 건축은 형태의 문제 못지 않게, 공간 또는 장소로서의 역할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장석교회의 경우 두개의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 즉, 후면의 옥외 주차장과 전면 건물의 옥상부분이 한국적 공간이 될수 있었을 것 같다.

특히, 옥외 주차장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둘러싸여 아늑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바닥재료와 패턴, 화단 등이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주일 대 예배시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담장과 정자, 몇개의 의자와 구조물의 디자인을 통해, 그리고 뒷산과의 공간적 연결을 통해 전통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록 접근이 불편하기는 하나, 건물 옥상도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장소이다.

더욱이 작가와 건축주의 일치된 의도가 중앙 팔각정의 형태를 '쉽'의 상징으로 동의했다면, 단지 '상징'의 의미를 넘어 '장소'로서의 기능 부여가 필연이라고 생각된다. 두개의 서로 다른 축을 가진 팔각 지붕과 하나의 팔각지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부지 배후의 숲을 차경하면서,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훌륭한 '쉽'과 나뭇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3개의 지붕 추녀 밑은 한국 고건축의 추녀 밑, 툇마루 공간의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형태의 문제에서 또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차용한 형태의 이미지에 관한 것이다. 작가가 인용한 형태는 한국 고건축중에서 성곽(城廓)건축의 유형에 속한다. 성곽 건

축이 본래 방어적 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그 안을 밖으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고건축의 형태 차용이 기독교의 토착화의 상징으로 본다면, 둘 사이에 모순이 생긴다. 즉, 상징이란 물리적 형태 만이 아니라, 그 내용 즉 기능과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비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대 건축임을 감안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건축 형태의 차용은 장석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대예배실에서도 어어지고 있다. 즉, 대예배실 전면부분 양측벽에는 6개의 완지형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난간벽에는 안상형의 문양이 그래픽수법으로 첨가되어 있다. 이는 외부로부터 내부로 주제를 연결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보여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주제가 복도 등의 공용공간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공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한편, 교회의 토착화라는 과제에 대하여,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장소와 그 곳에서 그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일 것이다.

계획된 프로그램은 계획된 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자유로운 만남은 계획된 프로그램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교인들 끼리의 열린 만남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석교회 안에는 만남의 장소들이 별로 없다. 지하 3층에 휴게실이 있으나, 그 접근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2층 출입구 옆 옥외 정원에 Sitting place가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의 계획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요구가 항상 건축가능 면적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건축가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형태나 계획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만큼이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들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보인다.

대예배실은 하느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에 그 '장소성'과 '방향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예배실의 내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강단 부분이다. 설교단과 사회단, 장로석, 성가대석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은 예배 신학적 의미에 따라 회중의 예배를 하느님께 드리는 의식에 잘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성가대석의 경우, 예배의식으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즉, 하느님을 향한 노래이어야 하지만, 이를 듣는 청중으로의 음의 전달기능 또한 중요하기에 그 위치와 방향의 논란이 늘 일어난다. 장석교회는 일반적인 예와 달리 부정형의 대지 때문에 생긴 비대칭의 강단 공간을 훌륭하게 활용하여 성가대를 중앙설교단 우

축 알코브에 배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회중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강단을 극소화하였는데, 중앙에 설교단을 반원형으로 내밀어 비대칭의 전면에 중심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설교단 뒤의 화장석 벽을 통해 예배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단 양측에는 옥외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두어 지하 대예배실의 피난과 환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빛의 문제이다.

특히, 카타콤으로 연상되어지는 지하 예배실은 그 지하의 어두움에 대비되는 빛의 연출로 예배의식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옥외 계단으로 인한 광정(光井)과 예배실 중앙 천장의 천창은 효과적으로 빛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예배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색조를 유지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재료와 디테일의 사용으로 인해 약간 산만해 보인다. 기둥으로부터 이어지는 천장에 노출된 몇개의 보들과 조명기구의 선들이 천창의 방향과 직교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보인다.

대예배실이 예배의식을 주관하고 있는 강단으로의 시각적 집중을 요구하기에, 오히려 천정과 주위 벽의 디자인이 단순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의 디자인이 대예배실에 강단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과 하느님을 향한 방향성을 더욱 강조하였으면 좋았을것 같다.

회중석 수를 늘리려는 교회측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대예배실 중층이 너무 깊어 상당수의 회중은 공간적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임이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특별히 디자인된 설교단과 사회단의 형태는 외부형태로부터 연결된 주제의 디자인으로 매우 참신하다.

외부로부터 대예배실까지의 입구와 진입 과정은 특히 종교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속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과정의 물리적 장치는 교회의 입구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대예배실까지는 서로 다른 세계 즉, 세속과 성의 세계사이의 전이 공간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장석교회는 도로에 3개의 입구를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 차량 출입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두개의 입구는 선택의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 중 하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화장석 계단인데,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꺾이고, 출입구 옆에 화단과 작은 마당이 있어 흡인력이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쓰여지지 않을 것 같다. 주 출입구는 다른 하나 즉,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입구인데, 내외부가 과정없이 직접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입구는 지상 교육공간과 지하 예배당 출입동선을 분리하여 기능상 혼잡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며, 특히 전자의 경우 도로로부터 계단 현관홀을 통해 건물 뒷편의 마당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 공간의 단계적 연출을 이루어 내고 있다. 여기서 지하 대예배실로 연결되는 통로는 넓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또한 예배실로의 통로 즉 전이공간이기에는 메달라 있고 산만하다. 이 과정을 거쳐 대예배실 입구에 이르면, 한주일동안 속하여 살고있던 세속의 세계와는 다른 성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과 다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리만 옮겨 앉았을 뿐 별다른 감흥이 다가오지 않는다.

여기서도 세속으로부터 떠나 성의 세계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줄 수있는 공간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한국의 기독교 건축이라는 과제는 건축가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2천년의 기간동안 서구에서 성장되어 전래된 기독교는 그 전례 의식으로부터 그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사고의 틀 속에 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근년에 이르러서야 토착화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그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이 건축이고, 건축의 형태이다. 또한 이는 한국 건축의 전통 계승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우리를 자극하고, 고뇌하게 한다.

서구 건축의 역사와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법들이 지난 30여년간 실험되었으나, 아직 누구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의 단절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장석교회에서 작가가 보여준 태도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용기가 놀랄만하다.

우리 건축인들의 건축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그 진지함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한국의 건축계가 그 지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건축이 단지 생존의 수단으로 까지 전락시키고 있는 이 때, 작가의 모험은 우리의 잠을 깨워주는 자명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긍정과 부정

Affirmative & Negative

金聖雨/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ong-Woo

1

장석교회가 지어졌다. 지어졌다기 보다 나타났다고 하자. 60년대 후반에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어지고 나서 세간의 여론을 들끓게 했던 소위 전통논쟁이후 이와 유사한 전통건축의 재현적표현, 또는 그 변형에 해당되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우리나라의 건축계는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 신경과민적인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신경과민이 되어버려서 그런식의 전통논의가 또 들먹거리질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식의 무언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버린 듯한 느낌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전통건축을 그대로 본뜬 집을 짓는 사례는 유명사찰이나 국립공원 등지에서 공중화장실이나 매표소 또는 유물보관소같은 건물을 짓는 경우이나 당연한 듯이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으며 자신의 설계작품에 건축가로서의 운명과 성패를 걸려고하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예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전주시청사의 경우와 같이 근대건축적 덩어리에 한옥적인 애교(?)를 끼워넣은 것같은 사례가 있어서 끼워져 들어 앉아있는 한옥이 애처로와 보이는 기억이 떠오르는 하며 이와 같이 전통건축의 요소가 근대적 디자인의 장식적 부품 같이 사용된 예는 간혹 있었다.

그러나 장석교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장석교회의 경우는 살짝 끼워넣은 애교도 아니고 장식적 부품도 아니고 전통건축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지어버리는 일을 과감하게 저질러 버린 것이다. 60년대 지어진 현 민속박물관같은 수법을 사용해서 90년대 후반에 와서 커다란 교회를 지어 버렸다.

어쨌든 일은 저질러졌다. 그것도 관광지의 화장실이나 매표소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가 아니고 잘 알려져있는 중견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지어졌다. 그 건축가는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건물을 비롯해서 비중있는 작품을 작가적 의식을 갖고 설계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저질러진 일에 대한 문제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만든다.

사실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되어 지어진 결과로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우리 건축계가 그것을 문제의식이 분명한 비중있는 작가의 이유있는 작품으로서 보다는 그렇게 지어진 결과에 대해 보였던 신경질적 반응이었다. 장석교회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 반응을 누가, 어떻게 보이던간에 하나의 작가의 작품으로서 나타났으며 거기에는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작가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와 의지

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에 일방적으로 판정패했던 싸움에 대해 다시 승부를 걸어온 것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아니면 눈치를 보며 살짝 장식적 부품으로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전통복제식 집을 지어놓고 무어라고 떠드나보자는 식의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이 싸움은 승패를 떠나서 해볼만한 싸움이다. 우리의 정신적 상황은 싸움이 없는 고요함보다 논란의 시끌벅적함을 더 필요로 하며 지금의 시대는 끊임없이 자극을 통한 활로모색이 조용한 답습보다 의미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논의는 진부한 논의를 또한다는 식의 거부반응보다 논의의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내용을 계속 살피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장석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지금까지의 전통논의에서 일관적으로 견지되는 한가지 견해는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비판의 이유가 무엇이든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비판적 입장은 장석교회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다. 장석교회의 설계자는 그러한 곱지않는 눈길에 대해 은근히 마음 졸이게 될지도 모른다. 아무리 자신을 가지고 저질러 놓은 일일망정 이유가 분명한 다수의 비판에 대해 코웃음치고 스스로의 자신을 고수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장석교회가 짊어져야하는 비판의 눈길중에서 전통계승의 방법론적 정당성에 관한 비판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건축뿐아니라 모든 문화계에서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대답없는 질문과 같은 것이기에 장석교회가 대표가 되어 대답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우길 수 있다면 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논의를 같은 입장관점으로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질문할 수 있는 건축의 보편적 진실성과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폭이 넓지 않다. 예를 들면 건축이 재료의 적합성과 성질을 무시하고 지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무리가 강행되었을 때는 기본적 진실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목탑을 전탑이나 석탑으로 번안하더라도 벽돌이나 돌의 성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양식이 나오게 마련인데 나무집을 콘크리트로 지으면서 똑같은 형태로 복제를 한다는 것은 재료처리에서부터 진실되고 정당한 건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건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 장석교회의 상부를 장식하는 한옥지붕들은 외부로 부터의 조망용이다. 즉 그 지붕들은 내부공간을 갖는 구조체가 아니라 3층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고 있는

모자들이다. 스라브 편지봉만으로는 재미없게 보이겠기에 씌워놓은 전통모자이다. 다른 모지를 쓰면 모양이 안 어울리겠기에 씌워진 기와지붕 모자이다.

전통건축은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그 내부공간을 쓰기 위해서 지어지지 모자으로써 지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장식교회의 기와지붕 모자는 건축의 자체내적 내용에서 요구된 것이기보다는 전통건축을 박제화하여 모양내기로서 씌워놓은 경우가 된다. 그 전통기와 지붕 속에는 내부공간이 없으며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게 계획되어 있다. 그러기에 벗을 수도 없는 모자이고 모자치고 몹시 비싼 모자이다. 이 정도로 기능과 목적이 도외시된 건축이라면 그 건축물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느껴지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아마도 장식교회의 기와지붕에 대해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까지 내세울 자기정당화의 근거를 갖기 찾는다면 '장식'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 기와지붕의 재현이 재료적 적합성과 기능상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고나서도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은 장식이다'라는 주장밖에 남지않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장식은 재료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기능적 목적이 없이도 가능하다. 나무일사귀 모양을 테라코타로 만들어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속에 사람이 쓰지않는 빈공간이 있는 장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장식교회의 기와지붕은 순전히 건물 밖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과 기능이 없다. 장식이란 것이 본래 밖에서 보기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과 기능이 필요없다. 그리고 장식이란 것은 근대건축의 초기과정에서 심하게 거부반응을 보인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의 역사를 장식의 역사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장식의 뿌리는 깊고 건축의 본질형성에 깊게 참여하여 왔던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장식교회의 기와지붕을 장식으로 보자는 탈출구에 대하여 부정적 선입관을 갖고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기와지붕모자를 장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설계자 스스로 부터 장식으로 보아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장식이기 보다는 건축물 전체의 구조적 일부이고 장식을 넘어서는 건축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계획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논의된 건축의 진실성과 정당성의 문제로 회귀되어 대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또 한편 건축가의 견해와는 무관하게 그 기와지붕을 도대체 장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가볍지 않다. 그것을 장식으로 본다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장식덩어리가 될지모른다. 장식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도 개념적으로 장식에 가깝다거나 방법상 장식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표현이 더 쉽게 의미전달을 할 것 같다.

재료와 기능, 그래서 장식의 문제에 이르는 논의의 과정을 더 연장시켜서 장식교회의 문제성을 따져 나갈 경우 아마도 다음 주제는 지금의 시대와 갖는 관련성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60년대와 같이 근대건축의 소용돌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에서 지금보다 정신적 방향감각이 불분명한 때가 아니고 서구식 근대화도 어느정도 한계가 보이는 90년대 중반에, 그리고 근대화과정에 100년을 소비하고난 후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장식교회의 전통에 대한 대응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로서 던져주고 있으며 지금의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자기 입장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문제이다.

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식교회의 설계자에게 그렇게 직설적인 복계가 아니어도 전통적 분위기를 창출해내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이 최소한도 지금의 시대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건축가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른다. 지금의 상태가 이미 적당한 번안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며 또는 어쉴뿐 번안은 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게 논의를 전개시키기가 꺼려진다. 재료나 기능의 문제보다 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무슨 번안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나 하는 식으로 꼬리를 무는 전통계승 논란에 또 한번 손발을 담그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건축의 토착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토착화가 장식교회와 같은 것이냐 하는 논의도 어느정도는 현대적 번안과 그러한 방식의 전통계승 논의와 통한다.

장식교회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직설적인 전통재현의 시도는 이루어져서 끝난 일이다. 차라리 장식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찾아보고 그것과의 대비적 상황에서 앞으로의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는 방향이 더 생산적일 것 같다.

3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한 거부반응은 나름대로 모두 이유를 갖고 있다. 앞서 얘기한 건축의 재료사용과 기능의 문제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양식 근대건축이 소개되고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콘크리트라는 재료와 사용방법이 소개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전통적 건축을 지었을 것이다. 장식교회에서와 같이 조림식 서까래를 만들어 다른 골조와 연결시켰을지 모른다. 기와지붕의 인습이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상황에서 인습에 따른 변형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만약 콘크리트로 3~4층짜리 건물을 지을 줄 알았다면 그 구조물 위에 가능하면 한옥 지붕을 씌우기 원했을

것이다. 나무든 콘크리트든 기와 지붕의 친숙함을 실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무집을 재료를 바꾸어 짓는다는 일이 얼마나 가능한 일이기도 하며 그렇게 최악이 될 것도 없다. 단지 콘크리트로 한옥을 짓는 일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지속이 되었다면 그러한 방법과 재료에 맞는 한옥의 양식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다.

콘크리트로 재현되는 전통적 건물에 대한 거부반응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례를 많이 접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전세계적으로 목조건물이 보편적이었던 문화권에서 근대이후 콘크리트로 재료를 바꾸어 재현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직설적 복고주의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그러한 비판적 시선에는 이미 서구식 근대건축의 건축관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러한 건축관에서 볼때에 곤란하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배경적 선입관이 깔려있다는 점이다. 전통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미 한국 건축계가 서구식 건축을 추구하는 한가지 방향으로 매진하던 시기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고정되어버린 때라고 보아야 한다. 20세기 후반의 한국 건축계는 서구식 건축관에 대한 식민적 추종을 해왔던 기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의 정신적 오염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 기간이며 그러한 오염의 안경을 두껍게 쓰고 복고풍의 건축을 비판했음도 관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거부감없이 직설적으로 복고된 건축을 자연스럽게 짓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역사(北京驛舍)건물은 그러한 예중에 성공적인 것으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 거기서도 기와지붕은 단순히 외관을 위한 첨가물이다. 또는 더 가깝게 북한에서는 콘크리트로 재현된 전통식 건축이 더 많이 눈에 뜨인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복고적 건물에 대하여 거부적이었듯이 거부적이어서 좋았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즉 직설적 복고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은 다분히 시대적이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더 거부적인 것은 우리가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서구식 근대건축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염된 안경을 쓰고 재료나 기능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류에게 있었던 건축행위에는 서구식 근대건축관보다는 훨씬더 폭넓고 다양한 건축이해의 방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양의 건축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19세기까지의 서양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파르테논 신전을 베껴먹고 살아온 역사이다. 그쪽도 고전적 모델의 재현과 변환으로

서 자신의 건축사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20세기에서도 끊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복고적 건축설계의 방법론이 보존주의자들의 이론과 방법론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학문적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보존적 설계방법론은 커녕 전반적인 거부적 시각에 밀려 복고적 설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직설적으로 복고되는 것이 원칙에 있어서 나쁠것도 틀린것도 아니라는 사고의 전환을 우리는 오히려 필요로 한다. 모든 건축을 그렇게 짓자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직설적으로 재현되는 쪽의 건축도 당연히 살아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다양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이태리같이 건축역사의 흔적이 무겁게 남아있는 나라에서는 현대건축이 그 무거운 역사에 적당하게 반응하느라고 서구의 다른지역 현대건축과는 사뭇 다르게 진전된다. 우리 건축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복고주의적인 역사대응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주관없이 방만하게 나타나는 현대건축이 오히려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건축역사전통이 이태리만 못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복고적인 건축도 역사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제대로 했던 과정이라도 우리에게 있었어야 했다.

음악에서는 국악이 국민적으로 아직 향유되고 있고 그림에서는 한국화가 서양화에 밀리지 않고 감상되는데 건축물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한국건축계가 책임져야할 문제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설적으로 복고되는, 또는 그러한 방향의 건축적 시도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고적인 건축물도 더 활발히 살아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러한 건축물이 더 많이 지어져서 나쁠 것없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경향에 대해 우리는 너무 겁을 먹었거나 배짱이 없었다. 또는 정당한 건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주관이 약했다고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복고적 건축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며 복고주의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지 않는 주장이 아니다. 복고적 경향이 세삼 고무적인 것으로 주장될 필요도 없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능한 건축의 범위에서 배제되어야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장식교회와 같은 경우가 전통계승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식교회는 전통의 문제로서 풀어야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형식도 없는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으며 많은 다양한 건축의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안좋은 것이 있다면 장식교회와 같은 건물이 아니라 안좋은게만 보이게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두꺼운 안경일지 모른다.

4

앞의 글에서 장석교회와 같은 경우에 대한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부정적인 견해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견해이다. 앞의 논지에서는 장석교회와 같은 방식의 복고적 재현은 문제(Problem)로 보아졌고 뒤의 논지에서는 문제가 아닌것(No Problem)으로 설명되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같이 피력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 것이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린 것일 수도 있다. 두개의 상반성에서 우리가 보아야하는 것은 복고적 재현이라는 대상의 문제로서 접근되기보다 그러한 대상을 보는 우리들 자신을 보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렇게 보는 우리들의 정신적 위상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하고 긍정할만한 이유가 그 대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상에 있기 전에 대상을 그렇게 보게끔 된 우리들 자신에 있다.

지금 건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해서도 또 서양식 현대건축에 대해서도 긍정하기 보다는 부정하는 쪽으로 치우쳐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통사회가 마감되고 서구식 근대화를 향하여 치달아왔던 지금의 역사적 위치에서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전통사회로 다시 회귀할 수가 없다. 또 서양식 근대 문화에로의 추종을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도 없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우리의 의식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통에 대해서도 서구식 근대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식의 부정적 선입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전통건축의 그대로의 재현은 곤란하다" 하는 것은 바로 전통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의 표현이고, 또 "서양건축의 유행을 추종하는 것도 곤란하다" 하는 것도 서양근대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대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전통과 전통건축을 부정할 수 밖에 없고 서양식 근대와 현대건축을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 위치이다. 직설적인 복고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실제역시 "지금 우리가 옛날식 한옥을 똑같이 지어놓고 살수가 없는 상황인데 콘크리트로 그것을 복제해놓으면 어찌자는 것이냐" 하는 절실한 상황인식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것을 긍정하는 쪽은 "콘크리트 박제일망정 전통논의를 떠나서라도 그것은 하나의 미학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것이며 서양건축유행의 무분별한 복제보다는 차라리 낫다. 그리고 전통재현적 건축도 다양한 흐름 중의 하나로서 살아있어야만 하는데 왜 비판일변도로만 가는가" 하는 것 역시 시대적 아픔을 품고 있는 절규이다.

우리는 전통사회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전통적 목조건축을 다시 짓고 살 수는 없다. 또 서구식 근대건축의 취향과 건축관을 언제까지나 좇아만 갈 수도 없다. 그 두가지를 부정하는데서 우리의 정신적 위치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인정하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전통으로의 회귀와 서구의 추종이 모두다 불가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두가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의 전부이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있는 문화적 자산을 기초자본으로 해서 장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가지를 자산으로 갖고있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흔치않은 귀중한 자산이다. 우리는 그 두가지를 부정하기보다 긍정해야 한다.

전통회귀와 서구추종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부정되어야함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또 한편 그것을 자산으로해서 재창조해야만 하기 때문에 긍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 두가지중 한가지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부정하는 심리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 두가지를 강하게 긍정하고 포용해야 한다. 두가지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이 상호갈등적 혼동을 초래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하고 포용해야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의 상황속에서는 "그러면 어찌란 말이냐?"의 자기 당혹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것도 OK이고 저것도 OK이다"로 긍정해놓고 봐야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라는 그 거대한 두가지 문화적 덩어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하나의 문화적 유기체로서 탄생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창조력을 결집해야하는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두가지 모두 언제까지나 부정만 하고 있는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전통과 서구식 근대가 평행선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듯한 상황은 역사 진전의 위치가 아직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하며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문화간의 충돌, 동화, 재구성의 과정이 수백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문화적 재창조단계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하고 있고, 준비과정에 필요한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서구의 근대 모두를 부정하기보다 강하게 긍정해야한다. 더 충실하게 양쪽 모두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객관화하며 그 내부구조의 숙지를 통해서 재창조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부정해야하는 것은 부정한다는 태도이다. 우리가 부정만 하고 있는 동안 서구문화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에서 조화의 자양분을 빼내어 자신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 전통도 긍정하고 서구식 근대도 긍정해야 한다. 전통건축의 재현도 긍정하고 서양건축의 추종적 시도도 긍정해야 한다. 그런 것 모두가 우리를 살찌우는 영양분으로 섭취해야만 복고적 재현만이 아닌 전통재현도 가능하고 서구식 추종만이 아닌 근대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장석교회가 지어졌고 거기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시비는 있을 수 있다. 앞서 제기되었던 것과 같이 부정은 부정의 논리대로 긍정은 긍정의 논리대로 모두 일리가 있다. 그 부정과 긍정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대상속에서 찾아지는 부정, 긍정의 이유가 아니라 긍정부정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우리를 자신의 내면적 상황이다.

우리가 진정 부정해야 하는 것은 표면적인 긍정, 부정의 논리에 휩싸이는 것이다. 장석교회는 근대적 기술과 재료로 지어지되 전통적 한옥의 모양을 본떠서 지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과 긍정을 하게끔 하는 우리의 문화역사적 상황은 긍정되어야 한다. 전통과 근대를 동시에 그러하고 미래를 기다리며 창조적 저력을 축적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 자체는 긍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긍정은 과거의 전통과 지금의 근대 모두가 긍정되는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60년대 있었던 민속박물관에 대한 전통 논쟁을 다시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때는 지금보다 문화적 혼동속에서 방향감각을 찾기가 더 어려웠던 때였고 지금은 서구식 근대화가 시효를 이미 상실해가고 있는 때이다. 지금의 우리는 60년대 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우리식 전통과 서구식 근대에 대해 긍정적 수용과 객관적 비판을 통해 자기 입장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 더 많이 요구받고 있다.

장석교회를 보는 문제의 핵심은 그것에 대한 긍정, 부정의 논리보다도 우리전통과 서양근대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입장이다. 두가지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비롯된 장석교회에 대한 긍정, 부정을 하기보다 전통 근대에 대한 긍정의 입장에서 장석교회같은 예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근본적 문제는 우리들 자신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우리 전통과 서양근대가 부정되면 우리들 자신이 부정된다. 두가지의 부정에서 두가지의 긍정으로 돌아서서 21세기를 맞이해야만 한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늦게 근대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보다는 전통부정의 정도가 약하다. 즉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듯이 수용되고 흡수되어진 상태에서 근대문화를 만드는데 자신있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근대화과정의 시점에서 지금의 중국보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긍정하기 어

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종류의 부정적 태도를 더 이상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서서 수용하고 포용해야하며 그것이 늦어지면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 역시 위축된다.

부정하는 태도는 부정하는 대상에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이기 보다는 부정하는 것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같은 상황인식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대상에서 다른 이유를 찾기보다 상황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장석교회에 대한 부정, 긍정보다도 그것을 그렇게 보게끔 만든 우리 시각의 부정적 타성을 부정하고 긍정적으로 바꾸자. 희망적 미래는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필요로 한다.

교회건축에 있어서 신앙과 문화

Religion and Culture in Architecture
of Korean Church

李勇男 / 장석교회 목사
by Lee Yong-Nam

어느 신학교 교수를 찾아 온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교수는 열심히 여러 교회들을 구경시켜 주었다. 소감을 묻는 그 교수에게 외국 신학자는 아직 한국 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본 것은 다 외국의 건물이지 한국의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 교수는 이제야 우리도 한국적인 한국의 교회를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분명한 우리의 전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녹아 들어 있는 우리의 문화가 접목된 성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 장석교회가 이루었다는 것은 더 없이 큰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라는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종교적인 목적이 분명한 건물이다. 그래서 성전의 원형인 성막공사에서부터 다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을 구약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들의 신앙내용이 함께 녹아 심오한 의미를 가진 특별한 건물로 발전되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동이 쉬운 텐트식의 성막 또는 회막이라는 이름의 예배처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문화를 총

망라한 종합예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은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먼저 카타콤이라는 박해시대를 거쳐 고딕식이나 르네상스식이나 또는 바로크식이나 하는 당시의 상황과 문화의 형식을 따라 형태를 이루어갔다.

우리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도 여인 한 세기를 넘어 선교 2세기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말로 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만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교회로 점점 자라게 되었다. 이제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요, 부러워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는 활기차게 성장하였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 건축에서만 아직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교회당을 건축했다 하면 외국 잡지에서 본듯한 건물이 여기 저기에서 세워져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분명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유구한 역사와 함께 이루어 낸 우리의 땅과 우리의 피가 녹아 이룬 아름다운 문화가 있지 않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우리말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의 문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리라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 장석교회 당회는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식의 건물을 세우기로 방향을 정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먼저 건축을 위하여 설계에 들어가기 전 몇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문화를 농축시킨 건물로 설계한다는 것이요, 두번째는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부품정도는 부득이한 경우 외제를 쓰지만 철저히 국산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세번째는 모든 구조물에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장석교회당은 두개의 건물이 팔각정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는 형식이다. 팔각정은 본래 성터를 의미하는 곳이다. 기독교 신앙은 피곤한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참 쉼을 얻는다는 뜻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팔각정은 피곤한 인간들에게 참 쉼을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두 건물은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 구약과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성전 뒤에는 높은 종합 구조물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첨성대를 현대화한 것으로 신약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의 문화와 접목을 시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성전은 지상 3층과 지하 4층으로 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3으로 하고 인간의 완전수를 4로 하여 이 둘의 합인 7을 가장 완전한 수로 여긴다. 지

상 3층은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고 지하 4층은 흠에서 나온 인간의 수를 나타내 기독교 신앙의 최고치를 이미지화 하여 지은 건물이다.

내부에 들어가면 대예배실을 지하에 두어 신앙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정을 생각하는 카타콤을 연상하게 하였다. 내부 양쪽으로 여섯 기둥씩을 두어 12기둥이 있는 예배실을 만들었고 강대는 전통적인 우리의 선이 보이도록 디자인하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것을 느끼도록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앉은 의자에도 태극 무늬를 넣어 우리의 선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였고, 강단도 우리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성벽과 성투를 현대화한 형식으로 만들었다.

강단은 비록 우리의 성을 연상하게 하고 올림피 공원에 있는 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깊은 신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 죽음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그 곳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당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메시지가 담긴 물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뜻하던 건물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독교의 참 신앙을 이해하고 열과 성을 다해준 좋은 건축가를 만난 것이 첫번째 행운이었고, 또 어떤 설계도면이라도 손색없이 이루어내는 훌륭한 시공업체와 손을 잡은 것이 또한 우리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3만명을 초청하는 특별전도 예배를 드렸다. 지난 6월 25일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1부에서 8부까지 대 성전이 가득차는 감격을 얻게 되었다.

6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 있을 때 다른 교회 교역자 한 분이 들어 오셔서 자기가 찾아 오게 교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외국인이 다른 그의 친구에게 한국에 가 볼만한 교회가 하나 생겼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외국인이 장석교회를 말하기에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여 찾아 왔는데 소문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돌아갔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도 세계를 향하여 뚝뚝하게 내놓을 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우리 문화가 접목된 건물들이 특히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 비전문가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직 우리 문화를 충분히 소화한 건축이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이다. 장석교회당의 시도가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교회 건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팔월의 현내포구(10호F), 양광명 / 도성건축사사무소

타는 듯이 뜨거웠던 지난 여름
울진의 작은 포구 어망수선 작업장 그늘에서
질푸른 바다는 바라보다
내 존재를 잊고 바다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



도시인

Residents in a City

金正寬/에진건축사사무소
by Kim Jung-Kwan

오랫전에
神께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에게 도시를 맡기노라
너희 사람의 터는
스스로 가꾸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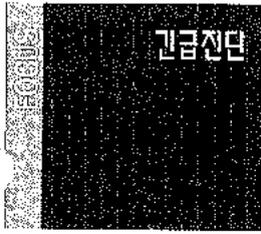
I.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이 없을 때는
실수 없는 자리
앞만 보는 삶
뒤질 수 없어 걷는 쟁걸음
돌아보지 못하는
도시인의 삶
내가 외면한 뒷모습은
타인이 본다

I.
키 작은 이는
거울을 외면한다
내가 보는 내모습이 싫어
그는 누구인가
위로만 솟는 도시
바벨탑을 꿈꾸는가
그 그늘에 숨어사는
키 작은 도시인
매일 키만 키우는
빌딩의 아랫도리가 슬프다

II.
하늘이 없는
도시의 풍경
하늘을 빼앗긴 도시인은
神도 잊었다
나무도 꽃도 없는 이 도시는
神께 버림받나니
건축가는 고개를 떨군다

IV.
25층 아파트에서는
꽃이 시들어가는데
도시언저리 판자집 마당
나뭇가지마다 봄이 피었다
도시의 봄은
높은 곳이 아닌
땅 가까운 곳에서 온다

다시
신이 묻는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너희가 사는 길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본 건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Korean Architecture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그동안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양적팽창에만 매달려 왔던 우리 건축계의 지난 과거와 현실을 참담한 심정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

사고이후 우리사회 전반은 건설·건축분야 뿐만이 아닌 정치, 경제, 교육 등 총체적 분야에 걸쳐 자기반성과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를 찾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당하고서도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및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장래는 삼풍사고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암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지는 이번 사고를 통해 다른분야는 차치하고라도 한국건축계 전반에 걸쳐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누적되어만 가는 문제점들과 장애요인들을 진단해 보고 이에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註)

- 건축기준 수준을 높이자 / 김우성
- 건축전문가의 문제점 인식 / 신동우
- 적당주의부터 뜯어 고치자 / 전태수
- 감리제도의 개선책 / 원종일
- 감리의 책임과 개선방향 / 박무일

건축기준 수준을 높이자

Raises The Level of Architectural Standards

金宇成 / 아키프렌건축
by Kim Woo-Seong

감사원의 부실공사 원인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에 의한 부실이 전체의 45%정도가 된다고 한다. 토목, 건축 등을 망라한 통계치이겠지만 건축부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설계 뿐만 아니고 감리까지 설계자가 같이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건축사들의 입장이라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까지도 건축사들이 거의 떠맡게 된다.

실제로 외국에서 부실공사가 예방되는 주된 이유는 한국건설회사 등이 외국공사에서 경험한대로 건축사(설계자겸 감리자)등의 철저한 프로정신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사제도도 외국의 것을 도입하였겠지만 외국에서와 같이 원래 취지에 충실한지 의문스럽다.

우리의 건축사법을 살펴보면 건축사법 제1조(목적)에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 헌장"에는

첫째가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창달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있고

둘째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 세번째에 가서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외국의 건축사 면허제도와 근본취지는 건축사 등을 위한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건축물이 잘못 설계·시공되어지면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만들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건축사 자격기준에는 예술성이다, 창작성이다 하는것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주로 구조, 방재 등 건물의 안전에 관한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술가나 음악가가 면허가 필요없듯이 조형예술로서의 건축은 별로 심의대상이나 자격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의 본

권을 감안한다면 "건축사는 조형예술 창작인이어야 한다"는 건축사 헌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건축법은 일반대중들의 이용도에 따른 용도구분을 하여 이에따른 건물의 구조, 재료, 방재 등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고,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 법만 따라서 해도 설계가 저절로 될 정도로 조직되어있다. 따라서 허가를 내는데 심의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일일이 도면을 검토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건축사가 법규기준 적용 여부만 확인하여 허가가 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매건물마다 구청심의다, 분청심의다, 건설교통부심의다 하는 온갖 심의 검토절차가 수십가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바로 건물 설계기준이 자세히, 명쾌하게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각종심의를 통해 설계를 어느 수준이상으로 끌어 올리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많은 부조리를 낳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과정에서 설계심의자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심의하다보니 "건물이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한다. 이 또한 설계부실을 낳는 원인중에 하나다. 건축주는 설계를 잘하는 사람 보다는 인허가(심의 +허가)를 능숙하게 처리해 내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의 질은 뒷전이 된다. 더욱이 인허가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 설계의 질(Quality)은 관심밖이다.

우리의 설계 내용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평장히 부실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설계사무소에서 해온 기본설계가 국내에서 한 실시설계도면보다 양과 질에서 훨씬 앞서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의 설계가 외양만을 대충 그려내기 때문에 부실한 설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설계의 수준을 100이라고 할때 우리는 50도 채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설계로는 시공회사들이 "적당히"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그리고 감리원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설계가 애매하게 그려진 거라면 시공 품질을 감리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서 품질 보증은 기대할 수가 없어 진다.

계약서라든지 시방서를 보더라도 내용이 부실하여, 어떻게 어떤 자재를 써서 시공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대개는 끝에다가 "감독관이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사족 등을 여기저기 붙여놓은 경우가 많다. 이런것들이 부실시공 내지 부조리를 공공연하게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재라도 모델별로 가격차가 천차만별인데 이와

같이 애매하게 설계하다보면 시공자는 가장 “짜구려”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인한 덤핑수주는 부실공사를 불러오게 된다.

설계자가 정확하게 자재를 시방하였을 경우뿐 아니라 시공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거친 자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현재같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거의 모든 건축물 생산과정에 부실시공 및 부조리가 관행처럼 일반화 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오히려 자연스런 결과이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레미콘이 공인기관에서 검사해준 업체에서 생산했는데도 기준에 미달한 불량품을 공급하여 구조체가 부실하여졌다면 검사해준 공인기관이나 레미콘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시공회사, 감리자, 설계자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건설에 소요되는 각 자재는 자체별로 공인 검사기관에서 최소기준을 정하여 이를 지켰다는 공인표시만 있으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설계자는 공인된 기준이상의 자재를 시방하고 감리자는 서류상으로만 공인된 자재사용을 했다는 시공자의 확인서만 믿는 것만으로 책임소재는 명확해지는 것이다. 시공자가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실제로는 몰래 짜구려를 사용,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분도록 되어있는 현행 감리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열사람의 경찰이 한사람의 도둑을 감시하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거짓 시공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할 책임이 감리자에게 넘겨진다면 시공현장의 인부들마다 감리자가 한 사람씩 따라 붙어도 불가능할 것이다. 감리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라든지 서류상으로 책임소재가 애매하다든지, 또는 설계할 당시의 현장 상황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역할에서 끝나야한다. 시공자재, 시공방법을 직접 챙겨서 현장을 끌고 가야하고 책임져야한다면 그는 감리자가 아니라 현장 소장으로서 시공회사의 월급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설계가 부실하니 감리단계에서라도 보완하겠다는 제도이지만, 그러다보니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더 비싸지는 우스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다.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책임시공하게 하고 부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리자는 설계나 시공 연결역할(Coordin-

ator)로 그쳐야 한다.

건축사들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시공감리과정까지 기록을 철저히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모한 건축주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획설계 과정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왔다갔다하여 수시로 용도가 변경되고, 규모가 바뀌고 하다보면 설계를 여러번하게 되고, 이로인해 비용도 늘게된다. 또 설계기간도 충분치 못하다보니 건축주나 인허가 기관의 요구에 의한 문제도 파생된다. 이럴경우 충분한 기록이 남지 않으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설계란 모든 자재의 종류의 공법을 망라하여 파악한 상태에서 도면을 그릴 수 없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회사에서 시공도(Shop Drawing)를 제출토록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후 시공회사로 하여금 준공도(AS-Built Drawing)로 작성 제출토록 하여 실제 시공된 상황을 기록하여 추후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공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시험성적 및 검사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고, 준공후 사후관리 메뉴얼을 각 장비별, 건물 부문별로 작성 제출케 하여야 한다. 건물은 수백, 수천가지의 자재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합체이므로 각기 특성과 수명이 다 다르다. 그리고 유지관리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유지관리 그리고 보수 또는 교체를 적절히 할 수 있는 메뉴얼 작성도 필수적이며 사후 문제시 책임소재도 명확하여 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각종 법규에 얽매여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과정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명료하게 통합된 법규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 각종 심의도 심의의 목적에 맞는 심의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면, 그리고 준수했다는 확인만 받으면 승인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진국처럼 부조리의 온상인 심의를 철폐하여야 한다.

- 건축과 연관된 구조, 설비, 소방, 토목, 조경, 교통, 도시계획분야도 전문 기술사협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기준을 상세하게 작성토록 하여 기준에 의한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심의를 없애고

- 각종 계약서가 “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모든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불공정 거래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든 계약서를 만들어 책임소재와 역할이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도면의 작성기

준, 표준상세도, 매뉴얼, 표준시방서(Master Specification) 등이 연구되어 설계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본 연구가 되어야 한다.

- 건축설계는 각종 자재의 결합이라고 볼때 각종 자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명확하면 공인 검수기관의 부실검수도 예방될 수 있다.(미국의 ASTM과 같은 기준)

- 이러한 자재들을 비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건축자재 목록을 개발한다면 건축자재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각 단계별, 분야별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ㅁ에서 주도하면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되기 쉽고,

ㅂ에서 주도하면 현실과 멀어질 수 있고,

産에서 주도하면 집단 이기주의적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반대중, 건축물의 소비자들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구성체에서 기본골격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삼풍백화점사고'의 희생자들은 건축관계 모든 사람의 제물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고 갚아나아가려면, 건축관계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밑에서부터 다져 올라가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모든 건축관계 활동 즉, 인허가, 심의 설계, 감리, 시공, 자재들의 '기준'을 하루빨리 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축전문가의 문제점 인식

Architectural Specialist's Awareness for Problem

申東宇 / 이주대 건축학과 교수
by Shin Dong-Woo

삼풍백화점의 참사와 함께 우리사회에는 실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사고임에도 이것을 보는 시각이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을 전문 분야로 하는 건축 전문가들에게 이

번 사고는 남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회의 건축을 책임져야 할 건축전문가들이 이 사고에 대해 갖는 인식은 이러한 사고의 사후 대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사회적인 여론이나 정치적인 필요성 보다는 철저한 직업 의식에 기초한 전문가들의 올바른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계와 건설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다. 적어도 건축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의견은 건축의 여러분야 중에서 직접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 설계자, 구조기술자, 시공기술자의 세가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분야의 문제점과 건축 전반에서 그 문제점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을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한다.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들 사이에서는 건축이 많은 건축주들의 간섭에 의하여 설계의 전문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도목과 건축이 엄연히 다름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이것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데 대한 불만, 건축에 관한 행정이 전문성이 결여된 채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것 등을 많이 지적하게된다. 또 건축사의 제한된 역할을 탈피하자면 건축사에게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조기술사들 역시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금까지 건축 설계자 위주의 건축설계 실무에 강한 비판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실무과정에서 구조기술자의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이번의 사고 자체가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 동안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와의 사이에 불합리했던 실무체계를 구조기술자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시공기술자 역시 현재 불합리한 설계가 시공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계의 불완전을 시공기술자가 현장에서 보완하기도 하지만 그 업무 한계가 매우 모호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모두 시공자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시공 현장의 문제는 설계자와의 책임 한계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의 열악하고 특수한 건설업 환경에서 기인하는 무수히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은 나름대로의 상당한 설득 근거를 가지고 있어 최소한 그 자체가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건축계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명쾌하게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방향으로 토론이 계속될수록 건축의 제 분야 간의 이해가 드러나고 결국은 건축의 실무에서 주도권을 놓고 각 분야가 대립하는 것으로 비쳐지기가 십상이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주장들과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 사이에는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제점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 문제점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 문제 해결(Problem-Solving)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 정의의 적정성과 독창성은 그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사건이 구조물의 붕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문제점의 정의는 또 다른데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대책 마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흔히 복잡한 문제점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점 현상을 개별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들과 이들이 모여져 전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으로 합성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과 각 시스템 간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으로 정의된다. 이때 우리는 문제점이 과연 개별시스템의 성능 자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 사이의 연결부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시스템 개념에 의하여 접근해 본다면 문제점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건축물을 공급하여 유지관리하는 과정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고 복잡한 개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구조계획, 환경·설비계획, 방재계획, 시공자 선정, 시공, 보수·보강, 하자 및 유지관리,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개별 시스템 내부에서 활동하

며 그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들 자체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시스템이 타 시스템과 갖는 상호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별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확률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실한 실무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삼풍의 사고를 이러한 시스템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조물의 안전과 방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안전 장치가 개별 시스템에 분산되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충격은 이렇게 많은 안전 장치의 어느 것 하나도 원래 의도한 바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별 시스템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가 관리되지 못한다면 그 보장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이 도입된 책임감리 제도라는 시스템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것도 결국은 그 감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 감리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설계나 현장 시공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할 정의가 분명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은 건축실무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전문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개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열거해 본다면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시스템이 가지는 역할과 실무 책임의 한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 쌍방간의 계약 내용이 보다 공평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계약 관행의 개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건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급 및 유지관리 방식도 융통성있게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은 관(官)에 의한 실무 통제가 증가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실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계와 시공, 더 나아가 유지관리의 주체까지도 하나의 조직으로 통

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스템을 지원할 전문 인력과 그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각 개별 시스템은 건축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건축교육도 건축실무라는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 건축실무의 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적당주의부터 뜯어 고치자

Break of a Bad Custom

全泰秀 / 서울시 건설본부장
by Cheon Tae-Soo

1. 서론

건설분야에서는 94년을 성실시공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하여 안전관리, 품질관리, 각종제도 개선 등을 노력하던 중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이어 갑작스런 성수대교 붕괴 및 이번 삼풍백화점 대형사고 발생으로 건축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성장에 급급하여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을 내실있게 거치지 못하였다는 점과 한국적인 적당주의 행동양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건축은 기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라는 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할 수 있으나, 설계만 완료하여 시공업자에게 맡기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특히 민간부분의 건축물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고, 사후관리 등은 관심 밖의 사항으로 인식되어 설계부실, 시공부실을 시정에 감리감독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않고, 건물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안전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실시공의 원인

그동안 각계에서 발표된 부실공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의 부족,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인력수급불균형, 건설종사자의 책임의식 결여, 기술능력부족 및 기술개발 미흡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 공사비 및 적정 공기부족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라는 속성과 비전문가인 건축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다보니 공기부족이 많으며,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 양식과 무리한 공사비 삭감으로 인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자는 실제기능인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게 되었으며, 기능이 없는 기능인이 고용되고, 기능이 있는 고용인도 부실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 자재 인력수급 불균형

'90년도 초반부터 신도시 건설 등 건설불량 증가로 인력 및 자재수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따라 불량자재 사용 및 기능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게 되어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 톱만 잡으면 목수, 흙손만 잡으면 미장공 행세를 하는 환경에서 감독이 아무리 철저히 한 다해도 주어진 기능이상으로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3D 산업기피 현상으로 건설인력이 3차산업으로 이동되는 사태로 발전, 인력난을 가중시켜 왔다.

다. 건설인의 의식

현행 경쟁원리에 입각한 공사 입찰제도는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적정공사비에 근거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덤핑 등 저가 입찰로 수주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을 하도급자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의식과 불량자재 사용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관행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기능인 역시 자신이 일한 부분은 자신이 책임지려는 장인정신이 부족하여, 많은 일당을 쫓아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으로 떠돌아 다니며, 일당만 받으면 된다는 무책임 또한 부실의 요인이 된다.

라. 기술개발 및 실패사례 규명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개발은 본인이 느끼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건설공사는 대부분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밀한 시공과 완벽한 자재는 기계화된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능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함으로써 공장생산력을 높이고 현장작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실을 방지하고 시장개방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계화 시공에 역점을 두어, 부실을 방지하여야 한

다.

이제는 벽돌을 쌓고 미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공사례 발표는 잘하나, 실패사례는 책임문제 때문에 은폐한다. 실패사례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누구를 문책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건설기술의 발전 차원에서 원인규명 및 기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대책

전문성 있는 감리자 및 기능공을 양성하고,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책정,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전문성 있는 감독 및 감리자가 참여하여 사업기간 및 공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현재 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감리자는 수천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물이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 되고 품질에 있어서 고도의 성능이 요구되며 신공법, 신기술, 신재료의 발달에 의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감리자의 분야별 전문화와 감리자를 우대함으로써 우수인력이 감독 및 감리업무를 선호하도록 하여 성실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능인 재교육이 절실하나, 소위 집장사 밑에서 배운 미장공은 미장을 3회하는 이유도 모르고 1회 미장이 원칙인 줄 알고, 벽돌공은 일일 쌓기가 1.2m인데 하루에 3m이상 쌓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건설현장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다 보니, 벽균열과 침하 현상은 당연한 결과가 되었다. 감독이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감독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능공에 대해 최소한의 공사원칙을 교육하는 기능공 양성 및 재교육이 절실하다. 자기가 시공한 공사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장인 정신교육도 병행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공사비 하도급자에 보장

부대입찰제도(발주자가 입찰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공종 및 하도급 가격을 결정한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해서 입찰토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사낙찰 후에 당초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자가 시공하여 하도급 계약회와 촉진 및 원청자와 하도급자의 분업적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일한 하도급자와 기능공에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부대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자동화, 표준화, 건설기술개발

품질 향상 및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 표준화 및 조립식 공법을 개발하고 자동화 산업용 로봇을 적극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의 난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또한 고령화 및 3-D산업기피 현상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막고, 품질 향상 및 노동재해의 방지를 위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지상과제가 된다.

이는 일부 업체에 의한 개발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 보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설계의 모듈화, 자재 표준화를 적극 반영 시공성이 있는 설계가 우선 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재의 고품질화를 위해 공장제작 등 조립식 공법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다. 사후평가

사후평가 철저히 조사,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요인에 대한 반복적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부실요인을 기술자 양심으로 문서로 남길때 면죄부를 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록 등 건물유지관리 기록부 비치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문의 부실방지 대책

- 총체적 안전관리 품질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 시공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 시공상제도를 시공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의견존중)
- 중간검사 및 준공전 예비검사를 철저히 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다른업무에 중복되지 않고 품질관리에만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현장 종사자 및 기능공 의식 개혁 및 책임시공 특별교육과 기능공 시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개시전 현장책임자가 현장설명회를 열어 공사장 안전과 구체적 시공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현장 근로자 편에서 복지시설(숙소, 샤워장, 휴식공간, 식당, 주차장) 및 주변여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 우수사례를 발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4. 결론

우리 건설은 세계화 물결속에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

여 잘못된 관행의 물에서 벗어나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실의 원초적인 사항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건설회사는 외국에 나가면 잘하고 국내에서는 부실공사를 한다는 말을 낫뜨겁게 들었다. 혹자는 감리제도 미흡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는 적당주의 양식이 문제이다.

우리는 하루 빨리 정신 개혁을 하여 경영자는 참된 가치관과 직업의식을 중간관리 기술자는 자기기술개발과 책임의식을, 현장 기능인은 내가 시공한 현장은 내가 책임지는 장인정신을 길러야 하고,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정신으로 일할때 부실공사가 추방 된다고 생각한다.

관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행과 투철한 공사관리가 필요하며, 기획, 조사,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이땅에서 부실공사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건축물이 붕괴될 때마다 가슴 철렁하는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다.

감리제도의 개선책

Improvement on The Architectural Supervision System

元鍾一 / 세종건축
by Won Chong-II

우리의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우암상가, 행주대교, 성수대교가 차례로 무너졌을 당시 어떤 건축인이 이제 우리의 모순된 건축문화의 병리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시초 현상이라고는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지난날 우리가 해외공사현장에서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외국의 건축문화에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누구나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그러한 "호화스런 낭비"를 우둔하다고 비웃고 그저 우리 국내식대로 "가장 저렴하게 대충 빨리"하려다가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하자보수에 매달리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

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쓰라린 경험조차도 우리에게겐 반성적 계기가 되지 못하고 그당시 오히려 정부와 언론에 의해 국민에게 정반대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호도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식" 대로의 공사 형태가 관행화 되었던 것이다.

건물붕괴의 상징처럼 되있는 와우아파트로 부터 삼풍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붕괴사고는 우리의 잘못된 공사관행, 대중의 문화의식, 정치, 행정, 그리고 건축인 자신의 직업인으로서의 패배의식 및 건축업계, 단체 사이의 이기적 갈등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에 의해 야기되었다.

따라서 건축감리제도가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의 열악한 건축문화환경을 여하히 극복하고 실제적으로 행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리의 공사현장에서 자리매김 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건축감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발주에서부터 설계, 시공, 건축행정 및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축전체과정의 유기적 관련업무 중 한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감리제도의 정상적 자리매김은 위와같이 현재의 우리 건축문화수준이라고 하는 외부적 영향과 그리고 같은 건축업무 분야 중 일부라고 하는 내부적 관계속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1. 외부적 영향에 대하여

1962년 처음으로 현대서구식 건축법규가 제정된 후 근 30여년 동안이 우리의 서구적 건축문화의 보급, 발전 역사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고자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에만 매달렸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건축산업현장은 정치목적 또는 자본경제논리의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참다운 건축기술력의 발현이 그 사명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너무도 기본적인 상식이 무시되었던 것이었다. 학구적이고 정교한 건축기술력이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 대중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건축문화풍토가 이런 왜곡된 가치관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서구적 민주산업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 우리의 통치방식 속에는 여전히 "사농공상"의 유교식 권위주의가 배어있어 각 직업계층 사이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사회 곳곳에 갖가지 불균형 현상의 피해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분야는 단순하게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취급하기 어려운 문화적 복합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또한 이와같이 왜곡된 정치나 행정, 왜곡된 경제의 논리가 건축의 본질적 가치를 소외시켜 발생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건축의 본질적 가치라 함은 그 첫째가 예술적 가치 둘째, 사용목적적 가치 즉 기능 셋째, 생명을 보존하는 구조의 안정적 가치를 지칭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와같은 건축의 본질적인 가치가 우리 이 땅에서는 정치엘리트로부터 서민대중 심지어 같은 건축분야의 업계에 이르기까지 적당히 무시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건축문화환경으로 인하여 건축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많은 건축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써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건축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몰각하고 있는 업계의 득세로 인한 갈등마저 겪고 있기도 하다.

건축공사 감리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적 환경영향에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책을 열거하면

첫째, 건축산업현장이 더이상 정치, 행정, 자본경제의 이기적 논리의 도구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건축 예술 및 기술논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상식화되어야 하고

둘째, 현사회의 만연되어있는 "대충 빨리" 건축하려는 적당 조급증으로 중독된 대중의식이 질적으로 반전되어야 하며

셋째, 건축분야에 관한 한 건축 및 건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건축전문 기술인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및 행정기구상의 제도적 참여장치를 만들 것이 요망된다.

이상과 같은 외부적 환경의 개선은 건축감리업무가 건축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확고한 문화적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건축의 다른 분야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문화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건축의 다른 분야와의 관계정립

건축감리업무는 건축물의 발주에서 부터 설계, 시공, 건축행정 및 건축물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축전체 과정의 유기적 관련업무중 한 부분이다. 우리사회에서 건축감리는 법적형식으로는 근 30년 이상 존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업무가 건축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89년 이전까지는 시공감리업무 독자성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고 89년 이후에 비로소 건기법에 의해 대형공공건물에 한해 공사감리라고하여 미흡하게나마 시행하고 있고 민간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그나마 법적 시공업자 없이 건축주 자신이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감리의 적용 요건마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수행해야 할 현장조사업무를 민간설계사무소에 행정위임, 이것이 마치 감리업무인 양 잘못 호도됨으로써 설계사무소가 의무사항이 아닌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정말로 무모한 피해를 떠안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우리의 공사감리제도는 아직도 정상적인 형태로 정착하기에는 요원한 수많은 난제와 시행착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올바로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감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감리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타 건축분야들은 아래와 같은 책임과 협력관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최초 발주자의 합리적인 발주의지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업무의 정상화와 직결된다. 정상적인 설계와 시공 및 감리업무가 보장되게 하기 위하여 여하히 적정하게 발주공사비를 책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으로써 이에 대한 합리적 의지야말로 건축문화발전의 근원적 진일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과제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품셈 및 노임단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책무로써 이기적으로 건축공간을 무단용도변경하거나 크기를 증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하며 건축기술 용역을 제공한 감리자에게 책임을 이중으로 부과하여 업무능률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모한 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리자에게는 단지 발주자와 계약상 맺어진 시공품질 확인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을 때 또한 이로 인하여 공공에 피해를 주었을 때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설계작업은 더욱 더 정교하고 건축관련 분야별로 세분된 내용으로 작성되도록 행정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정교한 도면을 토대로 하였을 때 감리업무가 충실히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사현장에 QC와 Shop Drawing 업무를 시행하여 감리업무활동을 심세하고 원활하게 해야한다.

넷째,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적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기초적인 소규모 현장에서부터 시공감

리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함으로써 현재의 적당 조급증으로 증폭된 대중의식을 전반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건축행정은 주로 건축주의 공공에 대한 이기적 위범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으로써 시공상의 사용재료 및 조립작업의 품질을 감시하는 시공감리와는 근본적으로 그 책임 한계가 구분되어야 한다.

끝으로 건축감리체계는 건축가의 예술적 표현의지를 보장하는 설계감리와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시공감리로 구분되어야 하며 향후 시공감리는 가능한 한 설계업 또는 시공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감리업무만을 전담하는 분야별 건축관련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감리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리의 책임과 개선방향

The Responsibility of Architectural Supervision

朴武一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전문위원
by Park Moo-Il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우리 건설기술이 다시 한번 망신을 당하고 신용이 추락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은 건축물 모두를 불신하게 되고 앞으로 해외건설수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커다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공사는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단계를 거치며 첫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양질의 건축물로 완성·유지될 수 있다. 그간 발생된 대형사고들은 이들 단계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있겠다.

1. 감리의 책임

시공감리의 중요성 때문에 건설관리기술법에도 감리원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 세부업무범위는 첫째 시공계획의 검토, 둘째 공정표의 검토, 셋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네

째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다섯째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여섯째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일곱째 품질관리시험계획실시의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여덟째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홉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열번째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열한번째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열두번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다.

이와 같이 시공감리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또한 이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정업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2)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 3)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 4)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5)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6)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때
- 7) 다른사람에게 자기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 수첩을 대여 한 때
- 8)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겸직한 때
- 9)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요청이 있는 때 등이다.

이와 같이 제도는 그런대로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적인 이행환경 등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부실감리로 많은 감리회사가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정업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실태

최근 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94. 7. 30)에 의한 감리분야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 1) 감리자가 감독자의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감리자의 역할이 미흡
- 2) 감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능력의 보유미비

- 3) 감독자와 시공자간의 상충된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의사전달 수행 미흡
- 4) 시공자 및 부품 공급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업무대리수행 기능 미흡
- 5) 시공요건 및 품질확보를 위한 관리절차 수립 또는 승인 및 그 성과의 검사 등의 미흡
- 6) 감리자는 사업 및 공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 분야별로 능력이 있고 윤리성 및 책임성이 있는 시공기술전문가, 공종별 품질·공정·자재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기술능력수준은 미흡하고 절대소요인원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된 감리제도상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선방안

국내건설업체들이 해외공사에서는 부실없이 잘하고 있지만 국내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건설기술이 부족하지는 않고 단지 국내에서는 이들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감리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향상

법상으로 주어진 감리업무는 광범하나 그 업무에 해당되는 전문분야별로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대가가 책정이 되고 있지 않아 적재, 적소, 적기에 필요한 전문분야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다. 특히 개인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자 감리차원의 감리비만으로 시공감리까지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점이 해소되려면 우리 기술자들이 단절하여 과당경쟁을 삼가하며 제대로 대가를 받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나. 설계자와 시공감리의 역할분담

현재 설계자와 시공감리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설계자는 설계를 토대로 시공되는지의 감리와 시공기술자에 의한 시공감리가 상호보완관계에 의거 감리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감리기간도 착공시점이 아닌 발주단계부터 시작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

다. 감리요원의 능력향상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이제 시작되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감리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먼저 감리자 스스로 자질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양성으로 고도화된 감리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리자의 위상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라. 감리자의 법적권한 확보

감리가 발주자에 대한 수주자란 관계에서는 발주자의 요구를 견제가 어려워 적절한 감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감리자의 법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즉 발주자는 관련단체에 감리비를 불입하고 관련 단체에 등록된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도 생각해봄직하다.

마. 감리자의 엄정한 업무수행자세

우리는 모든분야에서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연결고리 때문에 엄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한다. 현재 외국 감리회사의 참여에 대한 발상동기도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고방식에서 탈피, 전문가로서의 엄정한 업무수행자세가 요망된다.

그간 대형사고의 그늘에는 성과위주의 발주자나 관료의 요구에 대해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우리기술인들의 방관자세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감리제도는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환경)은 미비함에도 법칙 등은 엄하게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확고히하여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엄정히 업무를 수행할 때 부실은 멀리 추방될 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위상을 찾아야겠다. 불량에서 탈피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먼저 갖추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항상 명심해야 할 말은 건설공사는 작업공간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는 자기가 한 일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알함브라 궁전

The Alhambra

安秉義/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Byong-Ui

이 궁전은 언덕위에 세워진 중세의 성벽이다.

성(城)주위는 30개 이상의 탑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알함브라는 아랍말로 붉은성이라는 뜻으로 성벽에 쓰여진 돌에 붉은 철분이 많이 섞여있어 얼핏 붉게 보인다.

이 궁전은 군대의 숙소와 포로들의 감옥, 왕궁,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로 나누어지고 물론 왕궁이 그 중심으로 호화찬란한 장식과 아랍건축의 미의식(美意識), 조경기술의 표본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품이다. 그 디자인의 원칙은 물과 빛과 그리고 꽃이며, 이 세가지는 무미 건조한 사막의 생활에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

「피레네산맥을 넘으면 곧 아프리카」라고 나폴레옹은 말했다는데,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유럽은 피레네산맥까지라는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듯이 이 산맥을 분수령으로하여 북쪽은 볼란서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전원인 반면 남쪽의 이베리아반도는 바위투성이의 험준한 산들과 나무도 별로없는 황량한 들판이 실증나리만치 이어진다. 저녁엔 파리를 떠나 스페인이 자랑하는 초급행 『딸고』를 타고 아침 여덟시 쯤에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장장 열세시간이 걸렸다.

스페인에 비하면 우리와 별로 인연이 없고 낯설기만하다. 그러나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나라이고, 『피카소』와 『고야』 『달리』 등

쟁쟁한 예술가의 나라이며, 눈매가 몹시도 요염한 『에바, 가드너』의 고향이요, 건축가로는 『가우디』와 『조세루이셀트』를 낳은 자랑할 만한 국가이다. 또한 한때 스페인함대는 영국에 앞서 세계를 손아귀에 넣지 않았던가. 나는 이러한 위대한 풍토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싶었다. 특히 보고 싶었던 것은 알함브라 궁전이다. 그것은 스페인의 남쪽 『그라나다』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 황량한 벌판을 여덟시간이나 더 가야만했다. 돌아가신 김중업(金重業)선생께서 스쿠터를 타고 피레네 산맥을 거쳐, 알함브라궁전을 불려고 이곳까지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무엇에 끌렸을까? 알함브라는 파리에서는 지구의 끝이라고 여겨질만한 거리인데 말이다. 기원 7세기에 예언자 모하메드는 아라비아에 이슬람교를 세우고 차례차례 다른 민족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8세기에는 스페인을 손아귀에 넣게 된다.

그리고 9세기에 이르러 알함브라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궁전은 언덕위에 세워진 중세의 성벽이다. 성(城)주위는 30개 이상의 탑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다. 알함브라는 아랍말로 붉은성이라는 뜻으로 성벽에 쓰여진 돌에 붉은 철분이 많이 섞여있어 얼핏 붉게 보인다. 이 궁전은 군대의 숙소와 포로들의 감옥, 왕궁,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로 나누어지고 물론 왕궁이 그 중심으로 호화찬란한 장식과 아랍건축의 미의식(美意識), 조경기술의 표본이 함께 어우러진 예술품이다. 그 디자인의 원칙은 물과 빛과 그리고 꽃이다. 이 세가지는 무미 건조한 사막의 생활에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를 위해 안뜰은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 연못의

수면은 건물의 아취의 그림자가 어리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때때로 산들바람이 불어와 수면에 비친 그림자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일그러져 보인다. 이 안뜰을 향해 많은 창들이 꾸며져, 햇빛은 방안의 바닥과 벽에 그림자를 떨군다.

이 아름다운 궁전의 명성은 그 옛날 널리 퍼져있었다.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오랜 세월 아랍과 싸워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는데, 이 마을과 알함브라 궁전을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넘겨받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승리이며 이슬람건축의 에스프리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이후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세기 건축의 으뜸을 인도의 타지마할과 알함브라궁전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왕비를 향한 사무친 정이 빚어낸 귀한 보석같은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타지마할이라면 알함브라는 언덕위에 우뚝 솟은 성벽이 남성적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이곳 알함브라의 꽃향기 가득한 안뜰에서는 왕과 별거벗은 애첩들과의 향연이 벌어졌던 곳이다. 전자가 정신적인 승화된 사랑의 상징이라면 후자는 육욕(肉慾)의 환락이 묻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 궁전의 내부공간은 더없이 아름다운 아라베스크의 장식으로 휘감겨 있다. 이 성을 전쟁으로 파괴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받고 싶어했던 기독교인들의 집착이 이해되는 아름다운 궁전이다.

이 궁전은 9세기에서부터 수백년동안 차곡차곡 지어졌다. 내부공간의 현란한 장식과 조경, 멀리 떨어져있는 2,800미터 높이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이끌어온 물을 정원의 연못으로 쓰는 등 그 당시의 기술을 최고로 동원했다. 수백년에 걸친 공사기간 등은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구라파의 오래된 여러마을도 그렇지만, 스페인 거리의 고색창연한 건물들앞에 서면 바로 흘러간 옛날 중세기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그 중의 하나가 이 왕궁 한가운데 있는 대사(大使)의 방으로 바로 1492년에 콜롬버스가 당시의 임금이었던 이사베라 여왕을 알현한 곳이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대륙 발견의 대항해를 떠났다. 이 방에 이르니 타임머신을 타고 5백년전의 옛날로 되돌아간 감회에 젖게 된다. 수만년전이라고 추측되는 알타미라 동굴은 스페인과 불란서의 국경지대 피레네 산맥에 있는데, 그 복제품이 마드리드의 고고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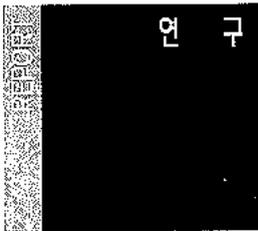
지하에 꾸며져 있다. 어두컴컴한 지하동굴 천장에 인류 최초의 그림이라는 붉은소가 재현되어 있다. 지하 암흑동굴에서 갑자기 지상에 나오니 거기는 마드리드의 6월 햇살이 눈부시다. 어쩔 수 없이 20세기의 현실로 되돌아온다.

문득 옛날에 읽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실렸던 글구가 떠올랐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약 5만년정도인데 이것을 인간의 수명(약 62년)으로 나누면 약 8백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회에 이루어놓은 발전이 그 이전의 7백99회의 세월 동안의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어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전반이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 한가닥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그 빠른 변천의 속도에 우리의 사회생활의 습관과 감성이 쉽게 적응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나 자신은 이 공포감(?)을 현실로 느끼고 있다.

나는 모더니즘 건축을 배웠고, 그후 레이트 모더니즘을 좋아했고, 익숙해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어딘가 경망스러워 보이니 내 비위에 거슬린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포스트모더니즘의 깃발로 나부끼고 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연한 셈이다. 곧 그것도 쉽게 새로운 사조가 유행될터인데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익혀온 레이트 모더니즘에서나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볼려고 할 따름이다.

이번 여행은 20일중에 스페인에서 한 주일을 보냈다. K.A.I.편으로 로마에 내려 스위스, 파리, 영국을 거쳐 마드리드에서 역시 K.A.I.편으로 돌아왔다. 중점을 스페인에 둔 셈이다. 아내와 더불어 배낭을 지고 유레이패스로 마음내키는 대로 돌아다녔다. 수만년전의 알타미라 동굴에서 중세의 알함브라까지 시간을 초월한 행로에서 무엇을 보았고 느꼈는지 다시한번 정리해볼 생각이다. 나는 어네스트 헤밍웨이를 좋아한다. 스페인 내란에 참가하고 나서 그의 대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남겼다. 피카소 또한 좋아한다. 마드리드의 미술관에서 그의 『게르니카』를 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특히 『게르니카』를 위한 방대한 스케치가 나를 끌었다. 알함브라궁전옆 집시들의 마을 토굴에서 본 후라멩코의 감격도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훗날 스페인의 추억을 다시 차분히 정리해볼 생각이다.



1. 서론

근래에 와서 우리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점차로 깨닫기 시작했으며, 과도한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징후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며 이 자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들이 찾아내어 사용하는 것뿐이다. 불행히도 이 자원들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다. 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조절하고, 흡수하고, 변화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설계의 기본이다.

재생가능한 건축설계는 현재의 선형적(線形的)인 건물생산 시스템으로부터 원료에서 소비,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순환하는 흐름으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몇가지 이유로써 첫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것 둘째 비효율성과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에게 그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셋째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모두 고갈 시킴으로써 초라하게 될 위험과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생가능한 자원과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환경적 측면의 손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재정적인 타당성에 의해서만 판단되고 평가해 왔다. 그 결과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고 그 자원의 희소 가치에 의해서 가격의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의한 에너지 공급체제로 편성된 건축이 환경파괴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축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써의 『환경건축』과 『공업화 건축』 『TBS건축』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

- 환경건축을 중심으로 -

Systematic Approach for the Sustainable Architecture

- Mainly on the Environment Architecture -

金泰雄 / 흥한건축사사무소
by Kim Tea -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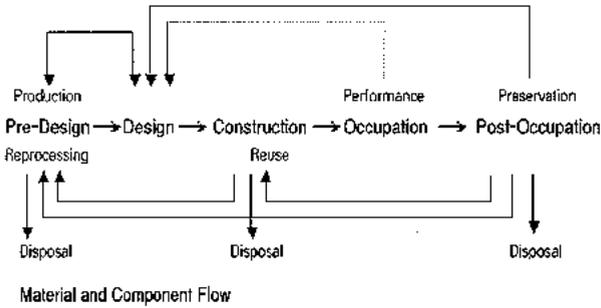
2. 지속가능한 건축의 시스템 접근

지속가능한 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시스템적 맥락에서 단계별 각종의 노력이 요구되며, 건축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 모든 과정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서브시스템(SUB-SYSTEM)의 차원에서 발생하며, 요소별 개개의 의사결정이나, 총체적인 의사결정은 시스템내에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으로 결정되어진다.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건축에 대한 보다 향상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설계와 건축과정에 대한 정보에 관한 FEED BACK기능이 매우 취약함으로 건물의 기능과 물리적인 성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INFORMATION FEED BACK]



위의 FLOW CHART 에서 계획, 설계, 시공, 사용 전 단계에 걸쳐서 어떠한 정보가 FEEDBACK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후 단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모든 단계로 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FEED BACK과정을 가짐으로써 설계 이전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환경 건축의 개념

오늘의 지구 환경의 오염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해 인류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그 결과로써 대기오염, 오존층파괴, 각종 자원의 고갈등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평형을 위협하는 현상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각국의 에너지 소비량중에서 35~40%정도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에 사용됨으로써 건축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매우 크며,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에너지는 건축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을 제공해 준다. 에너지를 고려한 건축 디자인이란 것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기술의 경제성을 초월한 설계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건축은 자연(自然)에너지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건축가의 형태 창조에 자극을 주어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건축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준다.

4. 건축과 환경문제

전통적으로 건축디자이너는 건물의 외피디자인을 통해 실내환경을 조절하여 왔다. 그러나 근대건축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발전은 건물의 구조와 재료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실내환경을 위한 건축디자인은 무시되었다. 철골과 유리커튼월이 시각적 효과와 구조의 경량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근대건축은 겨울철 난방 및 여름철 냉방을 위해 기계적인 공조설비 없이는 쾌적한 환경조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공조명 및 공조설비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실내환경은 기계환기 시스템과 공기조화 설비에 의해 조절되므로 실내환경 조절은 건물형태나 외피 특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막대한 에너지 사용에 의한 지구오염과 인공조명 및 기계적인 공기조화 건물에 대한 재실자의 불만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갔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실내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시의 에너지 심의를 받은 1991~1993년 동안 90개 사무소 건물의 74.5%가 경량외피 구조체이며, 70%이상이 창면적비 4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량구조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엄청나다. 아래 표1과 같이 경량구조체의 평균난방부하는 중량구조체보다 연간 2.04MKCAL/m² 정도 더크며 평균 냉방부하는 연간 1.62MKCAL/m² 정도 더 크다.

아래 표2와 같이 커튼월의 경량구조체인 63빌딩은 타 건물에 비해 3~5배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경량구조건물과 중량구조건물의 냉난방부하비교】

구 분	경량구조체	중량구조체
평균난방부하	25.4MKCAL/m ² ·년	23.4MKCAL/m ² ·년
평균냉방부하	33.4MKCAL/m ² ·년	31.8MKCAL/m ² ·년
합 계	58.8MKCAL/m ² ·년	55.2MKCAL/m ² ·년

이러한 에너지 소비형 건물은 에너지 소비 뿐만 아니라 직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중에 이산화탄소의

【 표2. 서울시내 대형 사무소건물의 에너지소비 비교(1991년)】

구 분	63빌딩	H빌딩	L빌딩	S빌딩	K빌딩
	에너지절약형 건물				IBS**
에너지*(kg/m ²)	26.6	13.2	7.7	4.6	5.7
전기*(kg/m ²)	254.4	254.4	185.9	191.3	99.3

* 오일환산에너지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농도는 350PPM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석유와 같은 재생불가능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고 지구기온이 1~2°C 상승하면 강수량이 10% 감소하고, 지표수가 40~70%감소 되며 이것은 농업 및 생활용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토양유실을 심화시킨다. 인간을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책임진 건축가의 반성과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인류가 직면한 "지구환경오염"문제는 결코 건축분야와 무관하지 않으며, 건축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5. 환경건축의 목표

건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각적인 대상물이 아니며,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써 존재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으로 본다.

환경건축은 경험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의 일부로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환경을 주체로 하는 건축"의 이념을 표방한다. 즉 환경건축은 태양열, 햇빛, 바람 지열 등 자연 에너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지금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현대건축이 에너지 소비 지향적이며 기술 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태양열, 햇빛, 풍력, 지열 등 자연환경요소와 심리적요소, 의장적인 요소등을 다차원적으로 통합디자인 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다양한 분야의 『환경건축』 기술들은 개개의 기술로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통합작업이 바로 건축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6. 환경건축의 디자인 기법

자연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과 건축계획적 방법의 적용에 의한 쾌적한 실내기후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6-1. 자연형 디자인 원리

건축환경의 조절방법은 크게 자연형조절 방법과 설비형 조절방법으로 대별된다. 이 두가지 조절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데 자연형조절이 선행되어 이루어지고 기계적 조절은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자연형조절은 건물의 형태, 구조, 외피계획 등의 건축적인 계획을 통해 기계적 장치의 도움없이 실내환경조건을 인간의 감각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방법이다. 즉 자연형 디자인원리는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자연형 원리를 적용한 건물의 자연형 설계는 생체기후학(BIOCLIMATOLOGY)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건물에서 태양열,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조성에서 건물상세에 이르기까지 상호관련된 자연과 건물-환경시스템의 관점에서 건물을 설계하는 기후 디자인이다.

자연형 설계는 다양한 기후조건과 주변환경에 대응하여 설계초기단계부터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실내환경성능요소들의 상호관계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한다. 자연형설계는 환경성능요소별로 자연형 태양열 난방설계, 자연채광설계, 자연환기설계, 자연냉방설계 등 전문분야로 나누어지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설계방법이 결여되어 종합적인 실내환경성능이 저하되고, 실제설계업무에서 잘 이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6-2. 자연형 각종 기법

(1) 자연형 태양열 난방기법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획득 방법, 간접획득 방법, 분리획득 방법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난방시스템으로의 구분으로 직접획득법, 축열지붕형, 부착온실형, 자연대류형, 이중외피구조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건물의 배치, 방향, 외형에 의해서 태양열을 최대한 취득하도록 계획한다.

(2) 자연형 냉방기술

자연형 냉방(PASSIVE COOLING)은 천공복사, 대기, 지표, 물등 실내기온보다 낮은 자연요소를 이용하여 실내를 냉방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냉방방법은 태양복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창문, 벽, 지붕을 태양열로 부터 차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물의 방향에 따라 다른 종류의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건물의 배치에 의한 풍향조절과 조경을 통한 일광의 차단등이 고려된다.

그 외에 증발냉방(Evaporative Cooling) 복사냉방(Radiative Cooling) 지중냉방(Ground Cool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자연채광 기술

(가) 자연채광 방식

- ① 천창채광방식
- ② 광선반(Light Shelves) 혹은 반사루버
- ③ 광정(Light Will)
- ④ Suncoop
- ⑤ 덕트 채광 방식등이 있다.

(4) 아트리움(ATRIUM)방식

아트리움의 일반적인 열의 특성은 대공간(높은 천장, 넓은 면적)이므로, 수직온도분포 및 수직기류의 분포에 큰 차이가 생기기 쉽고, 지붕·외벽이 유리로 구성되어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기 쉽다.따라서 동절기에는 태양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를 건물속에 모아, 야간에 방열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과가 높은 건물을 계획할 수 있다.

열환경 측면에서 아트리움 설계는

- 기후에 따른 방향
- 온실효과로 인한 과열현상
- 굴뚝효과로 인한 하부의 냉기침입
- 수직온도의 차이
- 다양한 온도 분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유리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COLD DRAFT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 자연 환기법

- ① 건물에 기류변화를 고려한 건물배치기법과
- ② 개구부 설계기법
- ③ 통기구(通氣口: AIR VENT SLOT) 설치기법등을 사용한다.

7. 건축물의 조립/해체/재사용의 CYCLE:공업화 건축

현재는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건물의 유용성이 상실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등이 문제이다. 건축재료의 재활용을 위한 건축설계는

전연 고려되지 않아 도시를 고물덩어리로 내버리는 사회풍토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변화되어야 하며 설계분야에서도 재활용의 개념이 기능적인 통합이나 외관과 마찬가지로 건축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건물의 부품을 재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부품을 조립, 해체하여 재사용하는 것이다.

조립과 해체를 위한 핵심사항으로는 부품과 서브시스템(SUB SYSTEM)의 통합, 접합부에 대한 규정, 결합과 분리의 과정을 들 수 있다. 이때 해체는 주로 부품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의 사용 연한이 지난후에 해체된 부품에 대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최근들어 건물들은 사용 연한을 20~30년으로 가정하여 재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사용연한이 지난 건물들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건물이나 부품이 환경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설비와 같이 어떤 건물의 부품은 상대적으로 빨리 마모됨으로써 건물의 수명이 다하기전에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다.

냉·난방 공조설비는 주요구조체와 분리하여 서어비스 커넥터에 연결되어야 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부품을 손상되지 않게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접합부는 현장용접 또는 현장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결합 보다 보울트 강접합이 적당하다.

건물의 사용연한이 짧아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한다. 건물의 기능의 부적합과 마모나 사용기계의 기능적 쇠퇴로 인한 사용의 한계가 있으며 건물이 대지의 가치에 비해 비경제적인 것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8. 건축재료, 에너지, 시간과의 관계

건물의 서브시스템 사이에는 서로 주고 받는 형식으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예로써 건물의 외피설계때 특정한 재료나 부품을 선택하는 것은 냉·난방 그리고 조명 시스템의 에너지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에너지의 사용은 광범한 시스템의 한 평가 요소로써, 건축환경의 복잡한 관계를 생태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전반적인 에너지 평가는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이 존속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궁극적으로 재활용이나 폐기처분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품이나 서브시스템(SUB SYSTEM)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연한 동안의 에너지 성능으로서 이것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며 설비시스템등의 엔지니어링이 수행되기 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9. 건물의 IB화

(1) IB의 이점

정보화 사회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다량입수하여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정보가 첨단통신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유통(流通)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실내환경도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지적(知的)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내공간으로 변모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IB 빌딩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텔리전트 빌딩(IB:INTELLIGENT BUILDING)은 디지털 교환기 및 케이블등을 이용한 첨단정보통신 기능, LAN 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 의한 NET WORK화 된 고도의 사무자동화기능 그 위에 빌딩관리시스템, 에너지 절약시스템 보완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건축물이다.

이러한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적, 인공적 그리고 자연적요소가 최적으로 조화를 이룬 안락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적이고 지적인 생산성을 극대화 함은 물론 인간, 정보 및 빌딩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축과 유지관리면에서 경제성을 추구한다.

사무생산측면에서 보면 일반건물에 비하여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건물신축비용이 일반건물에 비하여 약 15~30%가 증가되는 반면 에너지 비용에서 약 20%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및 설비갱신 비용은 일반 빌딩 보다 약 30%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

즉 IB빌딩은 인간본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이질(異質)의 가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특히 개성적인 면에 대한 특성과 에너지 절감을 제공한다.

(2) IB의 사회적 효과

건물의 에너지 절감효과 이외에 ①사무자동화(OA) 및 정보통신(TC)기기의 도입으로 단위면적당 근무자의 감소로 상대적 교통량이 감소되고 외부와 정보 NET WORK화를 통해서 이동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②도시에 집중된 각종정보는 광역정보 NET WORK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도시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③IB에 관련된 광범위한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④도시건물에 아트리움(ATRIUM)이나 조경시설을 도입하여 공용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아니라 공해의 발생이나 배출을 극소화하여 도시환경에 기여한다. ⑤정보의 일반화 및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⑥『환경건축』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내환경조적 시스템의 요소들

[6 BUILDING PERFORMANCE MANDATE]

- ① 공간적 성능(SPATIAL PERFORMANCE)
- ② 열적(THERMAL PERFORMANCE)
- ③ 공기의 질(質:INDOOR AIR QUALITY)
- ④ 음향적 성능(ACCOSTIC PERFORMANCE)
- ⑤ 시각적 성능(VISUAL PERFORMANCE)
- ⑥ 건물의 보전성(BUILDING INTEGRITY)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기능의 적절성, 강도 및 안전성, 기후에 대한 기밀성 시각적 쾌적성, 음향적 쾌적, 경제적 효용성 등의 디자인 요소들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통합체로써

그 성능을 발휘할 때만 성취된다. 건물의 이러한 성능들은 시간이 지나 건물의 기능이 바뀌어 진다거나, 거주 패턴이나 기술 등이 바뀌어져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① 생리학적 요구(PHYSIOLOGICAL REQUIREMENTS)
- ② 심리학적 요구(PSYCHOLOGICAL REQUIREMENTS)
- ③ 사회학적 요구(SOCIAL REQUIREMENTS)
- ④ 경제적 요구(ECONOMIC REQUIREMENTS)

10. 결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값싸고 재생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의존해 왔으나 궁극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고갈이 머지않아 예견되고 있으며,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지구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에까지 진전된 상태에서 새로운 청정한 에너지의 발명과 자연에너지인 태양열, 햇빛, 바람, 지열 등의 대체에너지를 시급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건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자연형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석탄과 석유등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을 연장시키고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재정적인 접근에 의

한 판단은 재생효율과 환경효율의 측면에서 재고되고 정량화(定量化)시킬 필요가 시급하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흥미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천연가스와 가솔린이 수소로되는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됨으로써 에너지의 리사이클링(Recycling)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이 『환경건축』이 된다. 저밀도의 자연형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한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건축시공에 있어 질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공업화 건축방법이 건축시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철저히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IBS로 건물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에 따른 건물의 용도폐기의 경우 폐기물로서의 건물을 사전에 고려하여 조립, 해체, 재사용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러한 노력은 건물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때 불필요한 건설과 건물의 운영을 피함으로써 사무소건물의 매 평방피트당 연소되지 않는 약 5백만 BTU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환경건축』의 일환으로 아트리움형의 건물이 보편화 될 때, 도시건물의 정원화가 가속화되어 새로운 건축공간이 창출될 뿐아니라 이상적인 건축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사업 안내

우리협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 기관으로서, 1987년 본 사업 추진이래 다년간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기술축적을 이룩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주거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을 추진중에 있사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서비스내용

-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진단비용 절감
-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보장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에 대한 봉사(30일 이내 완료)
- 의뢰일로부터 2일 이내 현장 출장, 진단의 필요성 유무 조사, 판단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건축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 토지 이용도에 따른 경제성 효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과도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 제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내의 주택

문의 : 기술부 (02)581-5711 ~ 4, FAX.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재건축위원회

꽤 오래전에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자리에 세워지는 외국인을 위한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계획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층을 대표해서 나온 미군 군속과의 첫 대면에서 건축가는 제2의 조물주와 같으니 소신껏 잘 해 달라는 뜻으로 "Architect is next to god"이라는 말로 격려와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전에는 그런식으로 건축주로부터 대접을 받아 본 경험이 없던 터라 신기하기만했고 세상물정 모르고 으쓱대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의 상투적인 사람부리기 방법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15년이상 지난 일 임에도 불구하고 더러 생각이 나기도 한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들 사회가 집짓는 일과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일종의 외경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즈음 한참 사회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분당구 시범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 스포츠 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특히 청소년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사회체육 시설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먼저 시행하여 완성을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현재 이 건물의 운영을 맡고 있는 곳은 진흥공단이 따로 설립한 "한국체육산업주식회사"

라는 회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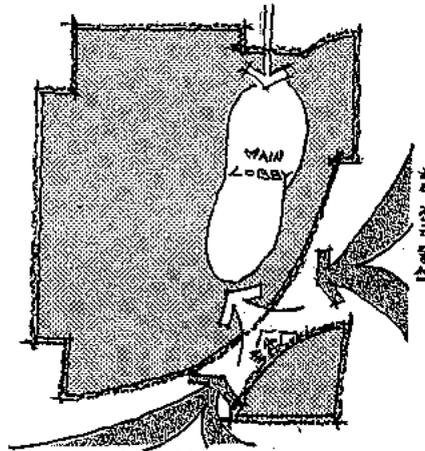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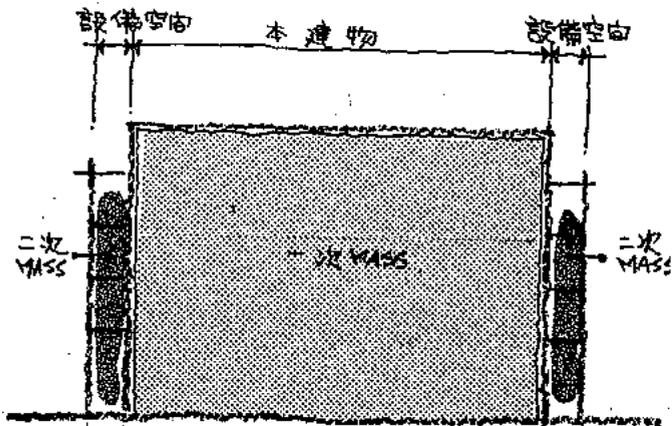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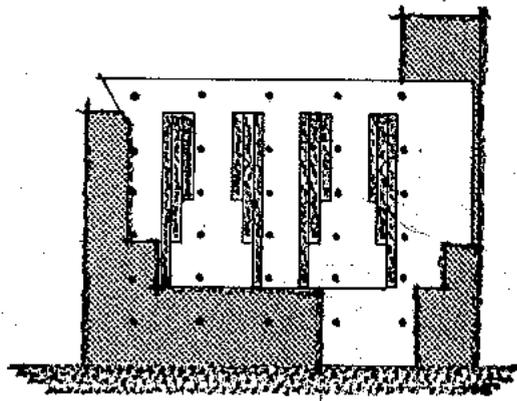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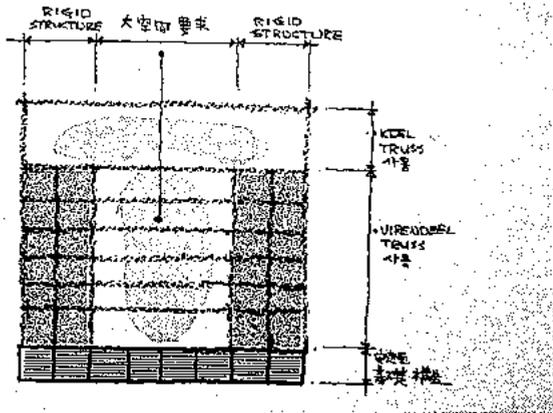
이 일은 1990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현상설계로 시작되었다. 용모한 세작품 가운데 범건축안이 채택되었고 그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이 했던 점은 발주자측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상응모자가 나름대로 사업계획 및 건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따라 건축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전문가가 마련한 사업계획과 발주측의 의지에 따라 계획이 진행되었지만 초기부터 건축가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충분한 파악과 함께 참여의식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 되었다. 매번 느

올림픽 스포츠 센터

Korean Olympic Sports Center

朴英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
by Park Young-Keon





계획스케치(개념도)

끼는 일 이지만 설계프로젝트를 처음에 기대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와 건축가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빼어 놓을 수가 없다. 지나치게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거나 건축주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는 어쩌면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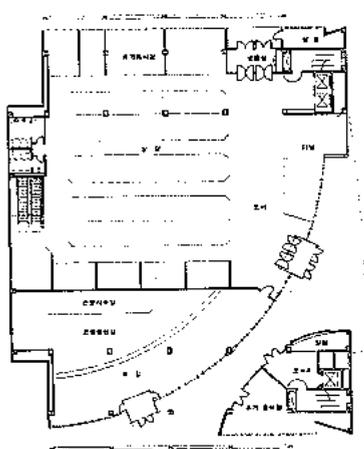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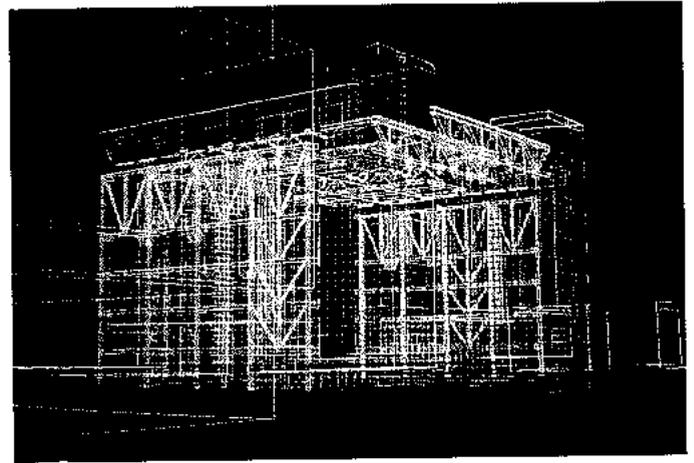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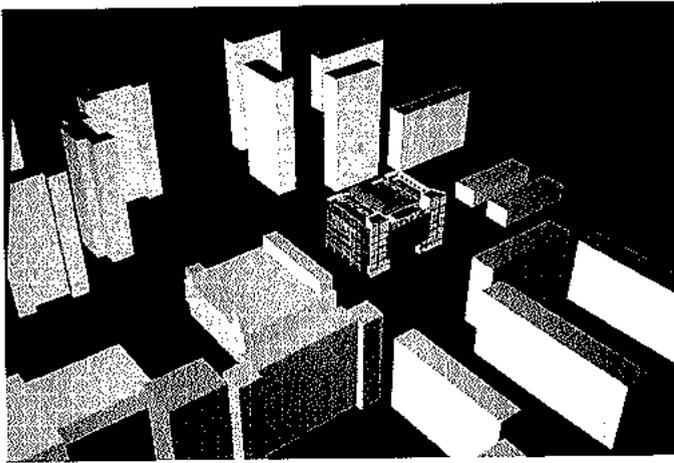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대단한 비용이 투입되는 자신들의 소중한 건물을 맡아 설계하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나 스스로 택한 건축가에 대한 불신이나 홀대야말로 건축주 스스로의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외가 있다면 건축주가 개인이 아니고 조직을 갖춘 단체 또는 집단인 경우에 그 소속원들이 소위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집단 보다는 개인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와 독재자 성향의 주인이나 권력자 밑에서 실속이나 차리려는 하인 근성을 가진 일부 실무계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요즈음의 사회 분위기 탓에 건축설계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공공성을 띤것은 물론이고 개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쩔수가 없다고 한다. "현상설계"에 붙이면 여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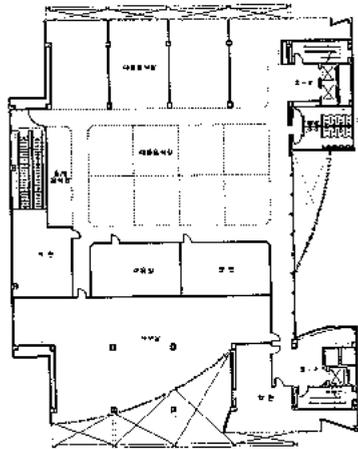
지로 이득이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우선 남들로부터 의심받지 않아 좋고 돈 안들이고 경쟁시켜 좋은 "아이디어" 받아서 좋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현상설계판을 벌린다. 근본적으로 발상에 문제가 있다. 건축설계를 이권차원에서 다루려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걸핏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여 오자고 한다. 이 나라에 잘못 되고있는 것이 어디 한두가지라고 모두 수입해서 해결한단 말인가? 그런 발상을 하는 부류일수록 자신들의 일은 "신도불이"로 해결 해야된다고 강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올림픽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이런점에 비추어보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소유주는 아니었으나 경영책임자로서 확고한 주관을 갖고 계획을 추진 해 나간 이 회사의 대표는 건축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 설계가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불치의 병을 얻게 되고 기공식 때는 병석에 누워 계셨으며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김 용모 사장님을 추모하며 옷 깃을 여미고 삼가 그분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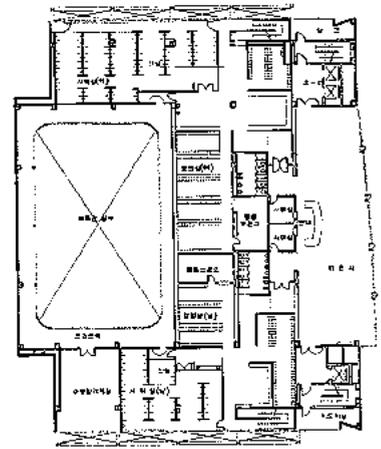
그 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분이셨다고 말한다. 매사에 적극적이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전한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 하셨다고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구사하면서 행하신 일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셨던 분이라고 한다. 원만한 사람이면 그분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만 했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인정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많은 보스 이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자로서 그분을 처음 대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를 거듭할 때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일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간에 믿음이 쌓였으며 드디어는 건물이 완성되어 금년 봄에 한국 강구조학회로부터 포스코 철골건축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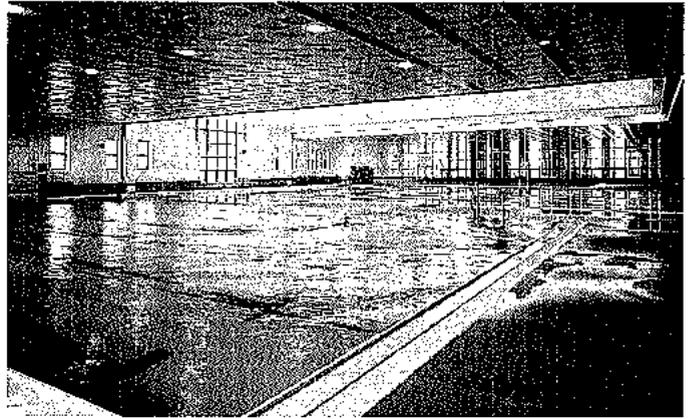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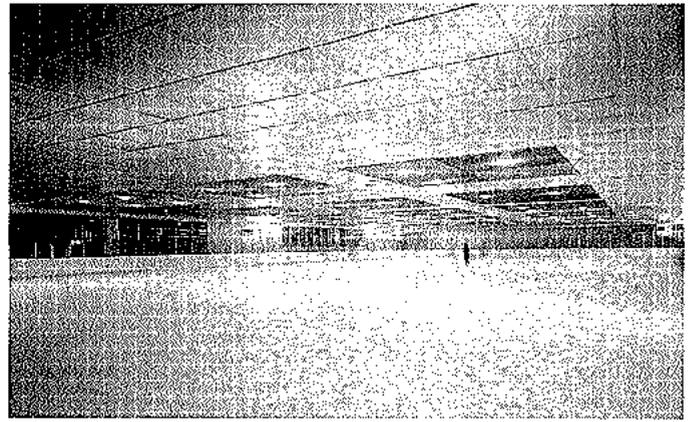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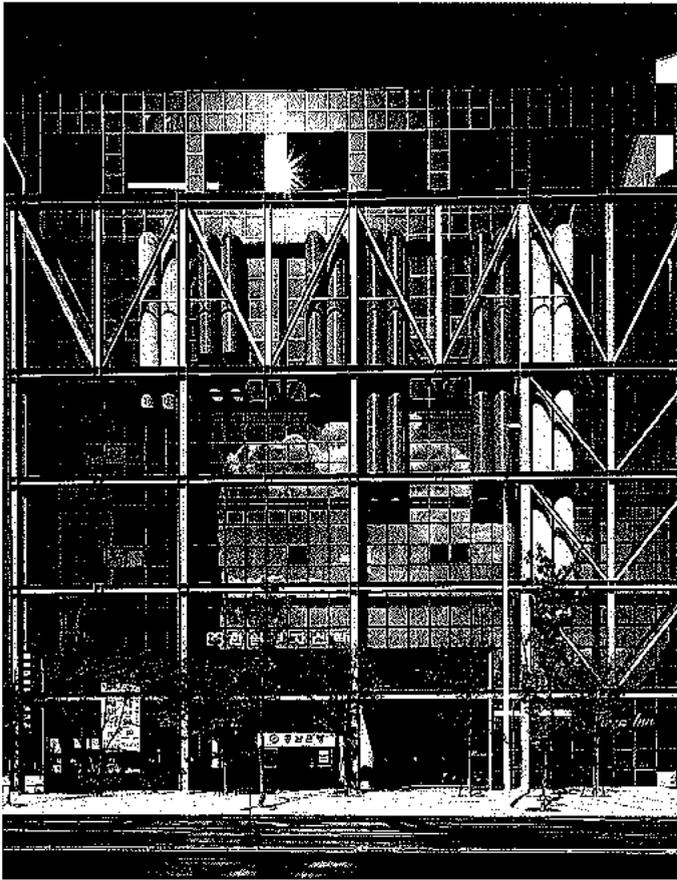
당초의 목표가 88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체육시설을 계획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에 적당한 사례를 찾기가 힘들었고 경영측면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이 그리 용이하지 않았다. 외국의 스포츠마켓팅 전문회사에 사업계획을 위한 용역이 주어지고 국내의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건축프로그램이 확정되었지만 건축주의 주도로 용역회사와 건축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한 시설로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30미터×60미터 넓이의 아이스링크, 충분한 자연 채광과 환기시설이 요구되는 실내수영장을 중심으로 다용도 체육관과 헬스, 에어로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편의 및 상업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근자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각종 건설에 관련된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고 하는 200만호 건설 사업의 와중에서 설계가 진행되었다. 분당 신도시의 시범단지내 중심축

의 일반상업시설의 일부로 계획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단기간 내에 안위적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미확정적인 상황을 놓고 반신반의 하는 가운데 그림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었다. 제대로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을 상황이었다. 이상적으로 꾸며진, 기존 도시에서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는 신도시에서의 생활을 상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 프로젝트의 계획목표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새로운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체육공간의 수용과 표현!!

분당 시범단지내의 공간체계는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주거군 사이에 이를 지원하는 상업편의 및 공공시설과 휴게녹지 등이 일반통행인 도로를 양쪽에 끼고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계획대지는 이러한 중심축과 직교하는 단지내 간선도로에 면하여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인지도가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래의 단지계획상 의도는 중심축에 따라 보행전용 통로가 형성되는 것이었으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간선도로에서 연결되지 못한점은 아쉬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현상안에 있었던 대지의 앞뒤를 연결하는 보행전용의 중앙 통로는 소극적으로 처리되었으나 건물의 로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면도로와 진입공간을 연결하는 외부통로가 적극적으로 계획되었다.

공간의 성격이나 구조면에서 서로 다른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특히 지하



부분에 대규모 무주공간을 필요로하는 아이스링크를 설치하면서 지상부에 마련된 다른 체육시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구조방식이 채택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철골구조 방식이 선택되었고 30미터에 이르는 장스팬 구조의 안전과 최상부 실내 수영장을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킴-트러스와 뷔렌달-트러스 등이 적절하게 구사되었다. 지하부분과 지상부분의 벽면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노출된 철골구조부분은 이 부분에 설치된 공기덕트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 건물 일부가 되었다.

건축설비 면에도 여러가지 각별한 배려가 요구되었다. 아이스링크, 수영장 등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실내 공간과는 사뭇 다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절을 통하여 외기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설비가 필요했다. 일종의 냉동창고인 아이스링크 실내 환경 조건을 유지한다거나 항상 습한 상태인 실내 수영장의 환경은 지속적으로 건물구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심각한 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기간 중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사업비 조달문제가 당초계획과 차질이 생겨 건물의 상당부분을 분양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간을 건축주의 통제를 벗어나 지나치게 상업화 하여 공공 건물로서 품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외관에

비하여 시행질차상 구체적인 실내공간 계획이 설계단계에서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실내외에 걸쳐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마감할 기회를 잃게된 점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예술장식품 설치규정에 따라 설치한 환경조각은 처음에는 건축주의 이해부족으로 설계자와 상의 없이 집행되어 약간의 물의를 일으켰으나 어느정도 조정과정을 거쳐 보완되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조각을 다루는 작가와 건축가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이 조각가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건물 또는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순수 예술작품으로서의 조각 작품 자체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것이다.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 발생한 민원문제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인근 주민의 항의를 받았는데 계획단계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일부 시인한다 하더라도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면도 없지 않고 본다. 결과적으로 전후면 유리창은 밖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의 필름으로 도배하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다.

벌써 준공 일주년을 맞았으나 건물 성능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아직은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아 시공회사가 나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더 성의를 갖고 작업에 임해 주기를 기대 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건축의 외형표출은 내밀적 의미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합리주의적 건축을 추구하는 기본논리이다. 즉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과 형태 추론성이 외형의 이미지적 논리에 입각한 형태추구가 이뤄지므로 판조자에게 연상적 사고에서 공감성을 갖게하는 경향과 합리적 구조계획과 건축기능이 조화되며 구조체 자체가 외부로 표출되어 외부조형을 구성하는 미적요소로 이용되는 작품의 경향이 많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이 사상에 의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 사조적인 경향을 한국건축계의 시발적인 위치에 서서 작품활동을 한 건축가가 김정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소재의 개발에 의한 작품의 표현과 신기술을 가진 작품실현이 뒷받침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수 교수는

신소재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연구와 실현으로 한국 건축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말기에는 그의 작품에서 logos적인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 (3)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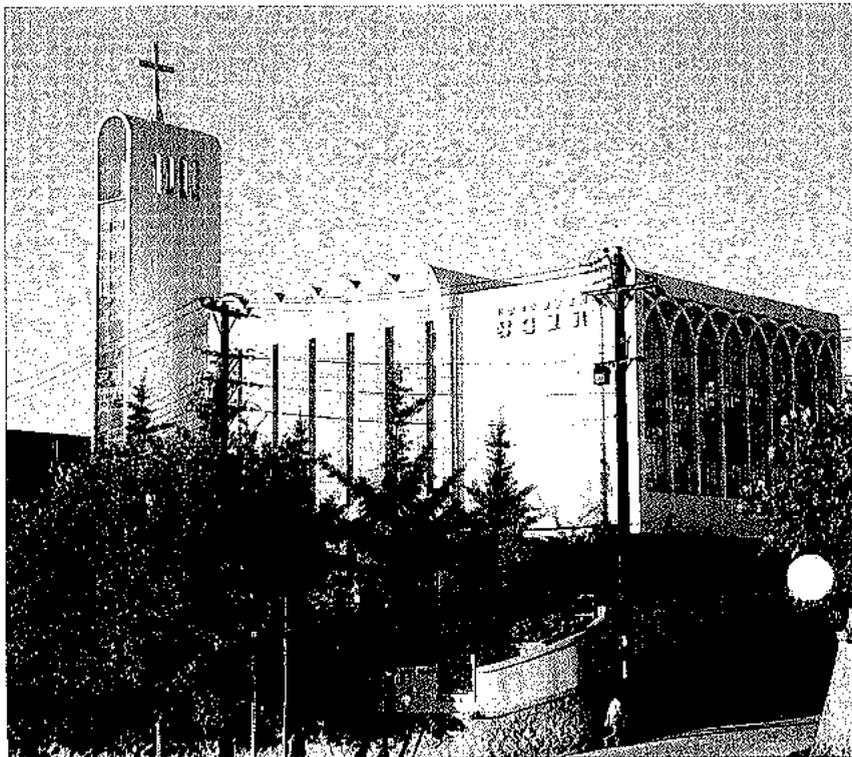
李好璉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Ho-Chin

합리주의적 표현

건축의 외피는 인간의 외형형성의 이론과 유사하므로 이에 상응해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외피는 외기의 조건을 내부로 흡수하거나 방어하며 내부의 조건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때로는 외부를 차단하는 굳은 보호막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외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옹고 부드러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한 색채 및 아름다운 볼륨과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정수의 작품은 외피의 해석을 이러한 원리에서 구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정충장로 교회

남산 방송국의 외형에서 창과 벽과 기둥을 구조적인 노출과 내부에서 필요한 유리창과 벽체를 외부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창호의 규칙적인 면 분할을 길은 칼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어 벽체나 기둥과의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면의 분할은 아름다운 비례의 원칙으로 구사함으로써 세련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Pathos적 합리주의 구성이 김정수작품의 특성의 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외피의 조형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필요해서 세워진 구조적인 기둥의 간격과 높이의 비례를 이용해서 단순미를 살리면서 수직이 강조된 열주로 위엄성과 엄숙성을 나타냄으로 대학교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의 권위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구사하기에 충분한 표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수의 이러한 솔직하고 단순하며 간결한 디자인 기법의 창출은 그의 생활의 형태에 부합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1975년에 완공한 국회의사당 건축은 김정수 생애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설계진을 구성하여 이 팀의 대표자로서 시작부터 마침내까지 그의 투쟁(?)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자의 자격문제(교수로서 작품진행에서 그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중적 문제), 국회의사당 설계진행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요소를 너무 많이 창출했고, 국내 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가치기준 정립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등을 김정수의 건축가로서의 고집과 뜻심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본인이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회랑의 강렬한 수직성 강조와 단순성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외피에 쓴 한국의 돌이 이를 더 부각시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잘 어우러지지 않은 가운데 높은 돔의 구상은 김정수의 아이디어이기보다는 담당 국회측 분들의 이론에서 기인되었다고 본다. 일본 사람들의 중앙청(구 총독부 건물)의 높은 돔보다는 더 높고 큰 돔을 씌우려고 이를 누르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으며, 내부 상징성 돔은 큰 우주 밑의 생활을 나타내려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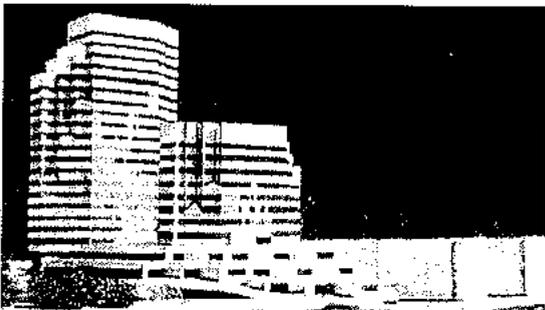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 최대의 국회의사당을 맡아 작품을 완성시킨 김정수의 어려움과 끈기와 노력을 우리는 높이 기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이 한국 건축의 고전으로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신소재와 신기술을 이용한 작품의 표현

Pathos적 작품 사고의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발전된 과학 시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측면에서 신기술 연구와 이를 구현하는데 그의 과감성과 진취성이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는 한국의 시대상과 과학과 문화의 후진적 상황이 건축적 실현에서의 구체적 시도에 어려움이 따랐다. 1960년의 장충체육관 설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김정수의 신기술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80m 직경의 높은 천장을 덮는데 콘크리트 쉘 구조 돔을 주장하



연대 공대 증축 계획안



동교동 빌딩



명동 성모병원

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건축 기술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철골 돔으로 바꾸어 설계를 완성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기술적 시도는 물론이거니와 의장적 측면에서도 우뚝하게 표현되기 쉬운 돔의 형태를 날씬한 곡선으로 나타내게 한 디자인의 세련되게 계획한 구조미의 표현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장충체육관과 마주 보고 있는 장충동 교회의 형태에서 교회건축의 전통적 이미지와 신 구조기법인 원통형shell로 장스팬을 처리하여 기능과 구조와 미의 합일된 표현을 하나로 나타내는 김정수의 디자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기독교 건축의 외형의 표본이 된 Round Arch의 외적 표현의 전통성과 이를 이용하여 하늘로 향하려는 수직의 위엄성과 신앙심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기법으로 계획하였다. 더욱이 높은 종탑 십자탑은 본체에 비하여 유난히 높게 디자인 하므로 대조성의 원리로 부각시킴으로 더 큰 기독교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다.

Mass와 비례 구성의 세련된 계획이 단순한 구조와 기능과 전통미의 합일된 표현이 교회건축으로의 하나의 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장비와 기계적 시스템이 전혀 없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한국 건축계는 그야말로 건축의 원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누구도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수는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의 형태와 디테일에서 이를 극복하여 한국 초유의 알미늄 커튼월을 시도하였다. 커튼월의 창조상세를 설계하고 사시메이커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되느니, 안되느니하며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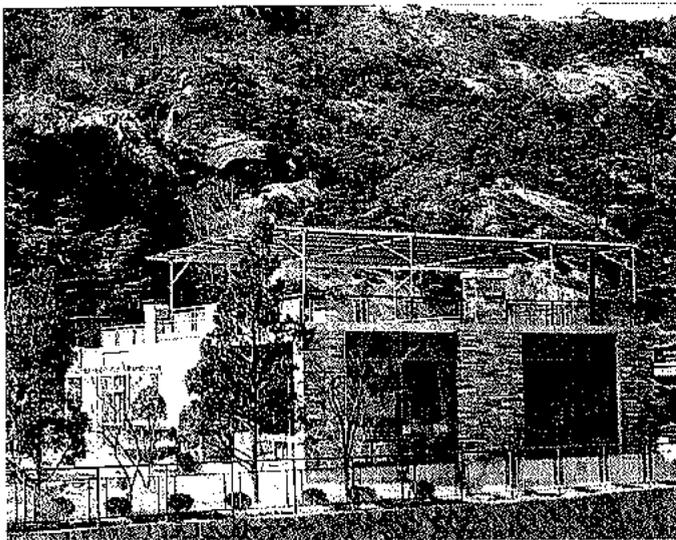
쟁의 어려움을 거쳐 만들어 내고 말았다.

3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 손색없이 우리 건축인들의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김정수는 학교 강단이나 어느 세미나에서 현대 건축의 의장적 방향을 강조할 때는 항상 대조성(Contrast)를 힘주어 말하곤 하였다. 이것이 그의 디자인 사고의 목표로 하여 모든 작품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 철학이 성모병원에서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즉, 명동성당의 교회건축으로의 고전적 전통성을 가진 본당 건물과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성모병원 건축과의 초현대적 외관 디자인이 환경적 의장의 기본 원리 구축에서 대조성의 원리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혹자들은 조화의 원리로 구축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론이 있었으나 김정수의 이론과 같이 성모병원을 현대적 의장성을 띠므로 고전의 성전이 대조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명동성당이 더욱 부각되어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는 현대 건축에서의 건식 공법은 일반화되었고 당연한 시공방법이므로 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의 한국 건축계에는 PC공법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김정수의 이러한 시도는 또 하나의 신기술의 획을 크게 긋고야 말았다.

Pre-cast Concrete의 외형 마감방법은 모듈화된 외형의 숫자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수는 PC의 실험적 확신을 위해 본인의 조그만 집에 이를 시도하였다. 몇개의 조그만 PC의 실험적 확신을 위해 본인의 조그만 집에 이를 시도하였다. 몇개의 조그만 PC를 도르레에 매달아서 부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풍문여교 과학관에서도 pre-cast Concrete를 운동장에서 철판을 구부려서 만들어서 나무



청운동 주택



동교동 빌딩(PC 시공)



종로 주택

로 받힌 도르레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

이러한 새로운시도는 항상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이러니와 시공자들과의 이해가 항상 문제로 대두되곤 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의 PC판 때문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시공회사가 못하겠다고 그 부분은 포기하여 별도 발주의 사태까지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PC판 외에도 종로 YMCA 건축에서 사용한 Mullion의 Pre-cast Concrete 등 건축 각 부분에서도 이용되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슬래트를 이용한 Shell의 구조적 적용으로 지붕 구조의 개발 등의 실험적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PC를 이용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돌의 Texture를 살리고 다양한 색조의 배합과 그 재료의 크기와 형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만들어 건축외관에 의장성을 살리므로 조형적 가치를 얻게 하는 디자인적 측면의 신재료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석이란 이름으로 각 종류의 건축에 그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정신여고 교사동 고층동의 축벽 전체를 연석을 이용하여 거친 Texture를 아름답게 면구성을 하고 저층의 연결복도를 Curtain Wall의 매끈한 Texture로 디자인 하므로 수직과 수평의 Direction의 대조와 Texture의 대조가 강하게 부각되는 의장적 표현이 이 건축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방법이 김정수의 디자인 사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구조와 기능과 재료의 미가 의장적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표현되는 시도의 대표적인 작품이 정신여고 교사동의 작품이기도 하다.

1950년대부터 1960년에 이르는 한국의 주택형태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본의 건축주택 잡지에서 나타

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김정수는 그가 개발한 신건축 재료를 이용하고 주거의 기능적 평면과 외부 노출의 요소들을 이용한 합리주의적 외부 표출에 디자인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개의 주택을 계획하였다.

감응적 표출

건축의 표현에 또 다른 방법 중에는 감응적 표출의 장르에서 작품 표현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내적 의미의 표출보다는 건축에 나타난 시각적 표현주의에 두게 되는 것이다.

김정수의 건축작품에서 이러한 시도가 초창기 작품 1950년대 초에서 그 경향이 보였고 김정수의 작품활동기 말미인 1980년 초기의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을 맞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경의 신신백화점의 공간에서 이러한 느낌을 주게 하고 있다. 이때까지의 건축은 외피로 둘러 싸여진 폐쇄된 공간만이 건축이라고 느끼던 관념을 뛰어 넘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무한대로 연결시켜 공간성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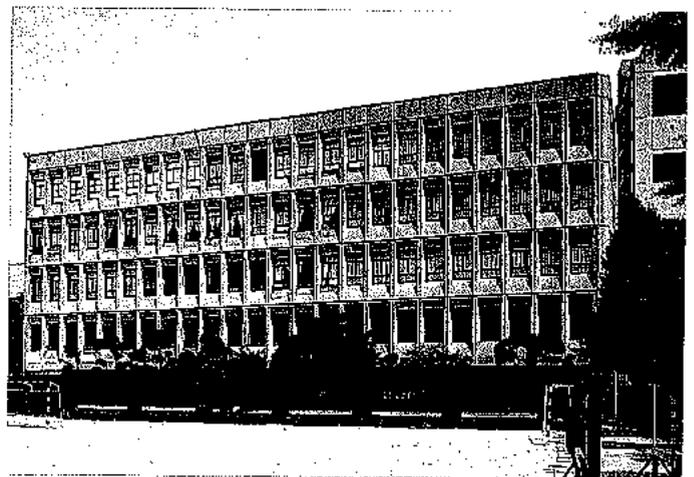
하늘의 자연광선을 받아들이고 물을 도입하여 자연의 감응을 일으키게 하며 그곳에서 내부로 쉽게 진입시키는 전위공간으로의 역할을 아케이드를 두어 그 표현을 최대한 나타내게 하고 있다.

물론 맞은 편에 있는 화신 백화점(박길룡 설계)이 르네상스양식에 의한 고전적 분위기에 비해 모던한 건물이 상호대조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김정수의 건축의 장적 표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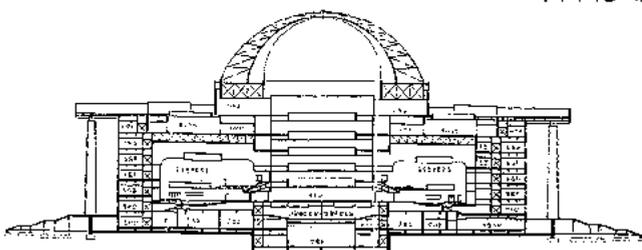
그럼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들에 더 활기찬 쇼핑물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그곳이 서울의 명소로 부각되어 20년



국회의사당 내부



풍문여고 과학관



국회의사당 단면도

간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던 곳이기도 하다.

1984년 대학의 정년 퇴임식을 2개월 여를 앞두고 유명을 달리하시기까지 작품에 그 정열을 기울이였다. 그 말기의 작품으로는(시공은 안됐지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증축 계획안에서 그의 마지막 건축의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도 김정수의 작품성에서 기능성과 구조성이 합일된 합리적 건축으로 나타난 것인데 반해 후면에 증축되어질 건축의 계획은 감응적 표출로의 Logos적 작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공과대학의 저층의 수평적 요소에 반하여 두개의 수직적 요소가 Gradation을 가지며 Ultra하게 저층과 고층부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적 방법은 김정수의 작품사상의 또하나의 발전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과감하고 현대적인 작품표현성을 나타냄으로써 원숙된 작품시도라 할 수 있다.

結

지금까지의 3회에 걸친 김정수의 건축에 대한 생애와 작품사상과 작품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김정수가 건축인으로 후세에 미친 영향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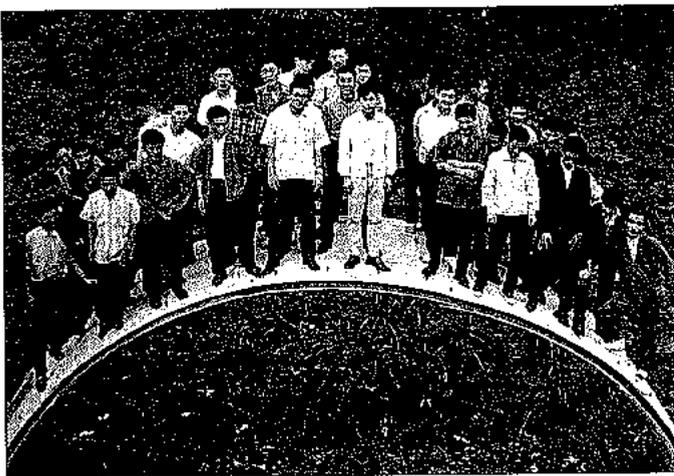
그러나 대학과 설계사무소의 제자로서 가깝게 모시고 생활해온 한사람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서술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그의 발자취의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함으로써 본 집필을 마치려 한다.

첫째는 한국 건축 교육계에 건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많은 후인들을 배출하여 그들이 현재의 한국 건축계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은 영원히 살아 그 혼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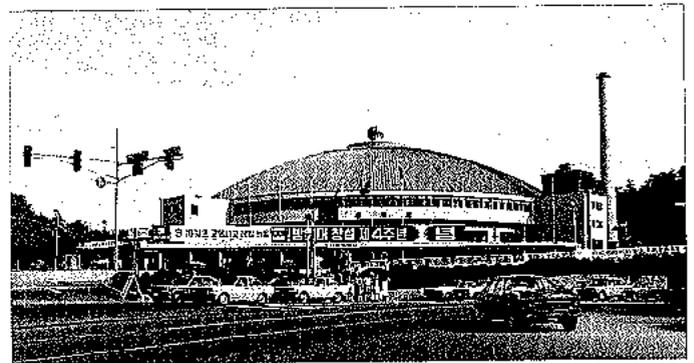
둘째는 한국 건축 사조의 맥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 시발적 위치에서 작품을 만들었고 영향을 크게 미친 한국 건축의 대인으로서의 위치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셋째는 후세 건축인들은 그의 건축문화에 임하는 사고의 틀을 그의 생애와 작품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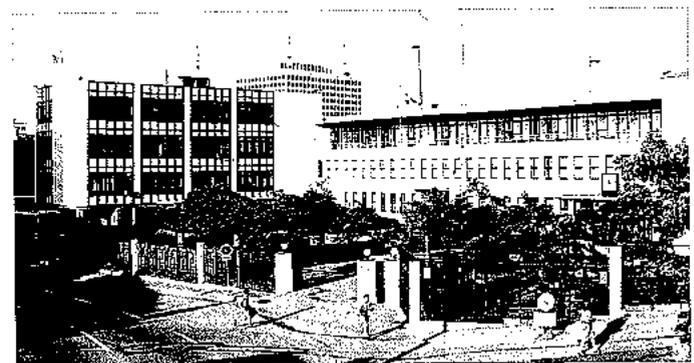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김정수가 한국 건축계에 영원히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느낄 때 우리들 가슴속에 김정수가 영원히 살아 남을 것이다.



셀구조 실험 모습



정승체육관



남산 방송국

450여년전 잉카제국의 황제 티투쿠시 후알파가 치루던 에쿠아도르와의 전쟁이 아직도 아무리가 안된 듯 국경분쟁으로 소란스러운 리마를 떠나 다시 북반구로 거슬러 오른다. 적도를 사이로 한 신대륙과의 남과 북이 비슷한 과정으로 몰락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여정의 마지막으로 다시 멕시코의 고원을 향한다. 페르난도 코르테스가 정복자의 공로를 인정받아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5세로부터 누에바에스파니아(New Spain)의 총독으로 임명된지 4세기가 지난 지금의 모습에서 인디오의 문화와 스페인의 문화가 격렬하게 충돌하였던 과정을 되살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우리에게 낯익은 미국판 서부영화에서 카우보이

들의 총알받이가 되어 펑펑 쓰러지던 마적들과 흰옷을 입은 선량한 모습으로 말탄 기사의 구원에 매달리던 농민들의 모습으로 각인된 멕시코의 근대는 영화속의 그것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누에바에스파니아로 목테수마의 전설을 실현하기 위해 몰려 들었던 스페인인들은 멕시코의 영토를 유가탄 반도로부터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태평양전역으로까지 확대시킨다. 전이된 문화와 토착의 문화가 강제로 혼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구조가 만들어진다. 식민지의 통치자들과 본국과의 부의 분배로 인한 일력, 코스테스의 축출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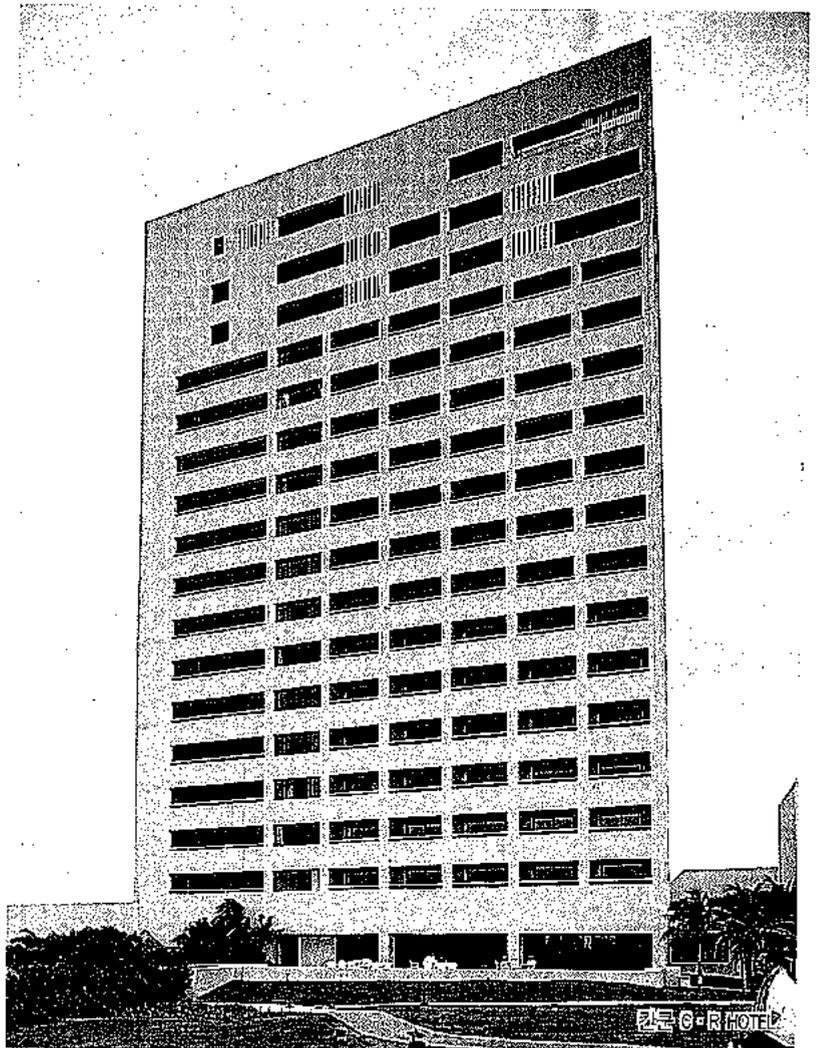
의 죽음(1547)에 이르는 초기과정에서 아즈텍의 테노치티틀란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그 폐허 위에는 누에바에스파니아의 새로운 수도가 건설된다.

중남미 문화기행(4)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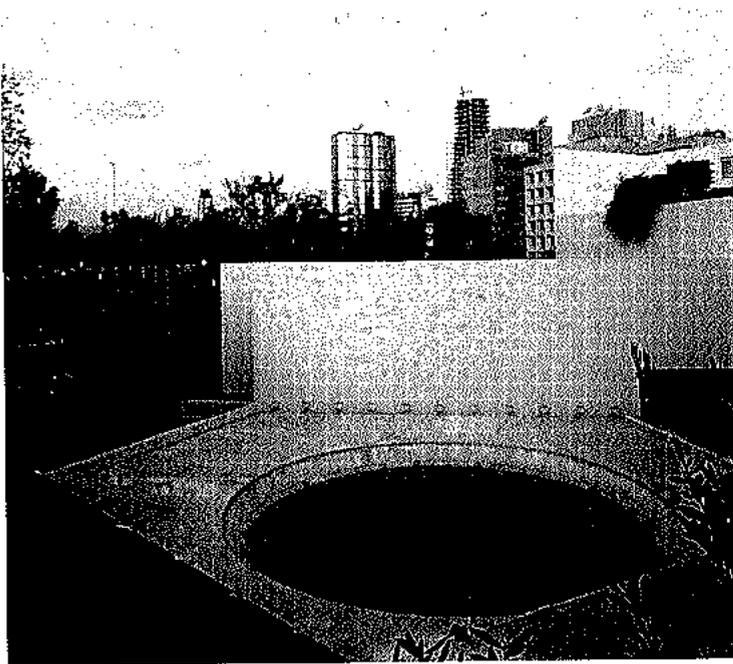
그 넷-침묵하는 정열, 멕시코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
by Kim In-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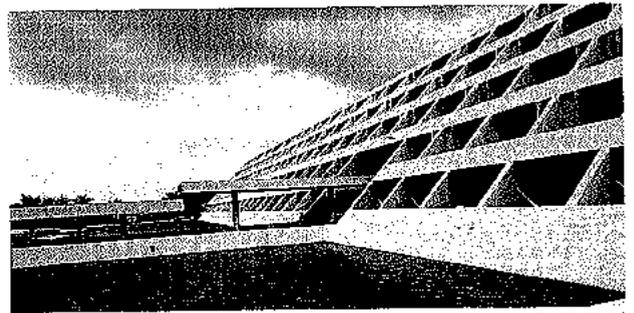


위철로 포틀리 신전 자리에는 대성당이, 그 옆에는 총독과 스페인의 귀족들을 위한 궁전이 세워진다. 그후 250년동안 30만이 넘는 스페인인들이 이주해 온다. 왕이 임명한 고관들과 사제들은 생애의 태반을 식민지에서 보내게 되지만 『페닌슐라레-이베리아반도 출신』의 특권을 고집하며 식민지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 한다. 세월이 지나며 또 하나의 백인계급이 만들어진다. 차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들이 본국에서 아내를 맞아들여 정착하게 되면서 등장한 자손은 『크리오요』라고 불리는 제2의 백인계급이 나타나 본국으로 부터 임명되어온 고위직의 아래계급에서 사회의 중간층을 형성한다. 원주민과 결혼한 스페인인의 후손은 『메스티소』라고 불리운다. 노예로 사들인 아프리카 흑인과의 혼혈도 역시 메스티소로 취급된다. 그 아래에는 원래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국가와 교회의 보호를 받는 입장, 다시말하면 노예의 신분으로 격화된 인디오가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며 식민지는 번창한다. 18세기 말까지 세계생산량의 절반을 캐내었던 금과 본국의 세수입중 2/3를 부담하는 정도로 발전한 식민지는 그러나 계층간의 갈등과 반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의 요소를 내재한 시한폭탄이 된다. 1808년 나폴레옹3세가 스페인을 점령하자 첫번째의 불씨가 크리오요계급에서 당겨진다. 톨로레스교구의 신부이던 이 달고가 일으킨 페닌슐라레에 대한 무장결기는 그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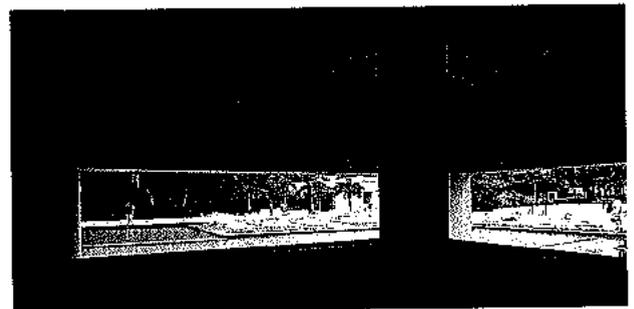
이 매달리는 실패로 끝난다. 그를 이어 모랄레스신부가 크리오요의 선봉에 섰으나 독립운동이 사회혁명으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동료들의 비협조로 그 역시 총살된다. 그후 지도자없이 산발적인 게릴라전으로 유지되던 독립운동은 본국의 정치변혁-헌정개혁에 따른 민주화의 움직임에 의하여 다시 고무된다. 크리오요들은 정부군의 지휘자인 이트르비데를 이용하여 1821년 9월 27일 멕시코(아즈텍이 자신들을 자칭하는 이름)의 독립을 선언한다. 스스로 황제 아우구스틴1세를 자칭하였던 이트르비데는 새나라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7개월 만에 물러난다. 그 이후 30여년간의 혼돈은 카우티요(군사독재자)들의 쿠데타와 반쿠데타로 점철되어 정권이 40회 이상이나 바뀐다. 그 와중에서 텍사스, 아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가 미국으로 팔려나간다. 1857년에야 겨우 헌법을 마련하게된 멕시코는 순수한 인디오인 베니토 후아레스를 지도자로 삼게된다. 고아로 자라나 수도원의 잡역부로 일하며 글을 배워 군사정부의 법무장관까지 되었던 그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만든다. 보수세력의 저항으로 인한 3년간의 내전을 가까스로 해결한 후아레스는 바닥난 국가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외채상환의 2년간 유보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것은 곧 채권국이었던 프랑스의 개입을 불러 나폴레옹3세의 군대가 베라쿠르스에 상륙하게 되는 빌미가 되고 기회를



멕시코 C · R Hotel



C · R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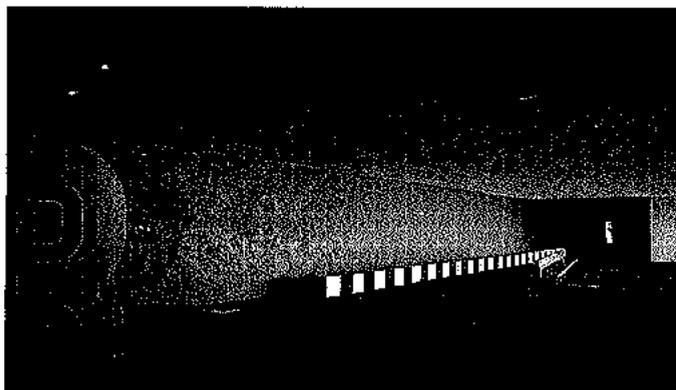
C · R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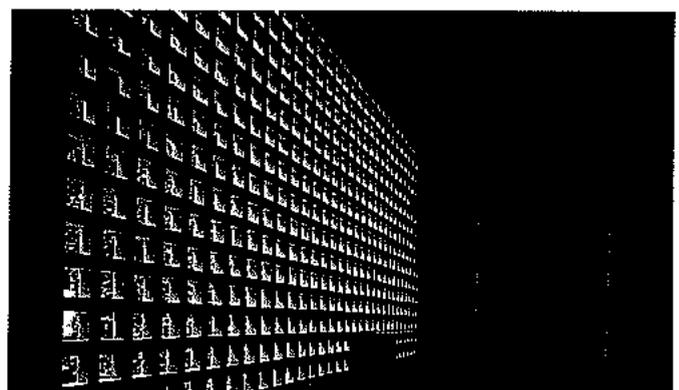
C · R Hotel

되찾으려는 멕시코의 보수세력과 프랑스의 단합에 의하여 오스트리아의 대공 막시밀리안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 정략적으로 이용된 막시밀리안은 그러나 자유주의자로서 보수주의자들과 교회, 그리고 프랑스를 당황하게 한다. 막시밀리안 정권의 증추구실을 하던 프랑스군이 후아레스가 급조한 멕시코군에게 푸에블로에서 참패당하고 미국의 언짢은 반응과 프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나폴레옹3세는 멕시코로부터 철수를 결심한다. 남아있던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막시밀리안까지 처형한 후아레스는 그후 15년간 두번씩이나 재선되며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중 1872년 심장마비로 집무중 사망한다. 법적인 후계자인 대법원장 테하도는 187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푸에블라전투의 공신이었던 디아스의 쿠데타에 의하여 쫓겨난다. 그뒤의 30년간은 디아스의 군사독재로 이어진다. 비밀경찰 루랄레와 경제개발로 대변되는 그의 오랜통치는 빈부의 격차만 심화시킨 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1910년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겠다는 시사를 하므로써 멕시코는 다시 술렁이게 된다. 부유한 크리오요 농장주였던 마데로가 제안한 정당조직과 대통령 단일제가 대중의 호응을 받아 그는 『민주주의의 천사』로 추대되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출마한 디아스에 의해 반란음모의 죄로 투옥된다. 간신히 탈옥한 마데로는 궤기를 호소하고 이에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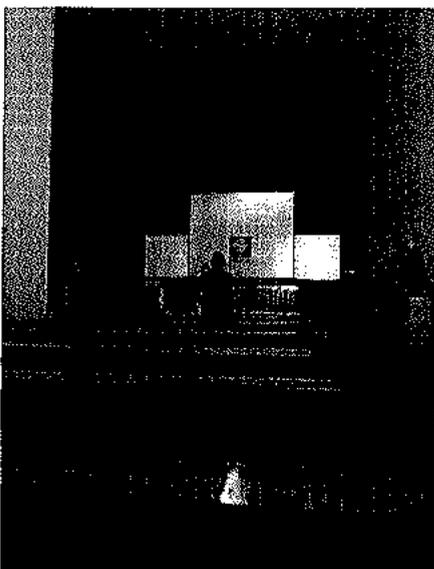
한 민중들로 다시 멕시코는 내전에 휘말린다. 늙은 디아스는 결국 6개월만에 유럽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마데로의 통치력 또한 역부족이어서 반란군 진압을 맡은 우에르타장군에게 자리를 빼앗긴다. 디아스보다 더 혹독한 탄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우에르타는 새로운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인해 또 다시 내전이 시작된다. 이 때 등장한 남쪽의 사파타, 북쪽의 판초 비야, 서쪽의 오브레곤은 『토지와 자유』를 슬로건으로하여 우에르타를 공격한다. 10여년의 전쟁끝에 1914년 8월 우에르타는 디아스의 길을 따라 망명길에 오른다. 혁명가들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정국을 수습한 카란사에 의하여 안정될듯이 보이던 멕시코는 판초 비야와 사파타의 도전으로 다시 흔들리게 된다. 판초 비야를 산속의 마적으로 격하시킨 카란사는 사파타를 암살하여 정권을 확보하지만 후계자 선정문제로 오브레곤의 공격을 받다 축출되고 만다. 판초 비야를 회유하여 평범한 농민으로 되돌려 놓은 오브레곤은 1920년 대통령이 되어 200만이 희생된 혁명의 종지부를 찍는다. 선거에 의한 후계자의 선출 등 성공적인 진행을 보이던 멕시코는 1928년 재출마한 오브레곤이 재선 17일만에 암살되자 다시 혼란에 빠지는 듯 하였으나 이미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가 유희대신 토론과 투표를 통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배신에 분노한 마적들에게 암살된 판초 비야 그리고 사파타, 카란사, 마데로



멕시코 C·R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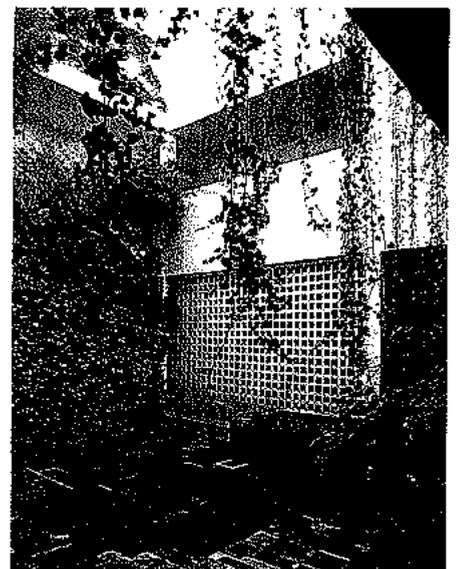
격자들



수도원 성당



중정의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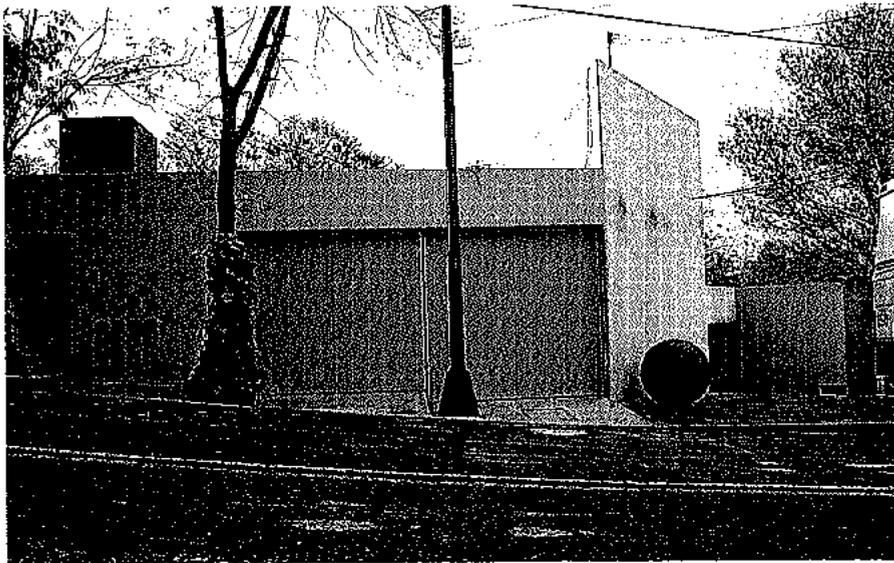


수도원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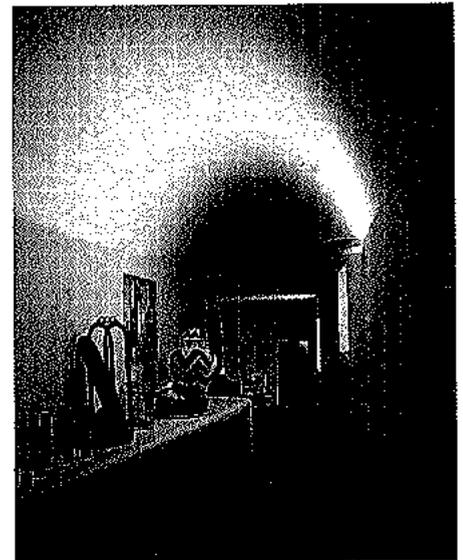
등 혁명가들의 비참한 말로를 담보로하여 그들이 목표로 하였던 이상이 살아남아 지금의 멕시코를 이루었다. 혁명은 뿌리깊은 계급제도의 편견을 치워놓게 하므로서 국민의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맺는다. 가난과 문맹을 없애지는 못하였지만 슬픔과 공포와 잔혹함의 아이러니로서 잡종집단의 혼합체에 불과하였던 멕시코를 하나로 두들겨 맞추어 놓은 것이다. 그러한 혁명의 과정속에서 이나라의 국민성에 하나의 특징을 부여한 미술과 문학과 건축이 꽃피게 된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멕시코 작가들은 그동안 답습해온 점잖은 수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농민의 생활상과 혁명의 치열함을 굳은 의지로 리얼하게 묘사하기 시작한다. 멕시코 르네상스로 불리는 대격변의 특징, 사납고 저돌적인 열정과 부정부주의적인 정력은 독재에 대한 증오와 정치적 혁명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멕시코의 전통문화가 풍요로웠다 는 인식을 갖고 마야문명의 거대한 조각과 프레스코화, 아즈텍의 강렬한 표현들을 다시 창조해내려 한다. 리베라, 오로스코, 시케이로스로 대표되는 세 화가의 정열은 멕시코 르네상스를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한다.

에어 멕시코의 기내에서 급조된 멕시코에 대한 역사공부는 잠과 잠사이를 연결하며 하늘과 땅사이의 시공을 초월하는 묘한 경험을 하게된다. 『내일을 향해 쏴라』 『황야의 무법자』 등에서 익숙해진 영상때문인지 낯설지 않은

분위기와 판초 비양의 너털웃음 소리까지 합세하여 마치 현장을 보고 나온듯한 느낌마저 든다. 중미의 거대도시 멕시코에 다시 내린다. 먼저 만나지는 것은 리카르도레고레타(Ricardo Legorreta, 1931~)의 건축이다. 유가탄 반도의 칸쿤에서 이미 보았던 카미노 레알 호텔(1975)의 씨리즈로서 멕시코시티 것은 1968년의 작품이다. 흰색의 벽체들로 이루어진 대담한 구성은 공간의 깊이를 강조하며 색과 빛으로 빚어지는 연출을 한다. 그를 만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방문한 그의 스튜디오(1966)에는 자리는 비어 있고 지형을 따라 내려간 색과 빛의 연출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들렀을때 경협한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 1902~1988)의 주택(1947)이 침묵하고 있었다면 레고레타의 그것은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제삼세계의 건축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한 그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치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의 감각에 깊은 공감은 일어나지 않는다. 바라간이라고하는 선배의 후광을 업고 노래할수 있는 입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건축의 순수성에 입혀진 색의 옷이 지역성의 표징이라면 한단계 툰을 낮추는 절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내자와 버스기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찾아낸 카푸친과의 수도원(1955)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건축의 엄숙함을 체험한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많은 종교적 프



스튜디오 외관



스튜디오 홀



R 스튜디오 실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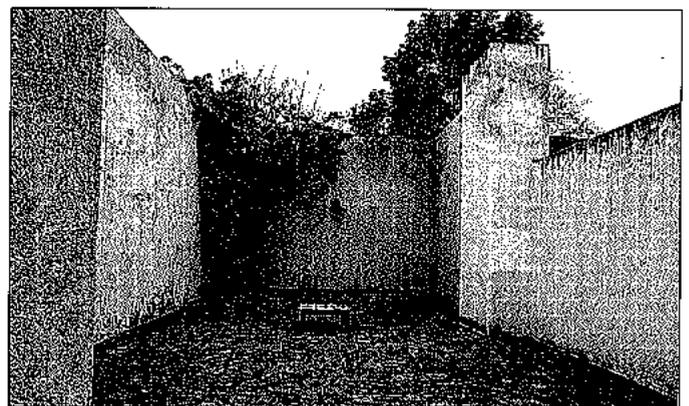
R 스튜디오 입구

로젝트를 다루었지만 유일하게 완성된 것이고 또한 수녀원이 그에게 의뢰한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 수녀원에 주었다는 묘한 인연을 차치하고서라도 주택가에 붙어 숨어있는 작은 종교공간은 경이롭다. 바라간의 아침에 보라는 권유와는 달리 오후에 방문하였음에도 단순하고 소박한 최소한의 장치로 공간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함축성을 소유하게 한것이 숨을 죽이게 한다. 사진 촬영을 금해달라는 수녀의 간곡한 부탁을 어쩔수없이 어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건축 때문이라는 변명을 한다. 바라간의 주택이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실제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함을 아쉬워했으나 그 아쉬움은 이곳에서 모두 충족되었다. 예전에 잡아두었던 그의 작품들이 이리저러한 이유로 접근이 어렵게 되었지만 수도원의 한모퉁이를 돌아본 것만으로도 바라간을 이해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동의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지중해, 멕시코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건축가 없는 건축에서 『빈자(貧者)의 건축』이라는 미학을 찾아 내어 서사적인 전통성의 연장선위에 자신의 미니멀리즘을 놓을 수 있었던 바라간은 완전주의자이며 금욕주의자인 수도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극단적인 단순성이 시각적 드라마

로 변환되는 색채와 텍스처의 사용, 벽 또는 수면으로 구성되는 공간의 순수성과 명쾌한 관계설정은 그의 미니멀리즘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가 사용한 색채의 강렬함은 본질적으로 멕시코적이지만 지중해와 연결되는 기후적 요소의 유사성과도 연결되어 이베리안반도와외 원초적인 고리를 설정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마굿간을 경험할수 있는 기회가 이번 여행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흠이 되었지만 바라간의 건축이 의미하고 있는 추상성을 이해하는 기회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혁명으로 점철되는 근대화의 변혁기를 함께 한 건축가의 고뇌를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여행의 의미를 둔다. 무엇인가를 잔뜩 기록한 필름통치를 들고 귀로에 오른다. 서울로 연결되는 항공편에 대기하기 위하여 『천사의 도시』에 들러야 한다.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는 안내자의 마지막 당부였던 공항에서의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이 끝난뒤 오분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 김영섭 소장이 애지중지하던 카메라와 필름들이 한순간에 증발된다. 멕시코를 영원히 잊지못하게 할 섭리였는지 우리들의 형색이 호트러진 것을 나무란 것인지 얼떨떨한 기분이 되어 비행기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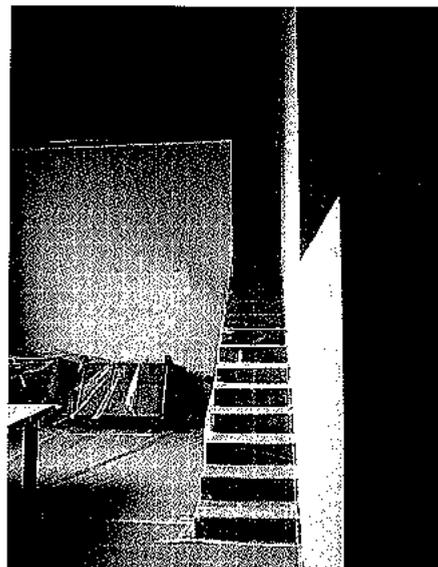
바라간 주택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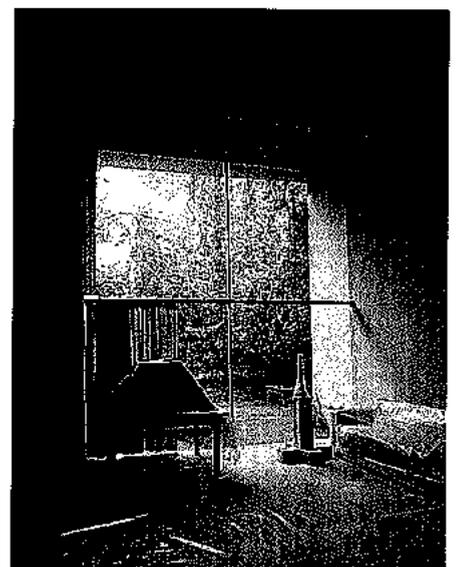
바라간 주택 옥상



주택 정원



주택내부



주택내부

인하대 부속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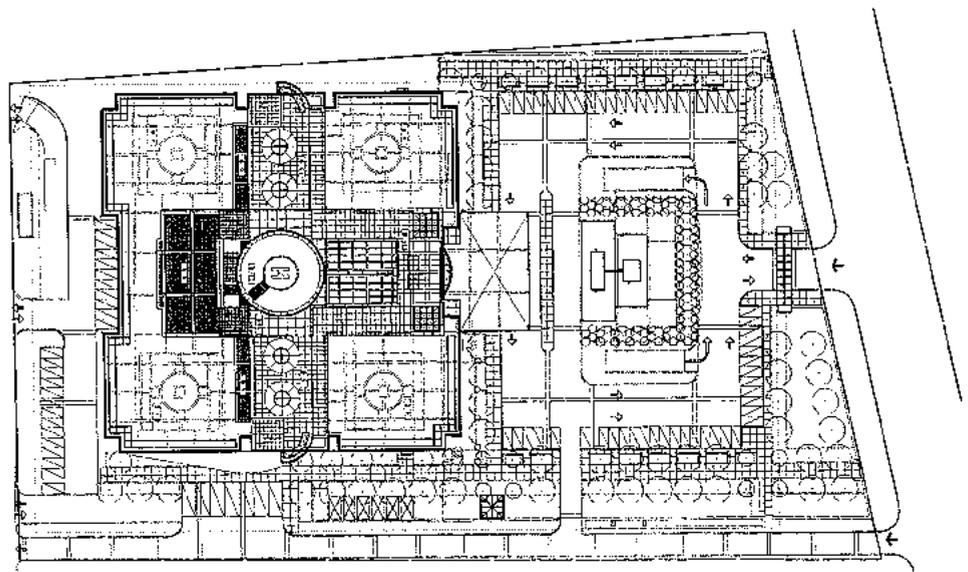
Inha University Hospital

崔慶一 / (주)신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yeon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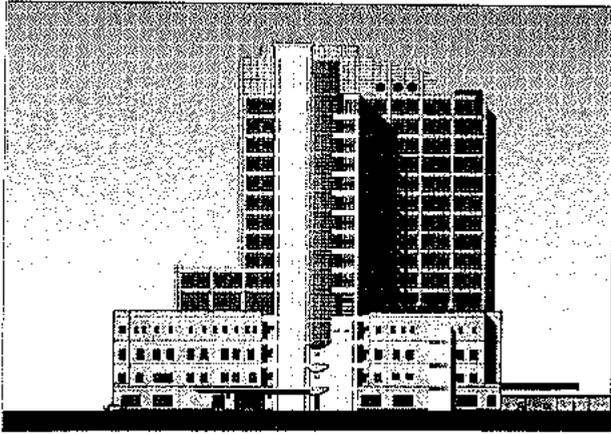


투시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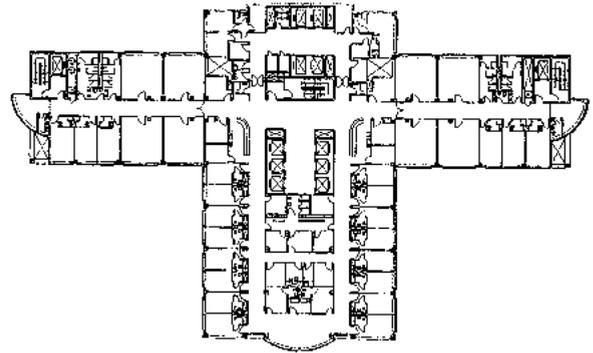
대지위치 / 인천서중구 신흥동 3가 7-206
 대지면적 / 21,235.50㎡
 건축면적 / 8,064.01㎡
 연면적 / 96,838.66㎡
 지상연면적 / 53,609.86㎡
 건폐율 / 38.07%
 용적률 / 252.48%
 주차대수 / 800대 (지상:95대, 지하:705대)
 병상수 / 750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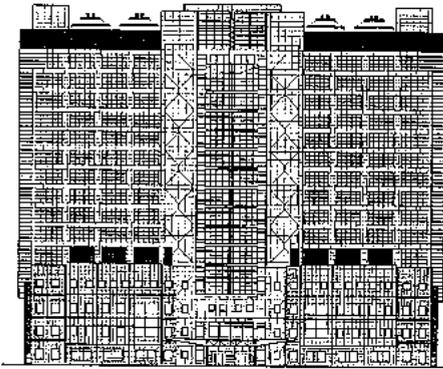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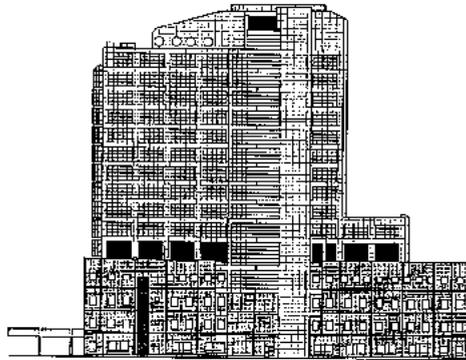
투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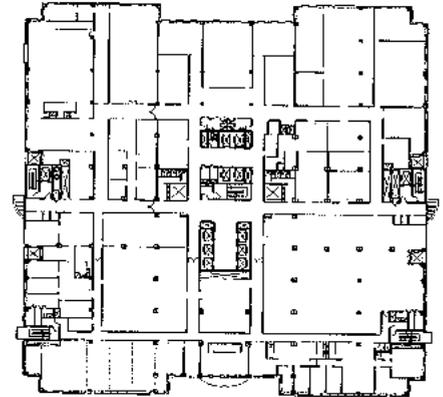
13, 1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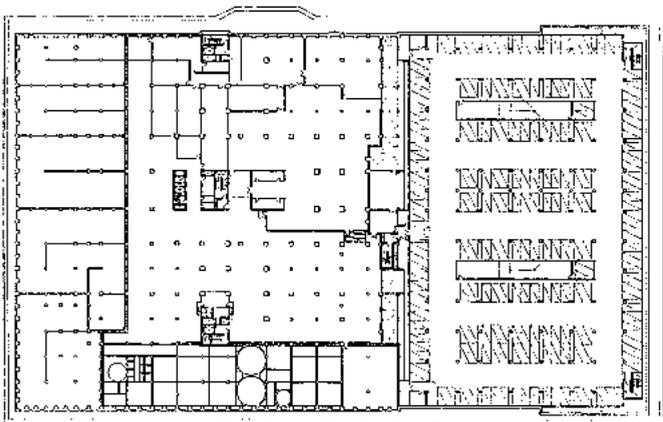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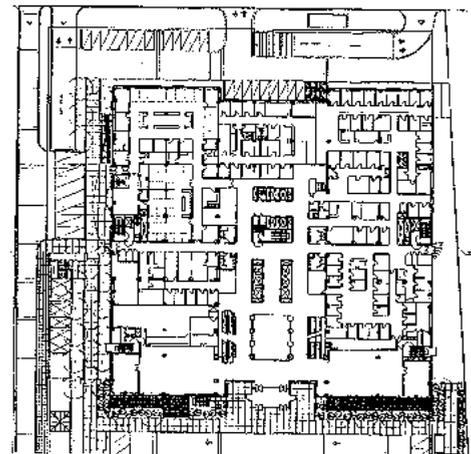
우측면도



3층 평면도



지하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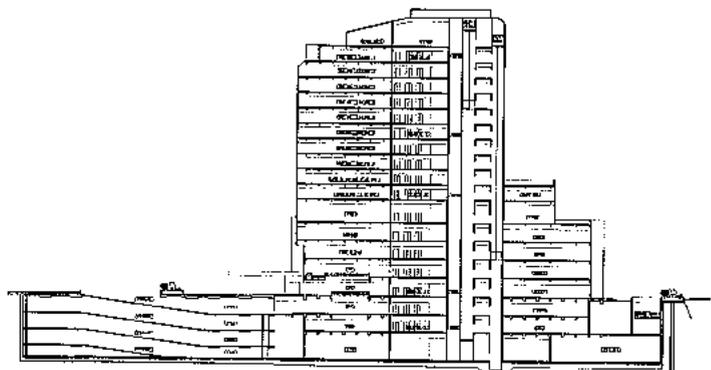
이념

Hospital Re-Engineering을 통한 새로운 병원관리체계(Hospital New Logos)와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체계(Professional Ethos)를 바탕으로 환자위주의 전문 진료체계로 구축하여, 21세기 최우수 대학병원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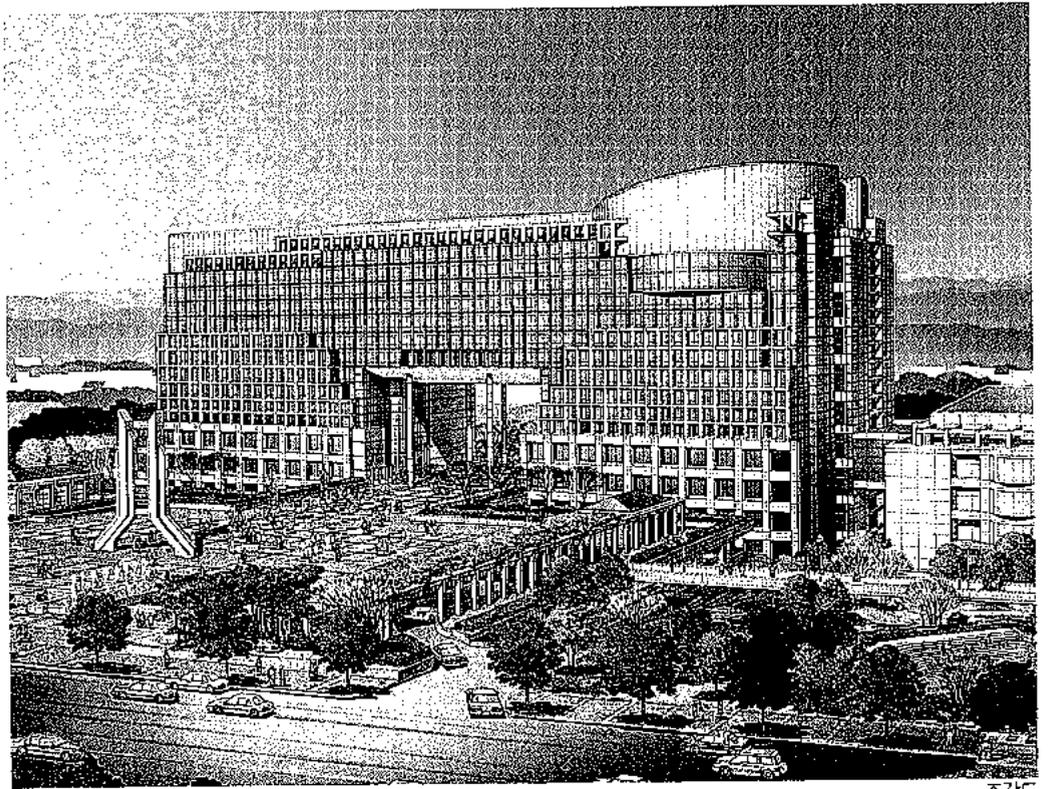
- 환자위주의 진료로 지역사회에 봉사
- 첨단의료기술로 의학발전 선도
- 우수의료인력의 양성
- 한진그룹의 경영이념 구현

건립방향

- 환자위주의 시설 및 기능체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제반기능·구조의 중앙집중화의 자동화로 효율적 병원관리체계 운영
- 미국식 건축양식 도입으로 쾌적하고 친근한 병원이미지 제고



중단면도



조감도

부산 강서구청사

Pusan Kangseo-gu Hall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지방화 시대 개막에 따른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설계를 현상 공모한 결과 총 7개 작품 중 세진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으로는 중원건축안이, 가작으로는 기인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당선작

세진건축(박재평)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6-5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공의 청사부지

대지면적 / 31,481㎡

건축면적 / 3,619.6㎡

연면적 / 16,2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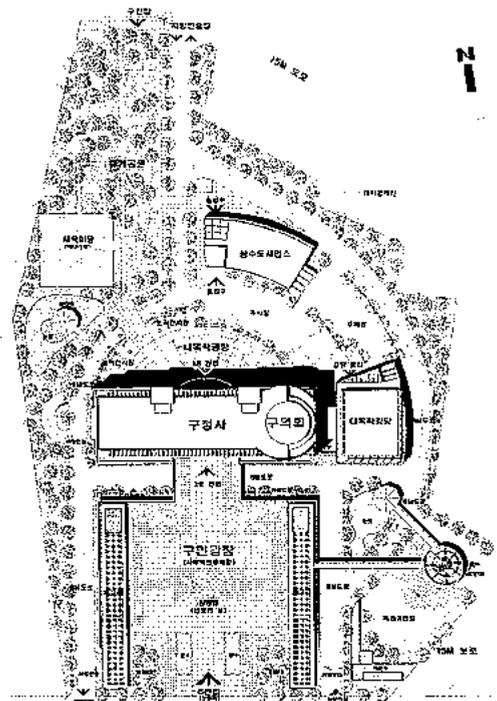
건폐율 / 11.5%

용적률 /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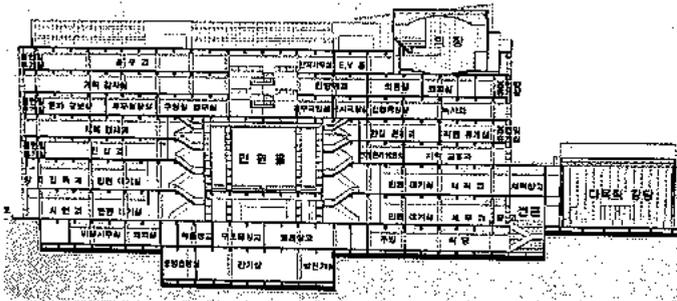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부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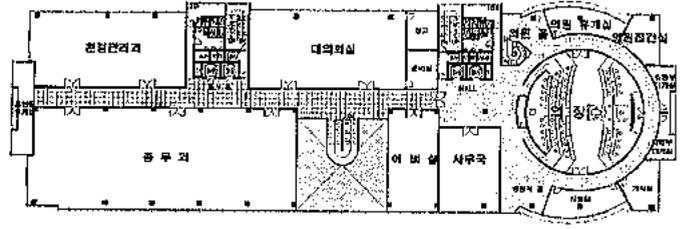
외부미감 / 화강석 터너구이, 컬러 북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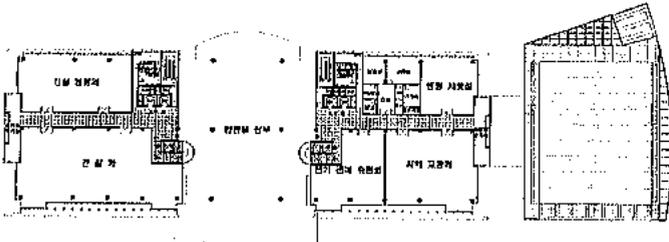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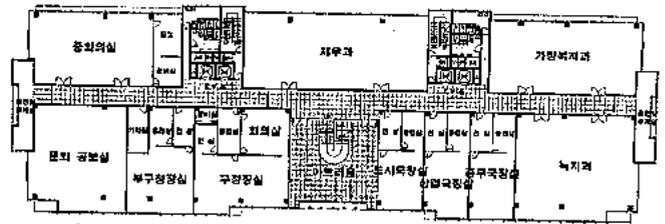
0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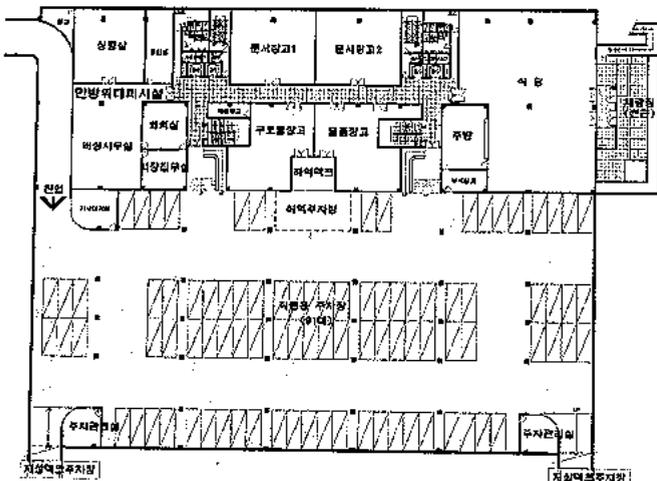
7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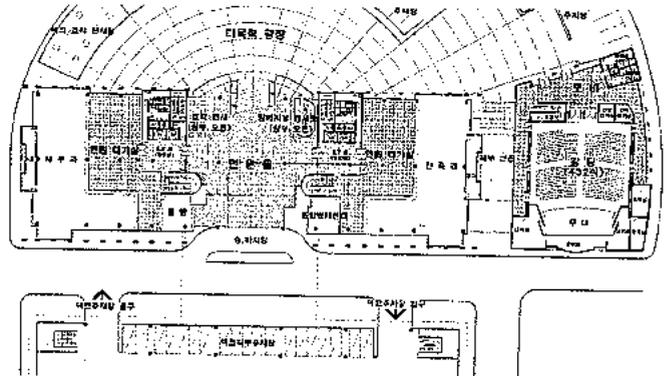
3층평면도



5층평면도



지하1층평면도



1층평면도

대지 이용 계획

- 전면 50m 도로와 대지의외의 고저차(5.4m)를 성, 절토없이 이용하여 도록 공사비 등 절감
- 전면 진입 공간
 - 전면 50m 도로 소음을 고려하고 보행진입자의 적정보행거리를 확보함
 - 다용도 행사 수용 광장으로 설정하여 건물의 상징성 부여
- 주건물 배치 공간
 - 방위축(주축), 전면도로축(부축)에 따른 주건물을 배치하여 건물의 상징성 정면성 부각
 - 건물 형축을 중심으로 전, 후면 외부공간의 위계 설정
 - 전체대지의 중심지점에 배치되어 배치계획의 무게중심 부여

-녹지수림대 확보 공간

- 후변으로의 보행진입자를 고려한 본격적 녹지제공
- 인근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 제공 개념
- 현 구청사 위치로 신축청사 완공 시까지 현구청사 사용 필요

배치계획

- 대지 이용 구획
 - 전체대지를 진입을 위한 진입공간(광장)영역, 주건물 배치영역, 녹지 휴게공간 영역으로 3단계 위계 설정
- 구민 광장 영역
 - 다목적 행사 수용 광장으로서 전면도로와 건물간의 소음차단 및 진입시 주건물의 상징성을 높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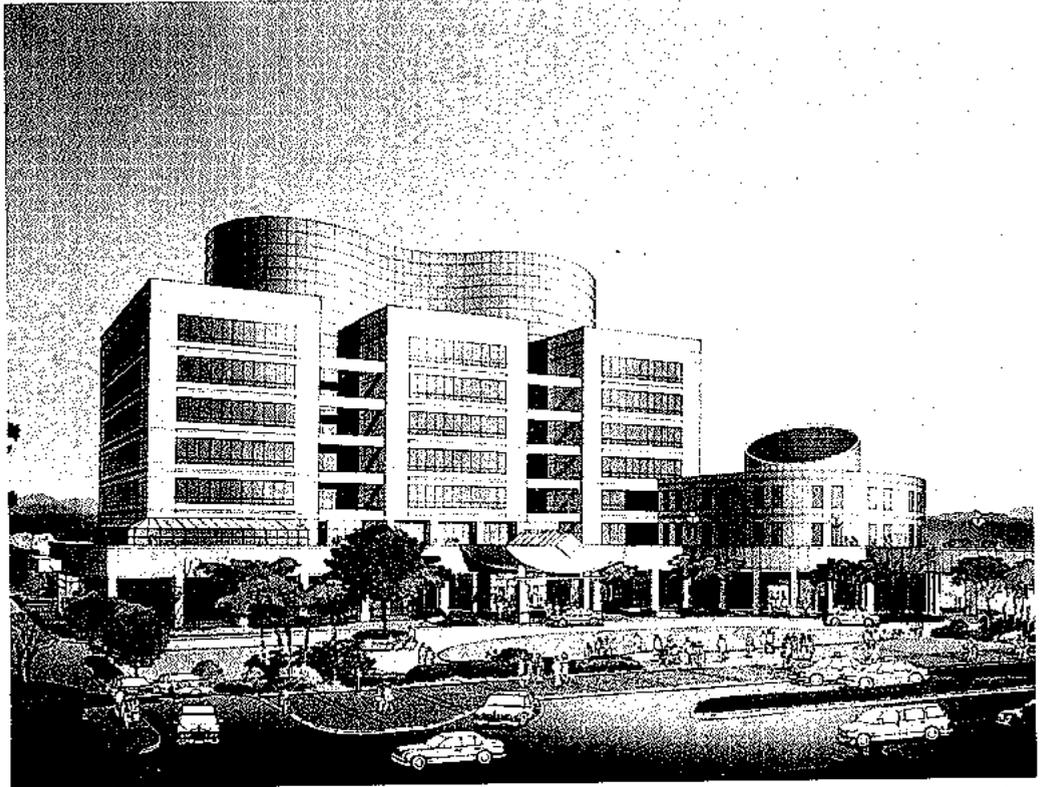
는 전체 대지내의 핵심 외부 공간으로 설정

- 다목적 광장 좌, 우측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구민광장 그늘 휴게 공간 제공 및 구민광장 영역을 설정하여 배치계획의 안정감 부여
- 주 건물 영역
 - 넓은 대지에서 건물의 아이덴티티 부각 및 전 후면 도로에서의 시각적 상징성 부여를 위해- 자형 Mass 배치
 - 구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회의 왜소감 배제를 위해 구청사 건물과 단일 Mass로 구성
 - 구청사(행정부)와 의회(입법부)의 기능연계 용이 및 상호조화의 이상수렴
 - 다목적 강당은 구민행사 대여 경

향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 배치 함으로써 업무 종료후 행사 이용시 외부에서 별도 동선 처리함으로써 주건물의 보완 확보

-휴게 녹지 영역

- 넓은 대지의 이점을 활용, 근린 녹지 공원 개념의 외부 휴게 공간을 설정하여 구청의 휴게 공간 차원을 초월, 지역 소공원으로써 지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
- 내부 도로 체계
 - 전면 50m 계획도로 및 기존 후면 15m 도로 양쪽에서의 진, 출입을 고려하여 전, 후면의 연결체계 수립 및 내부도로를 기준으로 건물 영역과 구민 봉사 외부공간 영역으로 위계설정



투시도

우수작

중원건축(유우식)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2376-5번지 일원

대지면적 / 31,481㎡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공용의 청사부지

건축면적 / 4,477.27㎡

연면적 / 16,226.56㎡

- 구청사 : 12,878.82㎡
- 구의회 : 1,691.74㎡
- 상수도사업소 : 1,656.00㎡

건폐율 / 14.22%

응적률 / 46.43%

규모 / 지하층, 지상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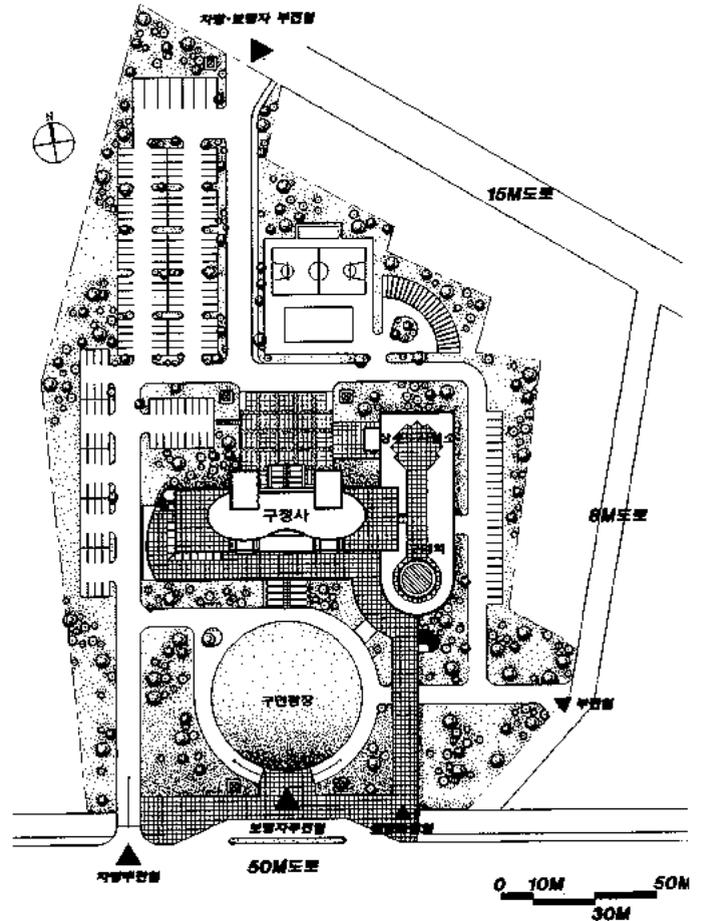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외장재료 / 회강석 베너구어 +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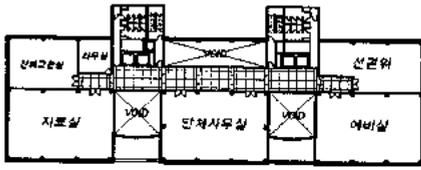
조경면적 / 12,739㎡(녹지율: 40.5%)

주차대수 / 189대(법상주차: 109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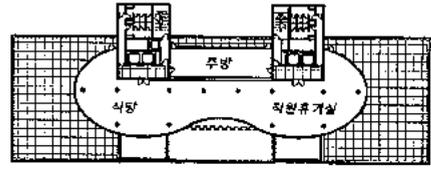
- 민원전용: 56대
- 의회및 대강당: 25대
- 직원및 민원용: 100대
- 대형주차: 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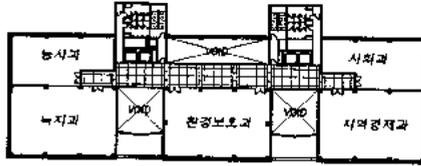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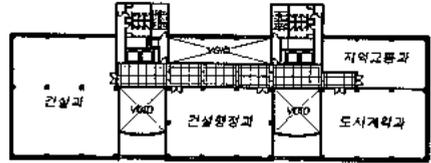
7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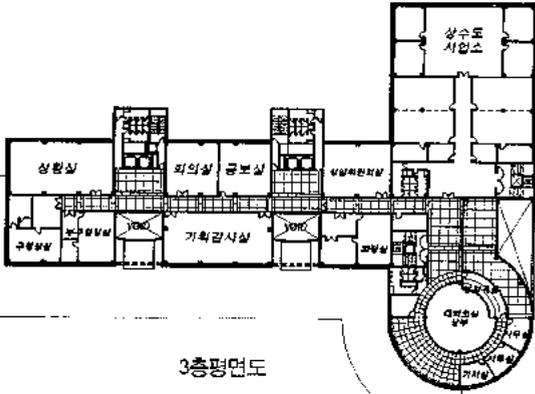
8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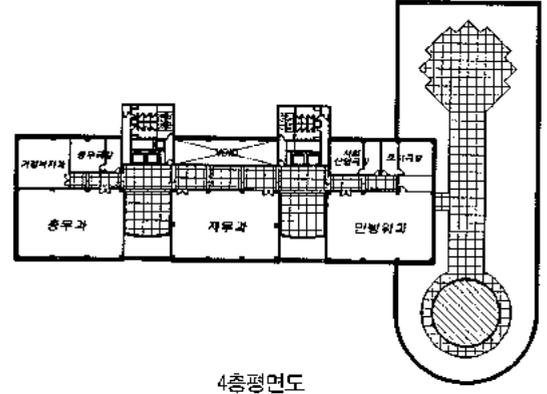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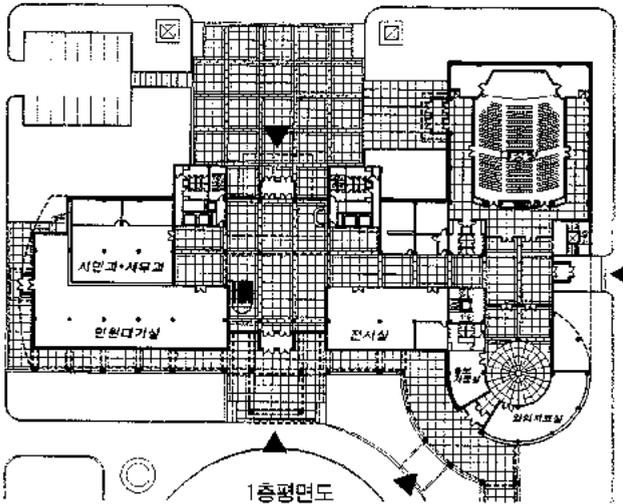
6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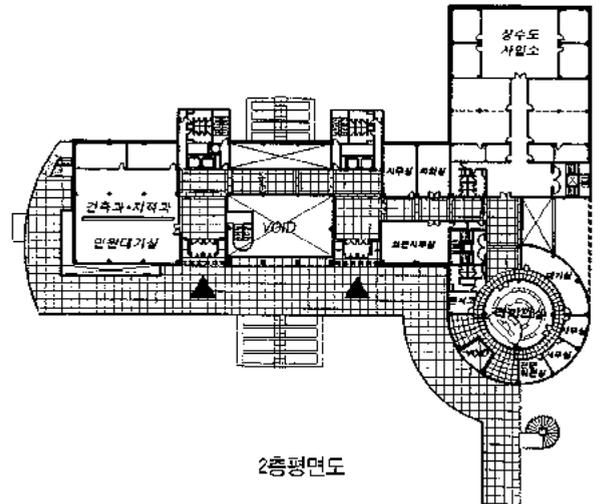
3층평면도



4층평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과장되지 않은 데크와 공간의 상호관입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업무환경의 최적화를 꾀하였다. 전면 50m도로와의 연결과 지표면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브릿지(bridge)"라는 건축언어를 사용하였다. 브릿지는 과장된 데크보다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하며, 남측전면의 풍부한 녹지는 정서적 측면이나 에너지절약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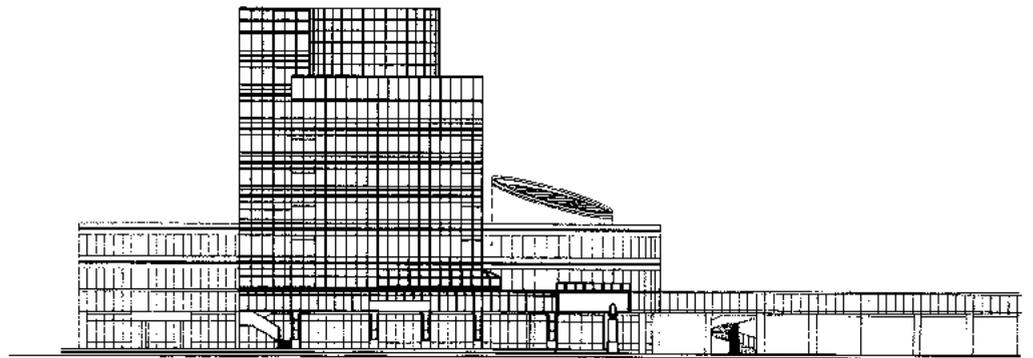
1·2층의 대민서비스공간과 상층부의 업무공간을 잇는 3층에 수뇌부를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상근자와 내방객 등을 위한 스카

이라운지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8층에 배치하여 본격적인 리프레쉬(refresh)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입면은 세가의 수직매스와 그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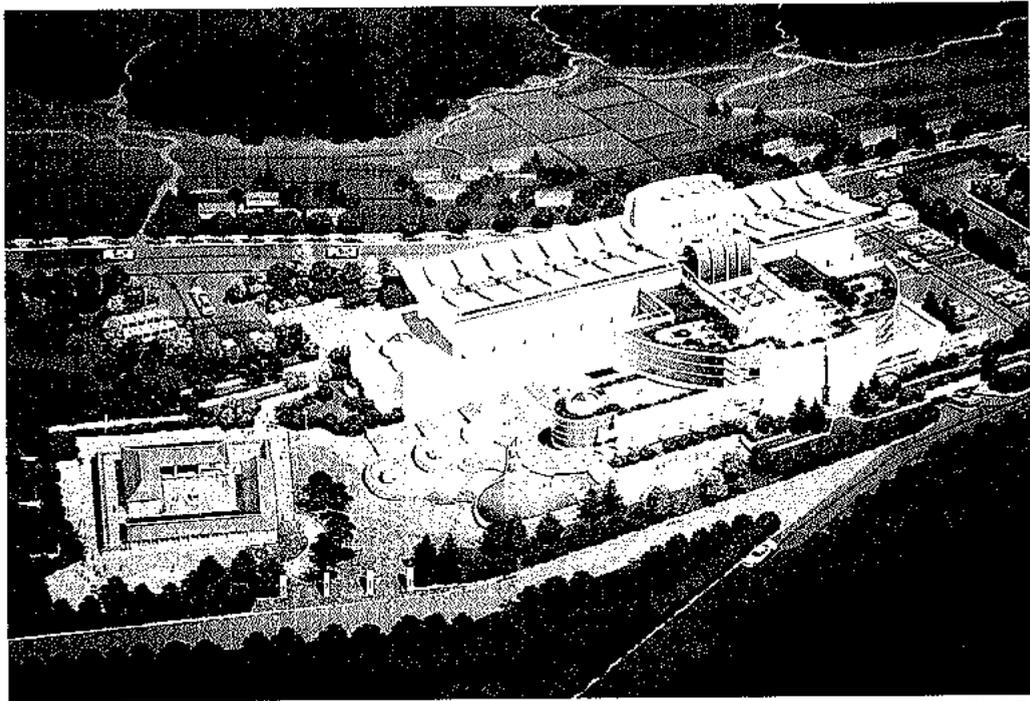
유는 곡선의 매스를 사용하여, 구만·의회·행정의 삼위일체를 상징하였으며, 특히 최상층의 곡선은 강서구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 것이다.

곡선매스에 전면유리를 사용하여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계획하였으며, 데크와 피로티에 의해 형성된 기단부는 가야건축의 특징인 고상건축(高床建築)을 형상화한 것이다.



좌측면도

현상설계경기
CONCE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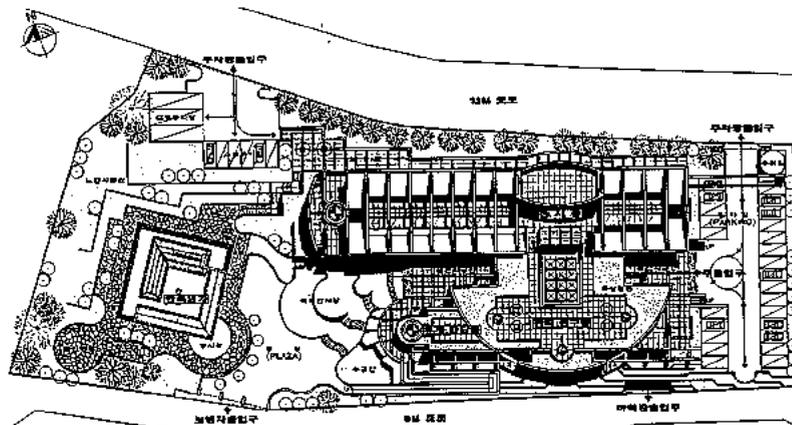


조감도

원주시립박물관

Wonju Municipal Museum

원주시에서는 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수집, 보존, 전시함은 물론 사회 교육기능까지 담당하게 될 원주시립박물관 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해 총 7작품이 응모한 결과 산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2일 발표했다.



배치도

당선작

종합건축 산
(한광호+하금현+유기정+김삼수)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88-1
- 지 역 /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7,477㎡
- 연 면 적 / 3,824.45㎡
- 건축면적 / 1,974.20㎡
- 건 폐 율 / 26.40%
- 용 적 륜 / 35.95%
- 규 모 / 지하층, 지상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 외부미감 / 화강석 전다듬, THK 18mm 열선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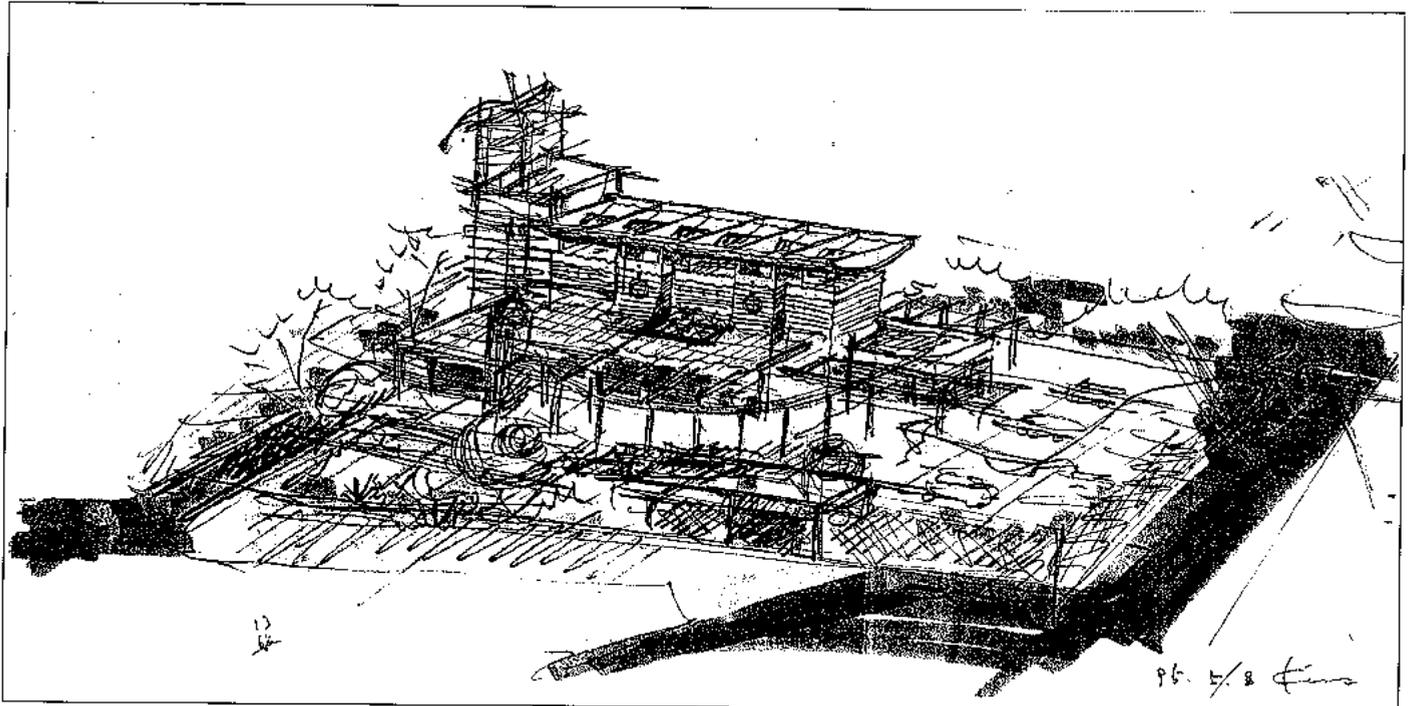
- 계획의 주안점**
- 기본 박물관 계획외에 전통가옥의 복원과 보존이라는 특수한 상황부여로 인해 그 주안점은 전통가옥과 박물관과의 연계 및 관람객의 용이한 접근에 둔다.
 - 전통가옥은 전통의 계승, 보존이라는 차원으로 박물관은 현재의 이어짐과 동시에 교육, 연구, 관리의 체계아래 미래까지 바라본다는 기본질서 아래 계획한다.

- 설계의 특징**
- 부지여건의 장·단점을 충분히 해석한후 장점과 단점의 상호보완으로 그 기능적, 형태적 수행의 역할을 최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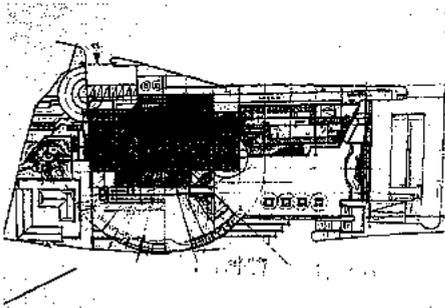
- 생가(전통가옥): 정밀한 고증에 의해 한국전통가옥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며 박물관과 휴게공간 및 주위 자연과의 최대조화에 목적된다.
- 박물관: 그 기능에 최대한 맞추되 형태는 미래지향적, 진취적인 현대적 형태로 해석하며, 전통가옥과의 단점이 아닌 절대적 상호연계성을 뿜 수 있도록 배치 및 계획
- 휴게 및 조경: 관람객의 접근성은 휴게 및 조경이 주는 공공성과 친밀성에 그 타당성을 두었으며 함께 호흡하며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계획.

- 배치계획**
- 대지형태 및 입지조건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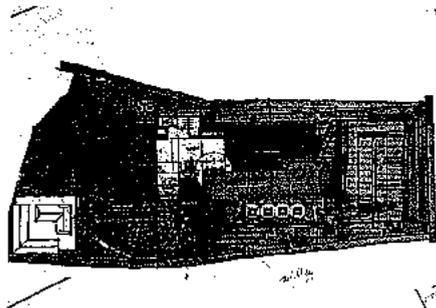
- 공간의 위계성 및 근접성에 따른 체계적 동선변화 고려
- 각 기능의 공간분할 및 유기적 연계성 고려
- 도심축 형성: 도심축과 치악산으로 연결된 주축의 선상위에 생가-광가-박물관-주차장으로 연계되는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개성적 건물의 배치유도
- 보차분리: 보행지도로와 차량진출입 도로의 엄격한 분리유도
- 기능의 유기적 작용: 생가와 박물관은 각기 유기적 기능에 의해 총괄하되 상호보완의 작용을 하며 그 사이의 광장 및 수공간은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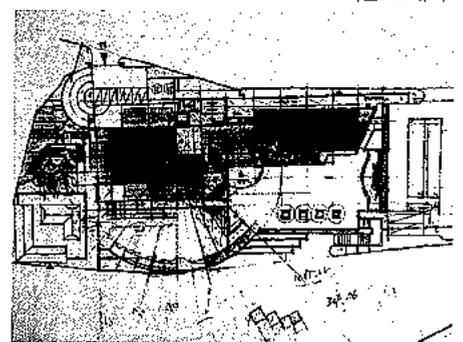
초기안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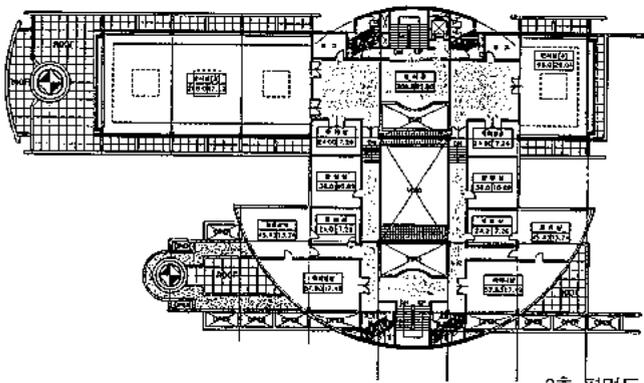
평면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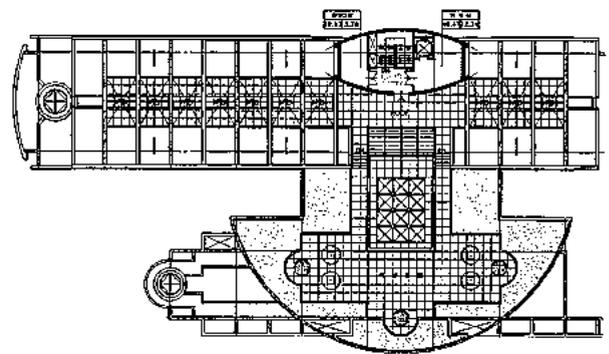
평면스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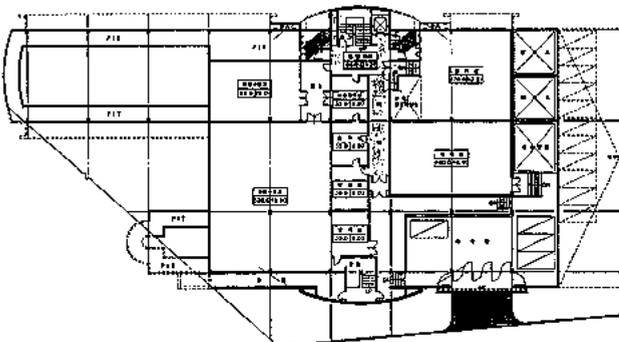
평면스케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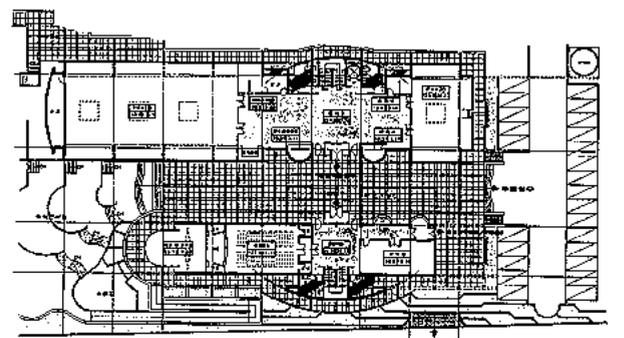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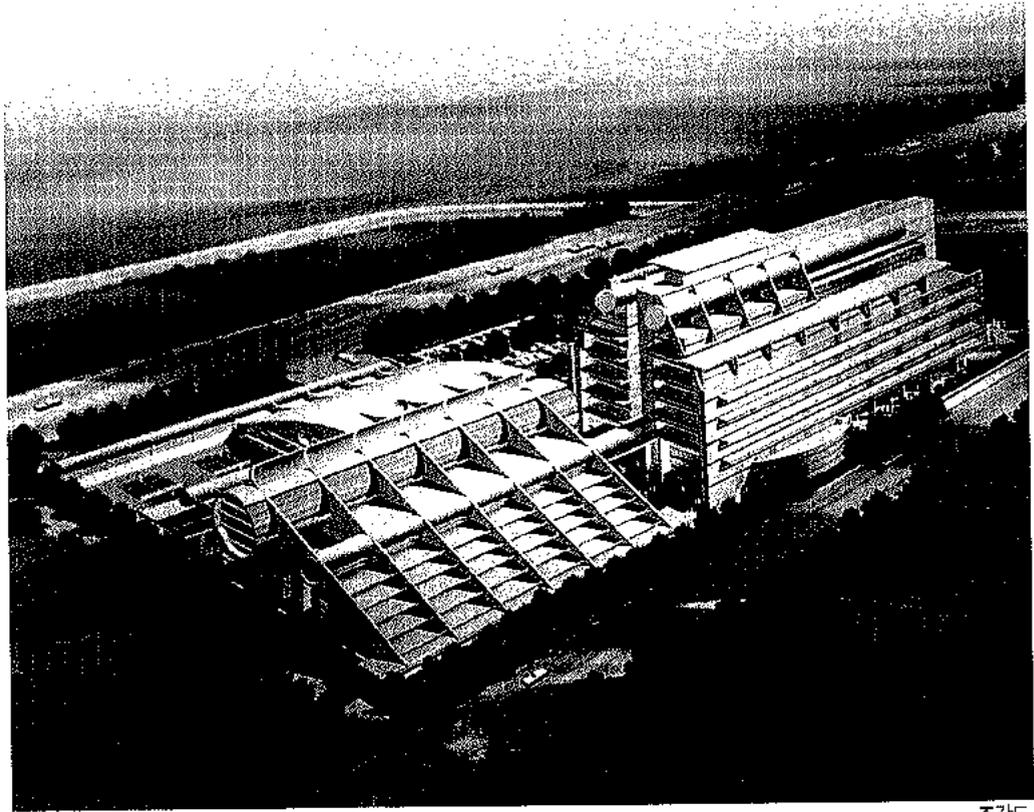
옥탑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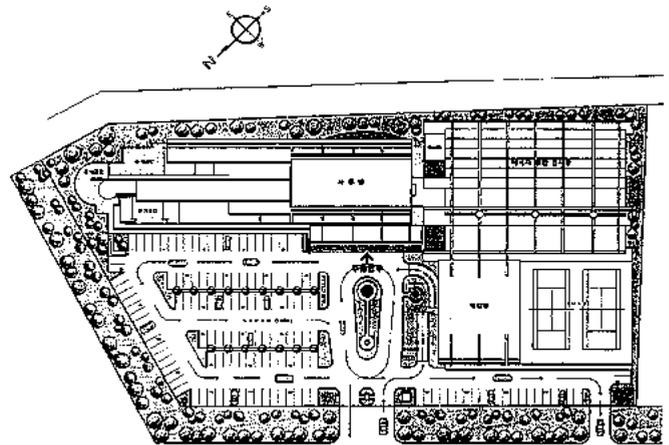


조감도

종합에너지회관 (에너지관리공단 새사옥)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국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맞춰 화상회의 시스템 등 종합정보통신망과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과 기법이 망라돼 21세기 에너지 관리의 총본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새 사옥인 종합에너지회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초청 경기로 치뤄진 결과 정일(엔)종합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6월24일 발표했다.



배치도

당선작

정일(엔)종합건축 (송기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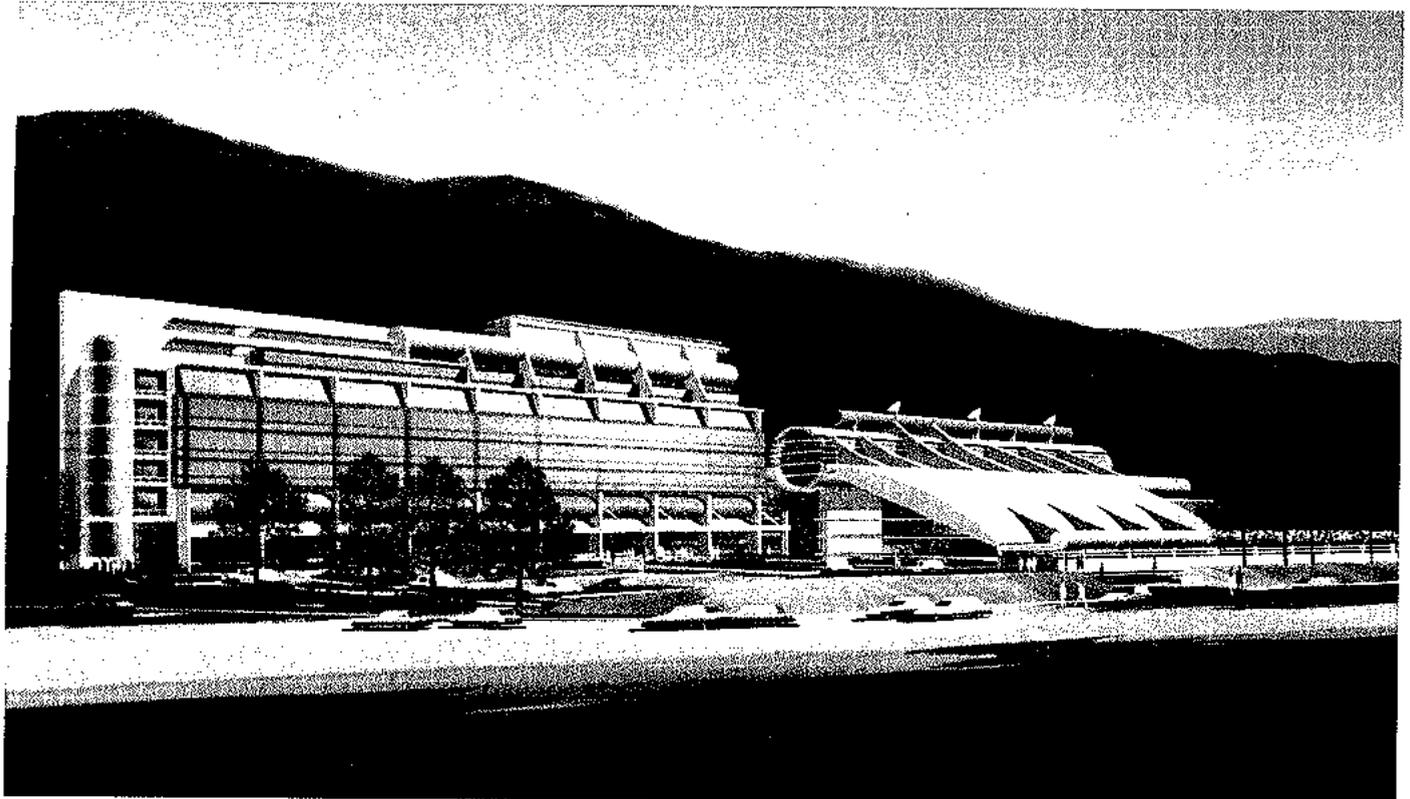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대지면적 / 13,20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업무지구
 연면적 / 18,497.16㎡
 건축면적 / 4,329.62㎡
 건폐율 / 32.80%
 용적률 / 107.85%
 규모 / 지하층, 지상7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조

계획의 방향 및 주안점

- 정보화
- 에너지 관리의 상징적 건물로서 국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
- 미래지향적 Image를 부각시키는 형태.
-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 및 환경보존 정책에 부합되도록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대체 에너지 이용 기술 등을 반영.
- 건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무자동화(OA), 관리자동화(BA), 정보통신화(TC) 등 장래의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향후 수평, 수직을 고려

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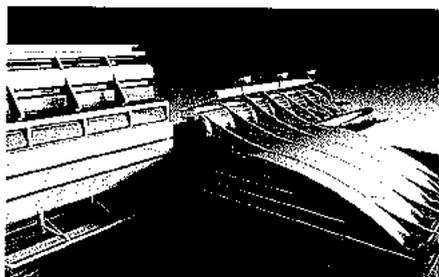
- 기업의 이미지
- 쾌적한 업무용 건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함.
- 문화, 교육기능의 활성화.
- 직원 및 시민에게 쾌적한 육내·외 환경 제공
-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
- 강당, 로비, 홍보전시관 등은 인터리어에 유의하여 디자인.
- 에너지 절약계획의 적극적인 수용
- Intelligent화 추구
- 에너지 효율을 위한 건물배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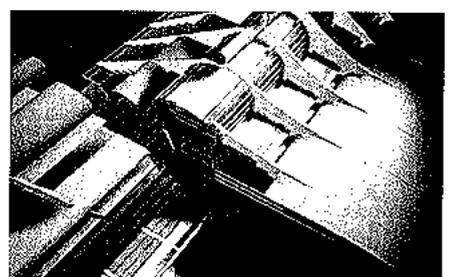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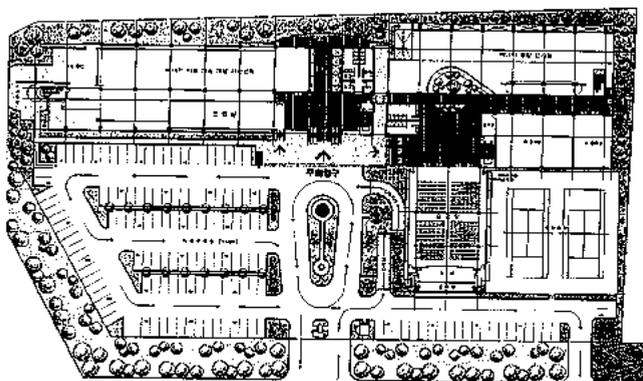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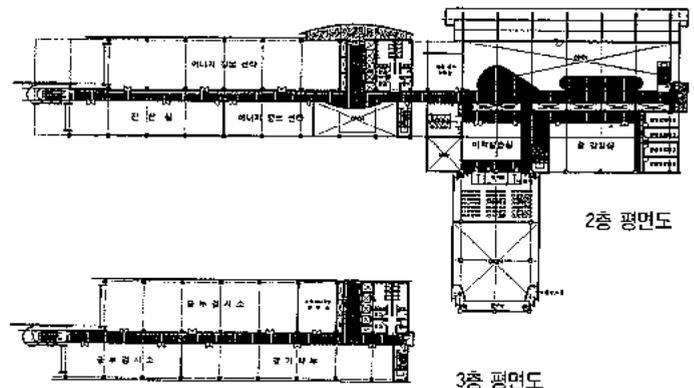
컴퓨터 시뮬레이션 2



컴퓨터 시뮬레이션 3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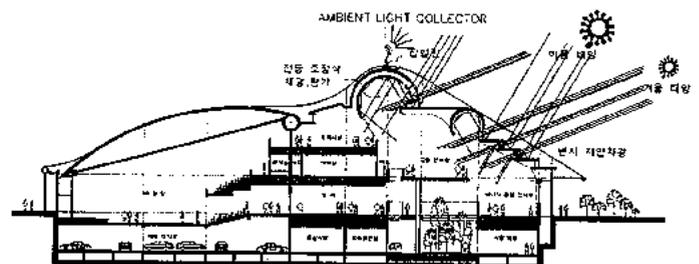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Zonning별 냉·난방 System채택

- 냉·난방, 단열, 채광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적극 도입하고 냉·난방은 집단 에너지 사업에 의하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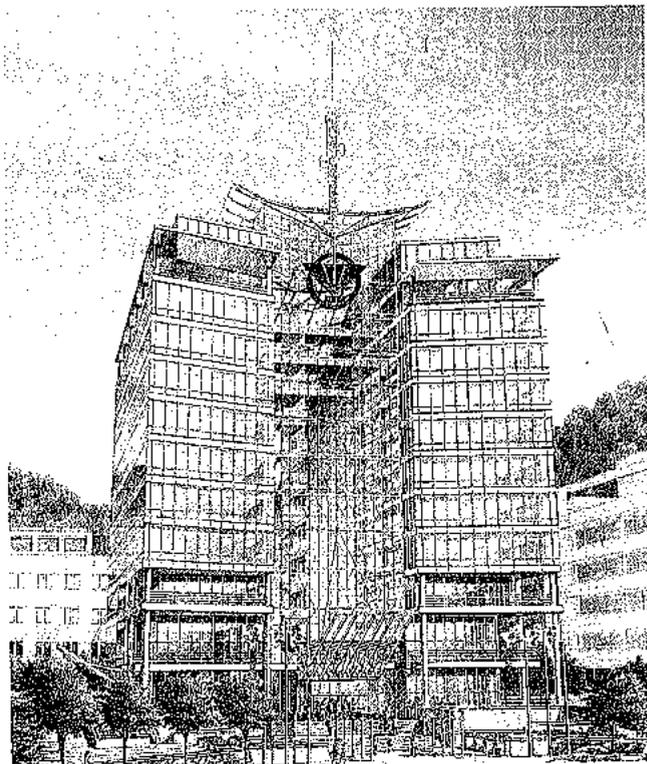


에너지 절약계획 개념도

당선작

(주)무영종합건축
(안길원+홍광근)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영곡동 300-9, 302일부
- 대지면적 / 5,725.6㎡
- 건축면적 / 1,712.7㎡
- 연면적 / 26,493.0㎡
- 건폐율 / 29.9%
- 용적률 / 256.2%
- 조경면적 / 958.9㎡
- 규모 / 지하4층, 지상12층
- 최고높이 / 51.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 설계담당 / 이명식
- 건축주 / 대한무역진흥공사
- 시공자 / (주)형진건설
- 구조설계 / 태강건축
- 설비 / 삼신설비
- 전기 / 신화전기
- 조경 / (주)신화컨설팅
- 토목 / 우대기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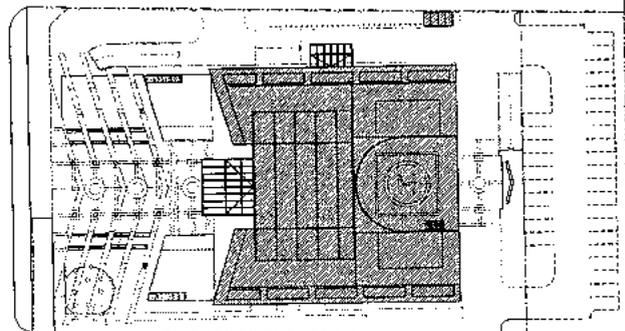


투시도

종합무역정보연구센터

Trade Information Center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는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무역 정보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민간업체의 신공법 및 기술개발과 다양한 기술도입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의 효과를 기대한 설계시공일괄 입찰(Turn-key) 방식으로 설계경기를 시행, 총 9개 업체가 참가한 결과 지난 4월 21일 무영건축/형진건설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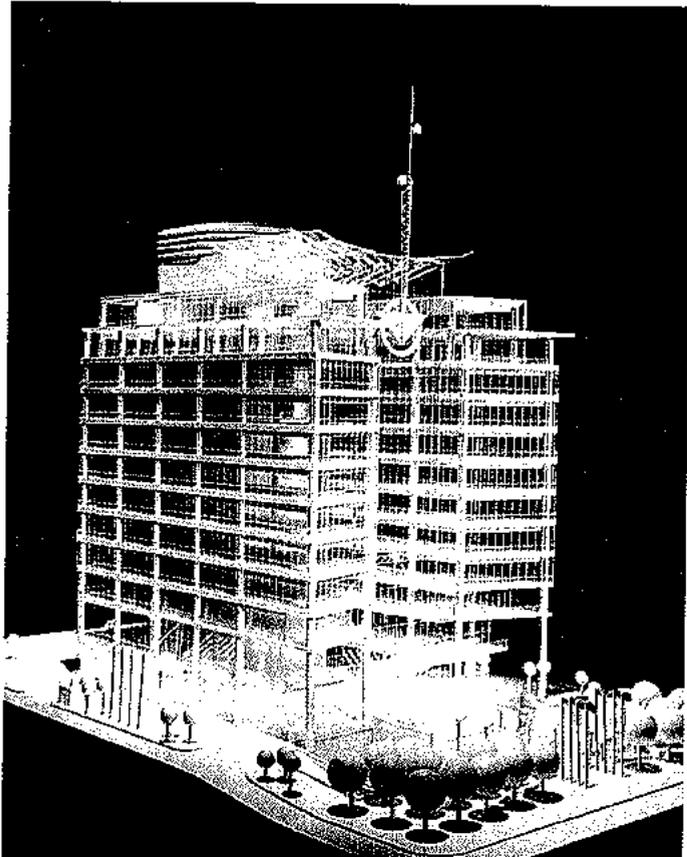


배치도

우리가 생각한 중요한 개념들은 먼저 건물이 앉혀질 부지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KOTRA의 상징성이다.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본 SITE는 서울특별시 관문인 경부고속도로에서 300m 정도에 위치하고 북쪽 쪽 뒤로는 구룡산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양재 I.C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서울에 진입하는 관문(길목)의 랜드마크(Land-Mark)적인 건축물이 되게끔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국가공기업의 정보센터로서 세계화 및 개방화 시대에 각국의 바이어들의 출입 및 국제회의나 국·내외 상품전시 등 KOTRA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상징성은 중요한 계획요소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전면에 상징적 진입광장을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옥

외공간을 건물조형성 이미지에 조화있게 휴게공간을 조성하였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외부와 건물 내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광장으로 KOTRA의 발전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전면 진입광장을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오면 웅장한 아트리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아트리움은 건물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쾌적한 환경 및 생동감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막힌 공간이 없이 확트인 공간을 제공하고, 시각적으로 밝고 넓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국제적 건축물로서의 조형성 창출에 기여하리라 본다. 또 하나의 개념은 무역정보 연구센터의 High-Tech화로서 첨단적이고 국제적인 이미지 표현이다.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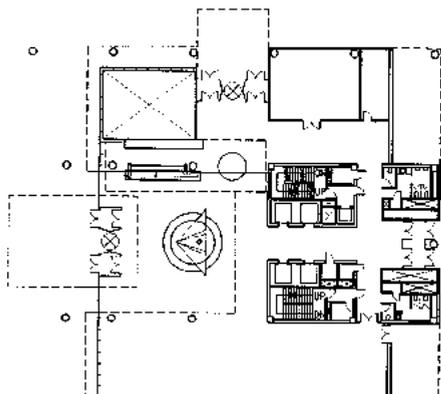
화 및 21세기를 향한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형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화강석과 같은 무거운 재료 사용을 자제하고 유리과 알루미늄 판넬, 칼라스텐레스 등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빌딩(Intelligent Building)의 이미지를 살리고 경제하고 스마트한 건축물이 되게끔 외관을 디자인 하였다. 건물외관 디자인은 KOTRA 심볼마크의 역동성과 진보성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무역정보 연구센터의 이미지를 보다 높게 부각시켜 서울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와 양재 I.C에서의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건축물이 되게끔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의 관심(Mind)의 표명이며 보다 나은 건축물을 갖고자 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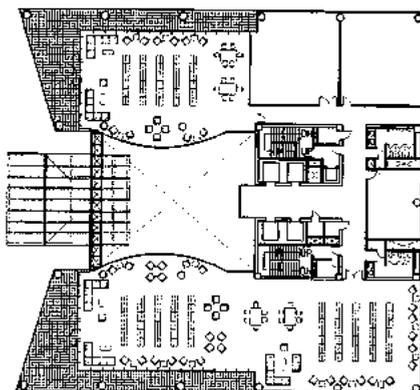
모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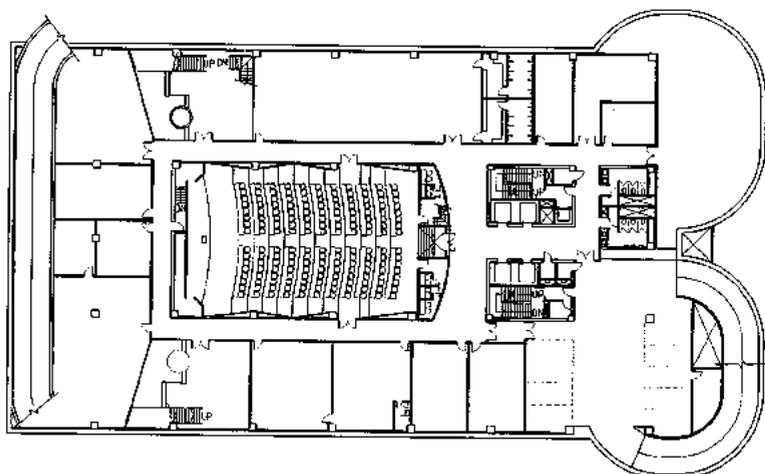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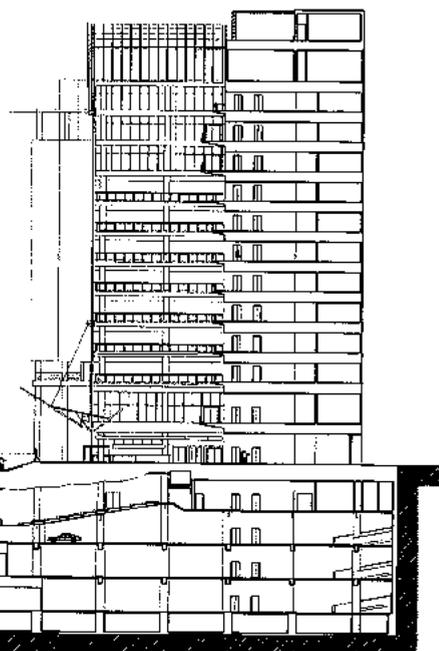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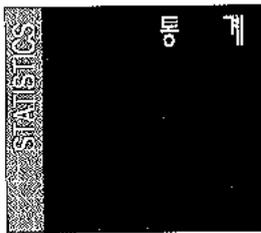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단면도



1995년도 6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6월분 1천1백4십7만6천5백77㎡ 보다 6.4%(7십3만4천7백21㎡)감소한 1천7십4만1천8백5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6월누계 7천3백8십1만6백5㎡ 보다 9.2% 6백8십2

만6백14㎡ 감소한 6천6백9십8만9천9백91㎡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5월분 1천2백6십5만7천9백14㎡ 보다 15.1% 1백9십1만6천58㎡ 감소한 1천7십4만1천8백5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서울	1,053,317	1,833,272	779,955	74.0
	대구	679,510	1,094,263	414,753	61.0
	광주	440,360	453,914	13,554	3.1
	충북	394,973	445,850	50,877	12.9
	전북	411,034	506,364	95,330	23.2
	전남	241,211	254,079	12,868	5.3
	경남	761,907	966,832	204,925	26.9
감소지역	부산	1,526,506	281,263	(1,245,243)	-81.6
	인천	530,258	428,258	(102,000)	-19.2
	대전	198,993	168,311	(30,682)	-15.4
	경기	2,939,027	2,547,993	(391,034)	-13.3
	강원	496,321	459,097	(37,224)	-7.5
	충남	578,545	462,383	(116,162)	-20.1
	경북	802,020	656,701	(145,319)	-18.1
제주	422,595	183,276	(239,319)	-56.6	
합 계	11,476,577	10,741,856	(734,721)	-6.4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5월분	6월분	증 감	비 율	
단독주택	1,117,226	951,738	(165,488)	-14.8	
다세대주택	559,559	377,605	(181,954)	-32.5	
연립주택	240,668	189,359	(51,309)	-21.3	
아파트	4,910,969	3,892,484	(1,018,485)	-20.7	
근린생활시설	1,924,930	1,488,872	(436,058)	-22.7	
종교시설	121,088	113,324	(7,764)	-6.4	
의료시설	46,242	89,427	43,185	93.4	
교육연구시설	372,727	459,053	86,326	23.2	
업무시설	317,209	632,890	315,681	99.5	
숙박시설	207,338	155,183	(52,155)	-25.2	
공장	1,443,560	1,117,093	(326,467)	-22.6	
기타	1,396,398	1,274,828	(121,570)	-8.7	
계	12,657,914	10,741,856	(1,916,058)	-15.1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893	3,962	829,830	3,863	3,942	951,738	(30)	(20)	121,908	14.7	
다세대주택	729	774	357,128	848	899	377,605	119	125	20,477	5.7	
연립주택	97	106	137,821	125	126	189,359	28	20	51,538	37.4	
아파트	188	858	5,071,092	185	617	3,892,484	(3)	(241)	(1,178,608)	-23.2	
근린생활지역	3,610	3,697	1,614,862	3,383	3,516	1,488,872	(227)	(181)	(125,990)	-7.8	
종교시설	128	145	100,004	127	157	113,324	(1)	12	13,320	13.3	
의료시설	14	25	88,765	17	21	89,427	3	(4)	662	0.7	
교육연구시설	162	189	367,402	164	202	459,053	2	13	91,651	24.9	
업무시설	140	146	300,221	157	172	632,890	17	26	332,669	110.8	
숙박시설	183	201	285,593	140	156	155,183	(43)	(45)	(130,410)	-45.7	
공장	889	1,219	1,176,538	970	1,305	1,117,093	81	86	(59,445)	-5.1	
기타	1,228	1,472	1,147,321	1,159	1,394	1,274,828	(69)	(78)	127,507	11.1	
합 계	11,261	12,794	11,476,577	11,138	12,507	10,741,856	(123)	(287)	(734,721)	-6.4	(0=미어스)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6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6,354	26,863	6,203,184	24,645	25,058	6,315,944	(1,709)	(1,805)	112,760	1.8	
다 세 대 주 택	4,397	4,757	2,210,094	4,652	5,441	2,352,032	255	684	141,938	6.4	
연 립 주 택	603	793	1,178,644	696	741	979,192	93	(52)	(199,452)	-16.9	
아 파 트	1,084	4,579	25,078,278	1,029	3,619	23,572,899	(55)	(960)	(1,505,379)	-6.0	
근린생활시설	25,792	26,496	11,933,106	22,111	22,770	10,279,218	(3,681)	(3,726)	(1,653,888)	-13.9	
종 교 시 설	848	972	762,101	703	813	541,576	(145)	(159)	(220,525)	-28.9	
의 료 시 설	120	140	309,978	143	155	500,089	23	15	190,111	61.3	
교육연구시설	712	844	2,062,666	723	848	2,045,078	11	4	(17,588)	-0.9	
업 무 시 설	685	734	2,034,389	726	750	3,649,310	41	16	1,614,921	79.4	
숙 박 시 설	1,231	1,292	1,591,895	767	839	1,081,897	(464)	(453)	(509,998)	-32.0	
공 장	5,364	8,074	8,161,083	5,168	7,224	7,706,603	(196)	(850)	(454,480)	-5.6	
기 타	7,686	9,822	12,285,187	6,146	7,493	7,966,153	(1,540)	(2,329)	(4,319,034)	-35.2	
합 계	74,876	85,366	73,810,605	67,509	75,751	66,989,991	(7,367)	(9,615)	(6,820,614)	-9.2	(=미애너스)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6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405	1,417	1,053,317	1,731	1,741	1,833,272	326	324	779,955	74.0	
부 산	843	1,111	1,526,506	912	995	281,263	69	(116)	(1,245,243)	-81.6	
대 구	1,494	1,502	679,510	1,348	1,450	1,094,263	(146)	(52)	414,753	61.0	
인 천	480	488	530,258	333	344	428,258	(147)	(144)	(102,000)	-19.2	
광 주	237	297	440,360	228	315	453,914	(9)	18	13,554	3.1	
대 전	344	355	198,993	260	263	168,311	(84)	(92)	(30,682)	-15.4	
경 기	1,618	2,027	2,939,027	1,851	2,131	2,547,993	233	104	(391,034)	-13.3	
강 원	543	668	496,321	596	703	459,097	53	35	(37,224)	-7.5	
충 북	524	635	394,973	607	671	445,850	83	36	50,877	12.9	
충 남	490	541	578,545	537	555	462,383	47	14	(116,162)	-20.1	
전 북	331	386	411,034	327	434	506,364	(4)	48	95,330	23.2	
전 남	284	338	241,211	447	535	254,079	163	197	12,868	5.3	
경 북	743	917	802,020	602	805	656,701	(141)	(112)	(145,319)	-18.1	
경 남	924	1,064	761,907	908	1,084	966,832	(16)	20	204,925	26.9	
제 주	1,001	1,048	422,595	451	481	183,276	(550)	(567)	(239,319)	-56.6	
합 계	11,261	12,794	11,476,577	11,138	12,507	10,741,856	(123)	(287)	(734,721)	-6.4	(=미애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6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10,274	10,660	9,336,240	10,411	10,475	10,329,225	137	(185)	992,985	10.6	
부 산	5,955	6,763	5,590,297	5,366	6,469	4,567,984	(589)	(294)	(1,022,313)	-18.3	
대 구	8,261	8,936	4,004,076	7,506	7,854	4,929,795	(755)	(1,082)	925,719	23.1	
인 천	2,897	3,038	4,046,094	2,534	2,676	3,634,277	(363)	(362)	(411,817)	-10.2	
광 주	2,521	3,093	3,693,098	1,754	2,345	2,731,463	(767)	(748)	(961,635)	-26.0	
대 전	2,892	2,839	1,676,508	1,712	1,879	2,091,308	(980)	(960)	414,800	24.7	
경 기	12,455	14,921	15,729,090	12,699	14,350	14,593,570	244	(571)	(1,135,520)	-7.2	
강 원	3,324	3,776	2,048,721	3,599	4,316	2,972,087	275	540	923,366	45.1	
충 북	3,921	4,692	2,761,572	3,190	3,567	2,196,665	(731)	(1,125)	(564,907)	-20.5	
충 남	3,292	3,476	8,071,702	2,764	2,997	4,605,582	(528)	(479)	(3,466,120)	-42.9	
전 북	2,262	2,652	2,716,592	1,662	1,877	2,239,492	(600)	(775)	(477,100)	-17.6	
전 남	3,346	4,035	2,125,054	2,470	2,904	1,596,561	(876)	(1,131)	(528,493)	-24.9	
경 북	4,694	6,118	5,045,797	4,189	5,375	3,945,802	(505)	(743)	(1,099,995)	-21.8	
경 남	6,781	8,025	6,019,918	6,185	7,135	5,973,580	(596)	(890)	(46,338)	-0.8	
제 주	2,201	2,342	945,846	1,468	1,532	582,600	(733)	(810)	(363,246)	-38.4	
합 계	74,876	85,366	73,810,605	67,509	75,751	66,989,991	(7,367)	(9,615)	(6,820,614)	-9.2	(=미애너스)

이사회 개최



우리협회의 주요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회장 주재로 지난 6월 13일(제11회)과 7월 14일(제12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은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 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폐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2년 이내(폐업일로부터 3년내)에 본 협회에 재입회 신청을 할 때에는 입회비 전액을 면제한다」는 휴업 및 폐업에 관한 규정 제10조(재입회)를 삭제하여 재입회시기도 입회비를 납부토록 하며, 나머지만은 현행과 같이 하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완료 되고난 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
 - 경기도 건축사회 소속 "송탄지역 건축사회"의 명칭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택지역 건축사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함.

제12회

- 전국 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적용지침(안) 승인의 건
 -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95. 6. 22)에서 결의되어 7월 1일부터 기 시행중에 있는 「전국 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설계변경(용도, 면적, 설비 등)의 경우에는 증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전국 공통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징수하되 단서조항으로 "50㎡이하까지는 면제"하도록 함.
- 협회 회비징수 및 납부방법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설계도서 검토폐지 및 사전 설계도서신고를 건축허가 신청후 7일 이내에 협회에 신고토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본부는 입회비(신규회원 입회시), 월정회비(정회원), 시·도건축사회는 월정회비(정회원), 운영회비(소속 관할지역 업무실적), 전국공통운영회비(타 건축사회 관할 업무실적)로 운영제원을 마련하고, 납부방법으로는 입회비는 신규회원 입회시 납부하고 월정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시·도건축사회에서 소속회원에게 고지(지로, 공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하며, 시·도건축사회의 운영회비는 신고된 설계도서 신고서의 면적에 시·도건축사회별 「운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산정된 금액을 자진납부 및 고지(지로, 공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전국 공통운영회비는 소속 건축사회에 신고된 설계도서 신고서 면적에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를 적용, 산정된 금액을 해당 회원에게 고지(지로, 공문서)하여 납부후, 신고사항 및 납부회비를 매월말 기준 취합하여 발생지 건축사회로 송부하는 납부방법운영지침을 원안대로 승인함.

- 예산편성위원회 규칙 개정(안) 승인 및 '96 예산편성위원 선임의 건
 - 예산편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2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본 협회 회장은 예산편성위원회에서 다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예산편성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96예산편성위원 20인중 당연직 위원15명(시·건축사회 회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함.
- 설계도서의 신고사무 취급 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법이 확정된 후에 정식 부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보관리 지침(안)에 대한 협의
 - 건축사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자료를 검토하여 법이 확정된 후에 정식 부의안건으로 다루기로 협의함.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따른 특별점검대책반 운영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9일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태 수습을 위하여 특별점검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긴급 구성하여 붕괴사고 후 현장복구 및 인명구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재해수습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특히 우리협회 임원 6인과 재건축위원회 위원 8인, 건축구조전문회원 5인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대책반은 1일 2-3개조를 편성, 매일 현장 상황발생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합리적인 구조작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서울시 대책본부 상황실팀과 함께 상황발생에 따른 안전점검 및 자문활동을 벌였다. 또한 사고 현장 및 난지도 폐기를 처리장에서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따른 시료(코어)를 채취하여 국립건설시험소에 긴급 조사를 의뢰하고, 검·경 합동수사 본부와 사고원인에 대한 협동조사 작업도 벌이고 있다.

30주년 기념 '95전국건축사대회 무기연기

오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제주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협회 창립30주년기념 '95전국건축사대회가 무기연기 되었다. 우리 협회 제 13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행사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에게 잘못 비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서도 이번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하였다. 이로써 오는 9월로 예정되었던 제주도에에서의 행사일정은 모두 무기연기 되었으며 연수교육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행사일정이 발표된 예정이다.

건축사사무소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통보

우리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사사무소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접수하여 각 시·도건축사회에 통보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서 종전의 종합·단독 건축사사무소의 구분과 단독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공사감리 업무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도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 변경 등에 따른 책임한계도 설계·감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설계·감리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의 승계여부 등의 한계도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계도서신고는 현행대로 건축허가 신청전에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기타 세부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도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기전까지는 현행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1차 합격자 발표

95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지난 7월 21일(목)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일제히 공고되었다. 지난 7월 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되었던 이번 건축사 1차시험은 총 7,761명이 지원, 그중 6,427(응시율 82.8%)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총 2,703명(합격률42.1%)이 합격하였다. 한편 건축사자격(면허) 2차시험은 오는 9월 초에 실시될 예정인데, 시험장소 및 시험일시는 오는 8월 23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본지 95쪽 안내문 참조)

한·몽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우리협회 김규태 회장을 단장으로 한 몽고, 중국방문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두나라를 방문하였다. 한·몽, 한·중간 건축기술 정보교류 및 우호증진과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몽고건축사협회와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건축 및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을 방문해서는 한·중 양국간 건설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및 운영실태,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감리계약서 제출 의무화

서울시는 내년 1월 6일부터 서울에서 건축허가후 실제 공사에 들어갈때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착공신고서에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착공허가를 철회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시설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개강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은 지난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부터 건축사회관 12층 다목적홀에서 수강생 160명과 우리협회 김규태회장, 부산광역시 이상철 주택국장 등 많은 건축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시민건축대학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1부 개강식에 이어 다과회,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시민건축대학은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리며 교육내용으로는 실생활과 건축, 건축관련교양, 건축설계·시공, 고건축 대형건축물답사 또는 슬라이드

상영(외국의 건축소개) 등이다. 한편 이번 시민건축대학은 시민의 참여속에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켜 주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지역 건축문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제주건축사회, 창립30년사 발간 추진

제주도건축사회(회장 백형철)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 건축사회 30년사를 오는 10월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4x6배판 크기 총 5백쪽 정도로 발간될 이번 제주도 건축사회 30년사는 건축사회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30년동안의 역사적 자료를 집대성하고 도내 건축분야, 제주도 및 우리나라 지정 문화재 자료와 회원작품도 수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건축사회는 6인으로 구성된 3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부산·경남 건축작가회, '95여름 워크샵 개최

부산, 경남건축작가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동안 부산전문대 정학동 연수원에서 95년도 여름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지리산 인근마을의 재구성에 대한 건축적 접근』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도건축가 5명, 세미나강사 7명, 참가학생 26명 등 총 40명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이번 워크샵에 참가한 학생들의 건축적 식견을 넓히기 위해 장백기 교수(부산 전문대)의 『풍수지리와 한옥』, 서치상 교수(순천대)의 『모더니즘 건축의 과학적 환원주의와 배려나이의 변화』, 김경관소장(서일건축)의 『건축풀어쓰기』, 최승원 소장(양가주망)의 『건축기행을 통한 건축이미지 도출과 작품세계』라는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95건축가 미술전 개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는 건축가 미술전이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예총회관 1층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네번째인 이번 '95건축가미술전은 그간 건축사들이 바쁜 업무속에서도 순수한 열정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는 회원전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회원가입자의 작품에 한해 전시가 가능하다. 작품제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작품 슬라이드 제출: '95. 8. 25일까지

- 슬라이드 1매(전시는 3매 이하도 가능)
- 작가사진 1매 및 작가양력 제출
- 제출처: 후후 통보예정
- 입회비 및 경비: 입회 회원-최초가입시 3만원, 출품 회원-출품비 15만원

동대문구청사,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동대문구청은 청사신축에 따른 현상설계 공모결과를 지난 6월 16일 발표하였다. 대지면적 11,532㎡, 연면적 2,987㎡,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로 지어질 이번 동대문구청사 현상설계에서는 총 10개업체가 참여하여 8개작품이 공모되었는데,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결과 김지덕(유신건축)회원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수작에는 변 용(원도시건축)회원의 안을, 가작에는 양해준(동남아태건축)회원, 최광수(범한건축)회원의 안을 선정했다.

제13회 한·일 도시개발 협력회의 개최

한·일 양국의 도시분야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한 도시개발 협력회의가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대표 20명, 일본대표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양국이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이번 회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제도 개편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특히 광역도시 개발계획과 대중교통환승센터의 건립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의 도시공원 현황 및 개선방안, 하수도처리와 합리적 방안 등이 집중 토론되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김우성((주)아키프랜건축사사무소) 회원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건축설계 현상공모

서울대교구 주교회 명동성당 100주년기념회에서는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이번 현상공모는 1단계로 마스터플랜 및 계획설계를 공모한 후 자격자에 한해 2단계 기본설계를 제출받는다. 응모자

격은 1단계의 경우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건축설계팀이며 입선작의 경우 당선작 1점에 실시설계권을, 우수작 4점에 각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참가접수는 95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1단계 공모마감일은 95년 10월 3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축성 100주년기념사업회 사무국 전화 774-3890(교환 233,234)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학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한건축학회(회장 이명호)는 건축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는 국제적 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0일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대한건축학회 50년사』를 비롯한 학회지 특집호와 학술지 등도 함께 발간된다.

대한주택공사,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21세기 주택정책 및 기술개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7월 19일, 20일 양일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유럽, 미국, 호주 등 총 8개국 27명의 학자 및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고 거주자들이 양질의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이 증폭되는 시기에 맞춰 『21세기 주거생활의 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경험, 주거환경계획법, 다양한 주택개발전략,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 및 유지관리체계, 양질의 주택건설을 도모하는 주택관련 법규제 및 지원체계, 환경보존과 환경공생을 위한 관리기술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성동구 건축대전 개최

성동구는 성동구민의 건축의식 수준향상과 건축문화 활성을 기하기 위한 성동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성동관내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일반부와 성동구청사계획, 성동구 주거계획 또는 문화 휴식공간, 도시 설계안, 도시형 아파트공장 등의 주제로 학생과 신인부로 나누어 개최되는 이번 건축대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받으며 10월 20일까지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참가자격으로 일반부는 성동구내에 건립된 건축물의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이고 학생·신인부는 등록된 건축사가 아닌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설계사무소 직원이다. 또한 오는 10월말에 있을 시상식에서는 일반부 최우수 1점과 우수건축물 3점에게는 각각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되며 학생·신인부 금상 1점에는 상금 4백만원, 은상2점에 각 3백만원, 동상 2점에 각 2백만원, 가작 4점에 각 1백만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T: 292-7390-3)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 종합 개발 계획』 국제 토론회 개최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회장 유 원)는 오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동안 중국 연길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중국 조선족 자치주 구역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국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길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라는 대주제하에 농업, 공업, 교통, 운수, 통신 등 도시화 발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토론하게 되는데 3개국어(중국어, 한국어, 영어)로 진행된다. 한편 토론회가 끝나면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이 수록된 최종보고서(국문판, 영문판)를 발간할 예정이다.

인하대 건축공학과, 제6회 인하 워크샵 개최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학과장 동정근)는 지난 6월 24, 25일 양일간 건축공학과 설계실에서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 교수, 일본건축가 Hideyuki Yamashita를 초청한 가운데 소극장 내부의 무대세트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6회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건축전반에 관한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 해결하는 능력배양과 초청강사와 학생이 공동작업을 통해 건축의 이론과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공동작업을 통해서 각 학년, 대학원, 교수, 초청강사간의 연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개최되었다.

강릉지역 건축사회 이전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의 주소가 7월 20일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강릉시 육천동 81-2	강릉시 삼내동 25-2	(0391)41-7371